

유혹자의 일기

# Forførerens dagbog

쇠렌 키에르케고어 저 | 황문수 역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키에르케고어의 저서 『이것이냐 저것이냐』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 스물일곱의 나이에 열여섯 살의 레기네 을세과 만나고 헤어졌던 경험을 바탕으로 저술되었다. 익명으로 발간되었음에도 독자들은 키에르케고어의 이야기임을 알아보았다. 작품 속 요하네스는 작가의 분신이며, 그의 일기와 편지를 통해 키에르케고어의 사랑에 대한 철학을 엿볼 수 있다.



유혹자의 일기

# Forførerens dagbog

\*본 문서에 대한 저작권은 사단법인 올재에 있으며, 이 문서의 전제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2012 Olje All Rights Reserved

## 올재의 꿈

올재는 지혜 나눔을 위해 2011년 9월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예술과 문화 속에 담긴 지식과 교양을 널리 소개하고 향유함으로써, 격변하는 세상의 지향점을 찾고, 올바르고 창의적인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올재의 꿈입니다. 특히 올재는 인문고전이나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소외계층과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지혜 나눔의 계기와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올재의 첫 번째 지혜 나눔은 인문고전입니다. 〈올재 클래식스〉는 최고 수준의 번역본을 부담 없는 가격에 보급합니다. 각 종당 5천 권을 발행하며 4천 권은 교보문고에서 6개월간 한정 판매합니다. 미판매된 도서와 발행 부수의 20%는 복지시설, 교도소, 저소득층 등에 무료 기증합니다. 출간한 번역본은 일정 기간 후 올재 인터넷 홈페이지([www.olje.or.kr](http://www.olje.or.kr))에 게시합니다.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 올재의 벗

〈올재 클래식스〉 《유혹자의 일기》의 발행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상당액은 〈올재 클래식스〉의 지혜 나눔 취지에 적극 공감한 SK의 도움으로 마련됐습니다. 국내 최대의 서점 교보문고는 〈올재 클래식스〉의 유통 지원에 도움을 주셨고 코리아헤럴드와 헤럴드경제를 발행하는 (주)헤럴드는 출판인쇄와 교열을 도와주셨습니다. 표지 제호를 재능 기부해 주신 강병인캘리그라피연구소 솔통 대표 강병인 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귀한 번역본을 올재에서 퍼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황문수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올재 클래식스〉 출간이 전국 곳곳에 인문고전 나눔으로 뜨겁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올재의 첫 번째 지혜 나눔 〈올재 클래식스〉 출간에 많은 격려와 박수를 보내주신 벗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전합니다.

정기 후원과 일반 후원으로 올재의 지혜 나눔에 참여하세요.

올재의 벗들이 심은 작은 홀씨가 전국 곳곳에 인문고전의 꽃으로 피어납니다.

올재 후원함 | 예금주 사단법인 올재

국민은행 023501-04-184681

신한은행 100-027-966986

우리은행 1005-401-996902

하나은행 162-910013-46904

농협 301-0100-8607-71

후원 문의처 | 올재 사무국

① 02)720-8278 ② www.olje.or.kr ③ olje classics@olje.or.kr

✉ @olje classics Ⓛ www.facebook.com/olje classics

지혜 나눔을 함께 한 벗들



## 해설

황종환(黃鍾煥)  
한남대학교 철학과 교수  
한국키에르케고어학회 회장

실존사상의 선구자로 알려진 키에르케고어(S. Kierkegaard, 1813~1855)는 1840년 약혼하고 1841년 파혼한 뒤 약혼녀 레기네 올센(Regine Olsen)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의 '간접적 표현'으로 여러 권의 책을 썼다. 키에르케고어에서 실존은 다른 사람이나 주위의 환경으로부터 나와서(Ex—sistere) 하느님과 외톨이로서 관계하는 생활이다. 『유혹자의 일기』는 키에르케고어가 파혼 후 쓴—물론 형식적으로 자신의 쓴 것을 부인하고 있지만—『이것이냐 저것이냐 I』(1843)의 마지막 한 장(章)으로 들어있다. 이 한 장 『유혹자의 일기』가 단독의 저서로 출판되기도 했다. 키에르케고어 연구자들은 『유혹자의 일기』를 『이것이냐 저것이냐 I, II』와 그의 전체적 사상에서 이해하려고 한다.

해제는 작품을 쉽게 이해하기 위한 설명이다. 키에르케고어의 사상에서 이 해제는 해제자(解題者) 개인의 주체적 시각이다. 독자는 각자 자신의 시각으로 『유혹자의 일기』를 읽으라고 키에르케고어에게서 권고를 받는 듯하다. 키에르케고어의 시각에서 볼 때 이렇게 주체적으로 읽어야 역설적으로 보편적 이해가 가능하게 된다. 키에르케고어는 인간의 사유(思惟)나 관념(觀念)만으로는 파악되지 않는 진리와 자기 자신을 찾고자 했던 실존철학자였다. 그에게서 진리와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은 깊밀히 연관되어 있다. '진리는 주체성'이라는 주장에서 보듯이 일반적으로 객관화된 사실이 구체적 생활에서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와 인격적 관계를 갖기 때문에 신앙의 비약(飛躍)을 해야 한다. 영원한 진리인 하느님이 이 땅에 온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는 이성으로 파악되지 않는 믿음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키에르케고어는 현대인이 과학과 기술발전에 힘몰되어 자기 자신을 상실해 가는 과정을 보고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찾도록 했다. 자기 자신도 이

런 과정을 단지 철학적 이론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생활을 하면서 보여주는 ‘간접전달’의 삶을 살았다.

키에르케고어는 인간의 실존 3단계 즉 심미적 단계, 윤리적 단계, 종교 윤리적 단계를 거쳐 진리를 알고 자기 자신을 알아간다고 보았다. 심미적 단계는 끊임없이 감각적 육체적 향락을 추구하는 단계다. 이 단계의 끝에는 쾌락의 속성상 결국 권태와 허무가 찾아온다. 이런 권태와 허무를 극복하기 위하여 옳은 일은 하고 그른 일은 하지 않는 윤리적 단계에 들어간다. 이 단계의 문제는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윤리적 삶을 살 수 없다는 현실이다. 그래서 키에르케고어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과 관계하는 종교 윤리적 단계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자신을 찾게 된다. 이 단계에는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는 신앙이 활동하게 된다. 키에르케고어는 하느님 앞에서 죄의 용서와 은혜의 사랑을 체험하며 하느님의 변함없으심을 노래하였다. 끊임없이 향락을 추구함으로써 인생의 즐거움을 찾으려는 ‘심미(審美)적 생활’을 묘사한 《이것이냐 저것이냐 I》은 사회적 규범과 의무를 중시하는 ‘윤리적 생활’로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II》와 비교된다. 감각적 향락을 추구하는 생활은 새로운 대상을 끊임없이 찾으면서 더 강한 쾌락을 얻고자 한다. 이런 추구는 자기 자신을 찾는 과정 즉 인간 영혼(靈魂)의 본성(本性)과 어긋나기에 키에르케고어에 의하면 ‘권태와 허무’를 가져온다. 이런 권태와 허무를 극복하기 위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 않는 노력이 ‘윤리적 생활’이다. 그런데 윤리적 생활의 문제점은 인간 스스로 윤리적 생활을 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키에르케고어에 의하면 사람은 심미적 생활과 윤리적 생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없다. 키에르케고어는 인간의 실존을 자기화(自己化, appropriation) 즉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본다. 그는 자기화를 실존적 도약(跳躍)을 통해 그

리스도 안에서 하느님과 관계하는 종교적 차원에서 추구했다.

《유혹자의 일기》의 주인공 요하네스(Johannes)는 근대적 사고의 출발에서 보듯이 하느님 혹은 형이상학적 전제(前提) 없이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 그는 자신의 힘만으로 세계를 구성하려고 하면서 스스로 멋진 인생을 꿈꾸고 성취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가 꿈꾸는 심미적 환락의 생활 속에서도 숨겨진 인간실존의 불안을 스스로 없앨 수는 없다. 키에르케고어 사상 전체에서 볼 수 있는 영원한 존재와의 관계에서만 찾을 수 있는 행복을 요하네스의 감각적 향락이 주를 이루는 생활에서는 찾을 수 없다. 인간생활을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보는 시각에서, 감각적 향락의 추구는 결과적으로 자신을 속이게 된다. 즉 감각적 향락에 과도한 정열을 쏟는 것이 바로 자기기만(欺瞞)이 된다. 키에르케고어는 그의 여러 작품에서 자기 힘만으로 이상적 생활을 꿈꾸며 자기를 상실해가는 과정을 밝혔는데 《유혹자의 일기》의 요하네스에게서도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

《유혹자의 일기》는 ‘감각적 향락을 추구하는’ 요하네스가 코델리아(Cordelia)의 개인적 정보들까지 알아내어 그야말로 유혹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요하네스는 코델리아의 기호(嗜好)와 가족사를 알아내는 등 지극히 지(知)적으로 그녀의 감각적 향락을 분기(奮起)시킬 뿐이다. 이런 점이 키에르케고어가 인간실존의 가장 낮은 단계로 본 직접적 향락생활의 대표적 인물 돈 후안(Don Juan)과 요하네스의 다른 점이다. 요하네스에서 감각적 향락의 향유는 동시에 냉철한 이성과 자기통제가 요구된다. 요하네스는 코델리아로 하여금 그녀에게 에로틱한 성품이 있음을 자각하게 한다. 하지만 그는 통상적 의미의 유혹자는 아니고 코델리아의 특이한 기질을 알아내고 스스로 수많은 생각을 동원하여 그녀가 자신을 ‘바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유혹할 뿐이다.

요하네스는 끊임없이 냉정하게 코델리아에게 접근하여 신뢰를 얻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요하네스는 직접적 육체적 향락 자체를 즐기기보다 상대 코델리아를 미적 혹은 에로스(eros)적 감각으로 대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코델리아가 스스로 요하네스에게 자신을 바치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하는 것까지가 그의 목적이다. 즉 요하네스는 감각적 향락을 정신적으로 즐기며 코델리아로 하여금 자신이 지닌 감각적 기능을 자각하여 자신의 육체에 대한 자부심도 갖게 하려고 한다. 단순히 육체적 만족을 추구하려는 사랑은 그 목적을 성취하자 곧 끝나게 됨을 의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키에르케고어는 직접적 방법으로 즐기는 심미적 생활과 숙고를 통한 미적 향유를 구분한 것으로 이해된다. 인생의 고통을 단지 감각적 즐거움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돈 후안은 전자의 대표적 인물로 요하네스는 돈 후안보다는 미적, 감각적 향락의 추구가 더 세련되게 발전된 의미로 후자의 대표적 인물이다. 『유혹자의 일기』는 '전통적 의미에서 에로스적 작품인가?'라는 질문이 연구자들에게 제기된다. 키에르케고어는 요하네스를 통하여 감각적 향락의 직접적 추구뿐만 아니라 지적으로 향락만을 추구하는 생활의 끝에 찾아오는 권태와 허무를 전한다. 키에르케고어는 향락을 추구하는 생활이 개인에게 주어진 가장 큰 책임인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수 없음을 말하려 한다. 그렇지만 감각적 향락에 대한 관심은 인간실존의 최종단계인 종교 윤리적 단계에도 같이 깃들어 있게 된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II』는 도덕적 책임감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자기 의지(意志)적 생활의 한계와 연약함을 설명한다. 키에르케고어는 인간의 보편적 규범인 윤리적 생활은 하느님과 실존적 관계에서만 가능함을 밝힌다. 그래서 그의 실존 3단계에서 종교적 단계는 윤리적으로 객관화된 검증을 요구하기에 종교 윤리적 단계라고

한다. 키에르케고어는 『유혹자의 일기』를 통해 감각적 향락의 추구를 즐기는 요하네스를 넘어서서 인간 실존에 깃들어져 있는 삶의 영역을 ‘간접전달’로서 표현하고자 한다. 키에르케고어는 감각적 향락의 추구와 그 한계를 통해 한 개인의 실존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표현하려고 한다. 그런데 『유혹자의 일기』를 향락적 추구라고 하면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II』를 윤리적으로 보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키에르케고어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는 이 두 면모가 인생에서 자신을 찾지 못하게 하는 한계를 지적하고 하느님과 역설적 관계를 갖게 하는 종교적 실존을 전달하고자 한다.

키에르케고어는 인간의 실존적 발달을 심미적 단계, 윤리적 단계, 종교 윤리적 단계로 구분한다. 이렇게 인간을 실존적 상승의 시각에서 볼 때 감각적 향락을 추구하는 생활은 끝에 가서는 공허함에 직면하기 때문에 아직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한 단계다. 이런 생활은 키에르케고어에 의하면 현실적으로 창조자에게 도전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세상을 스스로 만들고자 하는 생활이다. 이런 도전은 사실 자신의 실존적 불안과 절망의 표현이다. 감각적 향락을 추구하는 생활은 본래의 자기 자신을 부인(否認)하고 스스로 가상(假想)적으로 자신을 만들어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유혹자의 일기』에서 요하네스는 과연 감각적 향락을 추구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인가? 『유혹자의 일기』에서 요하네스는 코델리아를 장난삼아 대하거나 직접적으로 감각적 향락을 추구하지 않고 아주 진지한 생각과 행위로서 그런 향락을 추구한다. 요하네스의 모습을 키에르케고어 자신의 실제 생활에 비추어 볼 수도 있다. 인간실존의 보편적 분석뿐만 아니라 키에르케고어 자신의 개인적 약혼과 파혼의 과정으로도 『유혹자의 일기』는 해석된다. 키에르케고어는 레기네 올센을 영원히

사랑하는 마음과 방법으로 영원한 세계를 ‘간접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위악(僞惡)적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려고 한다. 그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일체의 욕망을 포기하고 한 사람의 외톨이로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 자신의 약혼녀였던 레기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런 삶을 살도록, 말이 아니라 실제적 삶을 통해 표현하는 ‘간접전달’의 생활을 그는 살고자 했다.

키에르케고어가 레기네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서 파혼을 하기 위해 자신의 부친이 하느님을 저주했던 과거의 사건, 자신의 깊은 우수(憂愁) 등을 생각하는 모습은 아닌가? 인간의 실존적 상승이 낮은 단계의 실존을 완전히는 배제할 수 없다면 《유혹자의 일기》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레기네로 하여금 감각적 향락의 한계를 깨닫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자는 종교적 단계를 위한 간접적 전달이 아닌가? 이런 이해가 가능하다면 《유혹자의 일기》의 요하네스는 단지 감각적 향락을 추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종교적 생활을 위한 단계 아니 종교적 단계로도 볼 수도 있다. 요하네스는 코델리아로 하여금 그녀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려 한다.

숙고(熟考)에 숙고를 더하여 감각적 향락을 추구하는 모습을 그리는 《유혹자의 일기》는 말 그대로 단순한 감각적 향락이 아니라 키에르케고어가 그렇게 추구했던 ‘나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요하네스의 모습은 우리들 자신이 실제 생활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찾아내기 위해 지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유혹자의 일기》를 통해 우리는 변형(變形, metamorphosis)되는 인간실존의 내면화 과정을 보게 된다.

인간실존의 영혼의 성숙과정에서 심미적, 윤리적, 종교적 면모는 더불어 표현되면서 함께 드러난다. 이렇게 볼 때 《유혹자의 일기》의 요하네스는 인간의 자기인식의 낮은 단계인 감각적 향락을 추구하는 인물로만 볼 수 없으며 요하네스를 통해

우리 자신의 내면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받을 수 있다. 요하네스가 단지 감각적 향락을 추구하거나 이런 향락에 힘들되지 않고 숙고(熟考)하는 과정을 보인다는 점에서 그는 성숙하는 인간실존으로도 이해된다. 요하네스의 코델리아에 대한 ‘숙고된 유혹’은 이미 그 자체가 사회적 규범을 순순히 따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찾고자 하는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키에르케고어가 실제로 레기네 올센과 파혼(破婚)하고 『유혹자의 일기』에서 요하네스가 코델리아의 감각적 향락을 분기(奮起)시키면서 그녀로 하여금 그녀 자신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키에르케고어가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삶의 목표로 보는 시각으로도 이해된다. 즉 인간관계의 높은 표현으로 사랑이 단지 인간관계로 환원될 수 없고 하느님과 관계하는 종교적 변형에서 사랑을 보려는 키에르케고어의 사상을 읽어낼 수 있다. 하느님에 대한 관계에서 볼 때 인간관계에서 ‘숙고된’ 감각적 향락도 역시 종교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렇게 감각적 향락을 추구하는 시도는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인간실존에서 가장 낫은 단계라는 감각적 향락의 추구가 인간의 현실생활에서는 최고의 단계인 종교적 단계에서도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다. 또한 감각적 향락추구에서 이성(異性)에 대한 절대적 의존이 종교적 변형을 통해 초월자에 대한 절대적 의존으로 승화(昇華)될 수 있다. 직접적 향락을 반복적으로 시도하는 생활은 인생에게 주어진 불안을 극복할 수 없기에 절망에 이르게 된다. 케에르케고어는 직접적 향락이든 향락에 대한 숙고이든지 인간의 실존이 감각적 쾌락만으로 충족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인생에는 영원한 것이 없고 감각적 향락만이 있을 뿐이라는 강박적 자기 설득은 삶에 내재하고 있는 실존적 불안과 절망의 역설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카에르

케고어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절망을 실존적 죽음이라고 한다. 영원한 세계를 동경하지 않고 직접적이든지 숙고의 과정을 거치든 감각적 향락 속에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는 그 자체가 이미 절망의 다른 표현이다. 인간실존에 대한 키에르케고어의 해석에서 볼 때 실존적 불안은 감각적 향락의 추구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향락의 추구가 이미 불안의 표현이다.

키에르케고어가 영원한 사랑을 그린 《사랑의 역사(役事)》(1847)를 통해서도 《유혹자의 일기》를 이해할 수 있다. 키에르케고어에서 인간사랑은 인간 사이의 직접적 관계가 아니라 하느님의 중재(仲裁)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느님의 중재는 그분의 이미지 즉 순결한 마음을 통해 드러난다. 키에르케고어 사상의 요약을 ‘진리는 주체성’으로 표현하듯이 진리와 사랑은 더불어 가는 것이고 하느님에 대한 신앙의 비약(飛躍, leap of faith)에 근거하여서만 인간적 사랑이 가능하게 된다. 이런 사랑은 그리스도와 종교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윤리적 체험으로서 검증된다. 키에르케고어에서 인간은 사랑의 원천이신 하느님 앞에 홀로 설 때만 이웃사랑이 가능하게 된다. 이런 뜻에서 이웃사랑은 상대방도 하느님 앞에 단독자로서 홀로 설 수 있게 하는 과정이다.

하느님이 인간에게 사랑을 명령한다는 뜻은 이런 사랑의 삶만이 인생에서 실패할 수 없는 길이라고 해석된다. 사랑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라면 사랑을 하면서 누구에게 속을 수는 없다. 속았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사랑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 하느님과 사랑의 관계만이 개인을 자기 자신이 되도록 만들 수 있고 소위 인간적 불행은 사람을 절망시킬 수 없다. 이런 시각에서 순간적 향락에 자신을 포기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사랑을 알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렇게 이웃사랑은 그 이웃에 매달리지 않고 하느님에게서 받은 사랑의 표현이다.

사랑을 윤리적 행위의 완성이라는 시각에서 보더라도 키에르케고어는 사랑의 실현가능성을 인간의 자율성이 아니라 하느님을 향한 신앙에서 찾았다. 즉 그는 『죽음에 이르는 병』, 『불안의 개념』 등에서 불안으로 드러나는 원죄(原罪)는 인간이 자율적으로 보편적 규범인 윤리적 사랑을 실천할 수 없게 한다고 주장한다. 『두려움과 떨림』에서 보듯이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는 보편적 윤리적 규범을 오히려 정지시킨다. 종교적인 것은 윤리적인 것과 모순적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종교적 관계에서만 윤리적 사랑이 가능함을 키에르케고어는 밝히려고 한다.

종교적 신앙에 근거한 이웃사랑은 감각적 욕망, 경제적 관심, 권력 의지를 삶의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거리끼게’ 하는 것이 된다. 인간은 욕망의 총족이나 경제적 평등을 통해 영원한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 정열을 통해 하느님과 실존적으로 관계함으로써 평등하게 되며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하느님과 주체적으로 관계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은 이웃사랑과 분리될 수 없다. 이런 주체적 관계만이 역설적으로 『유혹자의 일기』에 나오는 감각적 향락을 가능하게 하고 『이것이냐 저것이냐 II』의 윤리적 생활을 가능하게 한다. 키에르케고어에서 윤리적 생활은 종교적 단계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중재가 전제되지 않는 사랑은 서로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영원한 행복으로 지속될 수 없다. 이렇게 하느님과 관계에서 균원 하는 이웃사랑이 키에르케고어에게는 사회변화의 첫출발이 된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키에르케고어는 사회변화에 무관심했던 외톨이가 결코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세계를 꿈꾸면서 실천에 옮겼던 사상가다. 『유혹자의 일기』의 숙고적이고 감각적인 사랑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만 역설적으로 가능하기에 사랑의 원천으로서 하느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을 키에르케고어는 ‘들의 백합과 공중의 새’를 바라보며 노래하면서 표현하게 되었다. 이웃사랑은 상

대방이 각자 하느님 앞에 외톨이로서 서는 것이요 이렇게 홀로 서는 생활이 곧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길이다. 『유혹자의 일기』에서 요하네스가 하는 코렐리아에 대한 아주 숙고된 사유를 통한 접근과 향락의 추구는 이들 두 사람 사이의 인격적 관계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키에르케고어의 전체적 사상을 따를다면 『유혹자의 일기』에 대해서도 종교 윤리적 단계에서 근원 하는 주체적 이해가 필요하다.

키에르케고어는 독자에게 자신을 따르지 말고 각자가 자기 자신을 찾으라고 한다. 우리에게는 2차 대전 후 경제적 정치적 발전을 이루한 대표적 나라로 평가되는 자부심과 함께 그에 걸맞은 도덕적 선진국이 되지 못한 열패감을 함께 가지고 있다. 플라톤에 의하면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는 기술적 우수함보다 도덕적 수월성이 우선적으로 요청된다. 기술적 우수는 삶에 작은 순간과 부분에 관계되지만 도덕적 수월성은 인생 전체와 관계한다. 전술한바 키에르케고어에서 도덕적 수월성은 인간 자신의 자존(自存)적 능력으로 불가능하고 하느님과 인격적 관계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하기에 그는 삶의 최고 단계를 종교 윤리적 단계라고 한다. 『유혹자의 일기』는 그 자체로서 문학적 철학적 가치가 있는 작품이기도 하지만 사회경제적 발전에 걸맞은 삶의 행복을 체험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를 던져주고 있다.



차례

해설 ..... 5

황종환 (한남대 교수, 한국키에르케고어학회 회장)

유혹자의 일기 ..... 16

*Sua passion predominante é la giovin principiante.*  
—〈*Don Giovanni*

그렇지만 그가 가장 열중한 것은 젊은 아가씨였어요.  
—〈*돈 조반니*

나는 불안을 나 자신에게 숨길 수도 없고 거의 억제할 수도 없다.—그것은 그때 매우 초조한 가운데서 아주 서둘러 작성한 날림 사본(寫本)을 나 자신을 위해 조심스럽게 정서(淨書)하기로 결심한 이 순간에 염습한 불안이다. 그때의 상황이 그때와 마찬가지로 불안을 일으키듯, 또한 비난하듯 지금 내 마음에 떠오른다. 그때 그는 평소 습관과 달리 책상 서랍을 잡아 두지 않아, 거기에 들어 있는 모든 것이 내 임의에 맡겨졌던 것이다. 그러나 내가 어느 서랍도 열어 보지 않았노라고 회상하며 내 태도를 변명하려 해도 부질없는 일이리라.

서랍 하나가 열려 있었다. 이 서랍에는 묶어 놓지 않은 많은 서류가 들어 있었고 그 서류 위에는 아름답게 장정된 대사절판(大四折版)의 책 한 권이 놓여 있었다. 열린 페이지는 백지에 그림을 그려 넣은 면지(面紙)로서 여기에는 그의 자필로 ‘제4의 무궁한 각서(覺書)’라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이 책의 이 페이지가 열려 있지 않고 이상한 제목이 나를 유혹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며, 적어도 이 유혹에 저항했을 것이라고 자부하려 해도 부질없는 일이리라.

제목 자체가 각별하긴 했지만 제목 자체만으로는 대단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환경 때문에 각별하게 생각되었다. 묶어 놓지 않은 서류를 훌끗 보자 나는 이 서류에는 에로스적 상황에 대한 관찰과 이러저러한 관계에 대한 몇 가지 시사와 아주 독특한 편지의 초고가 들어 있음을 알았고, 후에 나는 그가 일부러 면밀한 계산 끝에 이 서류를 방치해 놓았음을 알았다.

이 타락한 인간의 교활한 속마음을 간파한 지금, 그때의 상황을 회상하면서 그의 모든 간계를 깨뚫어 볼 만한 안목을 갖고 그 서랍으로 다가간 것이라고 상상해 본다. 그때 내가 받은 인상은 경찰관이 위조범의 방에 들어가 서류함을 열고, 한 서랍에서 묶어 놓지 않은 많은 서류, 곧 서체 견본(書體見本)—그 하나에는 장식문자(裝飾文字)의 작은 조각이 있고, 또 하나에는 서명, 또 하나에는 원손 글씨가 적혀 있는—을 찾아냈을 때 받게 되는 것과 같음이 틀림없다. 이럴 때 이 일은 경찰관에게 올바른 추적이었음을 쉽게 보여주거니와, 그의 기쁨에는 위조범의 서류에서 분명히 볼 수 있는 연구열에 대한 어떤 감탄이 섞여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다소 다른 기분이었을 것이다. 나는 범죄 추적에 별로 익숙하지 못

하고 또한 경찰 휘장(徽章)으로 무장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흔한 일이지만 나는 부당한 일을 했다는 사실로 이중의 부담을 느꼈을 것이다.

그때 나는 말만이 아니라 생각조차도 앓은 상태에 있었다. 사람들은 어떤 인상에 압도당하기는 하지만 얼마 후에는 마침내 반성(反省)이 다시 풀려나 다양하고 기민하게 움직여서 인상이라는 알지 못하는 이방인(異邦人)을 감언이설로 꾀어 그의 환심을 사게 마련이다. 반성이 발달해 있으면 있을수록 그만큼 빨리 침착함을 되찾으며, 반성은 마치 외국인 여행자를 위한 여권계원(旅券係員)처럼 아주 괴상한 모양에도 익숙하기 때문에 쉽게 아연해지지 않는다.

그런데 나의 반성은 분명 매우 발달되어 있건만, 그 최초의 순간에는 극도로 놀랐다. 나는 창백해지고 거의 쓰러질 듯했으며, 쓰러지지 않을까 얼마나 걱정했던가를 지금도 역력히 기억한다. 만일 그가 집으로 돌아왔다면 그는 서랍을 든 채 기절한 나를 발견했으리라.—하지만 양심의 가책이란 것은 삶을 흥미롭게 해주는 것 같다.

이 책의 제목 자체가 나를 놀라게 한 것은 아니다. 나는 그것이 발췌집(拔萃集)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가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내가 이렇게 생각한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이 책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 책은 바로 신중하게 적어 놓은 일기책이었다. 내가 그때까지 그에 대해 알고 있는 바로는 그의 생활에는 별로 주석(註釋)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 책을 한 번 읽어 본 다음에는, 이 제목이 충분한 취미와 충분한 오성(悟性)을 갖고, 또한 자기 자신과 상황에 대한 참된 미학적(美學的), 객관적 우월성을 갖고 선택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 제목은 내용 전체와 완전히 일치한다. 그의 생활은 시적(詩的)으로 살려는 과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이다.

그는 삶 가운데서 관심 있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 날카롭게 발달된 감각을 갖고, 사실상 삶 가운데서 관심 있는 것을 찾아냈고, 찾아낸 다음에는 체험한 것을 거듭해서 반쯤은 시적으로 재현(再現)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일기는 사실이라는 점에서는 정확하지도 않고 단순한 이야기도 아니며 직설적(直說的)이 아니라 접속적(接續的)이다. 물론 체험은 체험된 다음에, 때로는 아마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

음에,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마치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그려졌고, 때로는 마치 모든 일이 눈앞에서 직접 일어나고 있는 듯한 극적 생동성(劇的生動性)을 갖는다. 따라서 그가 이 일기를 이용해서 어떤 다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썼다는 것은 전혀 있음직하지 않다. 이 일기가 그에 대해 가장 엄격한 의미에서 순전히 개인적 의의를 갖고 있었을 뿐임은 매우 명백하다. 내 눈앞에 문학 작품, 그것도 아마 발행하기로 결정되었던 문학 작품이 놓여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이 일기 전체로 보거나 그 세부로 보거나 불가능하다. 물론 발행되더라도 그로서는 전혀 걱정할 것이 없었으리라. 여기에 나오는 대부분 이름은 매우 기묘해서 조금도 실제 인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다만 나는 이름만은 사실 그대로가 아닐까 하는 의심을 갖게 된다. 이는 그 자신은 언제나 실제 인물을 확실하게 재확인할 수 있지만 당사자 아닌 다른 사람은 성(姓) 때문에 어리둥절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적어도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또한 내가 알고 있는 아가씨인 코델리아에 대해서만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녀는 사실상 코델리아<sup>1</sup>로 불리었지만 성은 바알이 아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일기가 이처럼 시적인 색채를 가진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대답은 어렵지 않다. 이것은 필자의 선천적인 시인적 소질(素質)에 의해 설명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소질은 사람에 따라, 시와 현실을 구별하기에 충분할 만큼 풍부하지는 않았으나, 빙약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시적인 것은 그가 그 나름대로 갖고 있던 잉여(剩餘)였다. 이 잉여는 그가 현실의 시적 상황 속에서 즐기던 시적인 것이었고 그는 이 잉여를 시적 반성의 형태로 다시 받아들였다. 이것은 제2의 향락이었고, 그의 삶 전체가 향락을 겨냥하고 있었다. 첫째 경우에는 그는 미학적인 것을 인격적으로 향락했고, 둘째 경우에는 그의 인격을 미학적으로 향락했다. 첫째 경우에는 부분적으로는 현실이 그에게 증여(贈

1 레기네 올센(Regine Olsen)과의 약혼 및 파혼은 키에르케고어(Kierkegaard, Søren Aabye)의 짧은 일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거나와 레기네의 동생에 실제로 코델리아가 있었다. 그녀는 언니와 파혼한 다음에도 키에르케고어에게 호의적이었다. 『유혹자의 일기』가 들어 있는 『이것이나 저것이나』를 쓴 목적의 하나는 레기네로 하여금 자신에 대해 혐오를 느끼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일부러 동생의 이름을 썼다고 볼 수 있다. 세익스피어의 〈리어 왕〉에도 코델리아라는 이름이 나온다.

與)한 것을, 또한 부분적으로는 그가 현실에 수태(受胎)시킨 것을 이기적, 인격적으로 향락했다는 것이 요점이었고, 둘째 경우에는 그의 인격은 사라지고 따라서 그는 상황과 상황 속의 자기 자신을 즐겼다. 첫째 경우에는 그는 현실을 기회로서, 계기로서 끊임없이 요구했고 둘째 경우에는 현실은 시적인 것에 빠져 버렸다. 따라서 제일 단계의 성과는 일기를 탄생시킨 기분이며, 일기는 이 기분으로부터 제이 단계의 성과로 탄생했고 이 경우 성과라는 말은 제일 단계의 성과라는 말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그는 그의 삶에 따르는 다의성(多義性)으로 말미암아 시적인 것을 언제나 소유하고 있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배후에 저 멀리 아득한 배경 속에 또 하나의 세계가 있는데, 이 세계와 첫째 세계의 관계는 때때로 극장에서 실제 장면의 배후에 보이는 장면이 실제 장면에 대해 갖는 관계와 거의 같은 것이다. 우리는 얇은 베일을 통해 말하자면 베일로 덮인 보다 가볍고, 보다 미묘하고 현실 세계와는 다른 세계를 본다. 많은 사람이 몸으로는 현실 세계에 나타나 있으면서도 이 세계에 속하지 않고 다른 세계에 속해 있다. 그런데 한 인간이 이와 같이 쇠잔해 가는, 아니 거의 현실로부터 사라져 버리는 사정은 그 원인이 건강에 있기도 하고, 병에 있기도 하다. 내가 일찍이 잘 알지 못하면서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의 경우는 후자의 경우였다. 그는 현실에 속해 있지는 않으면서도 현실과 많은 관련을 갖고 있었다. 그는 끊임없이 현실을 추구하면서도, 그가 가장 몰두해 있을 때에도 그는 언제나 현실을 넘어서 있었다. 그렇지만 그를 유혹한 것은 선(善)이 아니었고 또한 본래 악(惡)도 아니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그에 대해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없다. 그는 어느 정도 뇌수홍분증<sup>2</sup>(腦髓隨興奮症)<sup>2</sup>에 걸려 있었고, 이 증상에 대해서는 현실은 기껏해야 잠시의 자극제일 뿐, 충분한 자극제는 되지 못했다. 그는 현실에 짓눌려 있지는 않았으며 그는 현실을 감당하기에 약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는 너무나 강했다. 그러나 이렇게 강한 것이 병이었다. 현실이 자극제로서의 의미를 상실하자마자 그는 무장해제 되었고 여기에 그의 약이 있었다. 그는 자극을 받고 있는 순간에도 이러한 사실을 의식하고 있었고 이러한 의식에 약이 있었다.

2 당시의 의학 용어인 듯함. 1839년의 어떤 편지에서 키에르케고어는 이 말을 자신에 대해 쓰고 있다.

이 일기의 주요 내용은 어떤 아가씨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거니와 나도 이 아가씨를 알고 있다. 그가 더 많은 아가씨를 유혹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의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그런 것 같다. 그는 동시에 다른 종류의 유혹의 실천에도 익숙한 것 같은데, 이것은 그의 특색을 잘 보여 주는 것이다. 그는 보통 의미의 유혹자가 되기에는 너무나 정신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것이다.<sup>3</sup> 일기에서 보는 바와 같아 그는 예컨대 인사처럼 아주 사소한 것을 갈망하고 그 이상의 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 사소한 것이 상대방의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의 정신적 재능에 의해 한 아가씨를 유혹하고 가까이하는 솜씨를 가졌으나 엄격한 의미에서는 애써 그녀를 소유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모든 것을 바칠 것으로 확신할 수 있는 절정까지 한 아가씨를 몰고 가는 솜씨가 있었다고 나는 상상한다. 일이 이 정도로 진전되면 그는 관계를 끊어 버렸다. 그 나름으로는 조금도 접근하지 않고, 또한 설명이나 약속은 말할 것도 없고 한마디 사랑의 속삭임도 없이. 그렇지만 관계는 끊어졌고 불행한 아가씨는 이러한 단절에 대해 이중으로 쓰라린 의식을 감당해야 했다. 그녀는 증거로 내세울 만한 것을 전혀 갖고 있지 못했고, 무서운 마녀(魔女)의 춤에 말려들어 자기 자신을 비난하면서 그를 용서하는가 하면 곧 그를 비난하는, 가장 상반된 기분에 계속 시달렸고, 결국 그 관계는 비본래적인 의미에서만 현실성을 갖고 있어서 모든 것은 상상에 지나지 않았다는 의혹과 끊임없이 싸워야 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털어놓고 말할 수 없었다. 원래 그녀에게는 누구에게 털어놓고 이야기할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꿈을 꾸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꿈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녀가 말해야 할 것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 답답한 마음을 가볍게 하려고 하면 이 일은 무(無)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그녀 자신은 충분히 느끼고 있었다. 아무도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녀 자신도 거의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사실은 불안을 일으키는 무게를 갖고 그녀를 짓눌렀다.

3 《이것이냐 저것이냐》 제1부 제2논문에서 직접적이고 감성적인 유혹자 돈 후안과 대비해 파우스트의 유혹을 말하면서 파우스트는 ‘정신의 규정을 자신 속에 갖고 있다’고 쓰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그의 희생자들은 아주 독특한 희생자들이었다. 사회로부터 제외되거나 제외되었다고 생각하며 건전하고 강력한 방식으로 탄식하고 마음이 너무 답답하면 증오나 용서에 의해 마음을 달래는 불행한 아가씨들은 아니었다. 희생자들에게는 눈에 띠는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들은 전과 다름없는 존중을 받으면서 익숙한 관계 속에서 살고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에게도 거의 설명할 수 없고 남들에게는 불가해한 방식으로 변해 있었다. 그들의 생활은 다른 아가씨들의 생활처럼 금이 가거나 부서지지 않고 그들 자신 속에서 왜곡되었다. 그들은 타인에 대해서는 없는 것이나 같은 상태에서 혀되어 자기 자신을 찾으려고 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의 삶의 길에는 자취가 남지 않았다고 (그의 발은 발자취를 발바닥에 달고 가도록 되어 있었다고 하면 나는 그의 내면의 무한한 반성을 가장 잘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할 수도 있거니와, 이러한 의미에서 어떠한 사람도 그의 희생자가 되지는 않았다. 보통 의미에서 유혹자가 되기에는 그는 너무나 정신적으로 살았다. 그렇지만 그는 때로는 가상(假象)의 신체<sup>4</sup>를 갖는 경우가 있었고 이때에는 순수한 감성(感性)이었다. 그와 코델리아의 이야기는 너무나 복잡해서 그가 유혹받은 자로 등장하는 것도 가능할 듯하다. 게다가 불행한 아가씨조차도 때로는 종잡을 수 없어서 이 경우에 어떠한 증명도 불가능할 만큼 그의 발자취는 희미하다. 그의 경우, 개인들은 자극제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그는 마치 나무가 나뭇잎을 떨어뜨리듯, 그들을 뿌리쳤다.—그는 젊어졌고 잎은 시들었다.

그러면 그 자신의 머릿속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가 다른 사람을 미로(迷路)로 끌어들이듯이 그도 마침내는 미로에 빠졌으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는 외면적인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을 미로로 끌어들인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에 대한 내면적인 관계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다. 어떤 사람이 길을 잃은 나그네를 잘못된 길로 인도한 다음 길 잃은 자로서 혼자 놓아두고 돌아온다면 분격할 만한 일이지만, 어떤 사

4 독일어 번역자 히르슈는 신들린 사람의 몸은 악마가 도구로 이용하는 악마의 가상(假象)의 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한편 일어 번역자 渥井眞男은 히르슈의 해석을 잘못으로 보고, 그노시스 파(派) 등 초기 그리스도교 시대에는 신의 아들의 성육신(受肉)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려고 해서 그의 인간으로서의 신체를 가상의 신체로 보았다고 해석하고 있다.

람을 자기 자신 속에서 길을 잊게 하는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사소한 일인가. 길 잊은 나그네는 어쨌든 주위의 경치가 끊임없이 변하므로 변할 때마다 벗어날 길을 찾게 되리라는 희망을 갖고 위안을 받는다. 그러나 자기 자신 속에서 길을 잊은 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별로 넓지 못해서 곧 그가 가는 길은 벗어날 수 없는 순환로임을 알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에게도 똑같은 일이 훨씬 무서운 정도로 일어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양심이 되살아나 이러한 방황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할 때 인도하는 실(絲)<sup>5</sup>을 잊고, 게다가 그의 온갖 식별력을 갖고 자기 자신에게 거역하게 되는 간사한 머리 이상으로 괴로움에 찬 것은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의 여우 굴에 많은 출구가 있더라도 소용이 없다. 그의 불안에 떠는 영혼이 숨어드는 햇빛을 보았다고 믿는 순간에 그것은 새로운 입구임이 밝혀지고, 따라서 그는 마치 쫓기는 야수처럼 절망 가운데서 끊임없이 출구를 찾지만, 언제나 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입구를 찾아낸다.

이러한 사람은 반드시 범죄자로 불려야 할 자는 아니며, 때때로 그는 자신의 술책에 기만당하지만 그는 범죄자보다도 더 무서운 별을 받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의식적인 광기(狂氣)와 비교하면 뉘우침의 고통조차도 보잘것없지 않은가. 그가 받는 별은 순수하게 미학적인 성격을 갖는다. 양심이 깨어났다고 하는 것조차도 그에 대해 말하는 한, 너무나 윤리적인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의 경우, 양심은 단지 보다 높은 의식(意識)의 형태를 가지며, 이러한 의식은 보다 깊은 의미에서는 그를 결코 비난하지 않고, 그를 깨어 있게 하고, 무의한 방황 속에서 어떠한 안식도 허락하지 않는 불안으로 나타난다. 그는 광기도 아니다. 유한한 사고의 다양함은 광기의 영원성에서 화석화(化石化)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가엾은 코델리아, 그녀도 평안을 찾기는 어려우리라. 그녀는 마음속 깊이 그를 용서하지만 안식을 찾아내지는 못한다. 이때 약혼을 파기한 것은 자신이었고 불행의 동기도 자신에게 있었고 이상한 일을 바란 것도 자신의 자만이었다는 의심이 눈뜨기 때문이다. 이때 그녀는 뉘우치지만 안식을 찾아내지는 못 한다. 술책을 써서 이러한 계획을 그녀의 영혼 속에 심어 놓은 것은 그였다고 그를 규탄하는 생각이 떠

5 아리아드네는 미궁에 빠진 테세우스를 실로 인도해서 구해 냈다고 한다.

올라서 그녀의 무죄를 선언하기 때문이다. 이때 그녀는 중요하고 그녀의 마음은 저주에 의해 가벼워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안식을 찾아내지는 못한다. 그녀는 다시금 자기 자신을 비난한다. 스스로 죄인이면서도 상대를 미워했기 때문에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고 그가 아무리 교활하다 하더라도 언제나 잘못은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다.

그가 그녀를 속였다는 것은 그녀로서는 쓰라린 일이다. 그러나 더욱 쓰라린 일은—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그가 그녀로 하여금 수다스러운 반성에 눈뜨게 하고 그녀를 미학적으로 충분히 발달시켜서 이미 겸손하게 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여러가지 이야기를 한꺼번에 듣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때 그녀의 영혼 속에서는 추억이 깨어나서 그녀는 잘못과 죄를 잊고 아름다운 순간들을 회상하고 부자연스러운 흥분에 잠긴다. 이러한 순간마다 그녀는 그를 생각해 낼 뿐 아니라 일종의 통찰력을 갖고 그를 이해하는데, 이러한 통찰은 바로 그녀가 얼마나 발달했는가를 보여 주는 것이다. 이때 그녀는 그를 범죄자로 보지도 않고 또한 고귀한 인간으로 보지도 않으며, 그를 순수하게 미학적으로 느낄 뿐이다. 언젠가 그녀는 나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에서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때로는 그분은 너무나 정신적이어서 제가 여성으로서 무시되고 있다고 느낄 정도였습니다만, 다른 때에는 너무나 거칠고 너무나 정열적이고 너무나 욕심을 부려서 저는 거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때로 저는 그분에게 낯선 사람 같았지만 때로 그는 완전히 현신적이었습니다. 이럴 때에 제가 그분을 껴안으면 때로 갑자기 모든 것이 변해서 마치 구름을 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sup>6</sup> 저는 그분을 알기 전부터 이러한 비유를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분이 이 비유에 대한 이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이 비유를 사용할 때마다, 마치 저의 모든 생각은 그분을 통해서만 생각하는 것처럼 언제나 그분을 생각합니다. 저는 언제나 음악을 좋아합니다만 그분은 항상 움직이는 비길 데 없는 악기였고, 그분은 어떤 악기도 갖지 못한 음역(音域)을 갖고 있었으며 모든 감정과 기분의 총화(總和)였고, 그분에게는 어떠한 사상도 너무

6 그리스 신화에서 테사리아 왕 이크시온이 여신 헤라를 범하려고 했을 때 헤라의 모습을 한 구름을 껴안게 되었다.

고상하거나 너무 절망적인 경우는 없었으며 그분은 가을의 폭풍우처럼 요란할 수도 있고 들리지 않을 정도로 속삭일 줄도 알았습니다. 제 말은 언제나 효과를 가졌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말이 반드시 그분에 대해 효과적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 말이 어떤 효과를 갖게 될지를 안다는 것은 저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형용할 수는 없지만 신비하고 복된, 그리고 이름 붙이기 어려운 어떤 불안을 갖고 저는 이 음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음악을 탄생시킨 것은 저 자신이었습니다만 또한 그것은 제가 탄생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언제나 화음(和音)이 있었습니다만, 그분은 언제나 저를 빼앗아 갔습니다.”

이러한 일은 그녀에게는 무서운 일이지만 그에게는 더욱 무서운 일이리라.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나를 사로잡는 불안을 나 자신이 거의 억제할 수 없다는 사실로부터 나는 이렇게 추정(推定)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자신도 사람들이 언제나 자기 그림자에 놀라게 되는, 저 안개의 나라, 저 꿈의 나라로 함께 휩쓸려 들어간 것이다. 나는 때때로 여기서 벗어나려고 애쓰지만 혓된 일이다. 나는 위협하는 모습으로, 말 없는 고발자로 함께 길을 가고 있다. 얼마나 기묘한가! 그는 모든 것에 가장 짙은 비밀을 뿐만 놓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깊은 비밀, 곧 내가 그 비밀을 함께 알고 있다는 비밀이 있다. 사실 나는 불법적 방식으로 이 비밀을 알았다.

모든 일을 잊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는 때때로 이 일에 대해 그와 이야기하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모든 일을 부정하고 이 일기는 문학적 습작이라고 주장하든, 또는 나에게 침묵을 명령하든—내가 비밀을 함께 알게 된 방식으로 보아 나는 이 명령을 거절하지 못할 것이다.—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비밀처럼 많은 유혹과 많은 저주를 받는 것은 없다.

코델리아로부터 나는 편지 묶음을 받았다. 이것이 편지의 전부인지는 나도 모르지만 언젠가 그녀가 몇 통은 남겨 두었다고 나에게 넘지시 비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나는 이 편지를 베껴 놓았는데, 이제 이것을 이 정서 원고(淨書原稿)에 삽입하기로 하자. 확실히 이 편지에는 날짜가 없지만, 날짜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일기는 앞으로 나아감에 따라 날짜가 차츰 적어지고 마침내는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전혀 날짜를 적지 않아서 마치 이야기가

진전됨에 따라 질적인 면이 더욱 중요해지고 역사적 현실이면서도 너무나 이념(理念)에 가까워지고, 따라서 시간적 규정(時間的規定)은 상관없는 것처럼 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일기의 여러 곳에 처음에는 내가 그 뜻을 가려내지 못했던 두세 마디의 말이 있었던 것은 도움이 되었다. 편지와 비교해 보고 나는 이러한 말들이 편지를 쓴 동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편지를 올바른 곳에 삽입하는 것은 나에게는 쉬운 일일 것이다. 편지의 뜻을 시사하고 있는 곳에 규칙적으로 편지를 덧붙이면 되는 것이다.

나를 인도해 주는 이러한 신호를 찾아내지 못했더라면 나는 잘못을 저질렀을 것이다. 지금은 그랬을 것이라고 짐작되는 일, 곧 어떤 시기에는 서로 편지를 매우 자주 썼기 때문에 그녀는 하루에 몇 통씩 받은 듯하다는 것을 나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처음의 내 판단을 따라야 했다면, 나는 편지를 균등하게 누어 놓았을 것이고, 코델리아를 정열의 절정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가 다른 모든 수단과 마찬가지로 편지라는 수단도 동원했고 이러한 정열적인 정력에 의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었는가 하는 것도 전혀 짐작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와 코델리아의 관계에 대한 자세한 해명 이외에도 일기에는 가끔 이 일, 저 일에 대한 짧은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어디서나 난외(欄外)에 ‘주의!’라고 적어 놓았다. 이러한 설명은 코델리아의 이야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나는 그가 자주 사용한 말, 곧 사람은 언제나 여분(餘分)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말에 대해 생생한 관념을 갖게 되었다. 전에는 다른 뜻으로 이해하고 있었지만 이 일기보다 앞선 일기가 한 권이라도 입수되었더라면 나는 아마도 멀리 떨어진 대상에 대한 작용(그는 어딘가 난외의 주에서 이렇게 불렀다)에 더 자주 부딪혔을 것이다. 그 자신이 코델리아가 그를 너무나 몰두시켰기 때문에 둘레를 둘러볼 틈이 없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는 코델리아를 버린 직후에 그녀로부터 몇 통의 편지를 받았으나 뜯어보지도 않고 돌려보냈다. 이 편지도 코델리아가 나에게 맡긴 편지에 들어 있었다. 그녀 자신이 봉투를 뜯어 놓았으므로 내가 그 편지를 베끼는 것도 허용되리라. 이 편지의 내용에 대해 그녀가 나에게 말한 적은 없었지만, 그녀가 요하네스와의 관계에 대해

언급할 때에는 언제나 짧은 시구(詩句)—나는 괴테의 것으로 알고 있거니와—를 읊었다. 이 시구는 그녀의 기분의 차이에 따라 또한 이러한 기분에 제약된 강조점의 여러 가지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았다.

<i>Gehe,</i>	가라,
<i>Verschmähe</i>	진실을
<i>Die Treue,</i>	가볍게 보면.
<i>Die Reue</i>	뉘우침이]
<i>Kommt nach.</i>	뒤따르리.]

편지는 다음과 같았다.—

### 요하네스!

나는 당신을 ‘나의’ 요하네스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나의 것인 적이 없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당신을 나의 것으로 생각하며 내 영혼이 즐거워했기 때문에 매우 쓰라린 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당신을 ‘나의’ 요하네스라고 부릅니다. 나의 유혹자, 나의 사기꾼, 나의 적, 나의 살해자, 나의 불의 근원, 나의 기쁨의 무덤, 나의 불운의 심연(深淵)이라고. 나는 당신을 ‘나의’ 요하네스라고 부르고 나를 ‘당신의’ 코델리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말은 한때 나의 사모에 자랑스럽게 귀 기울이던 당신의 귀를 즐겁게 해 주었지만 이제는 당신에 대한 저주처럼, 영원한 저주처럼 들릴 것입니다. 당신의 비웃음을 사기 위해 내가 당신을 쫓아다니거나 단도를 들 작정이라고 생각하고 즐거워하지는 마세요! 어디든 원하는 곳으로 달아나더라도, 그래도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세계의 끝까지 달아나더라도 그래도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백 명의 다른 여자를 사랑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정녕, 죽음의 순간에도 나는 당신의 것

입니다. 내가 당신을 나쁘게 말하는 말도 내가 당신의 것임을 당신에게 증명할 뿐입니다. 당신은 뻔뻔스럽게도 당신이 나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될 만큼 한 인간을 속였으므로 나의 온갖 기쁨은 당신의 노예가 되는 데 있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것, 당신의 것, 당신의 저주입니다.

당신의 코델리아

### 요하네스!

옛날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커다란 가축(家畜)과 작은 가축을 잔뜩 갖고 있었고 가난하고 작은 딸도 한 명 있었습니다. 딸은 단 한 마리의 양을 갖고 있었는데, 이 양은 그녀가 먹여 주는 먹이를 먹고 그녀의 잔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온갖 아름다움에 있어서 풍요한 부자였고 나는 가난해서 나의 사랑 이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그녀를 사로잡고 그녀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당신의 욕망이 유혹하는 대로 내가 갖고 있던 약간의 것을 희생시켰고 당신 자신의 것은 하나도 희생시킬 수 없었습니다. 옛날에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커다란 가축과 작은 가축을 잔뜩 갖고 있었고, 가난하고 작은 딸도 한 명 있었습니다. 딸은 그녀의 사랑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sup>7</sup>

당신의 코델리아

### 요하네스!

이제 희망은 전혀 없을까요? 당신의 사랑이 다시는 결코 깨어나지 않는다면 무엇이 그렇게 확신하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당신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나는 기다릴 것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흐르더라도

7 이 이야기는 성서 〈사무엘下〉 12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바꿔 놓은 것이다. 이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요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우므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나는 기다릴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여자들을 사랑하는 데 지치고, 그래서 당신의 사랑이 나를 위해 부활하고, 그래서 내가 당신을 예전처럼 사랑하게 되고, 예전처럼 당신에게 감사하게 될 때까지. 예전처럼, 요하네스, 예전처럼! 요하네스, 나에 대한 당신의 비정한 냉대는 당신의 참된 본성입니까? 당신의 사랑, 당신의 풍요한 마음은 거짓이고 진실이 아니었습니까? 따라서 당신은 이제 다시금 당신 자신으로 되돌아간 것입니까? 나의 사랑을 참아 주시고 내가 계속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나의 사랑이 당신에게는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코델리아에게 돌아올 날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당신의 코델리아! 이 애원의 말을 들어 주세요! 당신의 코델리아, 당신의 코델리아.

당신의 코델리아

코델리아는 그녀가 그녀의 요하네스의 악기에 대해 감탄한 바 있는 음역(音域)<sup>8</sup>을 갖고 있지는 못했으나, 전조(轉調)가 없었던 것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녀의 글은 어느 정도 명료하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그녀의 편지에는 그녀의 기분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두 번째 편지는 특히 그렇다. 이 편지에서 우리는 그녀의 뜻을 본래의 의미대로 이해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짐작하게 되거니와, 이러한 불완전성 때문에 나는 이 편지에 몹시 감동하는 것이다.

8 본서 32쪽 참조.

4월 4일

조심해요, 알지 못하는 아름다운 아가씨! 조심해요. 마차에서 내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결정적인 한걸음이기도 하죠. 나는 당신에게 티크의 소설<sup>9</sup>을 빌려 줄 수도 있지만, 이 소설을 읽으면 어떤 숙녀가 말에서 뛰어내린 일로 해서 복잡한 일에 말려들고 이 한 걸음이 그녀의 생애 전체를 통해 취소할 수 없는 일로 된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마차의 발판은 보통 몹시 불편해서 어쩔 수 없이 우아함을 온통 내던지고 마부나 하인의 팔 안으로 대담하게 뛰어들게 되죠. 아, 마부나 하인은 얼마나 운이 좋은 녀석들인가. 나는 사실 젊은 아가씨들이 있는 집안에서 하인의 자리를 얻었으면 생각하고 있답니다. 하인은 쉽게 작은 아가씨의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발 뛰어내리지는 마세요. 아가씨, 제발. 사실 둘 레는 어둡고 나는 아가씨를 방해하지는 않을 겁니다. 나는 가로등 밑에 가만히 서 있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에겐 내가 보이지 않을 겁니다. 언제든 사람이 보고 있다고 생각만 해도 부끄럽기 마련인데 누군가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그 사람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므로 어쩌면 뛰어내리는 당신을 붙잡지 못 할 것 같은 하인을 염려해서, 비단옷을 염려해서, 더 나아가 레이스를 염려해서, 나를 염려해서 그 날씬함에 내가 벌써부터 감탄하고 있는 귀여운 작은 다리가 세상 경험을 하게 하십시오. 과감하게 당신의 다리를 믿으십시오. 당신의 다리는 튼튼한 토대를 찾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다리가 혀되어 쉴 곳을 찾는 것 같아 한순간 몸서리쳐진다면, 그뿐 아니라 쉴 곳을 찾아냈더라도 몸서리쳐질지 모르지만, 그럴 때에는 재빨리 다른 다리도 내놓으십시오. 누가 당신의 다리가 이러한 상태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을 가만둘 만큼 잔인하겠습니까. 누가 아름다움의 계시(啓示)를 쫓는 데 그렇게 서투르고 그렇게 느리겠습니까. 혹은 당신은 쓸데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군요. 설마 하인은 그렇지 않겠죠. 나도 그렇지 않겠죠. 나는 벌

9 루드비히 티크(Ludwig Tieck)의 『마성(魔城)』에 나오는 ‘사나운 영국 여자’를 말함. 어릴 때 받은 쇼크로 섹스를 혐오하게 된 어떤 숙녀가 천문학 공부 등으로 독신을 지켜 나가는데, 학문적 관심으로 친하게 된 귀족의 구혼도 물리친다. 그런데 어느 날 들이에서 말을 타고 산보를 하다가 언쟁이 일어나, 숙녀가 말에서 뛰어내리다가 말안장에 치마가 걸려서 잡시 반나체로 남자 앞에 서 있게 된다. 이 일을 계기로 그녀는 상대를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고 결혼을 결심한다.

써 그 작은 다리를 보았고, 나는 자연 과학자이므로 큐비에로부터 다리를 보고 확실한 추리를 하는 것<sup>10</sup>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주저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는 것이 얼마나 당신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가! 그러나 불안은 그 자체로서는 아름답지 않고, 같은 순간에 불안을 초극(超克)하는 에너지를 보일 때에만 아름답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나 확고하게 서 있습니까, 이 작은 다리는. 작은 다리를 가진 아가씨는 보병(步兵)처럼 큰 다리를 가진 아가씨보다 일반적으로 더욱 확고하게 서 있다는 걸 나는 알았습니다. 누가 이 점을 생각했겠습니까? 이것은 모든 경험에 어긋납니다. 마차에서 뛰어내리는 것보다는 걸어 나오는 편이, 어떤가에 옷이 걸릴 위험은 훨씬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차를 타고 다닌다는 것은 젊은 여자들에게는 언제나 상당히 위험합니다. 결국 여자들은 언제까지나 마차 속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레이스도 블라우스도 소용이 없고 만사가 끝나 버립니다. 아무도 눈에 띠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망토로 눈까지 가린 어두운 모습이 불쑥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사내가 어디서 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가로등이 정면으로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대문 안으로 들어서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당신 옆을 지나갑니다. 바로 결정적인 순간에 결눈질로 그의 대상에 덤벼듭니다. 당신은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너무나 벽자 숨도 쉬지 못합니다. 당신의 시선에는 노기(怒氣)가 떠오르고 오만한 경멸의 빛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당신의 눈에는 간청이, 눈물이 맺힙니다. 둘 다 아름답군요. 나는 똑같은 권리를 갖고 둘 다 받아들입니다. 나는 둘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짓궂답니다.—이 집의 번지는? 여기는 장신구(裝身具)의 진열장이 아닌가. 알지 못하는 아름다운 아가씨, 괘씸하게 생각하더라도 나는 빛을 따라 쫓아갑니다.……당신은 방금 있었던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열일곱 살이라는 행복한 나이에 쇼핑을 나와서 손에 들고 있는 크고 작은 물건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고 있을 때엔 쉽게 잊어버리기 마련이죠. 당신은 아직도 나를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진열대 반대쪽에 멀리 떨어져서 혼자 서 있습니다. 저쪽 벽에는 거울이 걸려 있습니다.

10 큐비에(Cuvier)는 프랑스 과학자로 비교해부학의 창시자. 그는 한 조각의 뼈만 있으면 동물의 몸 전체를 재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다리만 보아도 몸 전체를 추측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당신은 거울을 무시하지만 거울은 당신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거울은 얼마나 충실히 당신의 모습을 비춰 주는가. 마치 충실히 통해 자신의 헌신을 증명하려는 천한 노예처럼. 물론 그에게는 그녀가 의미 있지만 그녀에겐 그가 아무 의미도 없는 노예처럼. 노예는 그녀를 엿볼 수는 있으나 포옹할 수는 없습니다. 그녀의 모습을 간직할 수는 있으나 그녀를 간직하지는 못하는 불행한 거울이여, 그녀의 모습을 홀로 간직하며 전 세계에 숨기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의 나와 같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 줄 길밖에 없는 가엾은 거울이여. 인간이 거울과 같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우랴.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는 순간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는 거울과 같은 인간이 얼마나 많은가. 마치 그녀가 단 한마디라도 그녀의 마음을 털어놓으려고 하면 그녀의 모습을 잃고 마는 이 거울<sup>11</sup>처럼, 단지 표면만을 파악하고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며 본질이 나타나려고 하면 모든 것을 상실하는 그러한 인간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그것이 눈앞에 있는 순간에도 추억 속의 모습으로 간직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언제나 아름다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를 바랄 수밖에 없고 자기가 안고 있는 것, 따라서 밖의 눈이 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지상(地上)의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밖의 눈은 이러한 아름다움을 멀리 밀쳐 냄으로써 이 아름다움을 다시 획득할 수도 있지만 입술과 입술이 겹쳐졌을 때처럼 너무 가까이 있어서 상대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영혼의 눈에는 보이는 것입니다.……그러나 그녀는 얼마나 아름다운가!<sup>12</sup> 가엾은 거울이여, 그대가 질투를 모르는 것은 다행이구나. 그렇지 않았더라면 괴로웠을 텐데! 그녀의 얼굴은 완전히 타원형이고 그녀는 머리를 약간 숙이고 있으므로 이마가 넓어 보이며, 순결하고 자랑스럽게 이마를 들고 있지만 이 이마가 지성(知性)의 기관(器官)이라는 특징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검은 머리는 부드럽고 아름답게 이마 돌레를 덮고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과일 같아서 모든 곡이 완전하고 등급니다. 그녀의 피부는 투명하고 비로드 같은 감촉입니다. 나는 이것을 눈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녀의 눈은—아니, 나는 아직 그녀의 눈을 보지

11 말을 하면 숨이 나와 거울을 흐려 놓는다.

12 이하의 묘사는 레기네의 어린 시절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한다.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비단 술이 달린 베일로 덮여 있고, 비단 술은 갈고리처럼 휘어 있어서 재빨리 그녀의 눈을 훔쳐보려는 사람들에게는 위험합니다. 그녀의 얼굴은 마돈나의 얼굴이며 천진난만함이 두드러지고, 그녀는 마돈나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일자(一者)의 관조(觀照)<sup>13</sup>에 잠겨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얼굴 표정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녀가 관찰하는 것은 다양한 것 지상(地上)의 호화와 찬란함을 반영하는 다양한 것입니다. 그녀는 장갑을 벗고 거울과 나에게 오른손을 보여 줍니다. 대리석으로 만든 것처럼 희고 예쁘며 아무런 장식도 없고 약손가락에 금반지도 없습니다.—만세!—그녀는 눈을 둡니다. 모든 것이 얼마나 달라지고, 그러면서도 똑같은가! 이마는 그다지 넓지 않고 얼굴은 전처럼 완전히 타원형은 아니지만 더욱 생기가 돋습니다. 그녀는 점원과 이야기를 하는데, 활발하고 쾌활하고 수다스럽습니다. 그녀는 벌써 하나, 둘, 세 개의 물건을 고르고 네 번째 물건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녀는 다시 눈을 내리깔고 값을 묻고 물건을 옆의 장갑 밑에 놓습니다. 분명히 쇼핑의 목적은 비밀인 모양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서인가? 그러나 그녀는 분명히 약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 약혼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여자도, 또 약혼을 했으면서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여자도 얼마나 많은가.…… 나는 그녀를 단념해야 할까? 나는 그녀를 방해하지 말고 기뻐하게 내버려둬야 할까? 그녀는 값을 치르고 싶지만 지갑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주소를 말해 주는 듯하지만 나는 듣고 싶지 않으며 기습의 기쁨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에 다시 한 번 그녀를 만날 것이고, 나는 분명히 그녀를 알아볼 것이고, 그녀도 아마 나를 알아볼 것입니다. 내 결눈질은 쉽게 잊을 수는 없습니다. 그때 내가 뜻밖의 환경 속에서 그녀를 만나 깜짝 놀랄다면, 다음은 그녀의 차례입니다. 그녀가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녀의 시선에서 그녀가 나를 알아보았음을 곧 알게 되지 않는다면, 나는 결눈질로 그녀를 바라볼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나는 확인하거니와 그녀는 지금의 이 만남을 기억해 낼 것입니다. 초조할 필요도 없고, 탐욕스러울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천천히 맛

13 중세의 종교 사상에 의거한 예술적 표현에서는 마돈나는 오직 한 사람, 곧 예수, 특히 어린 예수나 수난(受難) 시의 예수만을 골똘히 생각한다.

을 보아야 합니다. 그녀는 선발되었고 그녀는 붙잡하고 말 것입니다.

## 5일

그 정도는 괜찮을 거야. 저녁에 혼자서 에스터가데(동쪽 거리)를 걷다니. 물론 나는 뒤따라오는 하인을 똑똑히 보았다. 나는 당신이 혼자서 돌아다닐 만큼 신분이 낮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며, 나에게도 둘레를 둘러보고는 곧 근엄한 얼굴을 한 사람인 뒤따라온다는 걸, 알 만한 세상 경험은 있다는 걸 당신도 믿어 주시오. 그런데 왜 그렇게 서두를까? 조금 불안한 모양이군, 조금 가슴이 두근거리는 모양이군. 그것도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온몸에 달콤한 불안을 흐르게 하는 조급한 두려움 때문이지. 그래서 발걸음이 빨라진다.—그러나 하인을 뒤에 거느리고 그렇게 혼자 걷는 것은 멋지고 유쾌한 일이야.……열여섯 살쯤 되면 물론 소설을 말하지만 책을 많이 읽게 되는데, 우연히 오빠의 방 앞을 지나가다가 오빠와 오빠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에서 한마디를, 에스터가데에 대한 한마디를 듣게 된다. 그 후 가능한 한 좀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어서 자주 오빠의 방 앞을 지나간다. 그러나 소용이 없다. 다 자란 처녀답게 세상을 얼마쯤은 알아야 할 텐데. 당장 뒤에 하인을 거느리고 외출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아버지나 어머니는 달가운 표정이 결코 아닐 것이고 어떤 평계를 대야 할까? 사교적인 모임에 나갈 때엔 그런 기회가 없다. 너무 이른 것이다. 아우구스트가 9시 또는 10시쯤이 라고 말하는 걸 들었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와야 할 때에는 너무 늦고, 보통은 그때엔 어떤 신사가 동반하고 있다. 목요일 밤, 극장에서 돌아올 때라면 정말로 좋은 기회지만 언제나 마차를 타야하고 톰젠 부인과 부인의 귀여운 조카딸들이 함께 탄다. 혼자 타고 간다면 창문을 내리고 조금쯤 둘러볼 수도 있을 텐데. 그러나 뜻밖의 일도 자주 일어난다. 오늘은 어머니가 말했다. 넌 아빠의 생일 선물로 짜고 있는 것을 분명히 그때까지 끝마치지 못할 거야. 그러니 방해가 되지 않게 예테 큰 어머니 댁에 가도 좋아. 차 마실 시간까지 거기 있어도 괜찮아. 나중에 엔스가 데

리리 갈 거야. 본래 이것은 그다지 반가운 말이 아니었다. 예테 큰어머니 댁은 너 무나 지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기에 가면 9시쯤에 하인을 데리고 혼자 돌아올 수 있는 것이다. 엔스가 오면 10시 15분 전까지 기다리게 했다가 그 다음에 떠나자! 이제 오빠나 아우구스트 씨를 만나기만 한다면—어쩌면 만나는 것이 좋지 않을지도 몰라. 그러면 함께 집으로 돌아와야 할 테니까—만나지 않는 게 좋아. 자유로운 편이 훨씬 낫거든. 그래, 자유—그러나 오빠나 아우구스트 씨는 나를 못 보고 나는 그들을 보게 되어야 할 텐데.…… 그런데 작은 아가씨, 당신은 거기서 무엇을 보고 있지? 내가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지? 첫째는 당신이 쓰고 있는 작은 모자이고, 이 모자는 당신에게 어울리고 당신의 아주 성급한 태도와 잘 조화된다. 그것은 테 있는 모자도 아니고, 테 없는 모자도 아니고 오히려 일종의 두건(頭巾)이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집을 나올 때 그 모자를 쓰지는 않았을 거다. 하인이 가져왔을까 또는 예테 큰어머니에게서 빌렸을까?—결국 당신은 변장한 거지? —관찰을 하려면 베일을 완전히 내릴 수는 없다. 혹은 그것은 베일이 아니라 폭이 넓은 레이스인가? 어둠 속에서는 가려낼 수가 없군. 하여튼 그것은 얼굴 윗부분을 덮고 있다. 턱은 정말 아름답군, 약간 뾰족하긴 하지만. 입은 작고 조금 별리고 있다. 너무 급히 걷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치아는—눈처럼 희다. 당연하지. 치아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입술의 유혹적인 부드러움 뒤에 호위병으로 숨어 있거든. 뺨에는 건강한 빛이 역력하다.—얼굴을 약간 옆으로 숙이면 베일인지 또는 레이스인지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으련만. 조심해요, 밑에서 들여다보는 시선은 정면으로 바라보는 시선보다 더 위험하니까. 그건 펜싱을 할 때와 같아. 그리고 눈만큼 날카롭게 꿰뚫어 보고, 그 움직임이 민첩하고, 따라서 잘 속이는 무기가 또다시 있을까? 펜싱의 용어로 말하면 제4의 자세를 가장하고 제2의 자세로 찌르는 것이다. 가장에 뒤이은 찌르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욱 좋다. 그것은 형용할 수 없는 순간이다, 가장의 찰나는. 상대는 거의 찔렸다고 느끼고 당했다고 생각한다. 정녕 이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생각하는 곳과는 전혀 다른 곳을 찔린 것이다.…… 그녀는 끈기 있게 앞으로 나간다, 두려워하지도 않고 주저하지도 않으면서. 조심해요, 저쪽에서 사람이 와요. 베일을 내려요. 그의 세속적인 시선이 당신을 더럽혀서는 안 돼

요. 당신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의 시선이 당신에게 닿을 때의 매스꺼운 불안을 당신은 아마도 오랫동안 잊지 못할 거야.—그 사람이 사태를 잘 알고 있다는 걸 당신은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어. 첫 번째 대상으로 하인을 노리고 있어.—그래, 이제 당신도 알았을 거야, 하인만 데리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는가를. 하인이 넘어졌다. 원래 이것은 우스운 일이지만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되돌아와서 하인을 도와 일으켜 세울 수도 없고, 진흙투성이의 하인과 함께 가는 것도 불쾌하고 혼자 가는 것도 걱정스럽다. 조심해요, 괴물이 가까이 와요.…… 당신은 내 말에 대답하지 않는군. 나를 보아요, 내 모양에 당신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나는 당신에게 어떠한 인상도 주지 않았고 나는 별천지에서 온 선량한 사람처럼 보인다. 내 말에는 당신을 당황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도 없고, 지금의 사태를 생각하게 하는 것도 없고, 당신에게 가까이 가려는 동작도 전혀 없다. 당신은 아직도 조금 걱정한다. 당신은 무시무시한 모습이 당신을 습격하는 것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당신은 나에게 어떤 호감을 느낀다. 내가 당황해서 당신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은 우월감을 느낀 것이다. 그것이 당신을 기쁘게 하고 당신에게 자신을 줘서 나를 조금 놀려 먹고 싶다는 여유까지도 느끼게 한다. 나는 자신 있게 말하거니와, 이 순간에 당신은, 그렇게 하려고만 했다면, 내 팔을 잡을 용기도 있었으리라.…… 그렇다면 당신은 스토크가데(강변 거리)에 사는군. 당신은 나에게 냉담하고 가벼운 인사를 한다. 당신을 매우 불쾌한 처지에서 구해 준 나에게 그 정도로 될까? 당신은 뉘우치고 되돌아서서 나의 예의 바름에 감사하며 손을 내민다. 왜 당신의 얼굴이 창백하지? 나의 목소리는 변하지 않았고 나의 태도도 똑같고 나의 눈도 여전히 조용하고 태연하지 않은가? 이 악수? 도대체 악수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다, 많은, 엄청나게 많은 의미가 있어, 나의 작은 아가씨. 2주 일 안으로 당신에게 모든 걸 설명해 주겠어. 그때까지 당신은 모순으로부터 곧 내가 기사(騎士)처럼 젊은 아가씨를 도와준 선량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결코 선량하다고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의 손을 잡았다는 모순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거야.

4월 7일

“그럼 월요일 1시에 전람회에서.” 물론 나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 1시 15분 전에 도착할 것이다. 조촐한 밀회(密會). 토요일에 나는 간신히 결심을 하고 이사 간 친구 아돌프 브룬을 찾아가기로 했다. 그를 찾아가려고 나는 오후 7시쯤 베스터가데(서쪽 거리)로 갔다. 그가 거기에 살고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는 보이지 않았다. 숨을 헐떡거리며 올라간 4층 방에도 없었다. 계단을 내려오려고 할 때, 나의 귀는 여자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었다. 이 목소리는 속삭이듯이 말했다. “그럼 월요일 1시에 전람회에서. 그때쯤은 다른 사람들은 나가고 없겠지만 아시다시피 여기 이 집에서 당신을 만날 만한 용기는 없어요.” 물론 나에게 한 말이 아니라 어떤 청년에게 한 말이지만 이 청년은 단숨에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어찌나 빠른지 나의 발은 말할 것도 없고 나의 눈도 그를 뒤쫓을 수 없었다. 왜 계단에 가스등을 켜놓지 않았을까. 가스등이 있었더라면 나는 그렇게 시간을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지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가스등이 있었다면, 나는 아마 아무 말도 듣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현실적인 것은 역시 이성적인 것이다.<sup>14</sup> 나는 낙관주의자이고 언제까지나 낙관주의자이다.…… 그런데 도대체 누굴까? <돈 조반니>의 돈 나 안나의 말을 빌린다면 전람회에는 여자가 득실거린다. 정확하게 1시 15분 전이다. 나의 알지 못하는 아름다운 아가씨! 당신의 미래의 남편이 모든 점에서 나처럼 꼭 시간을 지켜 주면 좋으련만. 혹은 오히려 당신은 그가 15분 전에 오지 않기를 바랄지도 몰라. 신이 원하는 대로 나는 당신의 뜻을 죽을 테니까. 요정(妖精)이든 마녀(魔女)<sup>15</sup>든. 마술을 쓰는 여자여, 그대의 안개를 거두라. 모습을 나타내라. 아마 그대는 별씨 와 있는데 나에게는 보이지 않을지도 모른다. 모습을 나타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알아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녀와 같은 목적으로 이곳에 온 사람이 많이 있을까? 있음 직한 일이다. 전람회에 가는 일만 하더라도 인생행로를 아는 자는 하나도 없다.—저기 젊은 아가씨가 첫째 방으로 들어간다, 서

14 헤겔(Hegel, Georg Wilhelm Friedrich)의 『법철학(法哲學)』 서문의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이다’라는 말을 번정거린 것이다.

15 원문은 Fee oder Hexe인데, ‘페에’는 고대 로마 신화에 나오는 요정이고, ‘헥세’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악마의 부하인 마녀이다.

두르며, 마치 양심의 가책에 쫓기는 죄인처럼 재빨리. 그녀는 입장권을 내놓는 것을 잊어서 수위가 그녀를 붙잡는다. 저런, 저런! 왜 저렇게 서두를까. 그녀임에 틀림없다. 아직 1시도 되지 않았는데 왜 저렇게 서두를까. 제발 애인과 만나기로 한 걸 잊지 말도록.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이든 상관이 없는 것일까 또는 빨리 걸으라고 한 것은 이런 경우를 두고 한 말인가? 이렇게 짚고 순진한 아가씨가 밀회를 할 때에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그녀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다. 반대로 나는 아주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서 전원(田園)의 풍경화를 바라보고 있다.……그녀는 마치 악마의 딸처럼 온 방을 돌진(突進)한다. 당신은 욕심을 조금쯤은 숨길 줄 알아야겠어. 홀베르크가 리스벳 양에게 한 다음과 같은 말을 생각해 봐야겠어. “밀회(密會)에 그렇게 열렬한 것은 짧은 아가씨에게는 어울리지 않아.” 물론 두 사람의 밀회는 순결할 것이다.—애인들은 일반적으로 밀회를 가장 아름다운 순간으로 생각한다. 나 자신도 기다리고 있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설레는 기쁨으로 약속 장소로 달려가던 첫 번째 밀회를 아직도 어제 있었던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내가 처음으로 손뼉을 세 번 치던 때를, 손뼉을 세 번 치면 창문이 열리던 때를, 그 다음에는 아가씨의 보이지 않는 손이—그녀는 열쇠를 여느라고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작은 문을 열던 때를, 그러면 밝은 여름밤에 내가 아가씨를 망토로 감싸 주던 때를. 그러나 밀회가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는 판단에는 많은 환상이 섞여 있다. 관계없는 제삼자는 연인들이 이 순간에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나는 가끔 밀회를 목격했지만 아가씨의 귀여움, 그리고 남자의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전체적 인상은 불쾌한 것이었고, 만 나는 것 자체도, 연인들에게는 분명히 아름답게 생각되었을 테지만 전혀 아름답다고 할 수 없었다. 경험을 쌓으면 어떤 면에서는 도움이 된다. 분명히 안타까운 동경(憧憬)의 달콤한 불안은 상실되지만 그 순간을 정말로 아름답게 만드는 태도를 배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회를 맞아 순수한 사랑 때문에 알코올 중독성 섬망증(譴妄症)에 걸릴 정도로 제정신을 잃는 남자를 보면, 나는 화가 난다. 농부가 오이 샐러드의 맛을 알 것인가.<sup>16</sup> 그녀의 불안을 즐기고 그녀의 불안에 의해 그녀의

16 ‘개 밭에 비단신’ 정도의 격언.

아름다움을 불타오르게 하고 작렬하게 할 만한 분별력이 없어서 그는 추한 혼란만 일으키고서도 만족하여 집에 돌아와, 멋진 일이 있었다고 상상하는 것이다.—그런 데 도대체 그 녀석은 어디 있는 거야. 별써 2시 가까운데. 그래 그들은 썩 잘 어울리는 인종들이야, 이 연인들은! 그런 촌뜨기니까 젊은 아가씨를 기다리게 하지. 나는 달라, 나는 이 점에서는 전적으로 믿을 만한 인간이다! 이번으로 다섯 번째 내 옆을 지나갈 때 저 아가씨에게 말을 거는 게 제일 좋겠군. “무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름다운 아가씨. 분명히 여기서 가족과 만나기로 하셨죠. 당신은 몇 번씩 급히 제 옆을 지나가셨는데, 당신을 지켜보니 언제나 끝에서 두 번째 방에서 멈추시더군요. 그다음에 방 하나가 또 있다는 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방에 가면 당신이 기다리는 사람을 만날지도 몰라요.” 그녀는 인사를 한다. 그것이 무척 그녀에게 어울린다. 절호의 기회다. 그 녀석이 오지 않는 것은 다행이다. 낚시꾼은 물결치는 호수에서 고기를 가장 많이 낚는 법이다. 젊은 아가씨가 흥분했을 때는 다른 때라면 실패했을 일도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나는 가능한 한 낯설고 통명스럽게 그녀에게 인사를 하고 다시 의자에 앉아 풍경화를 바라보면서 그녀를 지켜본다. 곧 뒤따라가는 것은 너무 위험할 게다. 넉살 좋은 놈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녀는 곧 경계를 하게 된다. 지금은 내가 딱해서 말을 걸었다고 그녀가 생각하므로 나를 좋게 본다. 제일 끝 방에는 아무도 없다는 걸 나는 잘 안다. 혼자 있는 것은 그녀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주위에 사람이 많은 걸 보면 그녀는 불안해지겠지만 혼자 있으면 마음이 진정될 것이다. 참 잘 됐구나, 그녀는 그 방에 머물러 있다. 잠시 후에 슬쩍 들어가 보자. 나는 한마디 대답쯤 들을 권리가 있다. 그녀는 나에게 인사 정도는 해야 할 게다.—그녀는 앉아 있었다. 가엾은 아가씨, 몹시 슬픈 것 같다. 눈물을 흘린 게 틀림없다. 혹은 적어도 눈에 눈물이 고여 있거나. 쾌嚓 한 일이야.—이런 아가씨를 울리다니. 그러나 안심해요, 그대는 복수를 해야 하고 내가 복수를 할 테니까. 그 녀석은 기다리는 게 어떤 것인지 알게 될 거야. 온갖 돌풍(突風)이 가라앉고 어떤 기분에 잠겨 있는 지금, 그녀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기분의 본질은 고통의 비애와 조화이다. 그녀는 참으로 매혹적이다. 그녀는 지금 여행복을 입고 있지만 여행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 기쁨을 찾아 방랑하고 싶기 때

문에 여행복을 입은 것이다. 그러나 지금 여행복은 고통의 표시다. 그녀는 기쁨이 먼저 여행을 떠나 버려 뒤처진 사람과 같기 때문이다. 그녀는 마치 애인과 영원히 작별한 사람 같다. 그 녀석은 내버려 두는 게 좋아!—절호의 상황이고 순간이 신호를 하고 있다! 이제 나는 그녀가 여기서 가족이나 친구들을 찾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을 해야 하고,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감정을 표현할 만큼 따뜻해야 한다. 그러면 나는 그녀의 마음속으로 숨어들 기회를 갖게 된다. 오, 악마가 그 촌뜨기를 잡아갔으면 얼마나 좋으랴. 그런데 저기 오는 녀석은 그 녀석이 아닌가? 참으로 벼룩없는 놈이군. 내가 원하던 상황을 포착한 지금 오다니. 좋아, 좋아, 어쨌든 이 상황으로부터 조금은 끄집어낼 게 있을 거야. 나는 두 사람의 관계를 알아내고 이 상황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 그녀가 나를 바라본다면, 그녀는 전혀 다른 사람을 찾고 있는데 나는 그녀가 여기서 가족을 찾고 있다고 믿었으므로, 부지중에 나에게 미소를 보낸 게 틀림없다. 이 미소는 나를 그녀의 공범자(共犯者)로 만들며 이것은 어쨌든 좋은 일이다.—정말 감사해요, 작은 아가씨, 이 미소는 나에겐 당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가치 있답니다. 이것은 시작이고 시작은 언제나 가장 어렵다. 이제 우리는 아는 사이고, 우리가 아는 사이라는 것은 의미심장한 상황의 기초가 되며, 나는 당장은 이것만으로 만족한다. 당신은 여기에 한 시간 이상 머무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두 시간 내에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경찰이 주민명부(住民名簿)를 작성하는 까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9일

나는 장님이 됐는가? 영혼의 내적(內的)인 눈이 그 힘을 잃었는가? 나는 그녀<sup>17</sup>를 보았는데, 마치 하늘의 계시(啓示)를 본 것과 같아서 그녀의 모습은 다시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그 모습을 다시 생각해 내려고 영혼의 온갖 힘을 기울여도 소용이 없다. 다시 한 번 그녀를 본다면, 그녀가 수백 명의 사람 속에 있더라도 나는 당장

17 이 아가씨가 코렐리아다. 그러므로 5일과 7일의 일기에 나오는 여자는 다른 여자이다.

그녀를 알아볼 것이다. 지금 그녀는 달아나 버렸고, 나의 영혼의 눈은 그 동경의 힘으로 그녀를 쫓아가려고 하지만 소용이 없다.—나는 랑게리니에 거리<sup>18</sup>를 걸으로는 무심해서 주위의 것들을 보지 못하는 체하면서도 날카로운 시선으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바라보면서 거닐고 있었다. 그때 그녀를 보았다. 내 눈은 그녀에게 요지부동으로 못 박혀 주인의 뜻을 따르지 않게 되었다. 눈을 조금이라도 움직여서 내가 보려고 했던 대상을 훑어본다는 것은 나에겐 불가능했다. 아니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응고(凝固)해 있었다. 찌르는 자세로 굳어 버린 펜서처럼, 내 눈은 한 번 본 방향에 고정되어 화석(化石)이 돼 버렸다. 눈을 감는 것도 불가능했고 눈을 내면으로 돌리는 것도 불가능했고 너무나 많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보는 것도 불가능했다. 나에게 남아 있는 유일한 인상은 그녀가 녹색 외투를 입고 있었다는 것뿐이다. 이것이 전부다. 말하자면 혜라 대신 구름을 잡은 셈이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달아난 것처럼<sup>19</sup> 그녀는 나에게서 달아나 버렸고, 외투 이외에는 아무것도 남겨 놓지 않은 것이다. 그녀는 노부인(老婦人)과 함께 있었는데, 이 부인은 그녀의 어머니 같았다. 이 부인이라면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묘사할 수 있지만, 사실 나는 이 부인을 전혀 바라보지 않았으며 기껏해야 어쩌다가 슬쩍 본 데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된 것이다. 그 아가씨는 나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지만 나는 그녀를 잊어버렸다. 다른 부인은 전혀 인상을 남기지 못했건만 나는 그녀를 생각해 낼 수 있다.

## 11일

내 영혼은 여전히 똑같은 모순에 사로잡혀 있다. 나는 그녀를 보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또한 나는 그녀를 다시 잊었다는 것, 게다가 남아 있는 기억의 조각조차도, 위안이 되지 않을 만큼 잊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마치 나의 행복이 거기에 달 18 코펜하겐의 변화가.

19 성서 〈창세기〉 39장 7~18절 참조. 이집트로 끌려온 요셉은 시위대장 보디발의 하인이 되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달아났다가 오히려 폭행죄로 투옥된다.

려 있는 듯한 불안과 격렬함을 갖고 나는 그녀의 모습을 갈망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잊어버린 죄를 벌주기 위해 내 눈을 뽑아내고 싶다. 미칠 듯 초조하다가 다시 마음이 진정되면 예감(豫感)과 회상(回想)이 어떤 모습을 떠올리게 하지만 그것은 나에게 분명한 모습을 파악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이 모습을 일정한 모습으로 정지(靜止)시킬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부드러운 천의 무늬와 같고, 무늬는 밑바탕보다 밝긴 하지만 너무나 밝아서 그것만으로는 눈에 띠지 않는다.—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은 이상하지만, 이러한 상태는 내가 아직도 젊다는 것을 확인하게 할 뿐 아니라 그 자체로도 즐거운 것이다. 내가 아직 젊다는 것은 다른 고찰을 통해서도, 곧 나는 언제나 젊은 아가씨들 사이에서 나의 희생자를 구하고 젊은 유부녀들 사이에서는 구하지 않는다는 고찰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결혼한 여자는 자연스러움이 적고 교태(橋態)가 많으며, 결혼한 여자와의 관계는 아름답지도 않고 흥미롭지도 않으며 이러한 관계는 자극적이지만 자극적인 것은 언제나 마지막 것이다.—나는 다시 한 번 첫 사랑의 연한 과일을 맛보게 되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았다. 나는 열애에 빠졌고 수영할 때처럼 누군가가 내 머리를 물속으로 밀어 넣은 것이다. 약간 명청하더라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럴수록 더욱 좋고 나는 이러한 관계에서 더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 14일

나는 다시금 나 자신을 거의 알 수 없다. 나의 내면(內面)은 정열의 폭풍우 속에서 들끓는 바다처럼 요란하다. 다른 사람이 이러한 상태의 내 영혼을 볼 수 있다면, 마치 심연(深淵)의 깊이로 돌진하는 것처럼, 선수(船首)를 바닷속으로 향하고 바다를 뚫고 들어가려는 작은 배처럼 보일 것이다. 이 사람은 둑대 위에서 망을 보고 있는 한 선원을 보지 못한다. 물결쳐라, 그대들 사나운 힘이여, 그대들의 정열의 온갖 힘을 풀어놓아라. 그대들의 물결이 물방울을 구름까지 밀어 올린다고 하더라

도 그대들은 내 머리 위로 뛰어넘지는 못한다. 나는 암벽(岩壁)의 임금님<sup>20</sup>처럼 편안하게 앉아 있다.

나는 확고한 기반을 거의 찾지 못한 채 물새처럼 나의 내면의 물결 사나운 바다에 내려앉으려고 헛되이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격동은 나의 기본 요소이다. 나는 그 위에 둥지를 짓는다. 마치 물총새가 바다 위에 둥지를 짓는 것처럼.

칠면조는 빨간 것을 보면 화를 낸다. 나는 녹색을 보면, 녹색 외투를 보면 언제나 화가 난다. 그런데 내 눈은 가끔 나를 속이기 때문에, 때때로 나의 모든 기대는 프레데리크 병원의 환자 운반인을 보고 난파(難破)한다.<sup>21</sup>

## 20일

인간은 자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모든 향락의 기본 조건이다. 나의 영혼과 나의 생각을 모두 차지하고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그 아가씨에 대한 정보를 곧 입수할 것 같지는 않다. 이제 나는 아주 침착해지려고 한다. 희미하고 확실하지 않으면서도 강렬한 감동이 있는 이 상태에도 독특한 감미로움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달 밝은 밤이면 언제나 우리나라 어느 곳의 호수에 보트를 띠우고 누워 있기를 좋아했다. 나는 뜻을 내리고 노를 거두고 키를 풀고 편안히 누워 하늘을 쳐다본다. 물결이 보트를 가슴에 안고 흔들어 줄 때, 구름이 바람을 타고 재빨리 달리며 잠시 달을 가렸다가 다시 빛나게 할 때, 나는 이 불안 속에서 안식을 찾아낸다. 물결의 흔들림은 나를 잠재우고, 백전에서 부서지는 물결 소리는 단조로운 자장가가 되고, 그림자와 빛을 교차(交錯)시키는 구름의 재빠른 흐름은 나를 취하게 해서 나는 눈을 뜯 채 꿈을꾼다. 이러한 때와 마찬가지로 나는 지금 편안히 누워서 뜻을 내

20 덴마크 설화에 나오는 암벽의 임금님.

21 코펜하겐의 프레데리크 병원의 환자 운반인은 당시에는 녹색 상의를 입고 있었다.

리고 키를 풀었으며, 그리움과 초조한 기대가 나를 가슴에 안고 흔들어 주고 있다. 그리움과 기대는 더욱더 조용해지고 더욱더 행복한 것이 된다. 그리움과 기대는 나를 어린애처럼 달래 주고, 내 머리 위에는 희망의 하늘이 펼쳐지고, 그녀의 모습은 달처럼 때로는 빛에 의해서, 때로는 그림자에 의해서 내 눈을 가리면서 내 옆을 지나간다. 물결치는 물 위에서 흔들리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자기 자신 속에서 흔들리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가.

## 21일

하루하루가 흘러가지만 나는 언제나 변함이 없다. 젊은 아가씨들은 어느 때보다도 나를 즐겁게 해 주지만 나는 향락할 마음이 없다. 오직 그녀만을 나는 어디서나 찾고 있다. 이것이 나를 공평하지 못하게 하고 내 눈을 가리고 나의 향락 능력을 쇠퇴시킨다. 이제 곧 아름다운 계절이 찾아올 것이고 그때 사람들은 겨울 동안에는 사교 생활에서 아주 비싼 값을 치러야 했던 작은 소망을 거리와 광장에서 공공연하게 사는 것이다. 젊은 아가씨는 무척 많은 일을 잊어버리지만 어떤 상황만은 잊지 않기 때문이다. 사교 생활은 분명히 여성과 접촉시켜 주지만 여기서 사랑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야 한다면 너무나 멎이 없다. 사교 생활에서는 모든 젊은 아가씨들이 무장하고 있으며, 상황은 불모지대(不毛地帶)인데다가 몇 번씩 되풀이되어 서 젊은 아가씨들에게 정욕적(情欲的)인 충격을 주지 못한다. 거리에서 아가씨는 넓은 바다에 있는 것과 같고, 따라서 모든 것이 강렬하게 작용하고 모든 것이 마치 수수께끼 같다. 나는 거리에서 만난 아가씨의 미소를 위해서는 백 달러를 내겠지만, 사교장에서의 악수를 위해서는 십 달러도 내지 않겠다. 이 미소와 악수는 전혀 다른 통화(通貨)다. 사랑의 이야기가 진행 중이라면 우리는 상대자를 사교장에서 만나도 괜찮다. 그녀와 이미 마음이 통하는 바가 있으므로, 이것이 상대자를 유혹하며 내가 아는 한 이것은 가장 효과적인 자극제다. 그녀도 더놓고 말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점을 생각하고 있다. 그녀는 이쪽이 그 일을 잊었는지, 안 잊었는지를

모르고 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녀를 미궁 속으로 끌어들인다. 금년에 분명히 나는 많은 수학을 거두지 못할 것이다. 그녀가 너무나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다. 나의 수학은 어떤 의미에서는 빈약하지만, 그 대신 나는 주요한 이득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5일<sup>22</sup>

저주스러운 우연이여! 나는 그대를 저주한 적은 없었다. 그대는 줄곧 나타났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대를 저주한다. 그대가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혹은 그대, 불가해한 자여, 만물의 무익한 어머니여 필연이 자유를 낳고 자유가 다시금 모태(母胎) 속으로 잘못 들어간 시대에 남겨진 유일한 잔재여,<sup>23</sup> 그대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새로운 술책인가? 그대, 나의 유일한 공범자여,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 한결같고 언제나 불가해하고 언제나 수수께끼 같은 자여! 나의 동지 또는 나의 적이 될 만하다고 내가 인정하는 유일한 자여! 내 영혼의 모든 공감(共感)을 기울여서 사랑하고 그 모습을 모방해서 내가 나 자신을 창조하고 있는 그대여, 그대는 왜 나타나지 않는가? 그대가 이러이리한 모습으로 나타나 달라고 비굴하게 애걸하거나 간청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예배는 우상예배(偶像禮拜)이므로 그대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대에게 결투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대는 왜 나타나지 않는가? 혹은 세계 구조(構造)의 불안정이 없어지고 그대의 수수께끼가 물려서 그대조차도 영원성(永遠性)의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는가? 무서운 생각이다. 그렇다면 세계는 지루한 나머지 정지(靜止)해 버릴 것이다! 저주받은 우연이여, 나는 그대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원리(原理), 또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성격이라고 부르는 것에 의해 그대에게 이기려고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나는 그대를 시(詩)로

22 이 날은 5월 5일, 곧 키에르케고어의 생일이다.

23 어떤 사상을 나타내려고 했는지 확실하지는 않으나, 필연과 역사의 조화를 생각하는 헤겔에 대항해서 필연과 역사(곧 자유)의 상극을 나타내려고 한 것 같다. 요컨대 현대는 필연이 지배하는 나쁜 시대이지만 그 속에 옛날 자유의 잔재로서 우연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만들고 싶다. 나는 다른 것을 위해서는 시인이 되고 싶지 않다. 모습을 나타내라, 나는 그대를 시로 만들고 그 시를 먹어 버린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영양(榮養)이다. 혹은 그대는 나를 무시하는가? 인도(印度)의 무희(舞姬)가 신을 찬양하며 춤추는 것처럼 나는 몸을 바쳐 그대를 섭겨 왔다. 경쾌하게, 넓은 옷을 입고, 날쌔게, 아무 무장도 없이 나는 모든 것을 단념했다. 나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으며 잃어버릴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어쩌면 이미 오래전에 인간으로부터 그들이 사랑하는 것을 빼앗는 데 지치고 그들의 기운 없는 탄식과 기운 없는 애절에 지쳤을지 모를 그대여, 나는 이렇게 됨으로써 그대에게 더욱 어울리지 않는가? 나를 기습하라, 나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 상금은 필요 없다. 명예를 위해 싸우자. 나에게 그 아가씨를 보여 달라. 불가능처럼 보이는 가능성은 보여 달라. 그녀를 저승의 망령(亡靈) 사이에 나타나게 하라, 그러면 나는 그녀를 이 세상으로 데려올 것이다.<sup>24</sup> 그녀가 나를 미워하든, 경멸하든, 다른 사람을 사랑하든 나는 두려울 게 없다. 다만 물을 움직이게 하라, 이 무풍상태(無風狀態)를 끝내라. 나를 이렇게 깊주리게 하는 것은 나보다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대로서는 인색한 짓이다.

## 5월 6일

봄이 왔다. 꽃이 만발했고 젊은 아가씨들도 마찬가지다. 외투와 망토를 벗어 버렸으며, 아마도 나의 녹색 외투도 못에 걸려 있으리라. 사교장이 아니라 거리에서 아가씨를 알게 되면 이렇게 된다. 사교장에서 우리는 아가씨의 이름이 무엇이고,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디에 살며 약혼을 했는지를 곧 알게 된다. 마지막 것은 신중하고 견실한 구혼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지식이다. 그들은 약혼한 아가씨를 사랑하려고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렇게 견실한 사람이 내 처지에 있다면 몹시 당황할 것이다. 정보를 얻으려는 그의 노력이 다행히 성공하고, 게다가 약

24 죽은 아내 에우리디케를 저승에서 데려오려고 한 오르페우스의 신화에 바탕을 두고 한 말이다.

흔한 아가씨임을 알게 되면 그는 망연자실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 이것은 대단한 문제가 아니다. 약흔한 아가씨—그것은 단지 희극적인 난점(難點)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희극적인 난점이든, 비극적인 난점이든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무서워하는 유일한 난점은 지루함이다. 나는 아직껏 한 가지 정보도 입수하지 못했다. 그렇건만 나는 손을 전혀 쓰지 않은 것은 아니며, 시인이 말한 다음과 같은 진리를 얼마나 통감했는가.

밤과 겨울과 지루한 길과 아픔,  
모든 괴로움이 이 싸우기 싫어하는 진영(陣營)에 있다.<sup>25</sup>

아마도 그녀는 여기 코펜하겐에 사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 아마도 그녀는 시골에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마도, 아마도……나는 이러한 온갖 ‘아마도’ 때문에 미칠 것 같다. 그런데 내가 미칠 것 같으면 그럴수록 ‘아마도’는 더욱 늘어난다. 나는 언제든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항상 돈을 준비해 놓고 있다. 극장과 음악회와 무도회와 유원지에서 그녀를 찾아보았으나 헛된 일이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와 같은 헛된 노력을 나는 기뻐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오락을 즐기는 아가씨는 일반적으로 정복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아가씨에게는 나로서는 불가결의 조건인 근원성(根源性)이 대체로 없다. 프레치오사<sup>26</sup> 같은 여자를 집시 사이에서 찾아내는 것은 아가씨들이 자기를 팔려고 내놓은—그것도 아주 순진하게,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만나보고 싶다—가축 시장(家畜市場)에서 프레치오사 같은 여자를 찾아내는 것만큼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아니다.

25 오비디우스(Publius Ovidius Nasō) 《사랑의 기술(Ars Amatoria)》에서 인용. ‘싸우기 싫어하는 진영’은 사랑의 진영을 말한다.

26 볼프(Hugo Philipp Jakob Wolf)의 희곡 〈프레치오사(Preziosa)〉의 여주인공으로 가난과 죄에 허덕이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도 우아함과 덕을 잊지 않았다.

12일

귀여운 이여, 왜 대문 쳐마 밑에 가만히 서 있지 않았습니까? 비가 오는 날 젊은 아가씨가 대문 쳐마 밑에 서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산이 없으면 나도 그렇게 합니다. 때로는 우산이 있을 때에도. 예컨대 지금처럼. 게다가 나는 태연하게 이런 일을 하는 존경할 만한 많은 숙녀의 이름을 댈 수 있습니다. 침착하게 등을 거리로 돌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서 있는 것인지,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인지 모른답니다. 반대로 문이 반쯤 열려 있을 때 대문 뒤에 숨어 있는 것은 조심스럽지 못한 일입니다. 특히 그 결과로 봐서 그렇지요. 왜냐하면 숨어 있을수록 뜻밖의 일을 당하면 불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숨어 있으려면 착한 수호신(守護神)과 모든 천사의 보호를 간청하면서 아주 조용히 서 있어야 합니다. 특히 기웃거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비가 그쳤나 보려고. 그것을 확인하려면 결연히 한 걸음 나서서 진지하게 하늘을 쳐다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약간 호기심을 갖고 난처한 듯이 불안하게 머뭇머뭇 머리를 내밀었다가 곧 머리를 감추는 것—이러한 운동은 어린애들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숨바꼭질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가, 언제나 관계하고 있는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질문을 받고 대답하지 않겠습니까……내가 당신에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당신이 머리를 내밀었을 때 조금이라도 다른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세상에서 가장 순진한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의 좋은 평판에 알맞지 않은 일입니다. 게다가 사단(事端)은 당신에게 있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누구에도 말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당신이 옳은 건 아니었으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은 신사라면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당신에게 내 우산을 주려고 하는 것은.—그런데 그녀는 어디에 있지? 틀림없이 수위실 문 뒤로 숨었을 거야. 아주 귀여운 아가씨야, 활발하고 쾌활한.—“혹시 방금 대문 뒤에서 고개를 내밀었던 젊은 숙녀를 모르십니까? 우산이 없어서 난처한 것 같더군요. 우리는, 곧 나와 내 우산은 바로 그분을 찾고 있습니다만.”—당신은 웃는다.—내일 우산을 받으려 하인을 보내도 될까요. 혹은 내가 마차를 타고 갈까요?—고마워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당연한 예의가

아닙니까—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참으로 쾌활한 아가씨구나. 그녀의 시선은 아주 어린애 같으면서도 대담하고 그녀의 태도는 매우 우아하고 예의 바르면서도 호기심에 차 있다. 귀여운 이여, 안녕히 가세요. 녹색 외투만 입고 있지 않았더라면 나는 좀 더 가까워지고 싶었을 텐데.—그녀는 스토레 코마르가데<sup>27</sup> 쪽으로 간다. 그녀는 얼마나 순진하고 착한 아가씨였던가. 조금도 꾸밈이 없었다. 보라, 얼마나 경쾌하게 걸어가는가. 얼마나 대담하게 고개를 들고 있는가.—녹색 외투는 자기부정(自己否定)을 요구한다.

## 15일

고맙다, 사랑하는 우연이여, 나의 감사를 받으라! 그녀는 날씬하고 기품 있으며, 전나무처럼 신비하고, 생각이 깊고, 대지의 깊은 내부로부터 하늘을 향해 솟아나오는 짹, 또는 사상 같으며, 설명할 길이 없는, 자기 자신에게도 설명할 길이 없는, 부분을 갖지 않은 하나의 전체 같다. 너도밤나무는 관(冠)을 쓰고 있고 잎들은 관 밑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해 주지만, 전나무는 관도 없고 이야기도 없으며 자기 자신에게도 수수께끼이다.—그녀는 이와 같았다. 그녀는 자기 자신에게도 감추어져 있으며, 자기 자신으로부터 솟아올라 대지에 못 박혀 있으면서도 대담하게 대지로부터 달아나는 전나무처럼 안정된 궁지를 갖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들오리의 울음 같은 비애가 떠돌고 있었으나 그것은 온전하고 깊은 동경(憧憬)이었다. 그녀는 하나의 수수께끼였으나 불가사의하게도 스스로의 답을 갖고 있었고, 그녀는 하나의 비밀(이와 비교하면 외교관들의 온갖 비밀은 얼마나 하찮은가), 하나의 수수께끼(이 수수께끼를 푼다는 말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이 세상에 있을 것인가)였다. ‘푼다’는 말은 얼마나 암시적이고 함축적인가. 그러나 이 말에는 애매함이 있으며, 이 말이 나타내는 모든 복합체(複合體)에 있어서 이 애매함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강렬한가. 혁의 속박이 풀리지 않고 따라서 수수께끼도 풀리지 않는 한, 영

27 코펜하겐의 거리 이름.

흔의 풍요함은 수수께끼에 지나지 않듯이 젊은 아가씨도 역시 수수께끼이다.—고맙다, 사랑하는 우연이여, 나의 감사를 받으라! 내가 그녀를 겨울에 보았다면, 그녀는 녹색 외투를 입었을 것이고, 아마도 꽁꽁 얼어서 자연의 조야(粗野)함이 그녀의 자연적인 아름다움을 감소시켰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다행한가! 나는 처음으로 그녀를 일 년 중 가장 아름다운 계절인 첫 여름 오후의 빛 속에서 보게 된 것이다. 물론 겨울도 그 나름의 장점을 갖는다. 번쩍번쩍 빛나는 조명을 밝힌 무도장도 무도복을 입은 젊은 아가씨에게는 기분 좋은 환경일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곳에서는 모든 것이 그녀의 장점을 나타내도록 요구하며, 그녀가 복종하든 거역하든, 이러한 요구는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녀가 그녀의 장점을 충분히 나타내는 일은 드물고, 또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덧없음과 혀망함을 상기시켜서 향락을 별로 달갑지 않게 하는 일종의 초조감이 생긴다. 물론 나도 어느 시기에는 무도장 없이 지내고 싶지는 않으며, 그 귀중한 호화로움, 아름다움과 젊음의 더할 나위 없는 과잉, 다양한 힘의 희롱 없이 지내고 싶지는 않다. 그렇지만 이때에 나는 향락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가능성에 텁텁하다. 그때 매혹하는 것은 개별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전체이다. 어떤 환상이 일어나고 이 환상 속에서는 모든 이성들이 일체(一體)가 되려고 하며, 이러한 모든 움직임은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다. 곧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모습에 있어서의 정지(靜止)를 추구하고 있다.

그것은 북문(北門)과 동문(東門) 사이의 길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6시 반쯤의 일이었다. 태양은 힘을 잃고 부드러운 미광(微光) 속에 그 자취를 남기고 있을 뿐이었다. 자연의 호흡은 편안해졌다. 호수는 고요하고 겨울처럼 빛났다. 브라히답의 눈에 익은 건물이 물에 비쳐 물은 저 멀리까지 금속처럼 어두웠다. 힘을 잃은 햇빛은 저쪽의 길과 건물을 비추고 있었다. 하늘은 맑고 깨끗했으며 오직 가벼운 구름이 눈에 띠지 않게 미끄러져 가고 있었다. 호수를 바라보아야 비로소 그 빛나는 수면을 스쳐 지나가는 구름이 간신히 눈에 띠었다. 나뭇잎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그것은 그녀였다. 녹색 외투는 나를 속였더라도, 나의 눈은 나를 속이지 않았다. 이미 오래전부터 나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건만, 바로 옆에 있는 밭 위에서 지저귀는 종달새가 오르내리는 것 같은 어떤 동요는 억제할 수 없었다. 그녀는 혼자

있었다. 그녀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는 이미 잊었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그녀는 혼자 있었지만 그녀 자신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념에 사로잡혀 있는 게 분명했다. 그녀는 생각에 잠겨 있는 게 아니라 조용히 움직이는 상념 속에서 그녀의 영혼 앞에 아가씨만이 예감할 수 있는, 젊은 아가씨의 술한 탄식처럼 설명할 수 없는 동경(憧憬)의 상(像)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녀는 가장 아름다울 때였다. 젊은 아가씨는 청년과 같은 의미에서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아가씨는 성장하는 게 아니라 탄생한다. 청년은 곧 성장을 시작하고 그 때문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젊은 아가씨는 오랜 시간에 걸쳐 태어나고, 태어났을 때엔 이미 성장해 있다. 여기에 아가씨의 무한한 부(富)가 있다. 아가씨는 태어난 순간에 이미 성장해 있으나 이러한 성장의 순간은 늦게 온다. 그러므로 아가씨는 두 번 태어난다. 결혼할 때에 두 번째로 태어난다. 혹은 좀 더 올바르게 말하면 이 순간에 아가씨는 탄생의 과정에서 벗어난다. 이 순간에 아가씨는 태어나는 것이다. 아테네만이 충분히 성숙해서 제우스의 이마에서 튀어나오는 것<sup>28</sup>은 아니며, 아프로디테만이 완전한 아름다움을 갖고 바다에서 떠오르는 것<sup>29</sup>은 아니며 성장이라고 부르는 것에 의해 여자다움이 망쳐지지 않은 모든 젊은 아가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아가씨는 단계적으로 각성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각성하며, 그 대신에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너무 일찍 흔들어 깨우지 않는 한, 오랫동안 꿈꾼다. 그러나 이렇게 꿈꾸는 것은 무한한 부이다.—그녀는 그녀 자신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녀 자신 속에서 생각에 잠겨 있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한한 평화이며 자기 자신 속에서의 무한한 안식이다. 이렇게 해서 젊은 아가씨는 풍요해지며 이러한 부를 갖고 있다는 것이 그녀 자신을 풍요하게 만든다.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본인은 모르더라도, 아가씨는 부자이다. 아가씨는 풍요하며 아가씨는 보물이다. 그녀는 눈으로 들어 올릴 수 있을 만큼 가벼웠고 수호신(守護神)이 운반해 가는 프시케<sup>30</sup>처럼 가벼웠고, 오히려 더욱 가벼웠다. 그녀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운

28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테네는 완전무장한 채 제우스의 이마에서 태어났다.

29 그리스 신화의 아프로디테(로마 신화의 비너스)는 우라노스의 절려진 남근(男根)에서 바다로 흘러나온 정액(精液)의 거품 속에서 성숙한 미녀로 태어났다.

30 그리스 신화에서 영혼을 상징하는 프시케(Psyche)는 괴물의 산 제물로서 바위 위에 놓였는데, 바람에

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교부(教父)들이 마돈나의 승천(昇天)<sup>31</sup>에 대해 논쟁을 벌이더라도 그것은 나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니다. 마돈나는 이미 속세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젊은 아가씨의 가벼움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중력(重力)의 법칙을 비웃는 것이다.—그녀는 아무것도 보지 않았고 따라서 누가 자기를 보고 있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다. 나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그녀의 모습을 뺄아들였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갔고 서둘러서 자신의 평화나 주위의 고요를 흐트러뜨리는 일은 없었다. 호수에서는 한 소년이 앓아서 낚시질을 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수면과 작은 찌를 바라보았다.—물론 그녀는 급히 걸어온 것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서늘함을 바라고 있었다. 그녀는 솔 밑으로 목에 감고 있던 작은 목도리를 풀었다. 호수에서 불어오는 부드러운 미풍이 눈처럼 희면서도 따뜻하고 풍만한 가슴을 서늘하게 해 주었다. 소년은 구경꾼이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듯, 상당히 냉담한 시선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소년은 사실상 이상한 행동을 했으므로 그녀가 부지중에 웃은 것은 무리한 일이 아니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녀의 웃음은 아주 싱싱했다. 소년과 단둘이 있었다면 그녀는 소년과 맞잡고 싸우는 것도 사양하지 않았으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녀의 눈은 크고 매우 빛났다. 눈 속을 들여다보면 어두운 광채가 있어서 그것이 무한한 깊이를 느끼게 하지만 이 깊이까지 도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녀의 눈은 깨끗하고 순진하고 온화하고 조용했지만, 웃을 때에는 장난기가 넘쳐흘렀다. 그녀의 코는 윤곽이 분명했다. 그녀의 옆얼굴을 보았을 때 코가 마치 이마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어느 정도 짧아 보였고 약간 대담해 보였다. 그녀는 다시 걷기 시작했고, 나는 뒤따라갔다. 다행히도 길에는 산보 나온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 나는 이 사람 저 사람과 한두 마디 나누면서 그녀와 약간의 거리를 두었다가 곧 다시 쫓아갔으므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녀와 마찬가지로 천천히 걸을 필요는 없었다. 그녀는 동문 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눈에 띄지 않은 채 그녀를 좀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었다. 모퉁이에 있는 집에서라면 나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나는 이 집 사람을 짐짓으로 날아가 위기를 면했다.

31 성서에는 승천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성모 마리아를 몹시 송배하던 교부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마리아의 승천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

들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집을 방문하기만 하면 되었다. 나는 마치 그녀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처럼 급한 걸음으로 그녀를 지나쳤다. 나는 상당한 거리를 앞선 다음 좌우로 그 집 사람들과 인사를 하면서 길을 내다볼 수 있는 창 앞에 자리 잡았다. 그녀가 지나갈 때, 나는 안방에서 차를 마시며 잡담을 하면서 동시에 그녀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 걸음걸이로 보아 그녀의 춤 솜씨가 대단하지 않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런데도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일종의 오만, 자연스러운 기품이 있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배려는 부족했다. 나는 처음 기대했던 것보다 한 번 더 그녀를 보게 되었다. 창에서는 길을 멀리까지 내다볼 수는 없었지만 호수에 놓인 작은 다리가 보였고, 나는 이 다리 위에서 그녀의 모습을 다시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다. 혹시 그녀는 교외인 이곳에 사는 게 아닐까, 혹시 이곳에 여름 별장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그녀가 되돌아서면 그 모습을 놓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에 이때 이미 나는 이 집을 방문한 걸 후회하고 있었다. 사실 그녀가 다리 제일 끝에 보인다는 것은 바로 내 옆에 나타났을 때—그녀가 보이지 않게 된다는 조짐이었다. 그녀가 이 집을 지나갔다. 나는 급히 모자와 단장을 집으려고 했다. 가능하다면 몇 번이고 그녀의 옆을 지나치고 또 뒤따르고 하다가 그녀의 집을 알아두고 싶었던 것이다.—그러나 나는 너무나 서두른 끝에 차를 나눠 주고 있던 부인의 팔에 부딪혔다. 무서운 비명이 들렸고, 나는 모자와 단장을 든 채 우두커니 서서 오로지 떠나갈 일만 생각하고 있었고, 가능하다면 이 사건을 전화위복으로 삼아 떠나갈 구실로 삼으려고 정열적으로 외쳤다. “저는 차가 쏟아진 이곳에서 카인처럼 추방되고 싶습니다.”<sup>32</sup> 그러나 모든 것이 나에게 거역하기로 맹서(盟誓)한 것처럼, 내 말에 대답하겠다는 이상한 생각이 주인에게 떠올라서 그는 엄숙하게 선언했다. “당신이 차를 마시고, 쏟아진 차 대신에 손수 집사람에게 차를 권해서 보상을 하지 않는 한 가실 수 없습니다.” 주인이 이러한 경우에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은 매우 분명했으므로, 나는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그녀는 사라져 버렸다.

<sup>32</sup> 카인은 아벨을 죽인 후 피가 흐른 땅에서 추방된다(성서 <창세기> 4장 10~16절 참조).

16일

연모(戀慕)한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자기가 연모하고 있음을 아는 것은 얼마나 흥미 있는가. 보라,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녀가 두 번째로 내 앞에서 사라진 것을 생각하면 화가 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한다. 내가 그녀에 대해 갖고 있는 상(像)은 현실적인 모습과 이상적인 모습 사이에서 불확실하게 떠돌고 있다. 지금 나는 이 상(像)을 떠올릴 수 있다. 그러나 이 상은 현실이거나 또는 현실을 그 동기로 삼고 있기 때문에 독특한 마력(魔力)을 갖는다. 나는 초조하지는 않다. 어쨌든 그녀는 이 도시에 사는 게 틀림없고 이 순간에는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능성은 그녀의 상이 이렇게 생생하게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이다.—모든 것은 천천히 향락해야 한다. 또다시 연모하게 되었다는 드문 행운을 차지하고 자신을 신(神)들의 총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가, 그러한 내가 침착하지 못할 까닭이 있는가. 이러한 일은 어떠한 기술이나 학식에 의해서도 획득할 수 없는 선물인 것이다. 그러나 다시금 사랑에 눈뜨는 데 성공한 이 상, 이 사랑이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되는지 꼭 보고 싶다. 나는 이 사랑을 첫사랑 때와는 달리 애무하겠다. 기회는 드물게 찾아오는 것이므로 기회가 오면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가씨를 유혹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유혹할 만한 아가씨를 찾아내는 것은 행운에 속한다는 것은 절망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사랑에는 많은 신비가 있으며, 첫사랑도 비록 하찮은 사랑에 속한다 하더라도 신비이다. 저돌적인 사람들은 대체로 약혼을 하거나 그 밖에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고 따라서 순식간에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려서 무엇을 정복했는지, 또 무엇을 잃었는지 모르게 된다. 이제 그녀는 두 번 내 앞에 나타났다가 또 사라졌다. 이것은 곧 더 자주 그녀가 내 앞에 나타나리라는 것을 뜻한다. 요셉은 파라오의 꿈을 해몽한 다음, “당신이 두 번 꿈을 꾸었다는 것은 그 일이 곧 성취될 것임을 의미합니다”라고 덧붙였다.<sup>33</sup>

그것이 나타남으로써 삶의 내용이 형성되는 여러 힘을 약간이나마 예견할 수 있다

33 성서 〈창세기〉 41장 32절 참조.

면 매우 흥미 있는 일이리라. 그녀는 지금 한결같이 조용한 평화 속에서 살고 있다. 그녀는 내가 있다는 걸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도 알지 못하며, 나의 영혼이 더욱더 현실을 요구하고 더욱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성을 갖고 그녀의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한다. 어떤 아가씨가 처음 보자마자 이상(理想)에 눈뜨게 할 만큼 깊은 인상을 남기지 못한다면, 현실은 대체로 각별히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반대로 그만큼 깊은 인상을 준다면 아무리 세상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도 약간은 압도당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자신의 솜씨나 퀘뚫어 보는 눈이나 승리를 확신할 수 없는 사람에게 나는 이러한 최초의 상태에서 공격할 것을 언제나 권고할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바로 압도당하기 때문에, 그는 초자연적인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압도당하고 있다는 것은 공감(共感)과 이기심(利己心)의 이상한 혼합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향락을 놓치게 된다. 그는 스스로 상황 속으로 끌려 들어가서 상황 속에 숨어 버리기 때문에 상황을 향락하지 못하는 것이다.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결정하기는 어렵지만, 무엇이 가장 관심을 끄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기는 쉽다. 그러나 가능한 한 경계선에 접근하는 것은 언제나 좋은 일이다. 이야기로 본래의 향락이며 다른 사람이 무엇을 향락하고 있는지 나는 전혀 모르는 것이다. 단순한 소유는 사소한 것이며 이러한 연인들이 사용하는 수단은 대체로 매우 빈약하다. 그들은 돈이나 권력이나 다른 사람의 영향력이나 수면제 등을 사용하는 것도 사양하지 않는다. 절대적인 헌신, 곧 어떤 한 사람의 헌신이 사랑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사랑에 어떤 향락이 있을 것인가.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정신이 필요한데 단순한 소유만을 바라는 연인들에게는 보통 정신이 결여되어 있다.

19일

그런데 그녀의 이름은 코델리아다, 코델리아! 아름다운 이름이다. 이것도 중요한 일이다. 가장 우아한 진술과 결합시켜서 아름답지 못한 이름을 말해야 한다는 것은 흔히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미 멀리서도 그녀를 알아보게 되었다. 그녀는 다른 두 아가씨와 함께 왼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들의 걸음걸이로 보아 곧 멈춰 설 것 같았다. 나는 길모퉁이에 서서 나의 미지의 아가씨를 놓치지 않고 바라보면서 극장 광고를 읽고 있었다. 아가씨들은 작별했다. 두 아가씨는 약간 지나쳐 온 듯 되돌아서서 걸어갔다. 그녀는 곧장 내가 서 있는 길모퉁이로 걸어왔다. 그녀가 두세 걸음을 옮겨 놓았을 때 두 아가씨 중 한 아가씨가 뒤쫓아오며 나에게 들릴 정도로 큰 목소리로 외쳤다. “코델리아! 코델리아!” 다른 아가씨도 따라왔다. 세 아가씨는 이마를 맞대고 밀담을 나누었다. 나는 청각을 긴장시키고 그들의 비밀을 엿들으려고 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러자 세 아가씨는 소리 내어 웃고 먼저보다 빠른 걸음으로 두 아가씨가 가던 방향으로 걸어갔다. 나는 뒤쫓아갔다. 그들은 강기슭의 어떤 집으로 들어갔다. 코델리아가 곧 혼자서 돌아갈 가능성이 많을 듯 했으므로 나는 잠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는 않았다.

코델리아! 참으로 아름다운 이름이다. 리어 왕의 셋째 딸, 곧 마음을 말로 나타내지 않고 마음이 넘칠 때에도 입술은 침묵을 지키고 있던, 저 뛰어난 아가씨<sup>34</sup>도 같은 이름이었다. 나의 코델리아도 마찬가지다. 그녀가 리어 왕의 딸과 비슷하다는 걸 나는 확신하고 있다. 다른 의미에서 그녀의 마음은 입술에 살고 있지만 말의 형식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키스의 형식으로 보다 성실하게 살고 있다. 그녀의 입술에는 얼마나 건강이 넘쳐흐르고 있는가! 나는 이 입술보다 더 아름다운 입술을 본 적이 없다.

34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의 〈리어 왕〉 참조. 코델리아는 리어 왕의 셋째 딸로, 소박하고 착한 아가씨이다. 두 언니는 아버지를 속였으나 코델리아는 정직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노여움을 사지만 아버지가 미쳤을 때 도와주려고 한다. 제1막 제1장에서 코델리아는 “나는 불행하게도 내 마음을 입술 까지 밀어 올릴 수가 없다”는 말을 한다. 한편 레기네 올센의 동생 이름도 코델리아였다.

내가 정말로 사랑에 빠져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게조차도 이 사건을 거의 은밀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다. 모든 사랑은, 성실하지 못한 사랑조차도 적당한 미학적 계기(美學的契機)를 갖고 있는 한 은밀하다. 나는 함께 알고 있는 사람을 바라거나 나의 모험을 자랑하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예컨대 그녀의 집을 알지 못하고 그녀가 가끔 찾아가는 곳만 알고 있다는 것조차도 거의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아마도 나는 이러한 사실 때문에 더욱 내 목적에 가까워졌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녀의 주의를 끌지 않고 그녀를 관찰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안전한 입장에서 그녀의 가정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일 것이다. 반대로 이러한 사정이 난점이라는 게 밝혀진다면—좋아! 나는 이 난점조차도 받아들이겠다. 나는 단호하게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며 따라서 나는 사랑도 단호하게 한다.

## 20일

오늘 나는 그때 그녀가 들어간 그 집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그것은 신의 축복을 받을 만한 세 딸을 데리고 사는 미망인의 집이다. 여기서는 정보는 넘쳐흐를 만큼 입수할 수 있다. 단지 세 딸이 알고 있는 한도 안에서지만. 단 한 가지 난점은 삼자승(三自乘)된 정보를 이해하는 일이다. 세 딸은 모두 수다스럽기 때문이다. 그 아가씨의 이름은 코델리아 바알이고 해군 대령의 딸이다. 아버지는 수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매우 엄격한 분이었다. 그녀는 지금 고모, 곧 아버지의 누이동생 집에서 살고 있는데, 고모는 그 성품이 오빠와 비슷하지만 다른 점에서는 매우 존경할 만한 부인이라고 한다. 이것은 매우 좋은 일이지만 세 딸은 이 집에 대해 더 이상 알지 못한다. 세 딸은 그녀의 집에 간 적이 없고 코델리아가 그들을 찾아온다. 그녀와 세 딸 중 두 아가씨는 왕실 요리실(王室料理室)로 요리를 배우러 다닌다.<sup>35</sup> 그러므로 그녀는 흔히 오후 일찍, 때로는 오전 중에 찾아

35 1860년까지 덴마크에서는 상류 사회의 아가씨들은 왕실 요리실에서 고급 요리를 배웠다고 한다.

오지만 저녁에 오는 일은 없다. 그들은 매우 쓸쓸하게 살고 있다.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이고, 코델리아의 집으로 들어갈 다리는 보이지 않는다.

이 이야기에 의하면 그녀는 삶의 고통에 대해서, 삶의 그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그녀에 대해 이런 점을 상상한 사람이 있었을까? 그러나 이러한 기억은 더 어렸을 때의 일이리라. 그것은 그녀가 분명하게 알지 못한 채 생활해 온 지평선(地平線)이다. 이렇게 된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다. 이것이 그녀의 여자다움을 지켜 주어 그녀는 엉망으로 되지 않았던 것이다. 한편 이러한 기억을 올바르게 회상할 줄 안다면 그것은 그녀의 향상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온갖 일은 일반적으로 인간을 좌절시키지 않는 한 자랑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그녀는 전혀 좌절하지 않은 것이다.

## 21일

그녀는 성벽(城壁) 근처에서 살고 있다. 이 장소는 아주 형편이 좋지 않은 곳으로 사귈 만한 건넛집도 없고 숨어서 관찰할 만한 광장도 없다. 성벽 자체도 마땅치 못해서 사람들의 눈에 쉽게 뛴다. 거리를 따라 걸어간다 하더라도 성벽 저쪽으로 가는 것은 좋지 않다. 이곳은 사람이 다니지 않아서 너무나 눈에 잘 띠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집에 꼭 붙어서서 걸어가야 하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모퉁이 집인 것이다. 이웃에 집이 없어서 뜰로 난 창을 거리에서 볼 수 있다. 아마도 거기에 그녀의 침실이 있으리라.

## 22일

오늘 처음으로 얀센 부인 댁에서 그녀를 만났다. 그녀는 나를 만난 것을 대단하게 여기는 것 같지 않았고 오히려 전혀 주의하지 않는 듯했다. 나는 더 잘 관찰하기

위해 가능한 한 눈에 띄지 않도록 행동했다. 그녀는 잠시 동안 머물러 있었다. 그녀는 왕실 요리실에 가는 얀센의 딸들을 데리러 왔던 것이다. 얀센의 두 딸이 준비를 하는 동안 나와 그녀만이 거실(居室)에 남아 있었다. 나는 냉담하고 거의 무시하는 듯 무관심한 태도로 그녀에게 몇 마디 말을 했는데 그녀는 오히려 아주 대담하게 대답했다. 이제 그들은 갔다. 나는 그들을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할 수도 있었으며 그랬더라면 신사임을 알리는 데 부족함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러한 방식으로는 그녀의 마음에 들 수 없다는 걸 벌써부터 확신하고 있었다.—오히려 그들이 떠난 다음 곧 나도 떠나기로 했다. 다만 그들보다 더 빨리 다른 길로 역시 왕실 요리실 쪽으로 걸어갔고 그들이 대왕(大王) 거리를 돌아서려고 할 때 급히 그들 곁을 지나치게 되었으나 인사도 하지 않았더니 그들은 깜짝 놀랐다.

### 23일

그녀의 집에 드나들게 되는 건 나에겐 꼭 필요한 일이다. 나는 이 점에서는 군대용어로 말해서 사격 준비 완료의 상태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지루하고 힘든 일이 될 것 같다. 내가 아는 한 이렇게 문을 닫고 사는 가정도 없다. 그녀와 그녀의 고모뿐인 것이다. 형제도 사촌도 없고 붙잡을 만한 가느다란 실도 없고 팔을 잡아 줄면 친척도 없다. 나는 언제나 한 팔을 늘어뜨리고 걸어 다니지만 지금으로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의 팔을 잡고 싶지는 않다. 나의 팔은 언제나 쓸 수 있는 쇠갈퀴여야 하며, 나의 팔은 아주 먼 곳에서 아주 먼 친척이나 벗이 나타나서 멀리서나마 나를 약간 도와주게 될지도 모를 막연한 행운의 돌발(突發)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발판 기어오르기를 하고 있다. 어쨌든 한 가정이 고립해서 산다는 건 옳지 못하다. 여기서 생기는 다른 위험한 결과는 제쳐 놓더라도 가엾은 아가씨가 세상을 배울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반드시 좋지 않은 보상을 받게 된다. 혼담도 마찬가지다. 물론 이렇게 고립해서 살면 작은 도적을 막을 수는 있을 것이다. 매우 사교적인 집에서는 기회가 도둑이 된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치

않다. 이러한 아가씨는 흄칠 만한 걸 별로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열여섯 살 쯤 되면 이런 아가씨의 마음속은 이미 남자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으며, 나는 이미 많은 남자들이 그 이름을 적어 놓은 곳에 내 이름을 덧붙이고 싶지는 않다. 나는 유리창이나 솔집이나 프레데릭 스베르크 공원의 나무나 벤치에 내 이름을 적어 놓으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 27일

그녀를 관찰하면 할수록 그녀가 완전히 자립적인 성품이라는 나의 확신은 더욱 굳어진다. 남자는 이런 성품을 가져서는 안 되며 특히 청년은 그렇다. 남자의 발전은 본질적으로 반성에 의거하고 있으므로 남자는 다른 사람과 관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젊은 아가씨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아도 괜찮다. 예컨대 예술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언제나 예술가의 재현(再現)인 것처럼, 관심을 끄는 것에는 언제나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관심을 끌어서 남의 마음에 들게 되려고 하는 젊은 아가씨는 사실은 자기 자신의 마음에 들고 싶은 것이다. 이것은 미학적(美學的) 견지에서 온갖 교태(嬌態)에 대해 제기할 만한 반대이다. 자연의 독특한 운동인, 저 비본래적(非本來的)인 교태, 예컨대 여자가 부끄럼을 타는 것—이것은 언제나 아름다운 교태다—이것은 사정이 전혀 다르다. 물론 관심을 끄는 이런 아가씨는 남의 마음에 들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그녀가 여자다 움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녀의 마음에 드는 남자도 일반적으로는 역시 남자답지 못하다. 이러한 젊은 아가씨는 원래 남자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비로소 관심을 끌게 된다. 여자는 보다 약한 성(性)이긴 하지만, 젊었을 때 자립적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남자들보다는 여자에게 훨씬 필요하다. 여자는 자족(自足)할 줄 알아야 하지만 여자를 자족하게 하는 것은 환상이다. 이것은 자연이 공주(公主)로서의 여자에게 마련해 준 지침금이다. 그러나 이렇게 환상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여자를 고립시키는 것이다. 젊은 아가씨의 경우 다른 젊은 아가씨들과 자주 교제하는

것만큼 해로운 것은 없다는 사실은 어디에서 연유하는가를 나는 가끔 곰곰이 생각해 봤다. 분명히 그 까닭은 이러한 교제가 어중간하다는 데 있다. 이러한 교제는 환상을 방해할 뿐 환상을 해명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남성의 반려(伴侶)가 되는 것은 여자의 깊은 사명이지만<sup>36</sup> 여성과의 교제를 통해 여자의 반성은 쉽게 이러한 교제에 돌려지고 이러한 교제는 여자를 한 반려로부터 사교부인(社交婦人)으로 변모시킨다. 이 점에서는 말 자체가 의미심장하다. 곧 남자는 주인이라고 불리지만 여자는 하녀 또는 그 비슷한 말로 불리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본질적 규정이 이용된다. 곧 여자는 반려이고 사교부인은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아가씨의 이상(理想)에서 본다면 아가씨는 언제나 세상에 홀로 서 있어야 하고 따라서 자기 자신을 의지할 뿐, 여자 친구를 가져서는 안 된다. 물론 그라찌에<sup>37</sup>는 세 명이었다. 그렇지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한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들은 말 없는 삼인일조(三人一組)로서 여성적인 아름다움의 통일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나는 다시금 옛날의 치녀방<sup>38</sup>을 상상할 뻔했다. 이러한 강제가 다시 해로운 작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지만. 젊은 아가씨에게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그녀에게 자유는 주되 기회는 주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아름다워지고 동시에 관심을 끄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젊은 아가씨들과 자주 교제하는 아가씨에게 처녀의 베일이나 신부의 베일을 씌우는 것은 소용없는 짓이다. 반대로 보다 깊고 본래적인 의미에서 순결한 아가씨는 신부의 베일을 씌우는 관습이 없더라도 베일을 쓰고 자기에게 온다는 사실을 충분한 미학적 감각을 가진 사람은 알게 될 것이다.

그녀는 엄격한 교육을 받았고 그 때문에 나는 무덤 속 그녀의 어버이에게 경의를 표한다. 그녀는 매우 쓸쓸하게 지냈다. 그 때문에 나는 그녀의 고모의 목에 매달리고 싶다. 그녀는 세상의 기쁨을 모르고 어리석은 포만(飽滿)도 모른다. 그녀는 궁지가 높고 다른 젊은 아가씨들이 기뻐하는 일에 반항한다. 이것은 좋은 일이다. 이

36 〈창세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돋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11장 18절)’라는 말과,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3장 16절)’라는 말이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다.

37 그라찌에(Grazia)는 로마 신화의 우아함을 상징하는 여신으로 세 자매이다.

38 옛날 북구(北歐)에서 처녀를 집단적으로 감금했던 방.

것은 진실에 맞지 않는 일이지만 나는 여기서 이익을 찾아낼 줄 안다. 장식(裝飾)이나 사치는 그녀에게는 다른 젊은 아가씨들의 경우와 같은 의미에서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 그녀는 약간 논쟁을 좋아하지만 몽상(蒙想)을 가진 젊은 아가씨의 경우 이것은 불가피하다. 그녀는 환상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 만일 그녀가 부당한 녀석의 손에 떨어진다면, 그녀에게는 너무나 많은 여자다움이 있으므로 그녀는 몹시 여자답지 못한 여자가 될지도 모른다.

### 30일

어디서나 우리의 길은 엇갈린다. 오늘 나는 그녀를 세 번 만났다. 나는 그녀의 매우 드문 외출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며, 어디서 그녀와 마주치는 게 좋은지도 잘 안다. 그러나 나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이러한 지식을 남용하지는 않는다. 반대로 나는 무서울 만큼 낭비를 한다. 때로는 몇 시간씩 기다리다 만난 것조차도 사소한 것으로 낭비해 버린다. 나는 원래 그녀와 만나는 게 아니라 그녀 존재의 가장 먼 주변에 접촉할 뿐이다. 그녀가 얀센 부인 댁으로 온다는 걸 알고 있을 때에도 특별한 관찰을 해야 할 중요한 경우 이외에는 가능한 한 그녀와 만나는 걸 피한다. 나는 약간 일찍 얀센 부인 댁에 가서 가능하면 그녀는 들어오고 나는 나가다가 문이나 계단에서 마주치도록 한다. 그리고 나는 무관심한 듯이 지나친다. 이것이 그녀를 사로잡게 될 첫 번째 그물이다. 거리에서 나는 그녀를 불러 세우거나 인사를 나누지 않고 결코 그녀에게 접근하지 않으며 단지 멀리서 바라볼 뿐이다. 물론 우리가 자주 마주치게 되는 것은 그녀의 주목을 끌었으며 그녀는 그녀의 지평선 위에 새로운 천체(天體)가 나타나서 그 궤도가 이상하게도 방해가 될 것 같지 않은 방식으로 그녀의 궤도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나, 이러한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법칙에 대해서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으며, 오히려 마치 대척자(對蹠者)처럼 자기야말로 목표점임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이 운동의 목표점을 찾아내려는 듯 좌우를 두리번거린다. 그녀의 생각도 나의 보통 친구들의 생각과 같다. 곧 그들은

내게는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항상 움직이지 않을 수 없고 피가로<sup>39</sup>와 마찬가지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음모를 한꺼번에.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격을 시작하기 전에 나는 그녀와 그녀의 모든 정신 상태를 알아야 한다. 대부분 사람은 샘페인 한 잔을 즐기듯 거품이 일고 있는 순간에 젊은 아가씨를 즐긴다. 사실 이것은 멋진 일이고 대부분 젊은 아가씨에게는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상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이상의 것이 있다. 개성이 명료성(明瞭性)과 투명성(透明性)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약하다면 명료하지 못한 채로 즐기는 것도 괜찮다. 그러나 그녀는 분명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 사랑을 통해 혼신에 눈뜨게 될수록 관심도 더욱 깊어진다. 이러한 순간적인 향락은 외적(外的)인 의미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정신적인 의미에서는 강간이며, 폭행에는 상상적인 향락이 있을 뿐이다. 폭행은 훔친 키스와 마찬가지로 보잘것없다. 오히려 그녀로 하여금 몸을 맡기는 것을 자신의 자유에 대한 유일한 과제로 생각하게 하고 몸을 맡김으로써 모든 행복을 찾아내고 거의 해결하듯이 혼신을 갈망하면서도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한다면 여기에 비로소 향락이 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정신적 영향이 필요하다.

코델리아! 참으로 멋진 이름이다. 나는 방에 앉아서 앵무새처럼 말하는 연습을 하고 있다. 코델리아, 코델리아, 나의 코델리아, 그대 나의 코델리아라고. 내가 언젠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 말을 익숙하게 말할 걸 상상하면 미소가 저절로 떠오른다. 인간은 언제나 예습을 해 두어야 하며 모든 일에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처음으로 ‘당신’이라고 부른 그 순간, 곧 물을 뿌리는 세례에 의해서가 아니라(물론 이 이상 더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사랑의 바다에 몸을 잠그는 세례에 의해 연인들은 낡은 인간으로부터 벗어나 이 세계에 의해 방금 거듭 태어났으면서도 지금 비로소 서로를 옛날부터 알던 사람들처럼 올바르게 알게 되는 그 순간을 시인들이 언제나 묘사하고 있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젊은 아가씨에겐 이 순간은

39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Le Nozze Di Figaro)> 제2막 제5장 참조.

언제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며, 이 순간을 바르게 즐기기 위해서는 언제나 약간 쯤 위에 서 있어야 하므로 우리는 단지 세례를 받는 자일 뿐 아니라 동시에 세례를 주는 자이다. 약간의 아이러니가 있으면 이 순간의 다음 순간은 가장 관심 있는 순간이 된다. 그것은 정신적인 탈의(脫衣)인 것이다. 우리가 이 막(幕)을 망치지 않으려면 매우 시적(詩的)이어야 하지만 장난꾸러기도 항상 매복하고 있어야 한다.

### 6월 2일

그녀는 기품이 높다. 나는 벌써부터 이 점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얀센 부인의 세 딸과 함께 있을 때에는 거의 말을 하지 않으며 세 딸의 수다에 분명히 싫증이 났다는 것을 입가에 떠도는 미소로 암시하고 있다. 나는 이 미소에 의지하고 있다. 때때로 그녀는 거의 소년처럼 거친 태도를 보여서 얀센 부인의 딸들을 깜짝 놀라게 한다. 그녀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나로서는 이러한 태도를 이해할 만하다. 그녀에게는 한 살 위의 오빠가 한 명 있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와 오빠만을 알았고 때로는 엄숙한 장면도 목격했으므로 보통 아가씨들의 수다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녀의 양친은 모두 행복하지는 못했다. 보통은 혹은 분명하게 혹은 애매하게 젊은 아가씨를 유혹하는 것도 그녀에겐 유혹이 되지 못한다. 젊은 아가씨가 원래 어떤지를 그녀는 모른다고 말할 수도 있으리라. 어쩌면 그녀는 어떤 순간에는 아가씨가 아니라 남자이기를 바랄지도 모른다.

그녀는 상상력, 영혼, 정열, 곧 온갖 본질적 내용을 갖고 있지만 주관적으로 반성하지는 않는다. 오늘 우연한 기회에 나는 이 점을 매우 확실하게 알았다. 나는 피르마 얀센으로부터 그녀가 고모의 원칙과 어긋나기 때문에 음악을 배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나는 이 점을 언제나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음악은 전문가인 체하지 않도록 조심만 한다면 젊은 아가씨와 접근하고 그녀의 마음을 사는 좋

은 수단이기 때문이다. 오늘 나는 얀센 부인 댁에 갔을 때 노크도 하지 않고 문을 반쯤 열었다. 이것은 무례한 행동이지만 흔히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 따라서 나는 꼭 필요한 경우에는 열려 있는 문을 노크하는 등 우스운 행동으로 보상을 한다.—그녀는 혼자서 방 안의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그녀는 몰래 연주하고 있는 것 같았다.—그것은 스웨덴의 소곡(小曲)이었다.—그녀의 솜씨는 서툴고 조급했으나 이윽고 다시 평온한 소리를 내게 되었다. 나는 문을 닫고 그녀의 기분 변화에 귀를 기울이면서 문밖에 서 있었다. 때때로 그녀의 연주에는 처녀 메테릴<sup>40</sup>을 생각하게 하는 정열이 나타났다. 메테릴은 유방에서 젖이 솟아나오듯 금으로 만든 수금(豎琴)을 탔던 것이다.—그녀의 연주에는 어떤 우수(憂愁)가 감돌고 있었으나 또한 열광적인 면도 있었다.—나는 이 순간을 붙잡기 위해 뛰어들고 싶었다.—이것은 어리석은 짓이리라.—회상(回想)은 보존의 수단일 뿐 아니라 고양(高揚)의 수단이고 회상에 잡기는 것은 이중의 효과를 갖는다.—책 속에는, 특히 노래책 속에는 흔히 작은 꽃이 들어 있다.—이 꽃을 꺾어 넣게 한 것은 아름다운 순간이지만 그 회상이 더욱 아름답다. 그녀가 피아노를 칠 줄 안다는 것을 비밀로 해 둔 것은 분명하다. 혹은 다만 스웨덴의 이 소곡(小曲)만 칠 줄 아는 것일까.—이 소곡은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나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언젠가 내가 그녀와 보다 친밀하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슬쩍 그녀를 이 사건으로 끌어들여서 함정에 빠지게 하리라.

## 6월 3일

그녀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지 내 마음은 막연하기만 하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사실 땅바닥에 엎드려서 다가오는 적의 희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전초선(前哨線)의 병사와 똑같은 것이다. 본래 나는 그녀에 대해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소극적 관계라는 의미에서

40 민요에 나오는 처녀의 이름.

가 아니라 전혀 관계가 없다는 의미에서. 또한 나는 전혀 실험해 보지도 못했다.—보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같은 것이라고 소설에는 씌어 있다.—사실 사랑에 어떠한 변증법도 없다면 이 말은 진실이리라. 그러나 사랑에 대해 소설에서 도대체 무엇을 배우는가? 문제를 단순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순전한 거짓말뿐이다.

지금 내가 가진 정보에 따라 처음 만났을 때 받은 인상을 돌이켜 보면, 그녀에 대한 나의 표상(表象)은 분명히 변했지만 그녀에게나 나에게나 유리한 것이다. 젊은 아가씨가 쓸쓸하게 지내거나 외부에 문을 닫고 지내는 것은 평범한 일은 아니다. 그녀는 내 비판의 엄밀한 기준에 따라 검토해 보아도 우아하다. 그런데 우아함은 어제 지나가 버린 날처럼 지나가 버리는 너무나 덧없는 계기다. 나는 그녀를 그녀가 살고 있는 환경과 관련시켜 상상해 본 적은 없었다. 그러나 반성 없이 삶의 폭 풍우와 친숙해졌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다.

그녀의 감정 상태를 꼭 알고 싶다. 그녀가 누구를 사랑한 적이 없다는 건 분명하다. 그녀의 정신적 비상(飛翔)은 너무나 자유롭고, 그녀는 조숙하게 남자의 품에 안긴 자기를 익숙하게 상상하는 머리만 빌랄한 경험을 한 처녀도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그녀가 만났던 현실의 인물들은 꿈과 현실의 관계를 몽롱하게 만들지 못했다. 그녀의 영혼은 아직도 신(神)의 암브로시아<sup>41</sup>의 이상으로부터 영양을 섭취한다. 그렇지만 그녀의 눈앞에 어른거리는 이상은 양(羊)치는 소녀나 소설의 여주인공, 곧 사랑하고 있는 여인이 아니라 잔 다르크나 그 비슷한 인물이다. 그녀의 여자다움이 그녀로 하여금 자기반성을 하게 할 만큼 충분히 강한가, 또는 단지 아름다움과 우아함으로서 향락되기를 바라는가 하는 점에 언제나 문제가 있다. 곧 문제는 활을 더 높이 겨냥해도 좋은가 하는 것이다. 순수하고 직접적인 여자다움을 찾아내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감히 전환(轉換)을 구한다면 우리는 관심을 끄는 것을 얻게 된다. 이 경우에는 아주 얌전한 구혼자가 여자의 목에 매달리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이다. 이런 일이 젊은 아가씨에게 해롭다는 것은 많은

41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음식.

사람의 미신에 지나지 않는다.—물론 그녀가 생명 속에 단 한 가지 극치(極致)를 갖고 있는 매우 연하고 약한 식물이라면 사랑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들려주지 않는 게 좋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사랑에 대해 들려주는 것은 유익하며, 나는 구혼자가 없는 경우에는 구혼자를 구해 주는 것도 사양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구혼자는 희화적(戲畫的) 인물이어서는 안 된다. 희화적 인물인 경우에는 얻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 인물은 참으로 훌륭한, 그리고 가능하다면 사랑할 만한 젊은이여야 하지만 그녀의 정열에 충분히 어울리는 청년이어서는 안 된다. 그녀는 이러한 청년을 경멸하고 사랑에 대해 혐오를 느낄 것이며,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알고 현실이 제시하는 것을 볼 때, 그녀 자신의 현실적 존재에 거의 절망할 것이다. 사랑이 이 이상의 것이 아니라면 대단한 게 아니라고 그녀는 말할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사랑에서 궁지를 느끼고, 이러한 궁지가 그녀를 관심 있는 것으로 만들고 그녀의 본성(本性)에서 보다 높은 장밋빛 광채를 반짝이게 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타락에 가까워지지만 이것은 그녀를 더욱 큰 관심의 대상으로 고양 시킬 뿐이다. 한편 이러한 구혼자가 이미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그녀의 친구들을 확인해 보는 게 최상책이리라. 그녀의 집에서는 구혼할 기회가 없다. 그녀의 집에 드나드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는 외출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구혼자를 만날 수는 있다. 구혼자가 있는지 없는지 알기 전에 구혼자를 구해 주는 것은 역시 생각해 볼 문제다. 두 구혼자가 다 대단하지 않으면 그들을 비교함으로써 그녀에게 해로운 작용을 할지도 모르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그녀의 집으로 밀고 들어갈 만한 용기가 없는 연인, 곧 이런 수도원(修道院) 같은 집에서는 훔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낚 도둑놈 같은 자가 숨어 있거나 않은지 조사해 보려고 한다.

결국 언제나 흥미 있는 상황 속에서 그녀와 접촉한다는 것이 전술적(戰術的) 원리, 곧 이 원정(遠征) 중의 모든 행동에 대한 법칙이다. 따라서 관심을 끄는 것이야 말로 전투가 수행되어야 할 싸움터이고 관심을 끄는 것의 잠재력(潛在力)이 텅진 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전적으로 잘못이 아니라면, 그녀의 성향(性向) 전체가 이와 같이 되어 있으므로 내가 갈망하는 것은 바로 그녀가 줄 수 있는 것, 사실상 그

녀 자신이 갈망하는 것이다. 각각의 여자가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따라서 그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탐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의 이야기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언제나 현실성을 갖고 삶의 한 계기, 곧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교양(教養)의 한 단계를 이루며 때로는 어떤 숙련(熟練)과 결부되어 있다. 나는 나의 첫사랑의 아가씨 때문에 춤을 배웠고, 어떤 작은 댄서 때문에 프랑스어 회화를 배웠다. 그때 나는 모든 바보들과 마찬가지로 시장에 나갔다가 가끔 바보 취급을 당했다. 이제 나는 선매(先買)를 하려고 한다.<sup>42</sup> 그런데 어쩌면 그녀는 관심을 끄는 한 면을 텡진했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은둔 생활은 이 점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첫눈에는 그녀의 관심을 끌지 못하지만 바로 이러한 장애 때문에 그녀의 관심을 끌게 되는 다른 면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나는 시적(詩的)인 것이 아니라 산문적(散文的)인 것을 선택한다. 따라서 산문적인 것부터 차수하기로 한다. 처음에는 그녀의 여자다움을 산문적인 분별과 풍자에 의해 중성화(中性化)한다.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또한 바로 중성적인 것, 곧 정신을 통해서. 그녀는 그녀의 눈으로 보아도 여자다움을 거의 상실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를 혼자 감당할 수는 없으므로 내 품속으로 뛰어든다. 그러나 나를 애인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철저하게 중립적이다. 그러면 여자다움이 소생하고 이 여자다움을 유혹해서 최고의 탄력을 갖게 하고 그녀를 현실적으로 타당한 여러 가지 일에 부딪히게 하고, 그녀는 이런 일들을 넘어서고 그녀의 여자다움은 초자연적인 높이에 도달하며, 그녀는 전 세계의 정열을 갖고 나 자신의 것이 된다.

## 5일

멀리 갈 필요는 없었다. 그녀는 호상(豪商) 박스터 댁에 드나들고 있는 것이다. 이 집에서 나는 그녀만이 아니라 나와 마찬가지 상태에 있는 사람도 만났다. 이 집의

42 시장은 사교계를 말하며 선매는 사교계에 나가기 전에 유혹하는 것을 말한다.

아들인 에드바르드<sup>43</sup>는 죽도록 그녀를 사랑한다. 이것은 한쪽 눈을 감고 그의 두 눈을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다. 그는 아버지의 사무실에서 장사를 한다. 그는 예의 바른 사람으로 매우 호감이 가며 약간 수줍지만 수줍다는 것은 그녀의 눈에는 나쁘게 생각되지 않을 것이다.

가엾은 에드바르드! 그는 그의 사랑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전혀 모른다. 저녁에 그녀가 온다는 걸 알면 그는 오직 그녀를 위해서 성장(盛裝)을 하고, 오직 그녀를 위해서 검은 새 양복을 입고, 오직 그녀를 위해서 커프스를 끼고, 그래서 거실에 모여 있는, 모든 점에서 보통 때와 다름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거의 우스운 인물로 된다. 그가 당황하는 모양은 거의 믿을 수 없을 정도다. 그것이 가면(假面)이라면 에드바르드는 나의 위험한 경쟁자가 될 것이다. 당황하는 것을 수단으로 이용 하려면 대단한 기술이 필요하지만 또한 얻는 이익도 크다. 나는 작은 아가씨를 우롱하기 위해 얼마나 자주 당황한 모양을 보였는가. 일반적으로 젊은 아가씨들은 당황하는 남자에 대해 매우 경멸하는 말을 한다. 비록 마음속으로는 좋게 생각하더라도. 약간 당황하는 것은 젊은 아가씨의 허영심에 아첨이 되고 따라서 아가씨는 우월감을 느끼며 이 우월감은 계약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가씨를 잡들게 하면 그녀가 상대자는 당황한 끝에 죽어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회를 틈타서 그녀에게 이쪽은 그런 일은 생각조차 하지 않으며 혼자서 넉넉히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우리는 당황함으로써 남자로서의 의미를 상실하므로, 당황한다는 것은 양성 관계(兩性關係)를 중성화하는 상당히 좋은 수단이다. 그 러므로 그것이 단순한 가면임을 알게 되면 아가씨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아가씨로서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걸 분명히 느낀다. 그것은 마치 젊은이를 너무 오랫동안 어린애 다루듯 했다는 감정이다.

43 에드바르드는 레기네를 놓고 키에르케고어와 경쟁하다가 후에 레기네의 남편이 된 프레데리크 슐레겔(Frederic Schlegel)인 듯하다.

7일

우리는, 곧 에드바르드와 나는 친구가 되었다. 우리 사이에는 그리스의 황금시대<sup>44</sup> 이후로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관계, 곧 참된 우정이 생긴 것이다. 우리는 재빨리 터놓고 지내는 사이가 되었다. 나는 그를 코델리아에 대한 여러 가지 고찰로 끌어들인 다음, 마침내 그로 하여금 마음의 비밀을 털어놓게 했다. 말할 것도 없이 온갖 비밀을 다 털어놓게 되면 이 비밀도 도매금은 넘어오는 것이다. 가엾은 젊은이여, 그는 오래전부터 애태우며 탄식해 왔다. 그녀가 오면 언제나 그는 몸단장을 하고, 저녁에는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고, 그녀의 팔이 그의 팔에 감겨 있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함께 별을 쳐다보며 길을 가고, 그가 그녀의 집 벨을 누르고, 그녀는 사라지고 그는 절망한다.—그러나 다음번에 희망을 거는 것이다. 그렇게 좋은 기회를 가졌으면서도 그는 그녀의 집 문지방을 넘어설 용기가 아직도 없다. 나는 마음속으로 얼마든지 에드바르드를 비웃을 수 있지만 그의 어린애 같은 마음은 아름다운 것이다. 다른 경우라면 나는 에로스적인 것의 영역에는 상당히 숙달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상태, 이러한 불안, 이러한 사모의 전율, 곧 망연자실할 정도의 상태는 경험한 적이 없다. 물론 나도 이미 이러한 상태를 알고 있긴 하지만 나의 경우에는 이러한 상태는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어쩌면 나는 정말로 사모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리라.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 나는 에드바르드를 꾸짖고 내 우정을 믿으라고 격려했다. 그는 내일 대담한 행동으로 나와 직접 찾아가서 그녀를 초대할 작정이다. 나는 그에게 불안한 생각을 일으켜서 나의 동행을 간청하도록 만들었다. 나는 동행을 약속했다. 그는 이것을 각별한 우정의 표시로 생각한다. 내가 소망하던 기회가 온 것이다. 곧 뜻밖의 습격을 하는 것이다. 그 아가씨가 나의 출현을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여긴다면 나의 출현은 다시금 모든 것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대화 내용을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은 지금까지는 나의 습관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고모와 이야기하기 위해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곧 고모와 이야기를

44 고대 그리스에서는 남성끼리의 우정을 최고의 것으로 생각했다.

나눔으로써 에드바르드의 코델리아에 대한 사랑의 행동을 엄호하는 명예로운 역할을 떠맡았던 것이다. 고모는 전에 시골에 살았는데 농업 관계 서적에 대한 나의 치밀한 연구와 고모의 경험에 입각한 보고에 힘입어 나는 지식과 실기(實技)의 면에서 상당한 진보를 했다.

나는 고모의 마음에 쏙 들게 되었다. 고모는 나를 요즈음의 젊은 신사와는 다른 침착하고 견실한 사람이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라고 보았다. 코델리아에게서는 좋은 접수를 받은 것 같지 않다. 물론 그녀는 너무나 순수하고 순진해서 모든 남자가 자기의 비위를 맞춰 주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그녀는 나의 존재에서 너무나 거슬리는 것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아득한 거실에 앉아 있을 때, 코델리아가 마음씨 착한 천사처럼 그녀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기쁨을 나누어 주고 있을 때, 나는 때로는 마음속으로 초조를 느끼고 나의 은신처에서 뛰어나오고 싶다. 나는 거실에서 다른 사람과 앉아 있더라도 역시 매복하고 있는 것과 다행이 없기 때문이다. 누군가 그녀를 나에게서 빼앗아 갈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온몸을 껴안고 그녀를 내 속에 감춰 버리고 싶은 것이다. 혹은 에드바르드와 내가 저녁에 그녀의 집을 떠날 때, 작별 인사로 그녀가 나에게 손을 내밀 때, 내 손으로 그 손을 잡을 때, 때때로 이 새를 내 손에서 다시 빠져나가게 하는 것이 고통스럽다. 참자.—전에는 걱정이었던 것이 지금은 분별이다.—그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내 그물에 걸려들어야 하고 다음에 나는 갑자기 사랑의 온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순간을 훔쳐 먹거나 때 이르게 선취(先取)함으로써 망쳐서는 안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의 코델리아여, 나에게 감사해도 좋다. 나는 대립의 전개(展開)에 노력하고 있으며, 더 깊은 상처를 내기 위해 사랑의 활을 팽팽하게 잡아당긴다. 나는 궁수(弓手)처럼 활시위를 늦췄다가 다시 잡아당기며 활시위의 노래를 듣는다. 이것은 나의 싸움의 노래이지만 나는 아직도 겨냥을 하지 않았고 아직도 활시위에 화살을 걸지 않았다.

소수의 사람들이 자주 같은 방에서 만나게 되면, 어디에 누가 앉는다는 고정된 습관, 각자의 장소가 쉽게 생기며, 그것은 마음대로 펴 볼 수 있는 그림이 되고 지도(地圖)가 된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바알 씨 댁에서 모두 한 장의 그림처럼 지낸다. 밤에는 차를 마신다. 이 무렵이면 그때까지 소파에 앉아 있던 고모는 작은 재봉틀 앞으로 옮겨 간다. 이것은 방금 코델리아가 일어난 자리다. 코델리아는 소파 앞의 차탁(茶卓) 옆으로 옮긴다. 에드바르드는 코델리아를 쫓아가고 나는 고모 곁으로 간다. 에드바르드는 은밀하게 속삭이려고 하며 대체로 속삭이는 데 너무나 능숙해서 마침내 전혀 말이 없다. 나와 고모의 대화는 비밀로 할 필요가 없다. 시장 시세라든가, 유지(乳脂)와 버터 제조기(製造器)의 변증법을 통해 일 파운드의 버터를 얻으려면 몇 리터의 우유가 필요한가 하는 계산 등, 어떤 아가씨가 들어도 해롭지 않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머리와 마음을 향상시키는 견실하고 근본적이고 유익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대체로 나는 차탁 및 에드바르드와 코델리아의 도취(陶醉)에 등을 돌리고 고모와 이야기에 열중한다. 자연은 그 산물(產物)에 있어서 위대하고 현명하지 않습니까, 버터는 얼마나 귀중한 선물이며 자연과 인공(人工)의 얼마나 훌륭한 성과입니까, 따위 이야기를. 에드바르드와 코델리아가 정말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도 고모는 그 이야기를 결코 듣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에드바르드에게 약속한 것이며, 나는 언제나 약속을 지킨다. 반대로 나는 그들이 하는 말을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분명히 들을 수 있고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나에겐 중요한 일이다. 인간은 절망했을 때에는 어떤 무모한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가장 조심스럽고 가장 소심한 사람조차도 때로는 가장 무모한 짓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나는 외로운 두 사람을 조금도 성가시게 굽지 않건만, 코델리아의 태도를 보면 내가 눈에 띠지 않게 코델리아와 에드바르드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우리 네 사람이 그려 놓는 그림은 독특한 그림이다. 잘 알려진 그림을 생각해 본다면, 내가 나 자신을 메피스토펠레스로 생각하는 한, 비슷한 그림을 찾아낼 수도 있

다.<sup>45</sup> 그렇지만 에드바르드는 파우스트가 아니어서 난점이 있다. 나 자신을 파우스  
트로 본다면 에드바르드는 메피스토펠레스가 아니라는 점에 역시 난점이 있다. 게  
다가 나는 메피스토펠레스가 아니고 에드바르드의 눈에는 더욱 그렇다. 그는 나를  
그의 사랑의 좋은 수호신(守護神)으로 생각하며 이것은 잘된 일이다. 적어도 그는  
나 이상으로 그의 사랑을 주의 깊게 지켜볼 사람이 없다는 것을 믿어도 좋다. 나는  
그에게 고모의 이야기 상대가 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 명예로운 역할을 아주 진  
지하게 수행하고 있다. 고모는 거의 우리의 눈앞에서 사라져 농업 문제에만 몰두  
하고 고모와 나는 부엌과 지하실과 다락방으로 가고 닭과 오리와 거위 등을 돌본  
다. 이러한 모든 일은 코델리아를 짜증나게 한다. 내가 본래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그녀가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 나는 그녀에게 수수께끼가 되지만 그녀에게 풀겠다  
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흥분시키고, 격분시키고, 반항하게 하는  
수수께끼다. 그녀는 고모가 거의 우습게 돼 버린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고모는 우습게 될 수 없는 훌륭한 숙녀다. 한편 나는 매우 능숙하게 일을 꾸며감으  
로, 그녀는 내 위치를 동요시키려고 해도 소용이 없음을 통감한다. 때때로 나는 코  
델리아가 은근히 고모를 비웃게 만들기도 한다. 이것은 꼭 해야 할 연습이다. 나는  
코델리아와 결탁한 것처럼 이런 짓을 하는 건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나는 코델리아가 고모를 비웃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변함없이 진지하고 근  
본적이건만 그녀는 웃음을 참지 못한다. 그녀에게 미묘한 웃음을 가르치는 것—이  
것이 최초의 사설(邪說)이다.—그러나 이 웃음은 고모와 마찬가지로 나에게도 해  
당된다. 그녀는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를 너  
무나 조로(早老)한 청년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이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또 다른 생각도 가능할 것이고, 이와 비슷한 제3의 생각도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그녀는 고모를 비웃은 다음에는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낸다. 이럴 때에 나는  
뒤돌아보며 고모와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조카딸을 아주 진지한 시선으로 바라본  
다. 그러면 그녀는 나를 비웃고 상황 전체를 비웃는다.

45 〈파우스트(Faust)〉 제1부에서는 메피스토펠레스의 배려로 파우스트는 그레트헨(Gretchen)과 이야기  
하고 그동안에 메피스토펠레스(Mephistopheles)는 마르테(Marthe)의 상대를 하는 것을 말함.

우리의 관계는 부드럽고 충실한 이해라는 포옹이나 인력(引力)에 의해 규정되지 않고 오해라는 반발 작용에 의해 규정된다. 그녀에 대한 나의 관계는 본래 순수한 무(無)다. 그것은 순전히 정신적인 것이어서 젊은 아가씨와의 관계에서는 당연히 전적으로 무(無)와 같다. 내가 지금 채택하고 있는 방법에는 그 나름의 특별한 편의가 있다. 멋쟁이 남자로 등장하는 사람은 의심을 일으키고 반항을 불러일으키지만 나는 이러한 모든 일로부터 해방되었다. 나를 감시하는 사람은 없으며 오히려 반대로 젊은 아가씨의 감독을 맡겨도 좋을 만큼 믿음직한 사람으로서 나를 선발할 것이다. 이 방법에는 단 한 가지 결점이 있다. 이 방법은 완만하며, 따라서 관심 있는 것을 끌어낼 수 있는 개인을 상대로 사용할 때에만 효과적이다.

젊은 아가씨에게는 젊게 만드는 힘이 듬뿍 있지 않은가. 새벽 공기의 신선함도, 바람의 살랑거림도, 바다의 차가움도, 포도주의 향기도 그 맛도—그렇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이와 같이 젊게 만드는 힘을 갖지 못한다.

그녀는 곧 나를 미워하게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나는 철저하게 독신주의자로 행세해 왔다. 나는 오직 편안하게 앓는 것, 편안하게 눕는 것, 믿을 만한 하인을 거느리는 것, 팔짱을 끼고 걸을 때 믿음직스러운 확실한 친구 등에 대해서만 말한다. 이제는 고모의 농업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그만두게 할 수만 있다면 아이러니에 이르는 보다 직접적인 계기를 붙잡기 위해, 고모를 이러한 화제로 끌어들이고 싶다. 참된 독신주의자—그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비웃을 수도 있고 약간 동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제정신을 가진 청년이 이러한 태도를 가지면 젊은 아가씨를 분노하게 만든다. 아가씨의 여성으로서의 모든 의의, 그 아름다움과 시(詩)가 무시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가 지나간다. 나는 그녀를 만나지만 그녀와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녀가 있는 곳에서 고모와 이야기한다. 밤이 되면 때때로 내 사랑을 후련하게

밀해 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도 한다. 그럴 때에 나는 외투를 입고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그녀 방의 창문 앞을 서성거린다. 그녀의 방은 안뜰 쪽에 있지만 모퉁이 집이기 때문에 거리에서도 보인다. 때때로 그녀는 잠시 동안 창가에 서거나 창문을 열고, 별을 바라볼 때가 있다. 그녀는 바라보는 사람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설마 하는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밤 시간에 나는 유령처럼 혼매고 유령으로서 그녀가 살고 있는 곳에 머문다. 이럴 때엔 나는 모든 것을 잊고 어떠한 계획, 어떠한 계산도 없으며 오성(悟性)을 집어 던지고 깊은 탄식—이것은 나의 행동의 조직적인 면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 필요한 운동이다—으로 내 가슴을 넓히고 강하게 한다. 다른 사람들은 낮에는 유덕(有德)하고 밤에는 죄를 짓지만 나는 낮에는 변장(變裝)이고 밤에는 욕망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만일 그녀가 이때의 나를 본다면, 만일 그녀가 내 영혼을 들여다본다면—물론 만일이지만.

만일 이 아가씨가 언젠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된다면 그녀는 내가 천생연분의 사내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녀 마음의 움직임은 결혼 생활에서 행복해지기에는 너무나 격렬하고 깊다. 그녀를 평범한 유혹자의 희생물이 되게 하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다. 그녀가 내 손에 들어온다면 그녀는 관심을 끄는 면을 난파로부터 구하게 된다. 그녀는 나와의 관계에서 철학자들의 말놀음처럼 ‘파멸해서 근저에 돌아간다’(zu Grunde gehen).<sup>46</sup>

사실 그녀는 에드바르드의 말을 듣는 데 싫증을 내고 있다. 당연한 일이지만 좁은 범위에 국한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 우리는 더욱 많은 것을 찾아낼 수 있다. 그녀는 때때로 나와 고모의 대화를 엿듣는다. 그때 내가 엿듣는 걸 눈치채면 마치 딴 세상에서 비쳐 오는 번개 같은 암시가 멀리 지평선에 나타나 고모도 코델리아도 깜짝 놀란다. 고모는 번갯불만을 볼 뿐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코델리아는 듣기는 하지

46 덴마크어 원서에도 독일어로 Zu Grunde gehen으로 되어 있다고 하거니와 이것은 이 숙어의 원래의 뜻과 헤겔적 용법을 놓고 말놀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은 ‘파멸한다’는 뜻이지만 헤겔은 ‘근저(根底)에 이른다’는 뜻으로 쓰고 있다. 따라서 키에르케고어는 이 말로 ‘근저에 이르러 파멸한다’는 뜻을 나타냈다고 볼 수도 있다. 사실상 일어 번역자 淩井眞男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

만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그런데 같은 찰나에 모든 것은 다시 정연한 질서로 되돌아가고 고모와 나의 대화도 마치 고요한 밤에 달리는 역마(役馬)처럼 다시금 단조롭게 계속되고, 주전자의 물 끓는 소리가 반주를 한다. 이러한 순간에는 때때로 거실 안은 섬뜩해지기도 한다. 누구보다도 코델리아의 경우에 그렇다. 그녀는 이야기 상대도, 들어줄 상대도 없는 것이다. 그녀가 에드바르드를 상대한다면 그녀는 에드바르드가 당황한 끝에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게 될 위험을 각오해야 한다. 그녀가 돌아앉아 고모와 나를 상대하게 되면 이쪽을 지배하고 있는 안정, 곧 정확한 박자를 가진 단조로운 대화의 진행은 에드바르드의 불안정과 불쾌한 대조를 이루게 된다. 코델리아에게는 고모가 마술에 걸린 것으로 생각되리라는 점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만큼 완전하게 고모는 나의 박자에 따라 움직인다. 이러한 대화에 끼어드는 것도 그녀에게는 불가능하다. 그녀를 분노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나는 그녀를 어린애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그녀를 마음대로 다루기 위해서 이러한 수단을 쓰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방해가 될 것인가를 잘 알고 있다. 그녀의 여자다움을 다시금 순수하고 아름답게 고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나와 고모의 친밀한 관계로 보아 내가 코델리아를 세상모르는 어린애로 다루기는 쉽다. 그렇다고 해서 그녀의 여자다움은 병드는 게 아니고 오직 중성화될 뿐이다. 그녀가 시장의 시세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녀의 여자다움을 손상시키지는 못하지만 시장 시세를 아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그녀를 화나게 하기 때문이다. 고모는 나의 강력한 조력 때문에 이러한 방향에서는 뛰어난 솜씨를 보인다. 고모는 매우 열광적이며 이 점에 대해서는 그녀는 나에게 감사할 만하다. 고모가 나에 대해 못마땅하게 여기는 단 한 가지 점은 내가 무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공석이 된 직위가 화제에 오를 때마다 그 자리야 말로 나에게 어울리는 자리라고 단언하고 가장 진지한 태도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습관으로 삼고 있다. 코델리아는 언제나 이러한 아이러니를 느끼고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내가 바라는 것이다.

가엾은 에드바르드! 내 이름이 프리츠가 아니어서 유감이다. 나의 조용한 사색이

나와 그의 관계에 이를 때마다 나는 언제나 스크리브의 오페레타 <약혼녀>의 프리츠를 상기한다. 게다가 에드바르드는 그의 원형(原型)과 마찬가지로 시민군(市民軍)의 하사(下士)다. 솔직히 말한다면 에드바르드도 매우 재미없는 사람이다. 그는 사물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 그는 언제나 매우 품위 있는 옷차림으로 나타난다.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그에 대한 우정 때문에 나는 가능한 한 너절하게 차리고 나타난다. 가엾은 에드바르드! 나에게 거의 고통스러운 한 가지 점은 그가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를 만큼 나에게 무한한 은혜를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일로 감사를 받는다는 건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왜 그대들은 암전하게 가만히 있지 못하는가? 아침 내내 줄곧 내 방의 차양을 괴롭히고 창경(窓鏡)<sup>47</sup>과 그 끈을 잡아당기고 사 층의 초인종 줄을 희롱하고 유리창을 두드리고, 요컨대 온갖 방법으로 그대들이 거기 있다는 걸 알려서 마치 나를 그대들이 있는 곳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렇다, 날씨는 아주 좋지만 나는 밖에 나갈 기분이 아니다. 집에 있는 걸 방해하지 말아다오.……그대들, 유들유들하고 분방한 남서풍(南西風)이여, 유쾌한 소년들이여, 그대들은 혼자 서도 돌아다닐 수 있지 않은가. 늘 그렇듯이 젊은 아가씨들과 장난이나 하렴. 그렇다, 나는 알고 있다, 그대들처럼 젊은 아가씨를 잘 끌어내서 껴안을 줄 아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젊은 아가씨는 그대들을 뿌리치려고 해도 소용이 없고, 아가씨는 그대들의 올가미에서 벗어날 수 없다.—게다가 아가씨는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대들은 서늘하게 만들어 줄 뿐, 열이 오르게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그대들이나 마음대로 돌아다니려무나. 나는 가만히 놓아두고.……그러면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그대들을 위해 떠드는 건 아니란 말인가.……그럼 좋다. 함께 가지. 단지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콘센스 뉴토르프<sup>48</sup>에 젊은 아가씨가 살고 있는데, 그녀는 매우 아름답건만 뺨뺨스럽게도 나를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게다가 더욱 나쁜 것은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팔을 끼고 산보를 나갈 정도가 되었다. 1시

47 방 안에서 거리를 내다보기 위해 창 밖에 걸어 놓는 거울.

48 코펜하겐의 거리 이름.

쯤 그가 그녀를 데리러 올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따라서 그대들 중에서 가장 강한 바람을 가진 자가 어딘가 가까운 곳에 그가 그녀와 함께 대문을 나오는 순간까지 숨어 있겠다고 나에게 약속해 달라. 그가 스토레 콘센스가데로 돌아서려고 하는 순간, 이 분견대(分遣隊)가 돌진하여 가장 정중한 방식으로 그의 머리에서 모자를 벗기고, 이 모자를 일정한 속도로, 꼭 일 엘레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굴려 가라. 더 이상 빨라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가 되돌아간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줄곧 다음 순간에는 모자를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가씨의 팔을 놓지 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대들은 그와 그녀를 스토레 콘센스가데를 거쳐, 북문(北門)으로 통하는 둑을 따라 호이브로 광장(廣場)까지 데려가라.……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 나는 약 삼십 분쯤이라고 생각한다. 정확히 1시 반에 나는 에스터가데로부터 그곳으로 간다. 그런데 그 분견대가 사랑하는 한 쌍을 광장 한가운데까지 데려오면 두 사람에게 맹렬한 공격을 퍼부어라. 이 공격으로 그대들은 그녀의 모자를 벗겨 내고 머리를 흐트러뜨리고 솔을 날려 버리고, 한편 남자의 모자는 유쾌하게 공중 높이 날아오르게 하는 것이다. 요컨대 그대들은 혼란을 일으켜서 나만이 아니라 존경할 만한 모든 관객이 폭소를 터뜨리고 개들이 짖기 시작하고 탑지기가 좋을 치게 하는 것이다. 그녀의 모자가 나에게로 날아와서 내가 그 모자를 그녀에게 건네주는 행운아가 되도록 꾸미는 것이다.—둘째 조건, 나를 따라오는 분견대는 나의 온갖 신호에 복종하고 예의를 지켜서 아름다운 아가씨에게 결코 불쾌감을 주지 말아야 하고 이 장난을 통해 줄곧 그녀의 어린애 같은 영혼이 기쁨을, 그녀의 입술이 미소를, 눈이 침착함을 잃지 않고 마음에 불안이 생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자유롭게 행동해야 한다. 그대들 중의 단 한 명이라도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대들의 명성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그러면 삶과 기쁨을 향해, 젊음과 아름다움을 향해 나아가자. 내가 자주 보았으면서도 언제까지나 싫증을 내지 않을 것을 보여다오, 아름다운 젊은 아가씨를 보여다오, 그녀가 더욱 아름다워질 만큼, 그녀의 아름다움을 내 눈앞에 드러나게 해다오. 그녀가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길 방식으로 그녀를 시험해다오. 나는 브레드가데를 선택하지만 그대들이 알다시피 나는 1시 반까지만 틈이 있다.

저기 젊은 아가씨가 온다, 말쑥하게 차려입고. 그렇다, 오늘은 일요일이다.……그녀를 약간 더 애무하고 그녀에게 서늘함을 보내고 부드러운 미풍(微風)이 되어 그녀의 머리 위로 지나가고 그대들의 순진한 접촉으로 그녀를 포옹하라! 뺨이 붉어지고 입술이 더욱 빨개지고 가슴이 뛰는구나.……어떻습니까, 아가씨, 이 신선한 미풍을 들이마시는 것은 형용하기 어려운 일이지요? 지극히 행복한 향락이지요? 웃깃의 작은 장식품이 나뭇잎처럼 흔들린다. 그녀의 걸음은 느려지고 부드러운 미풍이 거의 그녀를 날라가고 있다. 마치 구름처럼 꿈처럼. 좀 더 강하게, 좀 더 긴 호흡으로 불어라.……그녀는 긴장한다. 두 팔을 가슴 가까이에 모아서, 그녀는 바람이 숨어들지 못하도록, 바람이 날렵하고 서늘하게 가벼운 옷 밑으로 기어들지 못하도록 가슴을 조심스럽게 가린다.……그녀의 붉은 뺨은 더욱 건강해지고, 볼은 더욱 부풀고 눈은 더욱 날카로워지고 걸음은 더욱 확실해진다. 모든 시련은 인간을 아름답게 만든다. 모든 젊은 아가씨는 남서풍에 반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남서풍처럼 아가씨와 싸우면서 아가씨의 아름다움을 드높여 주는 남자는 없기 때문이다.……그녀의 몸은 약간 앞으로 굽어지고 머리는 발끝으로 향한다.……잠깐 멈추어라! 이건 너무 강하다. 그녀의 모습은 부풀어 올라서 그녀의 곱고 날씬한 몸매가 사라진다. 그녀를 약간 서늘하게 해 주렴.……그렇지 않습니까, 아가씨, 뜨거워졌을 때 이렇게 신선한 냉기(冷氣)를 느끼는 것은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지요. 사람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삶의 기쁨으로 두 손을 활짝 벌릴 수 있을 것입니다.……그녀는 옆으로 돌아섰다.……이번에는 재빨리 강한 바람을. 내가 그녀의 몸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약간 더 강하게! 옷의 주름이 몸에 착 달라붙도록 그건 너무 강하다! 자세가 볼품없어지고 가벼운 걸음이 흐트러진다. 그녀는 다시 방향을 바꾼다. 자, 불어라, 그녀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시험하게 하라!……이것으로 충분하다. 이건 너무 지나친다. 머리카락이 내려오지 않았는가.……자제하지 않을 셈인가!—저기 일개 연대(聯隊)가 행진해 온다.

한 사람은 굉장히 반했다.

또 한 사람도 반하고 싶은데.<sup>49</sup>

사실 미래 형부의 윈팔을 끼고 걷는 것은 확실히 인생의 초라한 태도다. 아가씨에겐 이것은 남자가 임시 서기로 된 것과 같은 일이다.……그러나 임시 서기는 승진 할 수 있을 게다. 동시에 임시 서기는 사무실에 앉아서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는 않는다. 그러나 처제(妻弟)의 운명은 그렇지 못하다. 그 대신 그녀의 승진은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그녀가 승진해서 다른 사무실로 옮겨 앉는다면.…… 그런데 지금은 빨리 약간 더 날카롭게 불어라! 사람들은 의지할 수 있는 확실한 거점이 있으면 저항할 수 있다.……중심은 강력하게 앞으로 밀고 나가도 날개는 뒤쫓아가지 못한다.……그는 아주 확고하게 서 있어서 바람은 그를 쓰러뜨릴 수 없고, 그러기에는 그는 너무 무겁다.—게다가 날개가 그를 땅에서 들어 올리기에도 너무나 무겁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면서 보여 주려고 한다. 그의 몸이 무겁다는 것을. 그러나 그가 확고부동하면 그만큼 아가씨는 더 고생한다.……아름다운 숙녀여, 내가 좋은 충고를 하기로 하죠. 미래의 남편이나 형부는 데리고 다니지 마십시오. 당신 혼자서 다니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혼자 다니는 게 더 즐겁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이번엔 약간 부드럽게 불어라!……그녀들은 바람의 물결 속에서 비틀거린다. 곧 그녀들은 거리를 내려가서 한옆에서 서로 마주 보는 자세가 된다. 어떠한 무용곡(舞踊曲)도 이보다 더한 즐거움과 쾌활함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건만 바람은 아직도 약해지지 않고 더욱 강해진다.……이제 그녀들은 나란히 둛을 잔뜩 부풀게 하고 거리를 내려간다.—어떠한 왈츠도 젊은 아가씨를 더욱 유혹적으로 빼앗아 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바람은 아직도 지치지 않고 그녀들을 날라가고 있다.……이제 그녀들은 남편이나 형부 쪽으로 돌아선다.……사실상 약간의 반향은 유쾌하며,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싸움도 서슴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들은 반드시 싸움의 목적을 달성한다. 보다 높은 섭리가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보라,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바람을 유리하게 이

49 아이헨도르프(Joseph Karl Benedikt Freiherr von Eichendorff)의 시 <교외에서>에 나오는 시구.

용하지 않는가.……내가 일을 잘못 꾸민 것일까. 바람을 등에 지고 있으면 사람들은 쉽게 애인 옆을 지나쳐 버리지만, 맞바람을 받고 있으면 유쾌한 운동을 하면서 애인 쪽으로 달아날 수 있고, 불어오는 바람은 사람을 더욱 건강하고 더욱 신선하고 더욱 매혹적으로 만든다. 또한 불어오는 바람은 입술이라는 과일을 차갑게 만드는 데 입술은 그 자체가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차게 해서 즐겨야 한다. 마치 그 자체가 얼음처럼 찰 때에 마시는 자를 뜨겁게 해 주는 샴페인처럼.……그녀들은 얼마나 웃고 떠드는가.—그런데 바람은 말을 빼앗아 간다.—도대체 여기서 이야기 할 게 있을까?—그런데 그녀들은 다시 한 번 웃고 바람 속에서 몸을 굽히고 모자를 꽉 잡고 발을 조심한다.……자 멈추어라, 젊은 아가씨들이 화를 내고 우리를 원망하거나 우리에게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바로 그거야, 단호하고 강력하게 원쪽으로 오른쪽으로……그녀는 얼마나 대담무쌍하게 세상을 들려보는가.……내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그녀는 어떤 남자의 팔을 끼고 있고, 그렇다면 약혼한 사이다. 아가씨, 당신의 삶의 크리스마스트리에 어떤 선물이 매달려 있는지 보여 주십시오.……오, 그렇다, 이 사람은 아주 견실한 신랑감인 것 같구나. 그렇다면 그녀는 약혼의 제일 단계에 있고 그녀는 그를 사랑하고 있다.—아마 그럴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사랑은 그의 둘레에서 멀리, 넓게, 자유자재로 날고 있다. 그녀는 많은 사람을 감쌀 수 있는 사랑의 망토를 갖고 있다.……약간 더 강하게 불어라.……그렇다, 그렇게 빨리 걸으면 모자의 리본이 바람을 향해 팽팽하게 되는 건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일이고, 따라서 이 리본이 날개처럼 이 가벼운 여자—또한 그녀의 사랑—를 날라가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그녀의 사랑도 바람에 희롱당하는 요정(妖精)의 베일처럼 함께 따라간다. 그렇다, 사랑이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보면 사랑은 광활한 것 같다. 그러나 사랑을 몸에 걸치려고 하면, 이 베일을 보통 때 입는 옷에 꿰매 붙이려고 하면—삼베 조각만도 못하다.……천만에! 전 생애에 있어서 결정적인 한 걸음을 감히 내디딜 용기를 갖고 있다면, 바람과 정면으로 맞설 용기를 갖지 못할 것인가? 누가 이 점을 의심할 것인가?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흥분하지 말아요, 귀여운 아가씨, 흥분하지 말아요. 시간은 짓궂은 교사(教師)이거나 와 바람도 또한 짓궂지 않겠습니까……그녀를 약간 놀려 주어라……손수건은 어

디로 갔지요?……저것 봐, 당신은 손수건을 간신히 찾아냈군요.……이번에는 모자의 리본이 날아가 버렸어요.……이건 옆에 있는 미래의 남편에게는 너무나 심한 일이군요.……이때에 친구가 한 사람 오는군요. 당신은 인사를 하지 않을 수 없지요. 당신의 친구는 약혼한 당신을 처음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당신은 약혼한 당신을 보이기 위해 여기 브레드가데에 있는 것이고 멀리 랑게리니에까지 가려고 합니다. 내가 아는 한, 부부는 결혼 후 최초의 일요일에 교회에 가고, 반대로 약혼자는 랑게리니에에 가는 게 관습입니다. 사실 약혼은 일반적으로 랑게리니에와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sup>50</sup>……조심하세요, 바람이 모자를 잡고 있습니다. 좀 더 꽉 모자를 잡으세요, 머리도 숙이고……이건 정말 심하군. 결국 당신은 친구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군요. 약혼한 아가씨가 약혼하지 않은 아가씨에게 흔히 하듯이, 거만한 얼굴로 인사할 만한 틈도 없었군요.……이제 약간 부드럽게 불어라!……이제 좋은 때가 다가온다.……그녀는 애인에게 착 달라붙고, 그녀는 그보다 약간 앞서 있으므로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보면서 그를, 그녀의 부(富)를, 그녀의 행복을, 그녀의 희망을, 그녀의 미래를 보며 기뻐할 수 있다.……오, 아가씨, 당신은 그를 대단하게 여기고 있군요.……그렇지만 그가 그렇게 힘차게 보이는 것은 나와 바람 때문이 아닐까요? 당신 자신도 나와 미풍 때문에 지금은 마음이 가라앉고 고통을 잊은 게 아닐까요? 그 때문에 당신 자신도 이렇게 쾌활하고, 이렇게 애모하고, 이렇게 예감에 차 있는 게 아닐까요?

대학생 따위는 난 싫어,  
밤까지 책과 씨름하지.  
나는 멋진 장교가 제일 좋아,  
투구의 장식을 뽐내는.<sup>51</sup>

당신을 보면 이것을 곧 알 수 있어요, 아가씨, 당신의 눈에 써어 있는 걸요.……그 50 랑게리니에는 코펜하겐의 변화가이거니와 그 말뜻은 긴 선(線)이다. 따라서 길고 지루한 약혼 기간이 이와 비슷하다고 하는 것이다.

51 노르웨이 남부 지방 농민의 민요에 나오는 구절이라고 한다.

렇지, 당신에겐 대학생 따윈 절대로 어울리지 않아요.……그러나 왜 장교여야 합니까! 공부를 끝마친 가정교사라면 마찬가지로 좋지 않습니까?……그러나 이 순간 나는 당신에게 장교도 가정교사도 소개할 수 없습니다. 단지 약간의 가볍고 서늘한 미풍을 줄 수 있을 뿐입니다.……이젠 약간 더 강하게 불어라.……그 정도면 됐어. 비단 솔로 어깨를 덮으세요. 아주 천천히 걸어가세요. 그러면 뺨은 약간 덜 붉고 눈빛은 열기(熱氣)를 잃을 겁니다.……네. 그렇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약간의 운동, 특히 오늘처럼 좋은 날씨에 하는 약간의 운동, 그리고 약간의 참을성, 그것으로 당신은 반드시 장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이것은 참으로 잘 어울리는 한 쌍입니다. 걸음걸이가 얼마나 확실한가, 태도 전체에 상호 신뢰에 바탕을 둔 확고함이 얼마나 나타나 있는가, 모든 움직임에 얼마나 예정조화(豫定調和)가 나타나 있는가, 얼마나 근원적인 자기만족이 있는가! 그들의 태도는 경쾌하고 우아하지 않으며 그들은 함께 춤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 그들에게 지속이 있고, 진정한 희망에 눈뜨게 하고 상호 존경을 고취하는 씩씩함이 있다. 나는 내기를 해도 좋거니와, 그들의 인생관은 다음과 같다. 곧 인생은 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손과 손을 잡고 삶의 고뇌와 기쁨을 뚫고 나아가는 것이 그들의 운명인 것 같다. 그들은 너무나 잘 어울려서 숙녀는 편안하게 사는 권리조차도 포기해 버리는 것이다.……그러나 그대들, 사랑스러운 남서풍이여, 왜 그대들은 이 한 쌍의 남녀에 매달려 있는가? 각별히 주목할 만한 것도 없는 듯한데.……각별히 주목할 만한 게 있단 말인가?……그러나 시계는 1시 반이다. 자, 호이브로 광장으로!

한 영혼의 발전사(發展史) 전체를 매우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코델리아가 얼마나 건전한가를 보여 준다. 사실상 그녀는 뛰어난 아가씨다. 확실히 그녀는 조용하고 겸손하고 신중하지만 그녀에게는 무의식중에 엄청난 요구가 잠재해 있다.—오늘 그녀가 밖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보았을 때 나에게는 이러한 생각이 떠올랐다.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생긴 문의 작은 저항이 말하자면 그녀의 내면의 모든 힘을 각성시켰지만 그녀의 마음에 동요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손 안에서 사라져 버릴 보잘것없는

아가씨가 결코 아니며, 사람들이 그녀를 응시하면 쪼개져 버리지 않을까 걱정스러울 만큼 허약한 아가씨도 아니다. 그러나 그녀는 거만하고 화려한 꽃도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마치 의사처럼 만족한 마음으로 이러한 건강한 발전사의 온갖 징후를 관찰할 수 있는 것이다.

점차로 나는 공격에 의해 그녀에게 더욱 접근하고 보다 직접적인 공격으로 옮겨 가기 시작한다. 내가 이러한 변화를 이 가정의 군용지도(軍用地圖) 위에 표시한다면, 나는 이제 그녀의 측면을 향하도록 의지를 돌려놓았다고 말하고 싶다. 나는 지금 그녀에게 참견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고 그녀에게 말을 걸고 그녀의 대답을 유인한다. 그녀의 영혼은 정열적이고 격렬하며 비범한 것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으나 어리석고 공허한 반성 때문에 진기한 것에 지나치게 민감해지는 일은 없다. 내가 인간의 어리석음을 빙정거리고 인간의 나약함이나 인간의 느슨한 무기력을 조롱하면 그녀는 끌려온다. 분명히 그녀는 태양의 수레를 하늘에 달리게 하여 지구에 너무 접근시켜서 인간을 약간 태우는 것<sup>52</sup>을 좋아한다. 그러나 그녀는 나를 믿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나는 정신적 관계에 있어서조차도 온갖 접근을 방해해 왔다. 내가 그녀를 내 옆에서 편안히 쉬게 하기 전에, 그녀는 그녀 자신에 있어서 강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때로는 내가 그녀를 나의 프리메이슨 비밀결사단원<sup>53</sup>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가끔 있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그녀는 자기 자신 속에서 자신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의 탄력을 느껴야 하고, 세계를 평가하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녀가 얼마나 발전했는가는 그녀의 대답과 시선이 나에게 쉽게 보여 준다. 나는 단 한 번 그녀의 시선에서 파괴적인 분노를 본 적이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서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녀는 자유로워야 한다. 오직 자유 속에만 사랑이 있고 자유 속에만 오락이

52 그리스 신화로 태양신 헬리오스의 아들 파에톤은 아버지의 태양의 수레를 빌어서 탔는데, 거친 말을 다를 줄 몰라 지구에 너무나 접근해서 자칫하면 대지를 불태워 버리게 되었으므로 제우스는 변개로 그를 죽여 지구의 대화재를 방지했다.

53 18세기에 성행한 형제애(兄弟愛)의 이상주의적 비밀 결사를 말한다. 여기서는 은밀한 사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그녀가 말하자면 자연적 필연성에 의해 내 품에 안기기를 바라고 그녀가 나에게 이끌려 들어오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녀가 무거운 물체처럼 낙하하는 게 아니라 정신이 정신에 이끌리는 방식으로 내 품에 안기는 것을 나는 중요시한다. 나는 그녀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그것이 그녀가 마치 짐처럼 나에게 의지하는 추악한 일과 동일해서는 안 된다. 그녀는 나에게는 물적 관계(物的關係)에 있어서의 부속물이어서도 안 되고, 도덕적 관계에 있어서의 의무(義務)여서도 안 된다. 우리 둘 사이에서는 자유의 고유한 유희(遊戲) 이외의 것이 지배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녀는 나에 대해서는 내 팔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 만큼 가벼워야 한다.

코델리아는 내 마음을 거의 전부 차지하고 있다. 그녀가 있는 곳에서 그녀와 마주 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 가장 엄밀한 의미에서 그녀와 단둘이 있을 때, 나는 다시금 마음의 균형을 잃는다. 나는 그녀를 그리워할 때도 있으나 그녀와 이야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녀의 모습이 내 옆을 떠돌며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그녀가 외출한 것을 알고 있을 때에 나는 그녀의 뒤를 밟기도 하지만, 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인 것이다. 그저께 밤 우리는 함께 호상(豪商) 박스터의 집을 나섰다. 에드바르드가 그녀를 바래다주었다. 나는 급히 그들과 헤어지고 하인이 기다리는 다른 거리로 서둘러 돌아갔다. 곧 나는 변장을 하고 다시 한 번 그녀를 만났는데, 그녀는 이러한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에드바르드는 이때도 여전히 말이 없었다. 확실히 나는 연모하고 있지만 보통의 의미에서는 아니며, 따라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언제나 위험한 결과가 생기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런 연모는 한 번 뿐인 것이다. 그렇지만 사랑의 신은 장님이므로 잘하면 사랑의 신을 우롱할 수도 있다. 그 기술은 인상(印象)에 대해 가능한 한 민감한 것이다. 곧 우리가 각각의 아가씨들에게 어떠한 인상을 주었는가, 우리가 각각의 아가씨들로부터 어떠한 인상을 받았는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동시에 많은 아가씨를 연모할 수도 있다. 각각의 아가씨에게 다른 방식으로 연정을 느끼기 때문이다. ‘한 아가씨’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 적지만 모든 아가씨를 사랑하는 것은 피상적이다. 자기 자신을 알고 가능한 한 많은 아가

씨를 사랑하는 것, 자신의 영혼에 사랑의 모든 힘을 간직해서 어느 아가씨든 알맞게 양분(養分)을 얻게 하면서도 의식(意識)은 그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것이야말로 향락이고, 이것이야말로 삶이다.

7월 3일

원래 에드바르드는 나에게 불평할 처지가 아니다. 확실히 나는 코델리아가 그에 대해 생각을 하고 그를 통해 평범하고 일상적인 사랑에 반감을 느끼고, 따라서 그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에드바르드는 희화적(戲畫的) 인물이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에드바르드는 시민적인 의미에서 좋은 짹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그녀의 눈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십칠 세의 아가씨는 이런 일을 문제 삼지도 않는다. 그뿐 아니라 그는 여러 가지 사랑할 만한 개성을 갖고 있으며, 나는 이러한 개성이 유리한 빛 속에 드러나도록 힘껏 그를 돋는다. 마치 시중꾼처럼, 장식가(裝飾家)처럼 나는 집안의 자원(資源)을 긁어모아서 가능한 한 그를 장식하고, 때로는 빌려 온 장식품조차도 매달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함께 코델리아에게 가기 위해 길에 나설 때, 그와 나란히 걷는 것은 나에겐 아주 묘하기만 하다. 그는 나에게는 마치 동생이나 아들 같지만, 사실은 그는 나의 벗이고 동년배이고 연적(戀敵)이다. 그는 나에게는 결코 위협하지 않다. 내가 그를 치켜 올리면, 그럴수록 그는 마침내는 떨어지기 마련이므로 더욱 좋고, 경멸하는 것에 대한 그녀의 의식은 코델리아의 마음속에서 더욱 일깨워지고, 원하는 것에 대한 그녀의 격렬한 예감도 더욱 일깨워진다. 나는 그가 제대로 행동하도록 도와주고 그를 칭찬한다. 요컨대 나는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해 줄 수 있는 모든 일을 한다. 코델리아에 대한 나의 냉담함을 분명히 나타내기 위해 나는 거의 에드바르드를 비난하기도 한다. 나는 그를 몽상가(夢想家)로 그려 놓는다. 에드바르드 혼자서는 아무 일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를 밀어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코델리아는 나를 미워하고 무서워한다. 젊은 아가씨가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신이다. 왜? 정신은 그녀의 여자로서의 존재 전체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사내다운 아름다움 매혹적인 태도 등은 좋은 수단이다. 이러한 수단에 의해서는 정복할 수는 있지만 결코 완전한 승리를 얻지는 못한다. 왜? 우리는 아가씨와 그녀 자신의 세력권 안에서 싸우며 그녀 자신의 세력권 안에서는 그녀가 언제나 더 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단으로써 우리는 그녀로 하여금 얼굴을 붉히고 눈을 내리깔게 할 수는 있지만 저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매혹적인 불안을 일으키지는 못한다. 그런데 이러한 불안이 그녀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다.

오디세우스는 미남은 아니었지만 능변(能變)이었고,

그러므로 바다의 여신(女神)들을 사랑의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sup>54</sup>

그런데 누구든 자신의 힘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재능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졸렬한 행동을 하는 것은 가끔 나의 화를 돌운다. 원래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랑, 더 정확하게는 그녀 자신의 사랑 때문에 희생된 모든 젊은 아가씨들을 보면 그녀가 어떤 방향에서 속임을 당했는지 곧 간파해야 마땅할 것이다. 상습적인 살인자(殺人者)는 특색있는 방식으로 찌르기 때문에 숙련된 경찰관은 그 상처를 보면 곧 범인을 아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서 이러한 조직적인 유혹자, 이러한 심리학자를 만나게 될까? 한 아가씨를 유혹한다는 것은 대부분 사람에게는 한 아가씨를 유혹하는 것을 뜻하고 그것으로 그치지만 한 아가씨를 유혹한다는 사상 속에는 한 국어(國語) 전체가 숨겨져 있다.

그녀는 나를 미워한다—여성으로서. 그녀는 나를 무서워한다—재능 있는 여성으로서. 그녀는 나를 사랑한다—좋은 두뇌로서. 나는 지금 처음으로 이러한 갈등을 그녀의 영혼 속에 일으켜 놓았다. 나의 자만, 나의 반항, 나의 냉정한 조소, 나의 냉혹한 아이러니는 그녀를 유혹하지만 그녀가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54 오비디우스 〈사랑의 기술〉에서 인용한 시구. 바다의 여신들은 키르케와 칼립소를 가리킨다.

아니 그녀에게는 이러한 감정의 자취는 전혀 없고, 특히 나에 대해서는 그렇다. 그녀는 나와 겨루고 싶은 것이다. 그녀를 유혹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자랑스러운 자주성(自主性), 곧 사막 속의 아랍인들의 자유와 같은 자유이다. 나의 웃음과 특이 성(特異性)은 온갖 에로스적 폭발을 중성화(中性化)한다. 그녀는 매우 거리낌 없이 나를 대하여, 삼가하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여성답다기보다는 오히려 지적(知的)이다. 그녀는 나를 애인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순수하게 머리가 좋은 두 사람으로서 서로 관계를 맺는다. 그녀는 내 손을 잡고 내 손을 꼭 쥐고 웃으며 순수하게 그리스적인 의미에서 나에게 어떤 종류의 주의를 기울인다. 따라서 아이리니와 조롱으로 오랫동안 그녀를 놀리면 나는 옛 시(詩)에 나오는 지시를 따르게 된다. 곧 기사(騎士)는 붉은 망토를 펼쳐 놓고 아름다운 처녀에게 앉으라고 권하는 것이다.<sup>55</sup> 그렇지만 나는 그녀와 함께 대지의 푸른 풀밭에 앉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와 함께 사상의 비상(飛翔)을 타고 공중으로 사라져 버리기 위해 망토를 펼쳐 놓는다. 혹은 나는 그녀를 데려가지 않고 혼자서 사상에 걸터앉아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손으로 키스를 보내고 그녀의 눈앞에서 사라진다. 그녀의 귀에는 날개 달린 말(言語)의 웅성거림이 들릴 뿐이다. 그러나 여호와처럼 소리 속에서 차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sup>56</sup> 점점 더 보이지 않게 된다.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만큼 나는 높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녀는 대담한 사상의 비상을 함께 따라오고 싶어진다. 그렇지만 그것은 오직 한순간에 지나지 않고, 다음 순간에는 나는 이미 쌀쌀하고 냉정하다.

여자가 얼굴을 붉히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야비한 벽돌색도 있는 것이다. 그것은 소설가가 여주인공을 아주 빨갛게 만들기 위해 언제나 충분히 갖고 있는 색깔이다. 또한 연한 적색(赤色)도 있다. 그것은 정신의 아침노을이다. 젊은 아가씨의 얼굴에 나타난 이 색깔은 매우 귀중하다. 행복하다고 생각할 때 떠오르는 덧없는 붉은색은 어른들의 경우에는 아름답고, 젊은이들의 경우에는 더욱 아름답고, 55 덴마크의 오래된 민요 <수도사가 들에 나간다>를 가리키는 것 같다. 이 민요에는 ‘수도사는 파란 망토를 펼쳐 놓고 아름다운 처녀에게 그 위에 끓어 앉으라고 말했다’는 구절이 있다.

56 성서 <사무엘상> 3장 2~18절 참조.

여자의 경우에는 사랑스럽다. 그것은 번갯불의 번쩍임이며 정신의 섬광(閃光)이다. 그것은 젊은이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여자에게 있어서는 사랑스럽다. 그것은 여자의 처녀다움을 보여 주고 따라서 기습(奇襲)의 부끄러움을 갖는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붉은색은 사라진다.

때때로 나는 코델리아에게 무엇인가 낭독해 준다. 대체로 아주 쓸모없는 것이다. 에드바르드는 여전히 등불을 들고 있어야 한다.<sup>57</sup> 나는 그에게 젊은 아가씨와 깊은 사이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을 빌려 주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던 것이다. 그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덕을 보았다. 그녀는 책을 빌려 준 것을 고맙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덕을 본 것은 바로 나다. 나는 책의 선택을 지시하고 언제나 모른 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나는 넓은 관찰 영역을 갖게 된다. 에드바르드는 문학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그에게 책을 지정해 줄 수 있고, 아무리 극단적인 것이라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밤에 그녀와 함께 있을 때, 나는 마치 우연인 것처럼 그 책을 손에 들고 몇 페이지 넘겨보고 작은 목소리로 읽으며 에드바르드의 주의 깊은 선택을 칭찬한다. 어제저녁 나는 한 가지 실험을 통해 그녀의 영혼의 탄력(彈力)을 확인해 보려고 했다. 에드바르드에게 쉴러의 시집을 빌려 주라고 권할 것인지, 또는 뷔르거<sup>58</sup>의 시집을 빌려 주라고 할 것인지 나는 망설이고 있었다. 쉴러의 시집이라면 무심히 〈테클라의 노래〉<sup>59</sup>를 펼쳐서 읽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후자를 택했다. 특히 그의 〈레노레〉는 아름다우면서도 약간 엉뚱한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레노레〉가 실린 곳을 펼쳐 들고 가능한 한 온갖 정열을 기울여 이 시를 소리 높여 낭독했다. 코델리아는 감동했다.

57 자기를 우롱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58 뷔르거(Bürger, Gottfried August)는 당시(譯詩)의 명장이라고 일컬어지는 독일 시인. 〈레노레(Lenore)〉는 연인 빌헬름이 죽은 줄 모르고 기다리고 있는 레노레에게 빌헬름의 망령이 나타나 그녀를 테려가는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다.

59 쉴러(Johann Christoph Friedrich von Schiller)의 희곡 〈발렌슈타인(Wallenstein)〉 제2부에서 테클라가 연인 막스가 가 버린 다음 행복과 죽음의 예감을 느끼며 부른 노래. 시집에는 〈처녀의 탄식〉이라 제목으로 수록되었다.

빌헬름이 마중 나온 여자가 마치 자기이기나 한 것처럼 바느질하는 손을 급히 움직였다. 나는 낭독을 중단했다. 고모는 특별한 관심 없이 듣고 있었다. 고모는 빌헬름이 살아 있건 죽어 있건 두려워하지 않았고, 게다가 독일어가 서툴렀다. 그러나 내가 고모에게 아름답게 장정된 시집을 보여 주고 제본업(製本業)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자 그녀는 활기를 띠게 되었다. 코델리아가 받은 열정적인 인상을 그 것에 눈뜨자마자 파괴해 버리자는 것이 나의 의도였다. 그녀는 약간 불안해했으나 이 불안은 그녀를 유혹하지 못하고 섬뜩하게 만든 것을 나는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내 눈은 오늘 처음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졸음이 오면 눈꺼풀이 무거워져서 마침내 눈이 감긴다고 말한다. 아마 내 시선도 이와 비슷한 작용을 한 것이리라.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어두운 힘이 꿈틀거리고 있다. 그녀는 내가 바라보는 걸 보지 않고 그것을 느꼈으며 전신으로 느꼈다. 눈은 감겼고 밤이 되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밝은 낮이 있다.

에드바르드를 떠나게 해야 한다. 그는 극단적인 데까지 이르렀다. 언제 그가 그녀를 찾아가서 사랑을 고백할지 모른다. 이것을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다. 나는 그의 친구로서 그가 코델리아에게 더욱 강하게 작용하도록 그를 이러한 흥분 상태에 열심히 몰아넣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사랑 고백은 지나친 모험이다. 그가 거절을 당하리라는 걸 나는 잘 알고 있지만 이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그는 이 일을 가슴 아파할 것이다. 이것은 코델리아를 감동시켜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지도 모른다. 이 경우 그녀가 마음을 바꾸는 최악의 사태 까지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이러한 순수한 도전 때문에 그녀 영혼의 궁지가 자칫하면 상처를 입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면 내가 에드바르드를 이용한 목적은 완전히 실패한다.

나와 코델리아의 관계는 극적인 비약을 하기 시작한다. 어쨌든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단순한 관찰을 더 이상 계속한다면 나는 기회를 놓칠 것이다.

그녀를 기습하지 않을 수 없고 이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녀를 기습하려면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흔히 기습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녀에겐 전혀 효과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녀를 정말로 기습하려면 기습의 근거가 처음 순간에는 뭔가 아주 흔한 일처럼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여기에 은연중 깜짝 놀랄 만한 것이 들어 있다는 사실이, 차츰 밝혀져야 한다. 이것은 항상 관심을 끄는 것에 대한 법칙이며 이 법칙은 코델리아에 대한 나의 모든 행동의 법칙이기도 하다. 기습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언제나 승부에서 이긴다. 한순간 상대방의 에너지를 정치시키고 행동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인데 보통의 수단을 쓰든, 비상한 수단을 쓰든 상관이 없다. 나는 아직도 일종의 자기민족을 느끼면서 상류 가정의 숙녀에 대해 썼던 무모한 시도(試圖)를 회상한다. 관심 있는 접촉에 이르기 위해서 나는 얼마 동안 그녀의 주위를 맴돌았지만 혀수고였다. 그 무렵 어느 날 정오쯤 거리에서, 그녀와 마주쳤다. 나는 그녀가 나를 모른다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도시 사람임을 모른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혼자였다. 나는 급히 알지 못하게 그녀의 옆을 지나쳐서 그녀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나는 그녀의 곁에서 비켜섰고 그녀는 여전히 보도를 걸어 갔다. 이 순간 나는 슬픈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 눈에는 눈물이 어렸을 것으로 나는 거의 믿고 있다. 나는 모자를 벗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었다. 나는 감동 어린 목소리와 꿈꾸는 듯한 시선으로 말했다. 아가씨, 미안합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고 있으나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아가씨와 당신의 얼굴이 너무나 비슷해서 이런 이상한 짓을 했으니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녀는 내가 사랑에 들뜬 사람으로 믿었고, 약간의 들뜬 기분은 젊은 아가씨의 마음을 즐겁게 해 주며, 특히 아가씨가 동시에 그녀의 우월함을 느끼고 사내에게 웃어 줄 수 있을 때 그렇다. 생각한 대로 그녀는 미소를 지었는데 이 미소는 그녀에게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어울렸다. 점잖고 겸손하게 그녀는 나에게 인사를 하고 미소 지었다. 그녀는 다시 걷기 시작했고 나는 두세 걸음 그녀와 나란히 걸었다. 며칠 후 그녀를 다시 만났을 때, 나는 대담하게도 인사를 했다. 그녀는 나를 보며 웃었다.……인내는 귀중한 덕이며 마지막에 웃는 자가 가장 잘 웃는 자이다.

코델리아를 기습하는 여러 가지 수단을 생각할 수 있다. 나무뿌리조차도 뽑아내는 에로스의 폭풍우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 폭풍우의 도움을 받아서 어쩌면 나는 그녀를 대지로부터 유리시키고 역사적 관련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이러한 흥분을 틈타 밀회를 통해 그녀의 정열을 유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아가씨는 그 정열로 말미암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미학적(美學的)으로는 옳지 못하다. 나는 현기증을 좋아하지 않으며, 이러한 상태는 단지 이러한 방법으로 시적(詩的)인 미광(微光)을 얻을 수 있는 아가씨에 대해서만 추천할 만하다. 게다가 이러한 방식으로는 본래의 향락을 잃기 쉽다. 너무 많은 혼란은 역시 해롭기 때문이다. 코델리아에겐 이러한 방법은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내가 오랫동안 천천히 즐길 수 있는 것을, 그뿐 아니라(이것은 더 나쁘지만) 조심만 한다면 더 충분하고 더 풍요하게 향락할 수 있는 것을 두세 번 씹고 삼켜 버리게 될지도 모른다. 코델리아는 흥분 상태에서 향락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이러한 태도를 갖는다면 그것은 첫 순간에는 그녀에게 기습이 될지 모르지만 곧 싫증을 낼 것이다. 그녀의 대담한 영혼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습은 너무나 가까운 것이기 때문이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약혼이 모든 수단 중에서 최선의 수단이고 가장 알맞은 수단이리라. 내가 산문적(散文的)인 사랑의 고백을 하고, 게다가 구혼하는 걸 들으면 그녀는 귀를 의심할 것이다. 오히려 나의 열렬한 응변에 귀 기울이거나 나의 해로운 마취제를 마시거나 밤도망을 생각하며 가슴을 두근거리는 쪽이 더욱 믿기 쉬우리라.

약혼의 혐오할 점은 언제나 약혼에 따르기 마련인 윤리성(倫理性)이다. 윤리적인 것은 학문에 있어서나 삶에 있어서나 지루한 것이다. 얼마나 큰 차이인가. 미학(美學)의 하늘 밑에서는 모든 것이 경쾌하고 아름답고 덧없건만, 윤리가 섞이면 모든 것이 딱딱해지고 모가 서고 한없이 지루해지는 것은. 그러나 약혼에는 엄격한 의미에서는 결혼이 갖는 윤리적 실재성(實在性)은 전혀 없다. 약혼은 오직 일반적 합의에 의해 타당성을 가질 뿐이다. 이러한 애매성은 나에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약혼의 윤리적인 면은 적절한 때에 코델리아로 하여금 보편적인 것의 한계를 넘어 섰다는 인상을 갖게 하리라. 한편 약혼의 윤리적인 면은 아주 진지하지는 않으므로 나는 더욱 위험한 충격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나는 언제나 윤리적인 것에 대해 어느 정도의 존경심을 갖는다. 나는 어떤 아가씨에게 결혼 약속을 한 적이 없고, 어설프게나마 한 적도 없다. 지금 내가 결혼 약속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 것은 단지 위장하는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그녀 자신이 약속을 파기하도록 일을 꾸며 나갈 것이다. 약속하는 것을 나의 기사적(騎士的)인 궁지는 경멸한다. 판사가 자유를 약속함으로써 죄인을 자백하도록 꼬인다면 나는 그것을 경멸한다. 이러한 판사는 자신의 힘과 재능을 체념하는 것이다. 나의 지금의 실천에 있어서 엄격한 의미에서 자유의 선물이 아닌 것은 내가 조금도 바라지 않는다는 사실이 덧붙여져 있다. 서툰 유혹자들이라면 그런 수단을 쓸 수도 있으리라. 그렇지만 그들은 무엇을 얻는가? 아가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을 아가씨 눈앞에서 사라지도록 아가씨를 가둬 둘 줄 모르는 자, 자기가 바라는 것은 모두 아가씨 자신으로부터 나오도록 아가씨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창작(創作)할 줄 모르는 자는 한결 같이 무용지물이다. 나는 이러한 자들의 향락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러한 인간은 변함없이 무용지물인 것이다. 이러한 자들이 유혹자라면 나는 결코 이렇게 불리고 싶지 않다. 나는 미학자, 연애 시인이며, 사랑의 본질을 알고, 사랑의 요점을 파악하고, 사랑을 믿고, 사랑을 근본적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유보하고 있는 단 하나의 개인적 견해는 어떠한 사랑의 이야기든 기껏해야 반년 동안 계속되고 어떠한 관계든 마지막 것을 향락하면 곧 끝나 버린다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모든 일을 알고 있으며 동시에 사랑받는다는 것은,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더 사랑받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향락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아가씨의 마음 속에 들어가 창작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술이거니와, 아가씨의 마음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창작해 내는 것은 명장(名匠)의 솜씨다. 그러나 후자는 본질적으로 전자에 의존한다.

또 하나의 다른 방법도 가능하다. 나는 그녀가 에드바르드와 약혼하도록 모든 일을 꾸며 갈 수도 있다. 그러면 나는 그 가정의 벗이 될 것이다. 에드바르드는 나를

절대적으로 믿을 것이다. 사실상 그의 행복을 이룩해 준 것은 내가 아닌가.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더 잘 나 자신을 위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녀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비소(卑小)해지지 않고는 에드바르드와 약혼할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나와 그녀의 관계는 관심 있는 것보다는 자극적인 것으로 되리라. 약혼의 무한히 산문적인 면이야말로 관심 있는 것을 위한 올림판이다.

바알 씨 댁에서는 모든 일이 더욱 의미심장해진다. 일상적인 형식 밑에서 은밀한 삶이 꿈틀거리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고, 이 삶은 곧 알맞은 나타남으로 표현되지 않을 수 없다. 바알 씨 댁에서는 약혼을 준비하고 있다. 표면적인 관찰자에 지나지 않는 사람은 고모와 내가 짹을 이를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결혼이 성립한다면 어떻게 자손의 대에 이르러 농업 지식이 보급되지 않을 것인가. 그러면 나는 코델리아의 고모부가 될 것이다. 나는 사상의 자유의 옹호자이며, 내가 집착할 용기를 갖지 못할 만큼 어리석은 사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코델리아는 에드바르드가 사랑을 고백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에드바르드는 사랑을 고백해서 모든 일을 결정해 버리려고 한다. 지금 그는 이 점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에 의해 그가 불쾌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나는 선수를 칠 생각이다. 나는 지금 곧 그를 밀어낼 생각이고 사실상 그는 나의 방해가 되고 있다. 이것을 나는 오늘 분명하게 느꼈다. 그는 아주 몽상적이고 사랑에 들떠 있는 것 같다. 그가 갑자기 마치 몽유병자처럼 벌떡 일어나서 코델리아로서는 결코 접근할 수 없을 만큼 객관적으로 응시하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사랑을 고백하지 않을까 두렵기조차 하다. 나는 오늘 그를 날카롭게 즐겨 보았다. 코끼리가 코로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것처럼 나는 시선으로 그의 온몸을 들어 올려 뒤로 집어 던졌다. 그는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온몸으로 이것을 느꼈으리라고 나는 믿는다.

코델리아는 전처럼 침착한 태도로 나를 대하지 못한다. 그녀는 언제나 여자다운 침착성을 갖고 나에게 접근해 왔으나 지금은 약간 동요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한 일은 아니고 모든 것을 원상 복귀시키는 것은 나에게는 쉬운 일이리라. 그러나 나는 이렇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한 번 더 살펴보고 그다음에는 약혼을 하는 것이다. 약혼에 대해서는 전혀 난점이 없다. 코델리아는 깜짝 놀라서 “네”라고 하고, 고모는 충심으로 “아멘”이라고 말할 것이다. 고모는 농업에 정통한 조카 사위를 얻는 기쁨에 정신을 잃을 것이다. 사위라고! 이러한 영토에 발을 들여놓으면 모든 일이 마치 콩깍지처럼 얼마나 뒤죽박죽이 되는가. 사실은 나는 그녀의 사위가 되는 게 아니라 단지 조카가 될 뿐이며, 더욱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인 뜻하시는 바와 같이 그 어느 쪽도 되지 않는 것이다.

### 23일

나는 어떤 젊은 아가씨에게 반했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거니와, 오늘 이 소문의 열매를 거두었다. 에드바르드 때문에 이 소문은 코델리아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녀는 호기심을 일으키고 나를 관찰했으나 질문을 할 용기는 없었다. 게다가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그녀에겐 중요하지 않다. 한편으로 이 이야기는 그녀에겐 믿기지 않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서 그녀는 그녀 자신을 위한 선례(先例)를 보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나와 같이 냉담한 조소자(嘲笑者)가 반하는 일이 있다면 그녀가 반하는 일이 있더라도 결코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오늘 나는 이 일을 화제로 삼았다. 요점을 잊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요점이 너무 일찍 드러나지 않도록 이야기하는 점에서는 나를 따를 사람이 없다고 자신한다.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을 미결 상태에 두고 삽화적(挿話的)인 작은 사건을 이용해서 그들이 어떠한 결말을 바라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이야기의 진행을 통해 그들을 명청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나의 즐거움이다. 애매한 말을 사용해서 듣는 사람이 쳐음에는 한 가지 뜻으로 이해하게 하고, 다음에는 갑자기 이 말은 다른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내 솜씨다. 일정한 방향으로 관찰할 호기를 갖고자 하는 사람은 언제나 연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담화 중에는 관찰

대상자의 주목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고, 물음과 대답을 통해 그 말이 주는 인상을 더 잘 호도(糊塗)할 수 있다. 장엄한 진지함을 갖고 나는 고모를 향해 연설을 시작했다. “저는 이 일을 친구의 호의로 생각해야 합니까, 또는 적의, 악의로 생각해야 합니까? 어느 쪽이든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여기서 고모는 의견을 말했는데, 나는 그녀의 의견이 장황해지도록 온 힘을 기울여 도와주었다. 귀 기울이고 있는 코델리아를 계속 긴장시키기 위해서였다. 나는 고모를 상대로 이야기했고, 또한 내 기분이 진지했기 때문에 그녀는 긴장을 풀 수 없었던 것이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혹은 우연에, 소문의 자동적 발생(분명히 코델리아는 이러한 표현을 골랐고, 따라서 이러한 표현은 그녀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으며, 나는 마치 여기에 요점이 있다는 듯이 거짓 강조를 하면서 교활한 표정으로 말했기 때문에 더욱 어리둥절했다)에 돌려야 할까요? 늘 세상을 피해 숨어 사는 제가 약혼을 했다는 소문의 대상이 된 것을.” 분명히 코델리아는 좀 더 내 설명을 듣고 싶어 했으므로 나는 말을 계속했다. “연모한다는 것이 언제나 커다란 행복이라면 제 친구들 짓이겠지요(코델리아는 깜짝 놀랐다). 이러한 행복이 내 몫이 된다는 것이 언제나 웃음거리밖에 될 수 없다면 저의 적들 짓이겠지요(반대 방향으로의 운동). 조금도 근거가 없다면 우연 탓이겠지요, 혹은 소문 전체가 머리 빙 사람들의 경솔한 교제에서 저절로 생긴 것이라면 소문의 자동적 발생 탓이겠지요.” 고모는 여자다운 호기심으로 나와 약혼했다는 소문난 여자가 누구인가를 몹시 알고 싶어 했다. 이 방면의 질문은 모두 거부당했다. 에드바르드의 주(株)는 약간 올랐을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온다. 나는 고모에게 편지를 보내 코델리아에게 구호할 수도 있으리라. 이것은 사실상 마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흔히 사용하는 수단이다. 마치 마음의 경우에는 말하는 것보다는 쓰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듯이. 그런데 나로 하여금 이러한 수단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 수단이 갖는 고루함이리라. 내가 이러한 수단을 선택한다면, 나는 진짜로 기습할 기회를 잊게 되며, 나는 기습을 단념할 수는 없다.—나에게 친구가 있다면 그는 나에게 말할 것이다. 자네가 내디디려고 하는 한 걸음은 더할 나위 없이 엄숙한 것임을 숙고해 보았는

가, 자네의 장래의 모든 생활과 다른 한 사람의 행복에 대해 결정적인 이 한 걸음을. 친구를 갖고 있으면 이러한 이점이 있다. 나에게는 친구가 없다. 이것이 이점인지 아닌지는 더 생각해 보기로 하자. 하여튼 친구에게서 충고를 듣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나는 절대적인 이익으로 생각한다. 게다가 나는 이 문제를 그 말의 가장 엄밀한 의미에서 숙고해 보았다.

그런데 내 쪽에는 약혼에 아무런 장애도 없다. 따라서 내가 구혼을 하려 가더라도 누가 이 일을 염두에 둘 것인가? 이윽고 나의 보잘것없는 인격은 보다 높은 관점에서 생각될 것이다. 나는 인격이기를 그만두고—배우자가 되는 것이다. 참으로 좋은 배우자라고 고모는 말할 것이다. 고모가 가장 가엾다. 고모는 순수하고 성실한 농민적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거의 자신의 이상으로 승양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나의 생애를 통해 나는 여러 번 사랑을 고백했지만, 지금의 경우에 나의 온갖 경험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번에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사랑을 고백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 사건 전체가 허구의 운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어떤 방향에서 등장하는 게 가장 좋은가를 알기 위해서 나는 여러 가지 연습을 해 두었다. 이 순간을 에로틱하게 만드는 것을 숙고하는 것이다. 그것은 나중에 나타나서 차츰 전개될 것을 쉽게 선취(先取)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순간을 너무 진지하게 만드는 것은 위험하다. 이 순간은 아가씨에게는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어서, 마치 임종을 맞은 사람이 최후의 의지에 응고(凝固)하듯이 그녀의 모든 영혼이 이 순간에 응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순간을 친숙하고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이용해 온 가면과 어울리지 않고 또 앞으로 내가 쓰고 다니려고 하는 가면과도 어울리지 않을 것이다. 이 순간을 재치 있고 아이러니하게 만드는 것도 지나친 모험이다. 이러한 기회를 맞은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네”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한마디를 이끌어 내는 것을 주안점으로 삼는다면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다. 물론 나에게도 대답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 지금 나는 이 아가씨를 선택하고, 이 아가씨에게 많은 주의를, 아니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조건에 따라서는 그녀의

“네”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사정도 있는 것이다. 나의 경우에는 이 아가씨를 외면적인 의미에서 차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술적으로 향락하는 게 문제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가능한 한 예술적이어야 한다. 처음은 가능한 한 부동적(浮動的)이어야 하고 모든 가능성은 포함해야 한다. 그녀가 당장 나를 사기꾼으로 본다면 그녀는 나를 오해한 것이다. 보통의 의미에서는 나는 결코 사기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녀가 나를 충실히 애인으로 본다면 역시 그녀는 나를 오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등장해서 가능한 한 그녀의 영혼을 미결정 상태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순간에는 아가씨의 영혼은 임종을 맞은 사람의 영혼과 마찬가지로 예언적이다. 이것을 방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랑스러운 코델리아여! 나는 당신으로부터 아름다운 것을 사취(詐取)하지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내 힘껏 보상을 할 생각이다. 등장 전체가 가능한 한 감쪽같아서 그녀가 “네”를 말했을 때, 이 관계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가를 전혀 몰라야 한다. 이 무한한 가능성이 바로 관심을 끄는 것이다. 그녀가 뭔가 예언할 수 있다면, 나는 실패한 것이고 모든 관계는 의미를 잃는다. 그녀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라고 말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그녀는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약혼을 행동으로부터 사건으로 바꿔 놓을 수 있다면, 곧 그녀가 실행하는 일로부터 그녀에게 일어나는 일로 바꿔 놓을 수 있다면, 그래서 그녀가 도대체 어찌다가 이렇게 됐지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면 그것이 가장 좋으리라.

### 31일

오늘 나는 제삼자를 위해 연애편지를 써 주었다. 이런 일에서 나는 언제나 커다란 기쁨을 느낀다. 첫째로 아주 생생하게 어떤 상황(狀況) 속에 몸을 두고 그러면서도 한껏 마음이 편한 것은 언제나 정녕 흥미롭다. 나는 파이프에 담배를 담고 보고를 듣고 상대방 여자의 편지를 제출하게 한다. 젊은 아가씨가 어떤 편지를 쓰는가 하는 것은 나에겐 언제나 중요한 연구 과제다. 사내는 사랑에 들떠서 마치 생쥐처

럼 내 앞에 앉아서 그녀의 편지를 읽고 나의 간결한 논평(論評) 때문에 가끔 중단된다. 그 여간 편지를 참 잘 쓰는군요, 감정이 있고 취미가 있고 조심스럽군요, 확실히 연애 경험이 있군요 등. 둘째로 내가 하는 일은 좋은 일이다. 나는 한 쌍의 젊은이의 결합을 도와주는 것이다. 여기서 나의 일은 끝난다. 한 쌍의 행복한 사람들 때문에 언제나 한 사람의 희생자가 생긴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는 두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기껏해야 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뿐이다. 나는 정직하고 믿을 만하며 나를 믿는 사람을 속인 적이 없다. 이때 조금 조롱을 하지만 그것은 합법적인 수수료다. 그런데 어째서 나는 이러한 신뢰를 받는가? 나는 라틴어를 알고 연구에 몰두하기 때문이고 또한 나의 여러 가지 작은 사랑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간직해 두기 때문이다. 내가 이러한 신뢰에 알맞지 않을 까닭이 있는가? 나는 이러한 신뢰를 결코 악용(惡用)하지 않는다.

## 8월 2일

그 순간이 왔다. 나는 거리에서 고모를 흘끗 보았고, 따라서 고모가 집에 없다는 걸 알았다. 에드바르드는 세관에 있었다. 그러므로 코델리아가 혼자 집에 있으리라는 것은 거의 확실했다. 사실상 생각한 그대로였다. 그녀는 재봉틀 앞에 앉아서 무슨 일인가 하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이 집을 오전 중에 방문하는 일은 드물었으므로 그녀는 나를 보자, 조금 놀랐다. 상황은 거의 감동적이었다. 이것은 그녀의 탓은 아니었다. 그녀는 재빨리 다시 침착해졌기 때문이다. 오히려 나의 탓이었다. 나는 갑옷을 입고 있었으면서도 그녀에게서 이상할 만큼 강렬한 인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푸른 무늬가 있는 소박한 평상복을 입고 방금 따온 장미를 가슴에 꽂은 그녀는 얼마나 우아했던가.—방금 따온 장미, 그렇다, 아가씨 자신이 방금 따온 장미 같았고, 갓 핀 장미처럼 신선했다. 젊은 아가씨가 어디서 밤을 보내는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환상의 나라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가씨는 아침마다 되돌아오고, 따라서 그녀는 젊고 싱싱하다. 그녀는 아주 젊으면서도 아주 성숙한 것

처럼 보여서, 마치 자연이 자애롭고 풍요한 어머니처럼 이 순간에 처음으로 그녀를 세상에 내놓은 것 같다. 나는 마치 이 이별의 장면을 직접 보는 것 같다. 나에게는 자애로운 어머니가 헤어지기에 앞서 그녀를 다시 한 번 포옹하는 모양이 보였고, “얘야, 자, 세상에 나가거라. 나는 너를 위해 할 일을 다 했단다. 이제 이 키스를 받으려무나. 네 입술에 찍는 봉인인 이 키스를. 이것은 성전(聖殿)을 지키는 봉인이야. 너 자신이 바라지 않는 한 아무도 이 봉인을 깨어 버리지 못해. 그러나 참된 상대자가 나타난다면 너는 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라고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녀의 입술에 키스를 했다. 이 키스는 인간의 키스처럼 무엇인가 빼앗아 가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주는, 아가씨에게 키스의 힘을 주는 거룩한 키스이다. 놀라운 자연이여, 그대는 얼마나 의미심장하고 수수께끼로 가득 차 있는가. 그대는 인간에겐 말을 주고 아가씨에겐 키스라는 응변을 준다. 그녀의 입술에는 이 키스가, 그녀의 이마에는 이 이별이, 그녀의 눈에는 이 기쁜 인사가 남아 있었다. 그러므로 그녀는 자기 집에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그녀는 분명히 이 집안사람이므로—동시에 낯설게—그녀는 세상을 전혀 모르고 눈에 띠지 않게 그녀를 지켜 주는 자애로운 어머니만을 알고 있으므로—보이는 것이다. 그녀는 정녕 사랑스럽고 어린애처럼 젊지만 고귀한 처녀의 품위를 갖추고 있어서 저절로 존경심을 불러일으킨다.—그러나 나는 재빨리 정열을 누르고 점잖고 고지식한 태도를 취했다. 이것은 중요한 일을 조금도 중요하지 않은 듯이 해치우려고 할 때 알맞은 태도이다. 두세 마디 평범한 말을 한 다음,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청혼을 했다. 책을 쓰듯 말하는 사람의 말은 듣기에 매우 지루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이야기 방식이 참으로 적절할 때가 있다. 곧 책은 마음대로 해석될 수 있다는 주목할 만한 특성을 갖는다. 책을 쓰듯 말할 때에는 담화도 이러한 특성을 갖게 된다. 나는 아주 냉정하게 세상의 격식에 따랐다. 그녀는 내가 기대하던 바와 같이 깜짝 놀랐으며, 이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녀의 태도가 어떠했던가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다. 아직 출판되지는 않았으나 이미 예고된 내 책의 주석서, 곧 어떠한 해석도 가능한 주석서와 꼭 같았다. 한마디만 더 하면 그녀는 웃음을 터뜨릴지도 모르고, 한마디만 더 하면 그녀는 감동할지도 모르고, 한마디만 더 하면 그

녀는 나를 피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 입에서는 한마디도 더 나오지 않았고, 점잖고 고지식한 태도로 나는 정확하게 격식을 지켰다.—그녀는 요즈음에야 나를 알았다. 신이여, 약혼이라는 좁은 길에서만 사람들은 이러한 어려움에 부딪히며, 사랑이라는 꽃피는 오솔길에서는 부딪히지 않는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며칠 동안 이 일을 숙고했을 때 나는 그녀가 깜짝 놀란 순간에 “네”라고 말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만반의 준비를 갖추더라도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도 알 수 있거니와, 이 일은 예상한 결말에 이르지 못했다. 그녀는 “네”도, “싫어요”도 말하지 않고 고모에게 말씀드리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말도 나는 예상했어야 옳았다. 그러나 행운은 정녕 내 편을 들고 있었다.—그 결과는 더 좋을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고모는 동의했고 나는 이 점을 조금이나마 의심한 적이 없었다. 코델리아는 고모의 권고에 따른다. 나는 이 약혼이 시적(詩的)이라고 자랑하진 않겠다. 나의 약혼은 모든 면에서 가장 통속적이고 소시민적(小市民的)이다. 아가씨는 “네”라고 말할 것인지 “싫어요”라고 말할 것인지 알지 못하고 고모가 “네”라고 말하니까 아가씨도 마찬가지로 “네”라고 말하고 나는 아가씨를 받아들이고 아가씨는 나를 받아들인다.—그런데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 3일

이렇게 해서 나는 약혼을 했다. 코델리아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것이 약혼에 대해 그녀가 알고 있는 전부라고 할 수 있다. 그녀에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만한 벗이 있었다면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을 것이다. “이 이야기 전체가 무슨 뜻인지 나는 정말 모르겠어. 그 사람에겐 나를 끌어당기는 게 있지만 그게 뭔지 나는 전혀 모르겠어. 그에겐 나를 지배하는 이상한 힘이 있지만 내가 그를 사랑하는 건 아니야. 어쩌면 앞으로도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은 참

아낼 수 있을 거야. 그런 만큼 정말로 행복해질지도 몰라. 그 사람은 함께 살기만 하면 그 이상은 바라지 않을 거야.” 사랑하는 코델리아여! 어쩌면 그는 더 많은 것을 바라고 그 대신 인내는 덜 바랄지도 모른다.—우스운 일 중에서도 약혼이 가장 우습다. 결혼은 어쨌든 의미 있다. 이 의미는 나에겐 불쾌한 것이지만. 약혼은 인간의 발명품에 지나지 않으며 발명자의 명예가 되는 것도 결코 아니다. 약혼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약혼과 사랑의 관계는 대학 하급 직원이 등에 두른 땐<sup>60</sup>와 교수와 가운의 관계와 같다. 그런데 이제 나는 약혼자라는 명예로운 집단에 끼이게 되었다. 이것은 무의미하지는 않다. 트롭<sup>61</sup>이 말한 것처럼 스스로 예인(藝人)이 될 때 비로소 다른 예인을 평가할 권리가 획득되기 때문이다.

에드바르드는 분격한 나머지 제정신을 잃었다. 그의 수염은 제멋대로 자라고 검은 옷은 뜻에 걸려 있다. 이것은 많은 뜻을 갖는다. 그는 코델리아와 이야기하고 싶고 그녀에게 나의 간계를 폭로하고 싶은 것이다. 그것은 대단한 장면이 되리라. 에드바르드가 면도도 하지 않고 옷차림을 흐트러뜨린 채 큰 목소리로 코델리아와 이야기하는 장면은. 제발 그의 긴 수염이 나를 밀어내지 않았으면. 그의 이성을 되찾게 하려고 나는 무척 노력했으나 소용없었다. 짹을 지어 준 것은 고모이고 코델리아는 아직도 그를 사랑할지도 모르며, 그가 코델리아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나는 물러나겠다고 설명했던 것이다. 그는 한순간 새로운 모양으로 면도를 하고 검은 양복도 새로 살 것인지 망설이다가, 다음 순간에는 난폭하게 나에게 대든다. 나는 그와 친하게 지내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썼다. 아무리 화가 났더라도 나와 의논하지 않는 한 그는 아무 일도 못 하리라는 걸 나는 잘 알고 있다. 내가 멘토르<sup>62</sup>가 되어 그를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가를 그는 잊지 못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그의 마지막 희망조차도 빼앗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그와 절교할 수 있을 것인가. 그

60 당시의 대학 하급 직원은 제복 위에 띠를 둘렀다.

61 하이베르크(Gunnar Heiberg)의 희곡 〈비평가와 동물〉에 나오는 만년 학생으로 오락 비평을 하기 위해 서비스장에서 사는데, 이 극 제5장에서 어떤 학생이 ‘비평가가 되려면 스스로 그 일에 숙달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 ‘그렇다, 다른 예인을 평가할 권리를 얻게 되니까’라고 대답한다.

62 오디세우스의 친구로 오디세우스의 트로이 원정 중에 그의 아들 테레마코스를 충심으로 도와주었다.

는 좋은 사람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는가.

이제부터 내가 해야 할 일은 약혼을 파기하면서도 약혼의 파기를 통해 나와 코델리아의 관계가 더욱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것으로 되도록 온갖 준비를 갖추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가능한 한 시간을 잘 이용해서 자연이 그녀에게 아주 풍부하게 준 그녀의 모든 우아함, 모든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이다. 게다가 단 하나나마 때가 오기 전에 선취(先取)하지 않도록 모든 한계를 지키고 조심하면서. 이윽고 그녀가 사랑이 무엇인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면 약혼은 불완전한 형식으로서 파기되고, 그녀는 나의 것이 된다.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경지에 이르렀을 때 약혼을 하고 영원에 걸쳐 지루한 결혼 생활에 좋은 기대를 건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문제이다.

그런데 모든 일은 여전하다. 그러나 어떠한 약혼자도 나만큼 행복하기 어렵고 금화(金貨)를 찾아낸 수전노(守錢奴)도 나만큼 즐겁지는 못할 것이다. 그녀가 내 손에 들어왔다는 생각만 해도 나는 취해 버린다. 순수하고 순진한 여자다움, 바다처럼 투명하면서도 바다처럼 의미심장하고 사랑을 조금도 모르는 여자다움! 지금 그녀는 사랑의 힘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천하게 살다가 조상의 왕좌를 물려받은 공주처럼 이제 그녀는 그녀의 고향인 이 왕국에 군림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일은 나를 통해 일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그녀는 사랑을 배움에 따라 나를 사랑하는 것을 배운다. 그녀가 규칙을 활용함에 따라 본보기도 차츰 늘어나며 나는 바로 이러한 본보기이다. 그녀가 그녀의 모든 의미는 사랑에 있다고 느끼게 되면 그녀는 이러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게 되고, 이러한 사랑을 나를 통해 배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녀는 이중으로 나를 사랑하게 된다. 이러한 기쁨을 생각하면 나는 거의 제정신을 잃을 것 같다.

그녀의 영혼은 사랑의 막연한 감동으로 말미암아 달아나 버렸거나 무기력해지지는 않았다. 이러한 막연한 감동에 사로잡히면 흔히 젊은 아가씨들은 참으로 사랑할 줄 모르게 된다. 곧 결정적으로 힘차게 온 힘을 기울여 사랑할 줄 모르게 된다. 그들은 의식 속에 이상이라는 막연하고 몽롱한 상(像)을 마련하고 이를 척도로 현

실의 대상을 음미한다. 이러한 어중간함에서도 기독교도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그 무엇이 나올 수 있으리라.—그녀의 영혼 속에서 사랑이 깨어남에 따라 나는 이러한 사랑을 훼뚫어 보고 이러한 사랑이 온갖 사랑의 소리를 갖고 솟아나는 소리를 듣는다. 나는 사랑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가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나 자신을 형성한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펼쳐지는 사랑의 이야기에 직접 참여하면서도 나는 다시금 밖으로부터 가능한 한 그녀의 눈을 속이면서 그녀에게 다가간다. 결국 아가씨는 오직 한 번 사랑할 수 있을 뿐이다.

이제 나는 코델리아를 합법적으로 차지했으며, 고모의 동의와 축복도 받았고, 친구와 친척의 축하도 받았다. 이것으로 모든 일이 확정된 것 같다. 그러므로 이제 전쟁의 고난은 지나가고 평화의 축복이 시작된다. 그러나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내가 보다 깊은 의미에서 코델리아를 차지한 것은 고모의 축복과 친구의 축하 때문에 능했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은가. 마치 사랑에는 전시(戰時)와 평화 시의 대립이 있는 것 같지 않은가. 오히려 사랑은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 한, 비록 무기는 같지 않더라도 싸움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 차이는 원래 근공법(近攻法)으로 싸우느냐 원공법(遠攻法)으로 싸우느냐 하는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 연애 관계의 경우 원공법을 사용하면 그럴수록 사태는 더욱 참담하다. 왜냐하면 그만큼 접전(接戰)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접전에는 키스나 포옹은 말할 것도 없고, 악수라든가 발이 닿는다든가 하는 것도 있으며, 이것은 다 알다시피 오디세우스가 몹시 권장했으면서도 반대로 깊은 질투심을 갖고 반대한 것이다.<sup>63</sup> 원근법으로 싸우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오직 눈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가 숙달된 사람이라면 이 무기를 매우 교묘하게 사용해서 근공법과 거의 같은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 그는 아주 부드러운 눈길로 아가씨를 바라보아서 우연히 몸을 맞댄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것이고 눈으로 아가씨를 감싸서 마치 그의 팔에 안겨 있는 듯한 효과를 거두기도 할 것이다. 그렇지만 너무 오랫동안 원공법을 사용하면 언제나 실패하거나 불행을 겪게 된다. 이러한 전투는 언제까지나 상징적인 것이고 결코

63 오비디우스《사랑의 기술》참조.

향락은 아니기 때문이다. 근접전으로 싸울 때 비로소 모든 것이 참된 의미를 갖는다. 사랑에 싸움이 없다면 그 사랑은 이미 끝난 것이다. 나는 원공법을 전혀 쓰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끝에 다다른 게 아니라 방금 시작한 것이고 처음으로 무기를 꺼내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코델리아를 차지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법적 및 시민적 의미에서 그렇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나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다. 나는 훨씬 더 순수한 관념을 갖고 있다. 그녀가 나와 약혼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약혼했다는 사실로부터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는 귀결을 끌어내려고 한다면 이것은 자기기만이 될 것이다. 그녀는 전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적인 의미에서 나는 그녀를 차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녀를 차지하지 못했다. 법적으로는 어떤 아가씨를 차지하지 못했으면서도 그녀를 완전히 차지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몰래 붉어지는 뺨에서  
뜨거운 마음이 빛난다.<sup>64</sup>

그녀는 차탁자 옆의 소파에 앉아 있다. 나는 그녀 옆의 의자에 앉아 있다. 이러한 배치에는 뭔가 믿음직한 것이 있지만 또한 서로를 멀리하는 기품도 있다. 배치는 언제나 매우 중요한 것이다. 물론 보는 눈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지만. 사랑에는 여러 가지 배치가 있으며 이것은 그 첫 번째 것이다. 자연은 이 아가씨에게 얼마나 공주다운 모습을 갖춰 주었는가. 그녀의 맑고 부드러운 모습, 그녀의 깊고 여자다운 순진함, 그녀의 맑은 눈—모든 것이 나를 취하게 한다.—나는 그녀를 찾아온 것이다. 언제나처럼 그녀는 나를 반갑게 맞이했지만 조금 당황한 것 같고 조금 불안한 것 같다. 약혼은 분명히 우리의 관계를 약간 바꿔 놓았지만 어떻게 변했는지 그녀는 모른다. 그녀는 나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예전처럼 미소 짓지는 않았다. 나는 그녀의 인사에 가벼운, 거의 스쳐 지나가는 듯한 악수로 대답했다. 나는 부드럽고 친밀했지만 에로스적 태도는 보이지 않았다.—그녀는 차탁자 옆의 소파에 앉고 나

64 독일어로 인용되어 있으나 출처 불명.

는 그녀 옆의 의자에 앉는다. 장엄한 기분이 이 상황을 뒤덮고 있다. 조용한 아침 햇빛 같은 것이. 그녀는 말이 없고 침묵을 깨뜨리는 것은 하나도 없다. 나의 눈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지만 육정에 찬 눈은 아니다. 사실 이런 눈이 되려면 뻔뻔스러워야 할 것이다. 그녀의 얼굴에는 들 위로 지나가는 한 조각구름처럼 보일 듯 말 듯하게 붉은색이 떠오르고, 떠올랐는가 하자 사라졌다. 이 붉은색은 무슨 뜻일까? 그것은 사랑인가, 동경인가, 희망인가, 두려움인가? 붉은색은 마음의 색이란 말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녀는 놀란 것이다. 그녀는 의아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나에 대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나쯤은 지금의 그녀에겐 대단하지 않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의아하게 여기고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 속에서 의아하게 여기고 있다. 그녀는 자기 자신 속에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순간은 정적을 갈망한다. 그러므로 어떠한 반성이 이 순간을 방해해도 안 되고 어떠한 정열의 소음이 이 순간을 중단시켜도 안 된다. 나는 이 자리에 없는 것과 같다. 그렇지만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녀의 이러한 명상적인 감탄의 조건이다. 나의 본질은 그녀의 본질과 일치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어떤 젊은 아가씨는 어떤 신들과 마찬가지로 침묵 속에서 존중받고 숭앙받는다.

큰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는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어떤 젊은이를 담배에 싫증나게 하려면 나는 그를 어떤 대학 기숙사의 흡연실로 데려갈 것이다. 어떤 아가씨를 약혼에 싫증나게 하려면 나는 그녀를 큰아버지의 집으로 데려오기만 하면 된다. 양복점 조합 사무실에는 양복점 주인들만이 앉아 있듯이, 이 집에는 약혼자들만이 드나든다. 여기에 모여드는 사람들은 소름 끼치는 사람들이어서 코델리아가 견뎌내지 못하더라도 그녀를 나무랄 수는 없다. 우리가 모두 모이면 큰 축제 때 수도로 몰려드는 예비대(豫備隊)를 계산하지 않더라도 열 쌍은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 약혼자들은 약혼의 기쁨을 충분히 맛보는 셈이다. 이 사랑에 들뜬 싸움, 사랑의 직공<sup>65</sup>들의 졸렬함에 싫증을 내도록 나는 이 비상 집합소로 코델리아를 데리고 온다. 밤중에는 끊임없이 파리채를 휘두르는 듯한 소리가 들린다.—사랑하

65 이탈리아의 희극 작가 카를로 골도니(Carlo Goldoni)의 오페레타 제목.

는 사람들이 키스를 하는 것이다. 이 집에서는 고맙게도 점잖을 필요가 없다. 구석을 찾아갈 필요도 없다. 아니! 사람들은 모두 크고 둥근 책상 둘레에 앉아 있는 것이다. 나도 코델리아를 같은 방식으로 다루는 척한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나 자신에게 상당한 폭력을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내가 그녀의 깊은 여자다움을 병들게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괘씸한 일일 것이다. 그 때문에 나는 그녀를 속였을 때 보다도 더 강렬하게 나 자신을 비난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나는 나를 믿는 아가씨는 그 누구이든 완전히 미학적으로 다룬다고 보증할 수 있다. 단지—끝에 가서는 여자가 속될 뿐이다. 그러나 이것도 나의 미학의 일부이다. 결국 아가씨가 남자를 속이거나 또는 남자가 아가씨를 속이거나 둘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어떤 얼빠진 늙은 문학자를 시켜서 옛날이야기나 전설이나 민요나 신화에서 아가씨가 부정(不貞)한 경우가 많은지, 또는 남자가 부정한 경우가 많은지 헤아려 보면 무척 흥미 있을 것이다.

코델리아 때문에 많은 시간이 들긴 하지만 그녀를 위해서라면 나는 시간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 만날 때마다 오랜 준비가 필요하다. 나는 그녀와 함께 그녀의 사랑의 생성(生成)을 체험한다. 그녀의 곁에 눈에 띠게 앉아 있을 때에도 나는 거의 눈에 보이지 않게 거기에 있는 것이다. 원래 한 쌍이 취야 할 춤을 혼자서 추는 것과 같은 것이 나와 코델리아의 관계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춤의 상대인데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녀는 꿈꾸듯 움직이지만 누군가를 상대로 춤추는 것이다. 이 사람이 바로 나이다. 내가 눈에 보이게 거기에 있는 한 나는 보이지 않고, 내가 보이지 않는 한 나는 보인다. 운동은 상대를 요구한다. 그녀는 상대자에게 몸을 기울이고, 그녀는 상대자에게 손을 내밀고 그녀는 물러났다가 다시 가까이 온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사상을 완성시킨다. 그러나 그녀의 사상은 그 자체로 이미 완전한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영혼의 독특한 멜로디에 따라 움직인다. 나는 그녀의 움직임을 위한 동기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에로스적 태도는 취하지 않는다. 이런 태도를 취하면 단지 그녀의 눈을 뜨게 할 뿐일 것이다. 나는 유연하고 원활하고 비개성적(非個性的)이어서 거의 기분(氣分)과 같다.

일반적으로 약혼자들은 무슨 말을 할까? 내가 알기로는 그들은 서로 상대방 가족의 지루하기만 한 관계를 알아내느라고 여념이 없다. 따라서 에로스적인 것이 사라지더라도 이상할 게 없다. 사랑을 절대적인 것, 이 절대적인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일은 사라져 버리는 것으로 만들 줄 모른다면, 비록 열 번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사랑해서는 안 된다. 나에게 마리아네라는 고모가 있다든가, 크리스토프라는 큰아버지가 있다든가, 아버지가 육군 소령이라든가 하는 따위 온갖 세속적인 일들은 사랑의 신비와는 아무 관계도 없다. 그뿐 아니라 자신의 과거 생활조차도 아무 뜻이 없다. 젊은 아가씨는 일반적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다. 만일 할 말이 있다면 그녀의 말을 듣는 것은 지루할 것이고 대체로 이런 아가씨는 사랑할 만하지 못하다. 나 개인으로서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 이런 이야기는 충분히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직접성(直接性)을 바란다. 직접성의 순간에 있어서 두 개인이 비로소 서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은 사랑에 있어서 영원한 것이다.

그녀가 약간의 신뢰를 갖도록 해야겠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의심을 제거해야 한다. 경의(敬意)로부터 서로 사랑하게 되고, 경의로부터 결혼하고, 경의로부터 아이를 갖게 되는 연인들이 있지만 나는 여기에는 속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내가 잘 아는 일이거나와 사랑은, 특히 정열이 꿈틀거리지 않는 한, 상대방에게 미학적(美學的)으로 도덕적인 것에 어긋나지 않기를 요구한다. 이러한 점에서 사랑에는 사랑의 독특한 변증법이 있다. 예를 들면 도덕적인 관점에서는 나와 에드바르드의 관계는 나와 고모의 관계보다 훨씬 비난받을 만하지만, 코델리아 앞에서는 전 자를 변명하는 것이 후자를 변명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 코델리아는 아무 말이 없었지만 나는 왜 그와 같은 방식으로 등장하지 않을 수 없었는가를 그녀에게 설명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사용해 온 신중함은 그녀의 궁지에 아침하고, 모든 일을 처리해 온 은밀함은 그녀의 주목을 끈다. 확실히 나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에로스적 교양을 드러냈고, 따라서 후에 내가 지금껏 한 번도 사랑적이 없음을 그녀에게 믿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자기모순에 빠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다. 그녀가 알지 못하고 내가 바라는 바를 얻기만 한다

면 자기모순에 빠지는 것쯤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 박식한 논객(論客)이라면 온갖 모순의 회피를 명예롭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젊은 아가씨의 삶은 너무나 풍요해서 모순이 있기 마련이고 따라서 모순은 필연적이다.

그녀는 기품이 있고 동시에 에로스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념도 없다. 그녀는 지금 정신적인 면에서는 확실히 어느 정도 나보다 뒤떨어지지만 에로스적인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녀의 오만을 내 쪽으로 돌릴지도 모른다는 것은 생각해 볼 만하다. 내가 관찰할 수 있는 한에서는 그녀는 여자의 본래 의미를 전혀 모른다. 그러므로 쉽게, 그녀의 오만을 에드바르드에게 발휘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사랑의 관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오만은 전적으로 원심적(遠心的)이었다. 그녀가 사랑의 관념을 갖게 되면 그녀는 참된 궁지를 갖게 된다. 그렇지만 저 원심력(遠心力)의 잔재도 쉽게 섞일 것이다. 그러면 그녀가 나에게 맞선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약혼을 승낙한 걸 후회하지는 않겠지만 내가 너무 싼값을 치르고 약혼을 입수한 것을 그녀는 쉽게 알게 될 것이다. 그녀는 그녀 쪽에서 본다면 시작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점을 알게 되면 그녀는 결연히 나에게 창끝을 돌릴 것이다.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는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깊이 동요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참으로 좋은 일이다. 이미 거리 저쪽에서 나는 창밖으로 힘껏 몸을 내놓고 있는, 이 귀엽고 작은 고수머리를 본다. 벌써 사흘째로 이런 모양을 보게 되었다.……젊은 아가씨가 창가에 서 있는 이상 분명히 까닭이 있다. 아마 그녀에게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그렇지만 제발 부탁이니 그렇게 창밖으로 머리를 내놓지 말아요. 분명히 당신은 의자의 횡목(橫木)에 올라서 있을 거예요. 당신의 자세를 보면 알 수 있답니다. 다음과 같은 무서운 일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거꾸로 떨어진다. 나는 아무런 관계도 없으므로 내 머리 위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의 머리 위로, 그렇다. 그의 머리 위로 떨어진다. 사실상 그라는 사람은 반드시 있기 마련이니까.……저런, 나의 친구인 신학사(神學士) 한센이 저기 거리 한가운데로 오는

군요. 그의 거동은 보통 때와는 다릅니다. 걸음걸이도 다릅니다. 내 생각이 옳다면 그는 동경(憧憬)의 날개를 타고 오는군요. 그는 이 집에 자주 드나드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던가?……아름다운 아가씨, 당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군요. 상상컨대 그를 마중하려고 문을 열러 간 모양이죠.……빨리 돌아오세요, 그는 이 집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왜냐고요? 그건 당신이 더 잘 알지 않아요? 나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그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방금 지나간 마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지 않았더라면, 당신도 그의 말을 들었을 텐데. 나는 지나치는 말처럼 “자네는 이 집에 들어갈 텐가?”라고 물었지요. 그는 분명하게 “아니야”라고 대답했답니다.……이제 당신은 안녕이라고 말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신학사님과 나는 산보를 갈 생각이랍니다. 그는 당황하고 있고 당황한 사람들은 말이 많지 않아. 지금부터 나는 그와 그가 얻고 싶어 하는 목사 자리에 대해 말할 생각이랍니다. 안녕, 아름다운 아가씨, 지금 우리는 세관으로 간답니다. 거기서 나오면 나는 그에게 말하지요, 어처구니없는 일일세. 자네 때문에 엉뚱한 곳에 왔군, 나는 베스터가데로 가는 길이었는데—보시다시피 우린 다시 돌아왔습니다.……얼마나 충실한가. 그녀는 아직도 창가에 서 있다. 이런 아가씨는 틀림없이 남자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느냐고 당신이 물었나요? 내가 다른 사람을 놀리기 좋아하는 비열한 녀석이기 때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스러운 아가씨, 당신을 염려해서 하는 일입니다. 첫째 당신은 신학사님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를 그리워하고 있었으므로 마침내 그가 오면 두 배로 반가울 겁니다. 둘째로 신학사님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지요. “자칫하면 우리 사람이 드러날 뻔했어요. 내가 당신을 찾아왔을 때 저 괜씸한 녀석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러나 나는 꾀를 부렸답니다. 내가 얻으려고 하는 목사 자리에 대한 장황한 이야기에 그를 끌어들여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가 세관까지 데려갔답니다. 저 녀석은 절대로 눈치채지 못했을 거예요.”—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당신은 신학사님을 전보다도 더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의 사고방식이 탁월하다고 믿지만 또한 그는 현명하다는 것도……방금 직접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나한테 감사해야지요.—그러나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

그들의 약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알고 있을 것이다. 아가씨는 매력적이고 귀엽게 보이지만 젊다. 아마도 그녀의 생각은 성숙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녀가 깊은 생각 없이 경솔하게 가장 중요한 일을 결정해 버린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일은 막아야 한다. 나는 그녀와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그녀에 대한 나의 책임이다. 그녀는 분명히 가장 사랑스러운 아가씨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신학사님에 대한 나의 책임이기도 하다. 그는 나의 벗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도 나는 그녀에 대해 책임이 있다. 그녀는 나의 벗의 미래의 아내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들의 가정에 대한 책임이기도 하다. 그들의 가정은 분명히 가장 존경할 만한 가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전 인류에 대한 나의 책임이기도 하다. 그것은 좋은 일이기 때문이다. 전 인류에 대해서! 전 인류의 이름으로 행동한다는 것, 그러한 전권(全權)을 갖는다는 것, 이것은 위대한 사상이고 숭고한 사업이다.—그러나 코델리아를 찾아가야 한다. 나는 언제나 기분을 이용할 수 있고 사실상 이 아가씨의 아름다운 동경은 나를 감동시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코델리아와의 최초의 싸움이 시작된다. 이 싸움에서 나는 달아나고 그녀는 나를 쫓게 함으로써 그녀에게 승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나는 끊임 없이 뒤로 물러나고 이렇게 후퇴하면서 그녀에게 나를 통해 사랑의 불안한 상념, 사랑의 정열, 동경은 무엇인가, 또한 희망은 무엇이고 안타까운 기다림은 무엇인가 하는 사랑의 모든 위력을 가르쳐 준다. 내가 그녀 앞에서 이러한 역할을 함에 따라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러한 모든 일이 발달하는 것이다. 나는 그녀를 승리의 행렬로 이끌고 가며 나 자신은 그녀의 길의 안내자인 동시에 열광적으로 그녀의 승리 찬가(讚歌)를 부르는 자가 된다. 그녀는 나에 대한 사랑의 지배력을 인식하고 나의 움직임을 보면 사랑이 영원한 힘이라는 것을 믿을 용기를 갖게 될 것이다. 그녀는 나를 믿게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나는 내 솜씨를 믿기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하는 일은 진리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녀는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나의 온갖 행동을 통해 그녀는 더욱더 강해진다. 사랑이 그녀의 영혼 속에 눈뜨고 그녀는 여자로서의 그녀의 의미를 알게 된다.—

지금까지 나는 시민적인 의미에서 그녀에게 구혼한<sup>66</sup> 일이 없다. 지금 나는 구혼을 해서 그녀를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할 때에만 나는 그녀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그녀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그녀가 알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녀는 자신을 잃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가 자유롭다고, 거의 나와 인연을 끊고 싶어 할 만큼 자유롭다고 느낄 때, 두 번째 싸움이 시작된다. 이번에 그녀는 힘과 정열을 갖게 되고, 싸움은 나에게 의미를 갖게 된다. 일시적인 결과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 가령 그녀가 그녀의 자만심에 눈이 어두워 나와 인연을 끊는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그녀에게는 그녀의 자유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역시 그녀는 나의 것 이어야 한다. 약혼이 그녀를 속박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다만 나는 자유로운 그녀 자신을 차지하고 싶다. 그녀가 나를 버리더라도 두 번째 싸움은 시작되고 두 번째 싸움에서 나는 이긴다. 그녀가 첫 번째 싸움에서 이겼다고 생각한 것이 착각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확실하게 내가 이긴다. 그녀에게 힘이 넘치면 그럴수록 나에게는 흥미 있다. 첫 번째 싸움은 해방 전쟁(解放戰爭)이다. 이것은 유희다. 두 번째 전쟁은 침략 전쟁이다. 이것은 생사를 건 싸움이다.

나는 코델리아를 사랑하는가? 그렇다! 정말로? 그렇다! 진정으로? 그렇다!—미학적(美學的)인 의미에서 그렇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어떤 의미를 갖는다. 이 아가씨가 진실하기는 하지만 바보 같은 남편의 손에 들어간다면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러면 그녀는 어떻게 될까? 형편없을 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나가려면 정직 이상의 것이 약간은 필요하다고 말한다. 나는 이런 아가씨를 사랑하려면 정직 이상의 것이 약간은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나는 바로 ‘그 이상의 것’을 갖고 있다. 그것은 거짓이다. 그렇지만 나는 그녀를 충실히 사랑한다. 나는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 그녀의 마음속의 풍요한 신적 천성(神的天性) 전체가 전개되도록 나 자신을 엄격하고 절제 있게 지켜본다.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소수자 중의 한 사람이고 그녀는 이러한 일에 알맞은 소수자 중의 한 사람이다. 그

66 ‘freien’에는 ‘자유롭게 한다’, ‘구혼한다’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이러한 두 뜻을 이용해서 구혼하는 것이 해방하는 것이라는 묘한 말을 성립시킨다.

러므로 우리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가?

내가 목사님을 바라보지 않고 당신이 손에 들고 있는 아름답게 수놓은 손수건을 줄곧 바라본 것은 죄일까요? 당신이 손수건을 그렇게 들고 있는 것은 죄일까요?……한 귀퉁이에는 이름이 있군요.……당신의 이름은 샤를로테 하안이군요? 이렇게 우연히 숙녀의 이름을 알게 되는 것은 매우 매혹적이죠. 마치 친절한 정령(精靈)이 있어서 은밀하게 당신과 알게 만든 것 같군요.……혹은 내가 이름을 볼 수 있도록 손수건을 접은 것은 전혀 우연이 아닐까요?……당신은 감동하고 있고 당신은 눈물을 닦는군요.……손수건은 다시 펼쳐졌습니다.……당신은 내가 당신을 바라보고 목시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은 손수건을 보고 손수건 때문에 당신의 이름이 알려진 것을 눈치챕니다.……그렇지만 그건 전혀 죄가 아닙니다. 아가씨의 이름쯤은 쉽게 알 수 있답니다.……그런데 왜 손수건을 혼냅니까? 왜 손수건을 돌돌 말아 버립니까? 왜 당신은 손수건에게 화를 냅니까? 왜 나에게 화를 냅니까? 목사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어느 누구도 사람을 유혹해서는 안 됩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한 사람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으며 이 죄는 오직 배가(倍加)된 선의(善意)에 의해서만 보상할 수 있습니다.”……이제 목사는 아멘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문밖에서는 당신은 마음대로 손수건을 바람에 날릴 수 있습니다.……혹은 당신은 나를 무서워합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했지요?……나는 당신이 용서하지 못할 행동을 했습니까? 당신이—용서하기 위해서—기억해 둘 수도 없는 행동을 했습니까?

코렐리아에게는 이중의 행동이 필요하다. 내가 그의 우세(優勢)에 밀려 언제나 달아나기만 한다면 그녀의 마음속에서 에로스적인 것이 너무 방자하고 분방해져서 깊은 여자다움이 실체화(實體化)되지 못한다는 것도 매우 있음 직한 일이다. 그렇게 되면 두 번째 싸움이 시작됐을 때 그녀는 저항하지 못할 게다. 물론 그녀는 그녀의 승리를 꿈꾸고 있고 또한 마땅히 그래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녀를 끊

임없이 각성시켜야 한다. 한순간이라도 승리를 다시 빼앗겼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녀는 승리를 확보하려는 의지를 배우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분열, 이러한 투쟁 속에서 그녀의 여자다움이 성숙한다. 나는 대화를 통해 불타오르게 하고 편지로 식혜 버리거나, 혹은 그 반대의 수단을 사용할 수 있을 게다. 후자가 가장 좋다. 이렇게 하면 나는 그녀의 가장 열광적인 순간을 향락하는 것이다. 그녀가 편지를 받고 달콤한 독이 그녀의 핏속에 스며들면 단 한마디로 사랑을 폭발시킬 수 있다. 다음 순간에는 아이러니와 냉담함이 그녀의 의심을 불러일으키지만 아직은 계속해서 그녀의 승리를 믿도록 해야 한다. 곧 다음 편지를 받으면 승리를 더욱 강하게 느끼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아이러니에는 편지에 아무리 잘 나타내더라도 결국은 그녀가 이해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다. 열광은 대화에서는 섬광처럼 나타낼 수 있을 뿐이다. 내가 눈앞에 있다는 것은 황홀경을 방해하는 것이다. 내가 편지 속에만 현전하면 그녀는 쉽게 나를 감당할 수 있고 어느 정도는 그녀의 사랑 속에 살고 있는 보다 보편적인 존재자와 혼동할 수 있다. 편지 속에서는 보다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고, 편지 속에서는 나는 그녀의 발밑에 끓어앉는 일 따위를 쉽게 할 수 있다. 내가 실제로 이런 짓을 한다면 넌센스로 보이기 쉽고 환상은 사라질 것이다. 이러한 행동의 모순은 그녀의 마음속에 사랑을 짹트게 하고, 사랑을 발달시키고, 강화하고, 확고하게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을 자극한다.

그러나 너무 일찍 이러한 편지가 강력한 에로스적 색채를 갖게 해서는 안 된다. 처음에는 보편적인 성격을 갖고 하나의 암시를 간직하고 한 가지 의혹을 제거하는 것이 최선이다. 때로는 약혼이 갖는 장점, 곧 기만에 의해서 사람들을 멀리하게 하는 이점도 넘지시 비춘다. 그러나 약혼은 얼마나 불완전한가를 그녀가 주목하게 될 계기는 없애지 않는다. 백부의 집에 가면 나는 언제나 실례로 보여 줄 수 있는 희화(戲畫)를 갖고 있다. 그녀는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내면적으로 에로스적인 것을 산출하지 못한다. 내가 조력을 거부하고, 저 희화가 그녀를 괴롭히도록 내버려둔다면 그녀는 반드시 약혼한 것에 싫증을 낼 것이고, 그렇더라도 그녀로 하여금 약혼에 싫증나게 한 것이 나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늘 짧은 편지로 나의 영혼의 상태를 말함으로써 그녀의 내면(內面)이 어떻게 되

어 있는가를 암시하기로 한다. 이것은 올바른 방법이고 따라서 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내가 이전에 사랑했던 사랑스러운 작은 아가씨들이여, 그대들에게 감사한다. 내 영혼이 이렇게 조율(調律)되어서 코델리아에 대해 내가 바라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대들 덕분이다. 감사한 마음으로 나는 그대들을 생각한다. 명예는 그대들의 것이다. 나는 언제나 젊은 아가씨가 천부적인 교사이고, 비록 아가씨를 속이는 기술 뿐이기는 하더라도, 아가씨로부터는 언제나 배우는 바가 있음을 인정한다.—아가씨를 속이는 것은 아가씨 자신으로부터 가장 잘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아무리 나이가 많아지더라도 결코 잊지 않으리라, 젊은 아가씨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 정도로 늙었을 때 그 인간은 이미 끝장 났다는 것을.

### 나의 코델리아!

당신은 내가 이런 사람인 줄은 상상도 못 했다고 말하지만 나 자신도 내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변한 건 당신일까요? 왜냐하면 나는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나를 보는 당신의 눈이 변했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내가 변한 것일까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므로 변한 것은 나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은 당신이므로 변한 것은 당신입니다. 나는 오성(悟性)의 냉정하고 침착한 빛에 비추어서 모든 걸 고찰해 왔습니다, 자랑스럽고 확고하게. 어떤 것도 나를 겁나게 하지 못하고 어떤 것도 나를 놀라게 하지 못했습니다. 가령 유령이 방문을 두드렸다 하더라도 나는 침착하게 촛대를 들고 방문을 열었을 것입니다.<sup>67</sup> 그러나 보십시오, 유령을 위해서, 창백하고 무력한 모습을 위해서 내가 문을 연 것은 아닙니다. 나의 코델리아, 당신을 위해서 연 것입니다. 그러자 사랑과 젊음, 건강과 아름다움이 나에게로 다가왔습니다. 나의 손은 떨리고 나는 양초를

67 모차르트의 〈돈 조반니(Don Giovanni)〉 제2막 피날레에서 기사장의 망령인 어떤 석상이 문을 두드리자 돈 후안이 태연하게 문을 여는 것에 비유한 것이다.

침착하게 들고 있을 수 없어 뒷걸음질쳐서 당신으로부터 달아나지만 눈으로 당신을 응시하는 것을 그만둘 수 없고 양초를 침착하게 들고 있었으면 하는 소망을 억제할 수 없습니다. 변한 것은 나입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어떻게, 어디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나는 모릅니다. 나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나 자신에 대해 나 자신은 변했다고 말하는 것 이상으로 자세한 규정을 첨가할 수도 없고 그 이상으로 풍부한 술어(述語)를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의 요하네스

### 나의 코델리아!

사랑은 은밀함을 좋아합니다.—약혼은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침묵을 사랑합니다.—약혼은 알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속삭임을 사랑합니다.—약혼은 소리 높이 선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약혼은 나의 코델리아의 솜씨에 의해 적을 속이는 뛰어난 수단으로 변합니다. 어두운 밤에 등불 하나를 켜는 것만큼 다른 배에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이 등불은 어둠보다도 더 사람을 속입니다.

당신의 요하네스

그녀는 차탁자(茶卓子) 옆의 소파에 앉아 있고 나는 그녀 옆에 앉아 있다. 그녀는 나의 팔을 잡았으나 머리는 여러 가지 생각으로 무거워져서 내 어깨에 기대고 있다. 그녀는 바로 내 옆에 있으면서도 멀리 있다. 그녀는 몸을 맡기고 있지만 아직은 내 것이 아니다. 아직은 저항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저항은 주관적으로 반성되지 않았고,<sup>68</sup> 일반적인 여성적 본성(本性)의 저항이다. 왜냐하면 여자의 본질은 헌신이고 그 형식은 저항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차탁자 옆의 소파에 앉아 있고 나는 그녀 옆에 앉아 있다. 그녀의 심장은 뛰지만 정열 때문이 아니며, 그녀의 가슴은 물결치지만 불안 때문이 아니며, 때때로 얼굴을 붉히지만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

68 본인이 아직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사랑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녀는 귀 기울이고 그녀는 이해한다. 그녀는 활기 있는 말에 귀 기울이고, 그녀는 그 말을 이해하며, 그녀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녀는 그 이야기를 자기 자신의 이야기처럼 이해한다. 그녀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 목소리가 그녀의 마음 속에서 메아리칠 때, 그녀는 이 메아리를 그녀와 다른 사람에게 계시(啓示)를 주는 자기 자신의 목소리처럼 이해한다.

나는 무엇을 하는가? 그녀를 속이고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속인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나는 그녀의 마음을 훔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나는 내가 사랑해야 할 아가씨가 그녀의 마음을 간직하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하는가? 내 마음을 그녀의 마음과 같게 형성하는 것이다. 화가는 그의 애인을 그리고 그것은 그의 기쁨이며, 조각가는 그의 애인을 조각한다. 나도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정신적 의미에서 그렇게 한다. 내가 이러한 상(像)을 갖고 있음을 그녀는 모르고 이 점에 사실은 나의 기반이 있는 것이다. 나는 몰래 이 상을 손에 넣었고 이러한 의미에서는 그녀의 마음을 훔친 것이다. 마치 레베카가 교활하게 라반으로부터 가신(家神)을 훔쳤을 때 라반의 마음을 훔쳤다<sup>69</sup>는 말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위와 환경은 어쨌든 인간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가장 확고하고 가장 깊이 기억에, 더욱 정확하게 말하면 영혼 전체에 새겨지기 때문에 잊혀지지 않는다. 나는 아무리 나이가 들더라도 이 작은 방 이외의 환경에서 코델리아를 상상한다는 것은 언제나 불가능할 것이다. 내가 그녀를 방문하면 하녀는 대체로 손님방의 문을 열어 주고 코델리아 자신은 자기 방에서 나온다. 그리고 내가 손님방의 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녀는 다른 문을 열므로 우리의 눈은 문에서 마주친다. 안방은 작고 아늑하여 거의 일종의 별실(別室) 같다. 나는 지금까지 여러

69 성서 <창세기> 31장 17~35절 참조. 키에르케고어는 여기서 착각을 일으킨 것 같다. 라반으로부터 가신을 훔친 것은 레베카가 아니라 라반의 딸로 야곱의 아내가 된 라헬인 것이다.

모로 다른 시각(視角)에서 안방을 보아 왔지만 역시 소파에서 바라보는 것이 언제나 가장 좋다. 코델리아는 내 옆에 앉아 있고, 우리 앞에는 둑근 차탁자가 있고, 그 위에는 주름이 많은 테이블보가 놓여 있다. 책상 위에는 굽고 힘찬 줄기로 화관(花冠)을 바치고 있는 꽃 모양의 램프가 놓여 있고, 다시 그 위에는 솜씨 있게 만든 종이우산이 덮여 있는데 이 우산은 매우 가벼워 언제나 흔들리고 있다. 램프의 형태는 동양의 자연을 생각나게 하고 우산의 흔들림은 동양의 미풍(微風)을 상기시킨다. 바닥은 특별한 종류의 벼들로 엎은 용단으로 덮여 있는데, 그것이 외국산임을 곧 알 수 있다. 어떤 순간에 나는 이 램프를 나의 풍경(風景) 속의 지도 이념(指導理念)으로 만들기도 한다. 그러면 나는 코델리아와 함께 램프의 꽃 밑에서 대지에 몸을 쭉 펴고 앉아 있게 된다. 때로 나는 벼들로 엎은 용단을 배로, 고급 선실(船室)로 상상한다.—그러면 우리는 아득히 대양을 항해하게 된다. 창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앉아 있으므로 우리는 하늘 밑의 광막한 지평선을 직접 바라본다. 이것은 또한 환상을 강화한다. 이렇게 그녀 옆에 앉아 있으면 나는 이러한 상상을 그림처럼 떠올리며, 이 그림은 죽음이 인간의 무덤 위를 스쳐 지나가듯 재빨리 현실 위를 스쳐 지나간다.—환경은 언제나 큰 의미를 갖지만 특히 회상을 위해서 그러하다. 온갖 에로스적 관계는 그 안에 모든 아름다운 것을 간직하는 그림을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환경에 주의해야 한다. 바람직한 환경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내야 한다. 코델리아와 그녀의 사랑의 경우에는 환경은 완전히 알맞다. 내가 나의 귀여운 에밀리에를 생각할 때 얼마나 다른 광경이 눈앞에 떠오르는가. 그렇지만 그때에는 그 환경이 얼마나 적합했던가? 나는 작은 정자에 있는 에밀리에 이외에는 생각나지 않는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한 그녀만을 생각하고 싶은 것이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집 앞의 작은 정원이 시야를 가로막아 여기에 부딪혀서 시선이 멀리 뻗어 간 도로를 대담하게 쫓아가지 못하도록 강요하고 있었다. 에밀리에는 우아했지만 코델리아만큼 중요하지는 않았다. 환경도 이 점과 일치하고 있었다. 눈은 지면에 못 박히고 대담하고 성급하게 앞으로 돌진하지 않았고, 조출한 전경(前景)으로 만족했다. 도로 자체도, 비록 낭만적으로 아득히 사라

져 버리긴 했지만, 시선이 앞에 있는 일정한 거리를 훑어보고 다시 되돌아와서 또 한 번 같은 거리를 훑어보도록 작용하고 있었다. 방은 평지에 있었다. 코델리아의 환경은 어떠한 전경(前景)도 가져서는 안 된다. 오직 지평선의 한없는 대담함만을 가져야 한다. 코델리아는 평지에 서 있어서는 안 되고 공중을 떠돌아야 한다. 그녀는 걸어서는 안 되고, 날아야 하며, 그것도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고 영원히 전진해야 한다.

약혼한 사람은 약혼한 사람의 어리석음을 잘 알게 된다. 며칠 전 신학사(神學士) 한센이 약혼녀인 귀여운 아가씨와 함께 나타났다. 그는 아가씨가 매력적이라고 털어놓았지만 이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일이었고, 그는 아가씨가 아주 젊다고 털어놓았지만 이것도 내가 알고 있는 일이었다. 끝으로 그는 언제나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던 이상적인 여성으로 그녀를 형성하기 위해 그녀를 선택했노라고 고백했다. 맙소사, 가엾은 신학사여—그런데 얼마나 건강하고 발랄하고 쾌활한 아가씨인가. 나는 상당히 노련한 경험자이지만 젊은 아가씨에게는 자연의 성체(聖體)에 접근하듯이 접근할 뿐이고 우선 그녀에게서 배운다. 따라서 내가 그녀에게 형성적(形成的)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이러한 영향은 내가 그녀에게서 배운 것을 항상 되풀이해서 그녀에게 가르쳐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녀의 영혼은 움직여야 하고 모든 방향으로 선동될 필요가 있다. 그것도 부분적으로 돌풍(突風)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녀는 무한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가까운 것임을 경험해야 한다. 이 무한한 것을 그녀는 그녀에 대해서는 사도(邪道)인 사색의 길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녀와 나를 본래적으로 결합하는 공상에 의해서 발견해야 한다. 왜냐하면 남자에게는 부분인 것이 여자에게는 전체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고생스러운 사색의 길에서 무한한 것에 이를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 여자는 이러한 노력을 하기 위해 태어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심정과 공상의 편안한 길에서 파악해야 한다. 무한한 것은 젊은 아가씨에게는 모든 사랑은 행복해야 한다는 관념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것이

다. 젊은 아가씨는 어느 쪽을 보든 무한한 것에 둘러싸여 있으며 그것으로 이행(移行)하는 것은 비약이다. 그러나 그것은 여성의 비약이고 남성의 비약은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남자는 일반적으로 왜 이렇게 둔한가. 남자는 비약해야 할 때가 오면 망설이고 오랜 준비를 하고 거리를 눈으로 재고 몇 번씩 출발을 하지만 무서워서 되돌아온다. 마침내 도약 하지만 떨어지고 만다. 젊은 아가씨의 방식은 다르다. 산악 지대에서는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가 두 개 나란히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두 낭떠러지는 내려다보면 몸이 오싹하는 깊은 협곡(峽谷)으로 갈라져 있다. 남자는 감히 뛰어넘지 못한다. 그러나 이 지방 주민의 이야기에 의하면 한 젊은 아가씨가 용감하게 뛰어넘었으며 그래서 이곳은 ‘아가씨의 도약’이라고 불린다. 나는 젊은 아가씨와 관련된 멋진 이야기는 모두 믿으므로 이 이야기도 정말로 믿으며 이 지방의 소박한 주민에게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무아지경에 빠진다. 나는 단지 믿기 위해서 무엇이든 믿고 기적적인 일도 믿으며 이에 탄복한다. 이 세상에서 나를 탄복시키는 유일한 것은 아가씨이고 아가씨야말로 나를 탄복시키는 최초의 것이고 최후의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도약은 아가씨에게는 한 번 펄쩍 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남자의 도약은 언제나 우스운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가 아무리 발을 벌리더라도 한 낭떠러지 끝과 다음 낭떠러지 끝의 거리에 비하면 그의 노력은 무(無)와 같은데 그러면서도 일종의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젊은 아가씨가 준비 운동을 한다고 생각할 바보가 있을까? 물론 젊은 아가씨가 달리는 것을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아가씨의 달리기는 그 자체가 유희이고, 향락이고, 매력의 발산이다. 이것을 준비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자에게 있어서는 결합되어 있는 것을 분리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준비 운동에는 여성의 본성에 어긋나는 변증법적인 것이 있다. 그러나 비약의 경우에는 결합되어 있는 것을 분리하려고 할 만큼 나쁜 사람이 있을 것인가! 그녀의 비약은 부동(浮動)이다. 그리고 그녀는 저쪽에 닿으면 다시 서 있게 되는데, 이러한 노력 때문에 지치지도 않고 다른 때보다도 더욱 아름답고 더욱 다정하며 이쪽에 서 있는 우리에게 키스를 보낸다. 산 밑에 편 꽃처럼 젊고 갓 태어난 듯한 모습으로 그녀는 몸을 흔든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는 우리는 어지럼증을 느낀다.—코델리아가 배워야 할 것은 무한성

(無限性)의 온갖 운동을 실현하고, 자기 자신을 뒤흔들고, 여러 가지 기분에 잠기고, 시(詩)와 현실, 진실과 시작(詩作)을 혼동하고, 무한성 속에서 방황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이러한 방황에 익숙해질 때, 나는 에로스적인 것을 덧붙인다. 그러면 그녀는 내가 바라고 뜻하는 대로 된다. 이때 나의 봉사, 나의 일은 끝나고 나는 나의 둑을 모두 내리고 그녀의 곁에 앉아 그녀의 둑으로 항해를 한다. 그리고 이 아가씨가 정녕 에로스에 취할 때 나는 키를 잡고 어떤 일도 너무 일찍 닥치거나 서투르게 닥치지 못하도록 속도를 조절하기에 무척 바쁠 것이다. 때로는 천천히 달리지만 다음 순간에는 다시 돌진하는 것이다.

우리 큰아버지 댁에서 코델리아는 언제나 시무룩하다. 그녀는 벌써 몇 번씩 그 집에 드나들지 말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그녀의 요구는 소용이 없다. 나는 언제나 핑계를 찾아내는 것이다. 어젯밤 거기서 나올 때 그녀는 보통 때와는 달리 정열적으로 내 손을 잡았다. 그녀는 거기가 싫었던 모양이지만 무리가 아니었다. 나 자신도 약혼이라는 인위적인 산물이 만들어 내는 부자연스러운 여러 가지 광경을 관찰하면서 내 나름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더라면 참지 못했을 것이다. 오늘 아침 나는 코델리아의 편지를 받았다. 이 편지에서 그녀는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기지를 갖고 약혼을 비웃고 있다. 나는 이 편지에 키스했다. 이 편지는 내가 그녀에게서 받은 편지 중에서 가장 반가운 것이다. 바로 이거야, 나의 코델리아여! 이것이 내가 바라던 거야.

아주 이상한 일이지만 에스터가데에서는 두 제과점이 마주 보고 있다. 왼쪽 가게의 이 층에는 귀여운 처녀 혹은 숙녀가 산다. 그녀는 대체로 커튼 뒤에 숨어서 창가에 앉아 있다. 이 커튼의 천은 아주 얇기 때문에 그녀를 잘 알거나 때때로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시력만 좋으면, 그녀의 모습을 하나하나 쉽게 가려낼 수 있다. 그러나 그녀를 알지 못하거나 시력이 나쁜 사람에게는 그녀는 검은 그림자처럼 보인다. 나의 경우는 어느 정도 후자에 속하지만 매일 3시만 되면 정확하게 나타나서 커튼 쪽을 바라보는 젊은 장교는 전자에 속한다. 사실 나는 처음에는 이 커튼 때문

에 아름다운 전신적(電信的) 관계를 주목하게 되었다. 다른 창에는 커튼이 없는데 오직 한 곳에만, 그것도 유리 하나를 가릴 만한 커튼이 있다는 것은 대체로 그 뒤에 누군가가 늘 앉아 있다는 암시인 것이다. 어느 날 오전, 나는 반대쪽 제과점 창가에 서 있었다. 마침 3시가 되었다. 나는 통행인은 아랑곳없이 커튼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뒤에서 검은 그림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자의 얼굴은 옆의 창에 옆얼굴을 나타냈는데 이 옆얼굴은 이상한 방식으로 커튼이 있는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자 이 여자는 아주 상냥하게 머리를 끄덕이고 다시 커튼 뒤에 숨었다. 첫째로 나는 그녀가 인사한 사람은 남자라고 추측했다. 여자 친구를 보고 인사한 것으로서는 그녀의 동작이 너무나 정열적이었기 때문이다. 둘째로 나는 그녀가 인사를 한 상대자는 언제나 반대쪽에서 온다고 추측했다. 그렇다면 멀리서 그가 오는 것을 보기에는 안성맞춤의 자리였고 게다가 커튼 뒤에 숨어서 인사할 수도 있는 것이다.—과연 정확히 3시에 이 조출한 사랑의 장면의 주인공, 곧 우리 소위님이 나타난다. 이번에는 나는 이 아가씨가 이 층에 살고 있는 그 집의 일 층, 제과점에 앉아 있다. 소위님은 이미 그녀를 바라보고 있다. 조심하게, 나의 가장 좋은 벗이여, 이 층을 향해 멋진 인사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세. 그는 얼핏 보기에도 나쁜 사람 같지는 않으며 체격도 좋고 늘씬하고 스마트한 모습에 매부리코, 검은 머리, 삼각모가 씩 어울린다. 이거 큰일났군, 너무 오랫동안 그리고 있으니까 다리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하는군. 그 인상은 마치 치통이 일어나고 그 이를 너무 오랫동안 그냥 놓아두었다고 느끼는 것과 같다. 온 힘을 눈에 집중시키고 이 층을 바라보려고 하면 다리에서 힘이 쭉 빠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미안해, 소위님, 승천(昇天)하려고 하는 시선을 가로막다니. 이것이 주제넘은 짓임을 나도 잘 알고 있다네. 저 시선은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무의미하지만 장래에 대한 기대에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이 기대가 머릿속에 너무 가득 차 있는 것 같다. 그는 비틀거리며, 아그네테에 대해 시인이 한 말을 빌리면 그는 비틀거리다 넘어졌다.<sup>70</sup> 이건 너무하다. 내가 참견을 했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이렇게 되

70 덴마크의 작가 엔스(Jens Peter Jacobsen)의 담시(譚詩) 〈아그네테 프라 홀메가르〉에 나오는 ‘아그네테는 비틀거리고, 혀우적거리고, 넘어졌다’는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기에는 그는 너무나 착하다. 하여튼 너무 운이 나쁘다. 숙녀에게 기사(騎士)의 인상을 주려고 하면 결코 넘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기사가 되려면 여러 가지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고 단지 지적(知的)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면 이런 일은 상관이 없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 속으로 침잠(沈潛)하고 굴러 떨어지므로 정말로 넘어진다 하더라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이 사고는 귀여운 아가씨에게 어떤 인상을 줬을까. 내가 이 달다네스 해협(海峽)과 같은 거리의 양쪽에 동시에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불행이다. 물론 친구를 저쪽에 세워 놓을 수는 있지만 나는 언제나 스스로 관찰하기를 좋아하고 이 사건으로부터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게다가 이런 경우에는 협력자를 갖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 그가 알고 있는 것을 잊게 하고 뭐가 뭔지 모르게 만들려 낭비해야 하기 때문이다.—나는 착한 소위님에게 정말로 싫증이 나기 시작했다. 매일 그는 정장을 하고 지나간다. 정녕 무서운 집념이다. 이런 일이 군인에게 어울리는가? 여보게, 자네는 군도(軍刀)를 차고 있지? 그렇다면 이 집을 습격해서 아가씨를 약탈해 가는 것이 어울리지 않을까? 만일 자네가 대학생이거나 신학사(神學士)이거나 오직 미래에 희망을 걸고 사는 부목사(副牧師)라면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는 당신을 용서해 주겠네. 저 아가씨는 보면 볼수록 내 마음에 드니까. 그녀는 아름답고 그녀의 갈색 눈에는 장난기가 가득 차 있다. 당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녀의 얼굴은 더 높은 아름다움으로 빛나고 이 아름다움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녀에게 어울린다. 따라서 나는 그녀가 풍부한 상상력을 갖고 있음에 틀림없다고 추측하며, 공상은 자연이 여자에게 주는 화장품이다.

### 나의 코렐리아!

그리움이란 무엇입니까? 어법상(語法上)으로는, 또한 시인들은 이 말에 사로잡힘이라는 말로 운(韻)을 맞춥니다.<sup>71</sup> 얼마나 어색합니까! 그렇다면 죄수만이 그리워

71 원어에서는 Langsei(그리움)과 Faengsei(감옥)이므로 운이 맞는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유로운 몸으로는 그리워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자유롭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리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렇게 자유롭습니다. 새처럼 자유롭습니다. 어떻게 그리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을 찾아갈 때 나는 그리워합니다, 당신과 헤어질 때 나는 그리워합니다, 당신의 옆에 앉아 있을 때조차도 나는 당신을 그리워합니다. 자기가 소유한 사람을 그리워할 수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다음 순간에는 이미 소유하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에는 영원한 초조함이 나의 그리움입니다. 내가 온갖 영원을 살아나가고 당신이 어느 순간이나 나의 것임을 확신하게 된다면 그때 비로소 나는 당신에게 되돌아가 당신과 함께 온갖 영원을 살아나가고 싶습니다. 물론 이때도 한순간이나마 당신 옆을 떠나서 당신을 그리워하지 않고 지낼 만한 참을성은 없겠지만 편한 마음으로 당신 옆에 앉아 있을 만한 침착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요하네스

### 나의 코델리아!

문밖에 작은 마차가 서 있습니다. 이 작은 마차는 나에게는 전 세계보다도 더 큽니다. 둘이 타기에는 넉넉할 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말 두 마리가 매여 있습니다만 자연의 힘처럼 사납고 부리기 어려우며 나의 정열처럼 조바심하고 당신의 생각처럼 대담합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을 멀리 데려갈 수 있습니다.—나의 코델리아, 그렇게 명령하겠습니까? 당신의 명령은 말고삐를 풀고 질주의 즐거움을 맛보자는 신호입니다. 나는 당신을 멀리 데려갑니다. 어떤 사람 곁을 떠나 다른 사람에게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 밖으로 데려갑니다.—말들은 뒷발로 서고, 마차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말들은 바로 우리의 머리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구름을 뚫고 하늘로 날아갑니다. 주위에서 윙윙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고 세계가 움직이는 것일까, 또는 우리가 대담하게 질주하는 것일까? 어지럼증을 느끼면, 나의 코델리아, 나를 꼭 붙잡아요, 나는 어지럼증을 느끼지 않을 테니까. 단 한 가지 일만을 생각하면 정신적인 의미에서는 어지럼증을 느끼지 않으며, 지금 나는 당신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눈으로 단 하나의 대상만

보고 있으면 육체적인 의미에서는 어지럼증을 느끼지 않으며, 지금 나는 오직 당신을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꼭 붙잡아요. 그러면 세계가 사라지고 우리의 가벼운 마차가 우리의 발밑에서 없어지더라도 우리는 서로 꼭 껴안고 천체의 화음(和音)<sup>72</sup> 속을 떠돌 것입니다.

당신의 요하네스

이건 너무 지나친다. 내 하인은 여섯 시간이나 기다렸고, 나 자신도 두 시간 동안이나 비바람 속에서 혼자 샤를로테 하인<sup>73</sup>을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매주 수요일 2시와 5시 사이에 늘 큰어머니를 방문한다. 마침 오늘은 그녀가 오지 않는 것일까? 내가 그녀를 이렇게 몹시 만나고 싶어 하는 바로 오늘만은. 그런데 왜 내가 그녀를 만나고 싶어 하는가? 그녀는 나에게 특별한 기분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내가 그녀에게 인사를 하면 그녀는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지상적(地上的)이면서 동시에 천상적(天上的)인 태도로 답례를 한다. 그녀는 거의 멈춰 설 듯한 태도를 보이는데 그것은 마치 땅속으로 가라앉는 듯하건만 그녀의 눈은 하늘로 올라가는 자의 눈 같다. 그녀를 바라보면 내 마음은 염숙해지면서 동시에 욕망이 일어난다. 다른 점에서 이 아가씨는 내 마음을 전혀 끌지 못한다. 이 인사 이외에는 가령 그녀가 주겠다고 하더라도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그녀의 인사는 나를 어떤 기분 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나는 이 기분을 코렐리아를 위해 쓰는 것이다.—어쨌든 그녀는 살짝 우리 옆을 지나간 게 틀림없다. 짚은 아가씨를 숨어서 기다린다는 것은 희극 속에서만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어렵다. 손가락마다 눈이 달려 있어야 하는 것이다. 옛날에 카르데아<sup>74</sup>라는 요정이 있었는데 이 요정은 늘 남자를 우롱했다. 그녀는 숲 속에 살면서 그녀를 연모하는 사내들을 깊은 숲 속으로 유인한 다음

72 피타고拉斯 파는 천체가 각기 소리를 내며 그것이 화음을 이룬다고 주장했다.

73 앞에 나온 교회에서 만났던 여자. 본서 122쪽 참조.

74 카르데아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신으로 카르나라고도 하며, 가정생활을 맡아보는 여신이다.

숨어 버렸다. 그녀는 야누스<sup>75</sup>를 우롱하려고 했으나 오히려 그에게 우롱당했다. 그는 뒤에도 눈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 편지들은 목적을 달성했다. 이 편지들은 코델리아를 에로스적으로는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발전시켰다. 에로스적으로 발전시키려면 필요한 것은 편지가 아니라 종잇조각이다. 에로스적인 것이 나타나면 그럴수록 종잇조각의 문구는 짧아지지만 그것은 더욱더 확실하게 에로스적인 것의 핵심을 파악한다. 그러나 그녀가 센 티멘털해지거나 약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이러니가 다시 그녀의 감정을 억제하며, 그것은 동시에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탐내도록 해야 한다. 종잇조각은 최고의 것을 멀리서 막연하게 예감하게 한다. 이러한 예감이 그녀의 영혼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우리의 관계는 단절된다. 나의 저항을 받으면서 이 예감은 그녀의 영혼 속에서 마치 그녀 자신의 사상이나 그녀 자신의 마음의 충동인 것처럼 형태가 잡힌다. 이것이 바로 내가 바라는 것이다.

### 나의 코델리아!

이 도시 어딘가에 미망인이 세 딸을 데리고 사는 조촐한 가정이 있습니다.<sup>76</sup> 그중 두 딸은 왕궁 요리실로 요리를 배우러 다닙니다. 초여름 오후 5시쯤, 응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살피는 듯한 눈초리로 방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은 아가씨가 피아노에 앉아 있을 뿐,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은 약간의 틈을 남긴 채 닫혔습니다. 따라서 아가씨의 눈에 띄지 않고 안에서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안에서 피아노를 치는 사람은 피아니스트가 아닙니다. 만일 피아니스트였더라면 문은 완전히 닫혔을 것입니다. 그녀는 스웨덴의 민요를 치고 있습니다. 그 노래는 청춘과 아름다움의 덧없음을 노래한 것입니다. 가사는 아가씨의 짧음과 아

75 야누스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문의 수호신으로 앞뒤에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있다.

76 얀센 가족을 말한다.

름다움을 비웃고 아가씨의 젊음과 아름다움은 가사를 비웃고 있습니다. 아가씨와 가사 중, 어느 쪽이 옳을까요? 피아노 소리는 아주 조용하고 아주 우울해서 마치 애수(哀愁)만이 이 심장을 심판할 만한 심판관 같았습니다.—그러나 이건 부당합니다. 애수가 심판한다는 것은! 젊음과 이러한 고찰 사이에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아침과 저녁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 것입니까! 피아노의 키는 떨리고 흔들립니다. 반향판(反響板)의 정령(精靈)들은 수선스럽게 일어나고 서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sup>77</sup>—나의 코델리아여, 왜 그렇게 격렬하게 칩니다! 왜 그렇게 정열적입니다!

어떤 사건이 우리의 추억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리운 추억 조차도 희미해지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려야 합니까? 대부분 사람은 이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간적으로 너무 가깝거나 너무 먼 것은 회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어제 겪은 일을 천 년이나 뒤로 밀려나게 하고 그것을 마치 어제 겪은 일처럼 회상하는 것입니다.

### 나의 코델리아!

한 가지 비밀을 당신에게 고백해야겠습니다. 그대, 내가 믿는 이여. 당신 이외의 누구에게 이 비밀을 털어놓겠습니까? 메아리에게? 메아리는 비밀을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별에게? 별은 너무 냉담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에게만 이 비밀을 털어놓고 싶습니다. 당신은 비밀을 지킬 줄 아니까. 한 아가씨가 있습니다. 내 영혼의 꿈보다 아름답고 햇빛보다 맑고, 바다 밑보다 깊고, 독수리의 비상보다 오만한.—한 아가씨가 있습니다.—오! 머리를 내 귀 있는 데까지 숙이고 내 말을 들어 주시오, 내 말이 그 안으로 숨어들도록.—이 아가씨를 나는 내 목숨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그녀는 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온갖 소망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그녀는 나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온갖 사랑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그녀는 나의 유일한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꽃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열렬하게 사랑합니다. 고뇌가 슬픈 가슴을 사랑하는 것보

77 불협화음을 말한다.

다도 더 사랑합니다. 사막의 메마른 모래가 비를 갈망하는 것보다도 더 사랑합니다.—어머니가 아기를 바라보는 것보다도 더 애정 어린 눈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신을 믿는 것보다도 더 큰 신뢰를 갖고, 식물과 뿌리의 관계보다도 더 밀접하게 나는 그녀에게 매달립니다.—당신의 머리는 무거워지고 머리를 가슴까지 숙였으며 가슴은 머리를 받쳐 주려고 부풀어 올랐습니다.—나의 코델리아여! 당신은 나를 이해했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나는 내 귀의 금선(琴線)을 긴장시켜 당신의 소리를 들음으로써 확인해야 합니까? 어떻게 내가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이 비밀을 지켜 주겠습니까? 당신을 믿어도 좋겠지요? 무서운 범죄를 지지르고 서로 침묵을 지켜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sup>78</sup> 나는 비밀을, 나의 생명이고 나의 생명의 내용인 비밀을 당신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말해 줄 만한 비밀이 없습니까, 만일 누설되면 초자연적인 힘이 움직일 만큼 중요하고 아름답고 순결한 비밀이?

당신의 요하네스

### 나의 코델리아!

하늘은 흐려 있습니다.—검은 비구름은 하늘의 정열적인 얼굴의 검은 눈썹처럼 몰려 있고 숲의 나무들은 어수선한 꿈에 쫓겨 흔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숲 속에서 숨어 버렸습니다.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 뒤에서 나는 당신을 닮은 여자의 모습을 봅니다만 내가 가까이 가면 다음 나무 뒤로 숨어 버립니다. 당신은 나에게 모습을 보이지 않을 생각입니까? 숲 속에 흘어져 있을 생각입니까? 나는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숲의 부분 부분이 각각의 윤곽을 잃고 나에게는 모든 것이 안개의 바다처럼 보이고 어디에나 당신을 닮은 여자의 모습이 나타났다가는 사라집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고 당신은 관조(觀照)의 물결 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지만 나는 당신 모습의 한 조각 한 조각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것은 당신 본질의 풍요한 통일성입니까, 또는 나의 본질의 빈약한 다양성입니까?  
78 로마의 역사가 살루스티우스(Gaius Sallustius)의 『카틸리나』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가리키는 것 같다. 카틸리나는 모반의 공모자들에게 서약을 시킬 때 맹서를 하며 포도주에 사람의 피를 섞은 것을 마시게 하고 비로소 자기의 계획을 털어놓았다고 한다.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요하네스

내가 코델리아와 나누는 대화를 아주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다면 정녕 흥미 있을 것이다. 그러나 쉽게 알 수 있는 일이거니와 그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나눈 모든 낱말을 내가 낱낱이 기억한다 하더라도 원래 대화의 핵심인 동시적인 것, 곧 대화의 생명 원리인 뜻밖의 감정 폭발이나 정열적인 것을 재현한다는 것은 언제나 불가능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나는 당연한 일이지만 준비를 하지 않는다. 준비를 한다는 것은 본래 대화의 본질, 특히 에로스적인 대화의 본질과 모순되는 것이다. 다만 나는 내가 보낸 편지의 내용만은 항상 염두에 두고 있고, 이 편지에 의해 그녀에게 일어났을 기분을 언제나 생각하고 있다. 물론 그녀에게 내 편지를 읽었느냐고 물어볼 생각은 전혀 없다. 그녀가 내 편지를 읽었다는 것을 나는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직접 편지에 대해 그녀에게 말하지는 않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인상을 그녀의 영혼 속에 보다 깊이 뿌리박게 하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인상을 그녀로부터 빼앗고 그녀를 어리둥절하게 만들기 위해서 대화를 은밀히 이 편지와 관련시킨다. 그러면 그녀는 이 편지를 다시 한 번 읽고 새로운 인상을 받게 되며 이런 일이 되풀이된다.

코델리아에게는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났으나 아직은 진행 중이다. 이러한 순간 그녀의 정신 상태를 말하면 나는 범신론적(汎神論的)인 대담함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녀의 눈이 이것을 단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녀의 눈은 대담하고 기대로 말미암아 거의 만용에 가까울 만큼 대담하며, 마치 어느 순간에나 이상한 것을 보기려 요구하고 또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다.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먼 곳을 바라보는 시선처럼 이 시선은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을 넘어서서 놀라운 것을 바라본다. 이 시선은 대담하고 기대로 말미암아 거의 만용에 가까울 만큼 대담하지만 자기 신뢰로 말미암아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뭔가 꿈꾸는 듯한, 애원하는 듯한 것

이 있지만 오만하거나 명령적인 것은 아니다. 그녀는 그녀의 밖에서 놀라운 것을 찾으며 그것이 나타나기를 애원한다. 마치 자기 힘으로는 그것을 불러일으킬 수가 없는 것처럼. 이것은 방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너무 일찍 그녀에 대해 우세해지는 것이다. 어젯밤 그녀는 나에게 나의 본질 속에는 뭔가 왕자(王者)다운 것이 있다고 말했다. 아마도 그녀는 굴복하고 싶겠지만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물론, 사랑하는 코델리아여, 나의 본질에는 왕자다운 것이 있지만 내가 지배하는 왕국이 어떤 왕국인지 당신은 전혀 모른다. 나는 여러 가지 기분의 폭풍을 지배한다. 아이올로스<sup>79</sup>처럼 나는 이 기분들을 나의 인격이라는 산에 잡아 두고 때로는 이 기분을, 때로는 저 기분을 불게 한다.

아침을 해서 그녀에게 자부심을 갖게 하면 ‘나의 것’과 ‘당신의 것’이라는 구별이 분명해지고 모든 것이 그녀의 책임이 된다. 아침을 하려면 무척 조심해야 한다. 때로는 자신이 아주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아직도 더 높은 곳이 남은 것처럼 보여야 하며 때로는 아주 낮은 곳으로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 전자는 정신적인 것을 향해 움직일 때 가장 올바른 방법이고, 후자는 에로스적인 것을 향해 움직일 때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그녀는 나에게 빛진 것이 있는가? 그런 일은 없다. 나는 그것을 바라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분별이 있고 너무나 에로스적인 것을 잘 알고 있다. 만일 정말로 그녀가 나에게 빛진 게 있다면 나는 그녀가 이런 사실을 잊어버릴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일 것이고 이런 사실에 대한 내 생각을 잠재우려고 애쓸 것이다. 젊은 아가씨는 누구든 자신 마음의 미궁(迷宮)에 대해서는 아리아드네<sup>80</sup>이며 미궁을 빠져나오게 하는 마법의 실을 갖고 있으나 그녀 자신은 이 실을 사용할 줄 모르는 척한다.

79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람의 신으로, 여러 가지 바람을 아이올리아라는 섬에 가두어 놓고 마음대로 사용했다.

80 크레타 섬의 미노스의 딸. 테세우스가 이 섬의 미궁에 사는 괴물 미노타우로스를 퇴치할 때 한 다발의 실을 주어서 미궁에서 빠져나오게 했다.

### 나의 코델리아!

말해 주세요.—나는 복종할 뿐입니다. 당신의 말은 명령이고, 당신의 소원은 만능의 주문(呪文)이고, 아무리 작은 소원이라고 하더라도 당신의 소원은 나에 대한 은혜입니다. 나는 당신의 밖에 서서 노비처럼 당신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명령을 하면 당신의 의지가 태어나고 당신의 의지와 함께 나도 태어납니다. 나는 영혼의 혼란 상태에서 오직 당신의 말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요하네스.

### 나의 코델리아!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자주 나 자신과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서 내가 아는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관심 있는 인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때때로 나는 화제가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했으나 지금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지금 그리고 영원에 걸쳐서 당신에 대해 나 자신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관심 있는 대상에 대해 가장 관심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아, 그렇습니다. 나는 단지 관심 있는 인간에 지나지 않지만 당신은 가장 관심을 끄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요하네스

### 나의 코델리아!

당신은 근래에야 내가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훨씬 전부터 당신을 사랑했을지 모른다는 것을 당신은 거의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의 사본(寫本) 중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의미한 낙서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날카로운 눈이라면 원래의 글씨를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부식제(腐蝕劑)를 써서 나중에 쓰인 글씨를 지우면 원래의 글씨가 곧 또렷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신의 눈은 나에게 내 마음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는 당신과 관계가 없는 모든 일을 망각 속에 몰아넣

으며, 그러면 태고의 원문자(原文字), 신적(神的)이고 싱싱한 원문자를 발견합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은 나 자신과 마찬가지로 오래되었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요하네스

### 나의 코렐리아!

자기 자신과 싸우는 나라가 어떻게 유지될 것입니까?<sup>81</sup> 나는 나 자신과 싸우고 있으므로 내가 어떻게 존립할 수 있을 것입니까? 왜 싸우는 것일까요? 당신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가능한 한 평안을 찾아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 평안을 찾아내야 합니까? 서로 싸우는 세력 중 한쪽은 자기야말로 상대방을 가장 깊게, 가장 열렬하게 사랑한다고 계속해서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에는 상대방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싸움이 나의 밖에서 일어났다면, 가령 당신을 감히 사랑하려고 하는 자가 있거나 당신을 감히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이 죄도 마찬가지로 무겁지만 나는 별로 괴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 싸움, 곧 이중으로 되어 있는 이 정열은 나를 소모하게 합니다.

당신의 요하네스

자, 귀여운 어부의 따님, 어서 숨어요. 저 나무 뒤에 몸을 숨겨요. 자, 짐을 들어요. 몸을 굽히는 것은 당신에게 씩 어울려요.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자연스러운 우아함을 갖고 몸을 굽혔군요. 주워 모은 물거리를 지고 몸을 굽혔어요.— 이런 아가씨가 그런 짐을 쳐야 하다니! 당신의 몸매의 아름다움은 무희(舞姬) 같은데.—가는 허리, 풍만한 가슴, 탄력 있는 몸매, 이것은 어떤 발레 선생이라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당신은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

81 성서 <마가복음> 3장 24절, <누가복음> 11장 17절 참조.

요. 귀부인이 훨씬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겠지요. 아, 귀여운 아가씨! 당신은 몰라요,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거짓이 있는가를. 자, 짐을 지고 이 거대한 숲 속을 걷기 시작해요. 아마 이 숲은 몇 마일이나 되는 넓이를 갖고 있어서 아득히 보이는 푸른 산기슭까지 이어져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당신은 사실 어부의 딸이 아니라 마술에 걸린 공주일지도 몰라요. 당신은 요마(妖魔)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요마는 아주 잔인해서 당신을 숲 속으로 땡감을 주우려 보낸 거예요. 옛 날이야기에서는 언제나 그렇지요. 그렇지 않다면 왜 당신은 숲 속으로 자꾸 깊이 들어가지요? 만일 당신이 정말로 어부의 딸이라면 당신은 그 짐을 지고 반대쪽으로 내 옆을 지나서 마을로 내려갈 겁니다.—자, 나무 사이로 구불구불 난 오솔길을 따라가세요, 내 눈은 당신을 놓치지 않아요. 자, 나를 뒤돌아보아요. 내 눈은 당신을 쫓고 있어요. 당신은 나를 움직이게 할 수 없어요. 욕망이 나를 압도하지도 못해요. 나는 울타리에 편안히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다른 때에는—아마도.—저런, 얼굴을 반쯤 돌렸을 때 당신의 눈에는 장난기가 가득 차 있군요. 당신의 가벼운 걸음걸이, 그건 유혹입니다.—그럼, 알고말고. 나는 알아요,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숲 속의 쓸쓸한 곳, 나무들이 살랑대는 곳, 고요에 몇 겹으로 감싸인 곳이지요. 보아요, 하늘까지도 당신에게 호의를 보이고 있어요. 하늘은 구름에 덮이고 숲의 배경을 어둡게 만들어요. 마치 하늘이 우리를 위해 커튼을 친 것 같아요.—안녕, 아름다운 어부의 딸님, 잘 있어요, 당신의 호의에 감사해요.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나를 울타리 위의 튼튼한 자리에서 움직이게 하자는 못했지만 내 마음을 풍요하게 뒤흔들어 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야곱은 라반과 품삯을 정한 다음에, 야곱은 흰 양 떼를 돌보고 그가 돌보는 양 떼에서 태어난 반점이 있는 새끼 양은 모두 그가 품삯으로 갖기로 합의한 다음 그는 물통에 막대기를 꽂아 양 떼가 보게 했다.<sup>82</sup>—이와 마찬가지로 나는 어디서나 코델리아의 눈앞에 있고 그녀의 눈은 언제나 나를 바라본다. 그녀는 이것을 나의 지나친 친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함으로써

82 성서 〈창세기〉 30장 25~43절 참조.

그녀의 영혼으로 하여금 다른 모든 것에 대한 관심을 잃게 하고 어디서나 나를 보고 싶다는 정신적 욕망을 그녀의 마음속에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 나의 코렐리아!

내가 당신을 잊을 수 있다면! 나의 사랑은 기억의 산물일까요? 비록 시간이 그 혹판에서 모든 것을 지워 버리고 기억 그 자체까지도 지워 버린다 하더라도, 당신에 대한 나의 관계는 변함없이 생생할 것이고 당신을 잊지는 못할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잊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누구를 회상할 것입니까? 나는 당신을 회상하기 위해 나 자신을 잊은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당신을 잊는다면 나는 나 자신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자신을 상기하는 순간 나는 다시 당신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잊을 수 있다면!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sup>83</sup> 아리아드네를 그린 것입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뛰어 일어나 걱정스러운 듯이 뜻을 모두 올리고 떠나가는 배를 바라봅니다. 그녀 옆에서는 아모르<sup>84</sup>가 활시울이 없는 활을 들고 서서 눈물을 닦고 있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투구를 쓴 날개가 달린 여성의 모습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모습은 네메시스<sup>85</sup>라고 생각됩니다. 이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이 그림을 약간 변경시켜 보세요. 아모르가 울고 있지 않고 활에 활시울이 있다고. 내가 미쳤다고<sup>86</sup> 해서 당신의 아름다움이 조금이라도 시들고 당신의 매력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까요? 아모르는 웃으며 활을 잡아당깁니다. 네메시스도 당신 옆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83 현재 나폴리 박물관에 있다고 하는 벽화. 테세우스는 아리아드네의 도움으로 미궁을 빠져나와 아리아드네를 데리고 크레타 섬을 떠난다. 그러나 그는 나크소스 섬에서 아리아드네가 짊든 사이에 떠나간다. 떠나가는 배를 바라보는 아리아드네를 그린 그림이다. 따라서 본문에서 ‘침대에서 뛰어 일어난’이라고 한 것은 설화상으로는 잘못이다.

84 아모르는 에로스로 사랑의 여신.

85 네메시스는 복수의 여신.

86 테세우스가 아리아드네를 버린 것은 미쳤기 때문이라는 키에르케고어의 해석.

역시 활시울을 잡아당깁니다. 이 그림에서는 배 안에서 일하고 있는 남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테세우스라고 생각합니다. 내 그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선미(船尾)에 서서 그리운 듯 뒤통아보며 두 팔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는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의 광기(狂氣)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배는 그를 데려가는 것입니다. 아모르와 네메시스, 그들은 둘 다 겨냥을 하고, 두 활에서 각기 화살이 날아가고, 화살은 정확하게 맞고, 두 화살은 그의 심장의 같은 곳에 명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사랑이 복수하는 네메시스였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요하네스

### 나의 코델리아!

나는 나에게 반했다고 사람들은 나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만을 사랑하므로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나는 당신만을 사랑하므로 어느 누가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짐작이나 하겠습니까? 나는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왜?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고 정녕 당신에게 속한 것은 모두 사랑하고 있어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라고 하는 것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나 자신도 사랑할 수 없을 만큼 당신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속된 눈에는 가장 강렬한 이기주의의 표현으로 보이는 것도 당신의 깨끗해진 눈에는 가장 순수한 동감(同感)의 표현으로 보이며, 세상의 속된 눈에는 가장 산문적인 자기 보존(自己保存)의 표현으로 보이는 것도 당신의 신성해진 관조(觀照) 앞에서는 가장 감동할 만한 자기 부정(自己否定)으로 보입니다.

당신의 요하네스

나는 발전 전체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무척 걱정해 왔다. 그런데 코델리아는 대단한 발전을 보인 것 같다. 아니, 오히려 그녀를 언제나 분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동원해야 할 것 같다. 그녀가 때도 오기 전에, 지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때가 이르다는 것은 그녀의 때가 지나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랑을 할 때에는 거리를 걸어 다녀서는 안 된다. 큰 거리 한가운데서 어슬렁거리 는 것은 결혼한 패들뿐이다. 사랑을 하면서 네데보오<sup>87</sup> 쪽으로부터 산보에 나설 때에는 에스롬 호수를 따라서 걸어서는 안 된다. 이 길은 원래 수렵 도로(狩獵道路) 이지만 많은 사람이 이미 지나간 길이다. 그러나 사랑은 자신의 길을 스스로 다지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 차라리 숲(그립스 스고우)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게 좋다. 그리고 팔을 끼고 돌아다니라면 서로 잘 이해하게 되고 이전에는 단지 막연하게 기뻐했거나 슬퍼한 일들이 분명해진다. 누군가가 주위에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다.—그래서 이 아름다운 너도밤나무는 그대들의 사랑의 증인이 된다. 이 나무의 수관(樹冠) 밑에서 그대들은 처음으로 사랑의 고백을 했던 것이다. 그때 그대들은 모든 것을 분명하게 회상했다. 처음 서로 만나게 된 때를, 춤을 추기 위해 처음으로 손을 마주 잡았던 때를, 새벽에 헤어지던 때를, 자기 자신에게도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고 더구나 서로 사랑을 고백하지 못했을 때를,—이러한 사랑의 모습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아주 재미있다.—그들은 나무 밑에서 무릎을 꿇고 불변의 사랑을 서로 맹서하고 서로의 결합에 키스로 봉인을 한 것이다.—이렇게 풍부한 기분은 코델리아를 위해서도 아낌없이 써야 한다.—이렇게 해서 이 너도밤나무는 증인이 되었다. 오, 물론 나무는 참으로 알맞은 증인이다. 그러나 나무로는 역시 모자란다. 물론 그대들은 하늘도 증인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늘은 일반적으로는 너무나 추상적인 관념이다. 보라, 그래서 여기에 또 한 사람의 증인이 있는 것이다.—나는 일어나서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야 할까? 천만에. 어

<sup>87</sup> 쉐란 근교 에스롬 호수 근처의 전원 지대. 이 호수 옆에는 키에르케고어가 즐겨 산보한 그립스 스고우의 숲이 있다.

쩌면 내 얼굴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만사가 끝난다. 그들이 멀어졌을 때 일어나서 여기에 누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 줄까? 천만에. 그건 무의미하다. 그들의 비밀은 침묵에 싸여 있어야 한다.—내가 원하는 한은 그들은 내 수중에 있고,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나는 그들을 떼어 놓을 수도 있다. 나는 그들의 비밀을 함께 알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이 비밀을 알고 있다면 그나 그녀로부터 들었음에 틀림 없다.—그렇다면 그녀로부터? 그것은 불가능하다.—그럼, 그로부터?—그건 흥측하다.—브라보! 그렇지만 이것은 거의 흥측하다. 좋아, 이제 알게 될 것이다. 그녀의 특정한 인상을 내가 바라는 대로 정상적인 방식으로 얻을 수 없다면 다른 방도는 없는 것이다.

### 나의 코델리아!

나는 가난합니다.—당신은 나의 부(富)입니다. 나는 어둡습니다.—당신은 나의 빛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갖지 못했고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내가 어떻 게 무엇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소유하지 못한 자가 무엇인가를 소유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고 또한 소유할 필요도 없는 어린애처럼 행복합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단지 당신에게 속해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의 것이 되기 위해 존재하기를 그만둔 것입니다.

당신의 요하네스

### 나의 코델리아!

‘나의’,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나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에 속하는 것이고, 나의 본질의 내용이고 내가 거기에 속하는 한에서만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하느님’, 그것은 나에게 속하는 신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속해 있는 신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조국, 나의 고향, 나의 천직, 나의 그리움, 나의 희

망이라고 말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지금까지 불멸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당신의 것이라는 이 생각은 자연의 습관적인 운행을 깨뜨릴 것입니다.

당신의 요하네스

### 나의 코델리아!

나는 누구입니까? 당신의 개선에 동반하는 겹손한 기록계(記錄係)이며, 당신이 우아하고 가볍게 날아오를 때 당신의 밑에서 몸을 굽히고 있는 댄서이고, 당신이 날아가다 지쳤을 때 잠시 쉬어가는 나뭇가지이며, 소프라노의 열광 속에 들어가 이 소리를 더욱 높이 울려 퍼지게 하는 베이스입니다.—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당신을 대지에 묶어 놓는 대지의 중력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일까요? 물체, 덩어리, 흙, 먼지, 재입니다.—그대, 나의 코델리아여, 그대는 혼(魂)이고 영(靈)입니다.

당신의 요하네스

### 나의 코델리아!

사랑은 모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은 그 자체로서는 의미를 갖지 못하고 사랑이 저기에 부여하는 해석에 따라 의미를 가질 뿐입니다. 예컨대 약혼을 했으면서도 다른 아가씨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고 고백하는 남자가 있다면 그는 아마도 약혼자 앞에 죄인처럼 서 있을 것이고, 그녀는 화를 낼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내가 잘 알고 있지만, 당신은 이러한 고백에서 충성심을 인정할 것입니다. 내가 다른 아가씨를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인생 전체에 반영(反映)을 던지는 것은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뿐임을 당신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 아가씨를 마음에 둔다 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것은 그녀가 아니라 오직 당신뿐임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그것은 건방진 일

일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영혼 전체에는 당신이 가득 차 있어서 나의 인생은 다른 의미를 갖게 되고 나의 인생은 당신에 대한 신화(神話)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요하네스

### 나의 코렐리아!

나의 사랑은 나를 소모시킵니다. 오직 목소리만이 남아 있습니다.<sup>88</sup> 당신을 사랑하고 어디서나 당신을 사랑한다고 속삭이는 목소리만이. 오! 당신은 이 목소리를 듣는 데 지쳤습니까? 이 목소리는 어디서나 당신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나는 몇 겹의 떠도는 울타리처럼 나의 철저히 반성한 영혼으로 순수하고 깊은 본질을 가진 당신의 둘레를 둘러싸는 것입니다.

당신의 요하네스

### 나의 코델리아!

옛날이야기를 읽으면 시냇물이 어떤 아가씨를 사랑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의 영혼은 당신을 사랑하는 시냇물과 똑같습니다. 때로는 조용히 당신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깊게, 꼼짝하지 않고. 그러나 때로는 당신의 모습을 붙잡았다고 생각하고 다시는 당신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큰 물결을 일으킵니다. 때로는 표면에 잔물결을 일으켜 당신의 모습과 놀지만 때로는 당신의 모습을 놓치고 암담한 절망 속에서 큰 물결을 일으킵니다.—그렇습니다, 나의 영혼도 이와 같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시냇물과 같습니다.

당신의 요하네스

88 그리스 신화에서, 에코우는 미소년 나르시소스를 사랑했으나 나르시소스가 무관심하자 점점 마르다가 결국은 목소리만 남았다고 한다.

솔직히 말하면 각별히 뛰어나고 생생한 상상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보다 편리하고 보다 쾌적하며 무엇보다도 신분에 알맞은 탈것에 앉아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산골 농부와 함께 타고 가면 다른 의미에서 사람들의 눈을 끌 것이다. 그렇더라도 잠시 동안이라면 괜찮을 것이다. 잠시 국도로 나간다. 마차를 타고 1마일쯤 간다. 아무도 만나지 않는다. 2마일쯤 간다. 아무 일도 없다. 마음이 편해지고 가라앉는다. 마차 위에서 보면 경치는 사실 보통 때보다 더 좋아 보인다. 벌써 삼 마일쯤은 왔다.—그런데 이렇게 멀리 떨어진 국도에서 코펜하겐 사람과 만나리라고 누가 생각했을 것인가? 진짜 코펜하겐 사람이야, 틀림없어. 시골 사람은 아니야. 아주 독특한 점이 있고, 아주 의젓하고, 여기저기를 둘러보며 평가하는 듯하고 약간은 비웃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가씨, 당신이 앉은 자리는 편하지 않은 것 같군요. 당신은 마치 구경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차가 너무 평평해서 발 내려놓을 자리도 없군요. 그러나 그건 당신의 잘못이에요. 언제든지 내 마차를 이용할 수 있어요. 내 옆에 앉는 것을 당신이 난처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보다는 좋은 자리를 비워 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해 준다면 나는 마차의 자리를 모두 당신에게 내주고 마부 석으로 옮겨 앉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당신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수 있어요.—밀짚모자는 결눈질을 완전히 막아 주지는 못해요. 그렇게 머리를 숙여도 소용이 없어요. 나는 역시 당신의 옆얼굴에 감탄할 수 있으니까요. 농부가 나에게 인사하는 것이 무척 귀찮지 않아요? 그러나 농부가 신분이 높은 신사에게 인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달아날 수는 없어요. 저것 봐요, 여기엔 선술집이나 정거장이 있군요. 산골 농부는 그 나름대로 신양심이 깊기 때문에 여기서 기도를 드리지 않고 지나갈 수는 없답니다.<sup>89</sup> 이제 내가 저 사람을 상대해 보겠습니다. 나는 농부를 다루는 뛰어난 재주를 갖고 있답니다. 오, 당신의 비위도 잘 맞췄으면 좋겠는데. 저 사내는 나의 초대에 저항하지 못하며, 일단 초대를 받아들이면 그 효과에 저항하지 못해요. 내가 다루지 못하면 내 하인이 다룰 수 있답니다.—농부는 선술집으로 들어가고 당신은 마구간에서 혼자 마차에 남아 있군요.—

89 선술집을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는 농담.

도대체 저 아가씨는 어떤 아가씨일까? 교회 서기쯤 되는 소시민의 딸일까? 만일 그렇다면 그녀는 교회 서기의 딸로서는 뛰어나게 예쁘고 옷도 고상하게 입었는걸. 이 교회 서기는 상당히 수입이 좋은 모양이야. 문득 떠오른 생각이지만 저 아가씨는 점잖은 집안의 딸로서 고급 마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지겨워 어쩌면 여름 별장 까지 걸어가다가 약간의 모험을 해보는 것이 아닐까? 있음 직한 일이야. 전례도 있다.—농부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는 마시는 것밖에 모르는 명청이다. 좋아, 좋아, 여보게, 마시게, 마셔. 마음대로 마시라고.—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저 아가씨는 바로 예스페르센 양, 시내의 대상인의 딸인 한시네 예스페르센이 아닌가. 확실히 우리는 서로 아는 사이야. 언젠가 브레드가데에서 만난 일이 있었다. 그녀는 마차 뒷자리에 앉아서 창문을 열지 못해 찔찔매고 있었지. 나는 안경을 쓰고 그녀를 바라보며 좋아했어. 그때는 매우 보기 흥한 자세였고 계다가 마차 안에는 사람들이 잔뜩 타고 있어서 꼼짝할 수도 없었고 아마 비명을 지를 수도 없었을 거야. 지금 자세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좋지 않군. 우리는 둘 다 운명의 지배를 받고 있어. 그건 분명해. 저 아가씨는 분명히 로맨틱한 아가씨일거야. 분명히 제멋대로 떠났을 거야.—내 하인이 농부와 함께 온다. 농부는 잔뜩 취했구나. 참으로 엄청난 일 이야, 하여튼 농부란 어떻게 할 수 없는 족속들이야. 아, 그렇고말고! 그렇지만 농부보다 더 나쁜 인간도 있어.—이것 보세요, 이번에는 마부 노릇을 안 할 수가 없겠군요. 아주 로맨틱하군요.—내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는군요. 마차를 몰고 갈 수 있다고 고집을 부리는군요. 나를 속일 수는 없어요. 나는 당신의 음흉한 속셈을 알고 있답니다. 조금 앞으로 가서 거기서 뛰어내릴 생각이죠. 숲 속에서는 쉽게 은신처를 찾을 수 있으니까.—내 말에 안장을 얹게 해야겠군. 말을 타고 쫓아가야겠어.—이것 보세요, 나는 준비가 다 됐어요. 이제 당신은 어떤 습격을 당하든 안심해도 괜찮아요.—그렇게 무서워서 떨지 말아요. 나는 곧 되돌아갈 테니까. 나는 당신을 약간 불안하게 만들어서 당신의 자연적인 아름다움을 돌보이게 할 기회를 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당신은 내가 농부를 잔뜩 취하게 했다는 걸 전혀 모르는군요. 나는 당신에게 실례되는 말을 한 적도 없어요. 이제 곧 좋아질 겁니다. 나는 이 일을 잘 수습해서 이 이야기 전체를 당신이 웃어넘기게 하겠습니다. 나는 단지 당신

과 알고 지내고 싶었을 뿐입니다. 내가 아가씨를 습격하리라고 생각하면 못 써요. 나는 자유의 친구이고 자유의사에 따라 나에게 주는 것 이외에 나는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답니다.—이렇게 여행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은 당신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나는 사냥을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차는 말을 맨 채, 선술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당신이 명령만 내리면 그 마차는 곧 당신을 모시려 와서 당신이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 줄 겁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나는 당신과 함께 갈 수가 없어요. 나는 사냥할 약속에 묶여 있고 이 약속은 신성합니다.—당신이 이 제의를 받아들인다.—만사가 곧 원만하게 해결된다.—이것 보세요, 그러면 당신이 나를 다시 만나더라도 전혀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당신답지 않게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은 이 사건 전체를 재미있게 생각할 수 있고 약간은 미소 지을 수도 있고 내 생각도 조금은 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그 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보잘것없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나는 시작할 이유를 만드는 데 강합니다.

어젯밤 고모님 댁에서 조출한 모임이 있었다. 나는 코델리아가 뜨개질감을 꺼내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안에 나는 작은 종잇조각을 숨겨 놓았다. 그 종잇조각이 떨어졌고 그녀는 그것을 집어 들었고 그리움에 가슴이 부풀었다. 이렇게 항상 상황을 이용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거두는 이득은 믿을 수 없을 정도이다.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종잇조각도 이런 환경 속에서 읽으면 그녀에게는 무한한 중요성을 갖게 된다. 이에 대해 그녀가 나에게 이야기할 기회는 없었다. 나는 어떤 숙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도록 꾸며 놓았던 것이다. 따라서 그녀는 오늘까지 기다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일은 그 인상을 그녀의 영혼 속에 깊이 새겨 놓는데 있어서는 언제나 효과가 있다. 표면상으로는 내가 언제나 그녀에게 주목하는 것으로 되지만 나는 어디서나 그녀의 생각에 파고들고 어디서나 그녀를 깜짝 놀라게 한다는 이익을 얻는다.

사랑에는 독특한 변증법이 있다. 전에 내가 반했던 젊은 아가씨가 있었다. 지난해

여름, 나는 드레스덴의 극장에서 그녀가 아닌가 속을 만큼 그녀와 비슷한 여배우를 보았다. 그래서 나는 이 여배우와 사귀고 싶었고 이에 성공했다. 그러나 나는 이 여배우를 만나보고, 두 여자가 얼마나 닮지 않았는가를 확인했을 뿐이었다. 오늘 나는 거리에서 이 여배우를 생각나게 하는 숙녀를 만났다. 이런 이야기는 끝없이 계속될 것이다.

어디서나 나의 생각은 코델리아를 둘러싼다. 나는 나의 생각을 천사처럼 그녀의 둘레에 보내는 것이다. 비둘기가 끄는 마차를 타고 있는 비너스처럼 그녀는 개선(凱旋) 마차에 타고 있고, 나는 날개가 달린 나의 사상으로 하여금 이 마차를 끌게 한다. 그녀는 마차에 기뻐하며 앉아 있다. 어린애처럼 풍요하게 여신처럼 전능하게. 나는 그 옆을 걸어서 따라간다. 정녕 젊은 아가씨는 자연과 모든 존재의 성체(聖體)이다! 이 점을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다. 문제는 이 홀륭함이 짧은 동안에 사라져 버린다는 데 있다. 그녀는 나에게 미소 짓고 나에게 인사하고 나에게 눈짓을 한다. 마치 나의 누이동생이나 되는 것처럼. 한 시선이 그녀에게 나의 애인임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자세가 있다. 코델리아는 많은 진보를 이룩했다. 그녀는 나의 무릎 위에 앉아 부드럽고 따뜻하게 두 팔로 내 목을 감는다. 그녀는 나의 가슴에 기댄다. 가벼워서 몸의 무게를 전혀 느낄 수 없다. 부드러운 몸은 거의 나에게 닿지 않은 것 같다. 꽃처럼 그녀의 사랑스러운 자태는 나에게 휘감기지만 리본처럼 가볍고 자유롭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있으며 그녀의 가슴은 눈처럼 눈부시게 희고 내 시선이 멈춰 있을 수 없을 만큼 미끄러워서 가슴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내 눈은 미끄러져 떨어졌을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랑일까? 그럴지도 모른다. 그것은 사랑의 예감, 사랑의 꿈이다. 그러나 아직도 힘이 없다. 그녀는 구름이 변용(變容)한 자<sup>90</sup>를 껴안듯이 멀리서 나를 포옹한다. 미풍처럼 부드럽게, 꽃을 안을 때처럼 조심스럽게. 그녀는 하늘이 바다에 키스하듯 모호하게, 이슬

90 산상에서의 예수의 변용에 비유한다는 뜻.

이 꽃에 키스하듯 부드럽고 조용하게, 바다가 달그림자에 키스하듯 엄숙하게 나에게 키스한다.

이 순간 그녀의 정열을 나는 소박한 정열이라고 부르고 싶다. 이때에 내가 마음을 바꾸고 몸을 빼려고 하면 그녀는 나를 뛰어 놓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녀에게는 에로스적인 것 이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다. 다만 이에로스적인 것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도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에로스적인 것은 그녀의 수중에 있는 무기가 될 것이고, 그녀는 이 무기를 나에게 휘두를 것이다. 이럴 때 나는 반성된 정열을 얻게 된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위해 싸우는 것이다. 그녀는 내가 에로스적인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녀는 나를 정복하려고 자기 자신을 위해 싸우는 것이다. 그녀는 에로스적인 것의 보다 높은 형태에 대한 요구도 갖고 있다. 내가 그녀를 선동하여 예감하도록 한 것을 이제는 나의 냉담함을 통해 그녀가 파악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발견한 것으로 믿게 해야 한다. 그러면 그녀는 나에게 기습을 가할 것이고 대담하다는 점에서는 그녀가 나를 능가하며 따라서 나를 사로잡았다고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녀의 정열은 규정되고 힘을 갖게 되며 확정적으로 되고 변증법적으로 된다. 그녀의 키스는 온 힘을 기울인 것이 되고 그녀의 포옹은 이미 변덕이 아니다.—그녀는 나에게서 그녀의 자유를 찾게 되고 내가 그녀를 강하게 포옹하면 할수록 그녀는 더 많은 자유를 발견한다. 약혼이 깨진다. 이렇게 되었을 때 격심한 혼란 속에서 아름답지 못한 면을 나타내는 일이 없도록 그녀는 약간 안정할 필요가 있다. 그녀의 정열이 다시 한 번 집중되면 그녀는 나의 것이 된다.

지난날 에드바르드가 있을 때에 나는 그녀의 독서를 간접으로 돌봤으나 지금은 직접 돌봐 주고 있다. 내가 제공하는 것은 내가 가장 좋은 양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곧 신화와 옛날이야기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녀는 자유로우며 나는 모든 것을 그녀 자신의 마음속에서 엿듣는다. 그것이 그녀의 마음속에 미리 들어 있지 않으면 나는 그것을 그녀의 마음속에 주입시킨다.

하녀들은 여름에 유원지로 소풍을 가는데, 그 즐기는 방식은 대체로 야하다. 그들은 일년에 단 한 번 이곳에 오기 때문에 충분히 즐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은 모자도 써야 하고 솔도 둘러야 하며 온갖 방법으로 볼품없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들의 들품 모양은 거칠고 보기 흉하고 음란하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나는 프레데릭스베르크 공원이 좋다고 생각한다. 일요일 오후에는 하녀들이 여기에 오고 나도 간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온당하고 품위 있으며 하녀들의 놀이도, 보다 조용하고 보다 세련되어 있다. 하녀들에게 관심이 없다고 하는 남자가 있다면 대체로 손해를 보는 것은 하녀들이 아니라 이렇게 말한 사람이다. 각양각색의 하녀들의 폐는 우리 덴마크의 가장 아름다운 군대인 것이다. 내가 국왕이라면 —뭘 해야 할지 잘 알고 있으므로—상비군의 열병식 따위는 하지 않겠다. 내가 서른두 명의 시의회(市議會) 의원 중의 한 사람이라면 나는 하녀들에게 고상하고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도록 안목을 넓혀 주고 권장하고 촉구하고 적절한 포상을 하는 공안위원회(公安委員會)의 설치를 주저 없이 제안할 것이다. 왜 아름다움을 낭비하는가, 왜 그 아름다움이 일생동안 눈에 띠지 않게 하는가,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진가를 발휘하도록 그 아름다움을 햇빛에 드러나게 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러나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취미와 절도(節度)이다. 하녀는 숙녀와 같은 웃차림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점에서는 《폴리티베낸》지(誌)<sup>91</sup>의 주장은 옳지만 이 존경받는 잡지가 들고 있는 이유는 전적으로 잘못이다. 이렇게 해서 하녀 계급의 바람직한 개화(開花)를 기대할 수 있다면 우리 시민의 딸들에게도 유익한 영향이 있을 것이 아닌가? 혹은 내가 이렇게 덴마크를 위해 무비(無比)의 미래를 내다보는 것은 너무 대담한가? 다행히 내가 이러한 황금시대를 즐길 수만 있다면<sup>92</sup> 양심의 가책 없이 하루 종일 큰 거리와 골목을 돌아다니며 눈요기를 즐길 수도 있으련만. 내 생 각은 얼마나 멀리, 대담하게, 애국적으로 방황하는가! 그러나 사실 나는 여기 교외의 프레데릭스베르크 공원에 있으며, 여기는 일요일 오후에 하녀들이 오는 곳이고 나도 따라온 것이다.—제일 먼저 오는 것은 애인들의 손을 잡은 농부의 딸들이다.

91 '정치의 벗'이라는 뜻으로 주간지의 제목. 1837년 <하녀금석(下女今昔)>이라는 풍자적인 글이 실려 있는데 하녀의 웃차림이 귀부인의 것과 비슷해진다고 비웃고 있다.

92 '무북', '덴마크의 미래', '황금시대' 등의 말은 당시 그룬트비 운동의 표어로 사용되었다.

혹은 여자들이 서로 손을 잡고 앞서고 남자들은 모두 뒤따르기도 하고, 혹은 여자들에 남자 하나가 끼어 있기도 한다. 그들은 등그렇게 모여서 음악당 앞의 커다란 사각의 광장에 늘어선 나무 밑에 서거나 앉아서 즐긴다. 그들은 건강하고 싱싱하지만 단지 피부와 옷 색깔의 대조가 약간 너무 강렬할 뿐이다. 그다음에는 유트란드와 휘넨<sup>93</sup>의 아가씨들이 온다. 키가 크고 날씬하지만 체격이 약간 너무 건장하고 웃이 조금 난잡하다. 위원회는 여기서 굉장히 바쁘리라. 보른홀름<sup>94</sup> 사단(師團)의 대표자들도 여기저기서 볼 수 있다. 그들은 요리에는 솜씨가 있는 여자들이지만 부엌에서나 프레데릭스베르크에서나 가까이하기가 힘들다.

그들의 태도는 오만하고 무뚝뚝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참석은 대조로 말미 암아 효과가 있고, 그들이 보이지 않으면 섭섭하기는 하겠지만 내가 그들과 어울리는 일은 거의 없다.—다음에는 정예군(精銳軍)이 온다. 이 도시 변두리의 아가씨들이다. 키는 작고 동글동글하고, 살이 찌고, 피부가 곱고, 쾌활하고, 유쾌하고, 활발하고, 말이 많고, 약간 교태를 부리지만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것은 모자를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옷은 숙녀의 옷에 가깝지만 단지 두 가지 점이 눈을 끈다. 곧 솔을 두르지 않고 천을 두르고 있으며, 모자를 쓰지 않고 기껏해야 작고 경쾌한 두건을 쓰고 있다. 오히려 아무것도 쓰지 않는 것을 좋아하리라.—야, 안녕하세요, 마리. 이런 데서 만나다니?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아직도 고문관(顧問官) 댁에 있지요?—“그럼요”—아주 좋은 자리지요?—“네”—그런데 혼자 왔습니까, 같이 온 사람……애인도 없이? 그분이 시간이 없거나 여기서 그분을 기다리는 모양이군요.—뭐, 약혼 안 했다고요? 그건 순 거짓말이야. 코펜하겐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가, 고문관님 댁에서 일하는 아가씨가, 모든 하녀의 정화(精華)이고 모범인 아가씨가, 이렇게 깨끗이 치장할 줄 알고……뛰어난 아가씨가 약혼을 안 하다니. 손에 들고 있는 손수건은 정말 좋군요. 최상의 백마포(白麻布)군요.……저 것 봐, 가장자리엔 수를 놓았네, 분명히 십 마르크는 주었겠군요.……귀부인 중에도 이런 손수건을 가진 분은 많지 않지요. 진짜 프랑스제 장갑……비단 양산……

93 유트란드와 휘넨은 덴마크의 지방 이름.

94 보른홀름은 덴마크의 지방 이름.

이런 아가씨가 약혼을 하지 않다니……그럴 리가 없어. 분명히 엔스를 마음에 두고 있었을 텐데. 알고 있죠, 엔스, 삼 층의 대상인 댁에 있는 엔스 말입니다.…… 이것 봐요, 알아맞혔지. 왜 엔스와 약혼하지 않았을까, 엔스는 훌륭한 청년이었고 일자리도 좋았고 그 상인이 뒤만 밀어주면 경찰관이나 시의 화부(火夫)도 될 수 있었을 텐데, 나쁜 짹은 아니었을 텐데.……분명히 당신한테 책임이 있을 거야, 너무 차게 대한 모양이야.……“그렇지 않아요! 엔스가 전에 어떤 아가씨와 약혼한 일이 있었는데 그 여자를 못살게 굴었다는 이야기를 알았어요”……뭐라고요, 엔스가 그렇게 나쁜 녀석일 줄 누가 알았겠어.……그래, 능글맞은 수위는 말이야.…… 능글맞은 수위는 믿을 수가 없어……아주 잘했어요. 당신 같은 아가씨는 아무에게나 주기엔 아까워요.……앞으로 꼭 좋은 사람을 만날 겁니다. 내가 보증하죠.——유리아네 양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오랫동안 만나 뵙지 못했어요. 마리 양은 나에게 가르쳐 줄 만한 게 있을 겁니다.……자기가 실연했다고 해서 남을 동정하지 못 하리라는 법은 없으니까.……여긴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여기서 그런 얘길 할 순 없겠군, 누가 들을까 겁이 나서……잠시 내 말을 들어 주겠소, 마리……아, 여기가 좋겠군요, 이 나무 그늘이 있는 길이. 여긴 나무가 뻐빽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겠어. 여기서는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고 말소리가 들리지도 않아요. 들리는 건 희미한 음악 소리뿐.……여기서는 내 비밀을 말할 수 있겠어.……안 그래요, 엔스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지금쯤은 그 사람과 팔을 끼고 여기에 와서 저 즐거운 음악 소리를 들을 텐데. 그뿐 아니라 더 큰 기쁨을 맛볼 텐데.……왜 그렇게 흥분하죠?——이봐요, 엔스는 잊어요. 나한테 통명스럽게 굴진 않겠지?……당신을 만나려고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당신을 만나려고 고문관 댁에도 갔습니다.……당신도 알고 있겠지만……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는 부엌문으로 가지 않았습니까?……나는 당신을 내 것으로 만들고 말 겁니다.……결혼 예고<sup>95</sup>를 합시다.……내일 밤 모든 걸 설명해 주겠습니다.……뒤쪽 계단을 올라와서 왼쪽 문, 부엌문 맞은편에서……그럼, 안녕, 마리.……여기서 나를 만나고 이야기한 95 결혼하기 전에 우선 교회에서 목사가 공식적으로 결혼을 예고하고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일정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여기서는 끝의 문장과 아울러서 생각하면 육체 관계를 뜻한다고 볼 수도 있다.

것,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요. 당신은 내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당신은 정말 귀여워. 당신은 쓸 만할 거야.—내가 그녀의 방에 일단 발을 들여놓으면 스스로 결혼 예고를 하고 말걸. 나는 언제나 아름다운 그리스의 자족(自足)<sup>96</sup>을 발휘해서 무엇보다도 목사의 신세는 안 지려고 노력해 왔거든.

코델리아가 내 편지를 받았을 때 그녀 뒤에서 있을 수 있다면 나로서는 무척 흥미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그녀가 어느 정도로 내 편지를 본래의 의미에서 에로스 적으로 받아들이는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편지는 언제나 젊은 아가씨에게 인상을 남기는 매우 귀중한 수단이다. 생명 없는 문제가 때로는 살아 있는 말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편지는 이상한 전달 수단이며 편지에 의해서는 그때의 상황을 지배할 수 있고 그 자리에 있는 어떤 사람의 압박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내가 믿기에는 젊은 아가씨는 자신의 이상과 함께 홀로 있기를 가장 좋아한다. 다시 말하면 어떤 순간에는, 특히 이상이 그녀의 마음을 가장 강렬하게 움직이게 하는 순간에는 혼자 있기를 가장 좋아한다. 가령 그녀의 이상이 특정한 애인에게서 완전히 구현되었다 하더라도 이상에는 현실이 갖지 못한 충일(充溢)이 있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는 것이다. 이 위대한 속죄일(讀罪日)<sup>97</sup>을 그녀에게 인정해 주어야 하지만 단지 주의해야 할 것은 아가씨가 이러한 날에 지쳐서 현실로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강해져서 되돌아오도록 이 순간을 제대로 이용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편지가 도움이 된다. 편지는 이 성별(聖別)의 신성한 순간에 눈에 띠지 않고 정신적으로 현전(現前)하게 하며, 한편으로는 이 편지를 쓴 사람이 현실의 인물이라는 관념을 통해 자연스럽고 쉽게 현실로 넘어오게 하는 것이다.

내가 코델리아 때문에 질투를 느끼는 때가 있을까? 쑥스럽지만 있다!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는 없다! 다시 말하면 내가 상대자와의 싸움에서 승리한다 하더라도 그녀 96 스托아 학파의 이상이었던 자제(自制) · 극기(克己)에 의한 자족(自足)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풍자적인 뜻으로 쓰였다.

97 성서 <레위기> 23장 27~28절 참조.

의 본질이 왜곡되고 내가 소망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나는 그녀를 포기하는 것이다.

옛날의 어떤 철학자는 말했다. 만일 자기가 체험한 것을 면밀히 기록해 놓는다면 그 사람은 모르는 사이에 철학자가 될 것이라고. 나는 지금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약혼한 패들과 교제해 왔다. 이러한 관계에서도 어떤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 틀림 없다. 따라서 나는 『키스의 이론에 대하여 : 모든 섬세한 애인에게 바친다』는 저술을 위해 자료를 수집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다룬 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 책을 완성한다면 오랫동안의 대망에 부응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방면의 문헌이 없는 것은 철학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사색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또는 그들은 이런 문제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가?—두세 가지 힌트라면 나는 지금이라도 말할 수 있다. 완전한 키스를 위해서는 당사자가 아가씨와 남자여야 한다. 남자끼리의 키스는 몰취미하거나, 더 나쁜 경우에는 불쾌하다.—더 나아가 내가 믿기에는 키스는 아가씨가 남자에게 하는 것보다는 남자가 아가씨에게 하는 것이 키스의 이념에 더 가깝다. 해가 지남에 따라 이 관계가 어느 쪽으로 되든 상관없어진다면 키스는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이것은 부부간의 가정적 키스에 해당되는 것으로, 냅킨이 없기 때문에 부부는 “실례!”하면서 키스로 서로 입을 씻는 것이다.—남녀의 나이 차가 너무 크면 키스는 그 이념을 벗어나게 된다. 나는 어떤 지방의 여학교의 졸업반에서 “법률 고문관에게 키스한다”는 독특한 용어가 사용되던 것을 기억한다. 여학생들은 이 말로 아주 불쾌한 관념을 표현했던 것이다. 이 말의 성립에는 다음과 같은 유래가 있다. 어느 여교사가 형부와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는 법률 고문관이었던 사람으로 상당히 늙은 탓에 그것을 방패 삼아 무턱대고 젊은 아가씨와 키스하려고 했던 것이다.—키스는 특정한 정열의 표현이어야 한다. 쌍둥이인 오빠와 누이동생이 키스한다면 이 키스는 올바른 키스는 아니다. 크리스마스 날 밤에 놀이에서 별로 받는 키스에도 이 말이 해당되고, 훔친 키스도 마찬가지다. 키스는 상징적인 행위로서, 키스를 통해 나타낼 감정이 없으면 아무 의미도 없으며, 이러한 감정은 오직 특정한 관계에만 존

재한다.—키스를 분류하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분류 원칙을 생각할 수 있다. 키스를 소리에 의해 분류할 수도 있다. 유감스럽게도 이 경우에는 내 관찰을 나타내기엔 언어가 부족하다. 세계의 모든 언어를 끌어들이더라도 내가 백부의 집에서 알게 된 여러 가지 키스 소리의 차이를 나타낼 의성음은 마련되지 않으리라고 나는 믿는다. 키스는 어떤 때는 입맛 다시는 소리, 어떤 때는 혀 차는 소리, 어떤 때는 손뼉 치는 소리, 어떤 때는 폭발하는 소리, 어떤 때는 우르릉 우르릉 울리는 소리, 어떤 때는 가득 찬 소리, 어떤 때는 속이 빈 소리, 어떤 때는 면직물 스치는 소리 등을 낸다.……또한 키스는 접촉 방식에 따라 접촉하는 키스, 스쳐 지나가는 키스, 밀착하는 키스로 구별할 수 있다.—또한 시간에 따라 짧은 키스, 긴 키스로 구별할 수 있다. 시간에 따라서는 또 한 가지 분류가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원래 내 마음에 드는 유일한 분류이다. 여기서는 최초의 키스와 그 밖에 모든 키스가 구별된다. 여기서 주안점이 되는 것은 다른 분류 방식에서 볼 수 있는 것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 그것은 소리나 접촉 방식이나 보통의 의미에서의 시간과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최초의 키스는 다른 키스와 질적으로 다르다. 이 점을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다만 한 사람이라도 이 점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유감스러운 일이리라.

### 나의 코델리아!

좋은 말로 대답하는 것은 달콤한 키스<sup>98</sup>와 같다고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당신도 알 다시피 나는 열심히 질문합니다. 그 때문에 나는 거의 좋지 않은 말을 들어왔을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묻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묻는가를 이해하는 사람은 당신, 오직 당신뿐이며, 당신, 오직 당신만이 대답할 줄 알며, 당신, 오직 당신만이 좋은 말로 대답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좋은 말로 대답하는 것은 달콤한 키스와 같다고 솔로몬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요하네스

98 성서 <잠언> 24장 26절 참조.

정신적인 에로스성(性)과 지상적(地上的)인 에로스성에는 차이가 있다. 지금까지 나는 코델리아의 마음속에서 정신적인 에로스성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해 왔다. 이제부터는 나의 인격적 현전(人格的現前)은 달라져야 한다. 단지 동반하는 기분이 아니라 유혹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나는 그동안 플라톤의 《파이드로스》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유명한 구절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이러한 변화를 준비해 왔다. 이 구절은 나의 본질 전체에 강렬한 충격을 주었으며, 뛰어난 서곡(序曲)이 되었다. 과연 플라톤은 에로스성에는 정통하다.

### 나의 코델리아!

라틴어 학자는 주의 깊은 학생에 대해 “선생의 입에 매달린다”고 말합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비유이며, 한편 비유는 다시 현실이 됩니다. 나는 부지런하고 주의 깊은 학생이 아닐까요? 그러나 당신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요하네스

만일 나 이외의 다른 사람이 이러한 발전을 이끌어 왔다면 이 사람은 너무 영리해서 자기를 이끌어 가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만일 내가 약혼한 사람 중 비밀에 정통한 사람과 의논한다면 그는 에로스적 대담함으로 격앙된 어조로 대답할 것이다. “나는 이러한 사랑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끼리 사랑에 대해 말할 때의 음향 도형(音響圖形)<sup>99</sup>을 찾았으나 소용이 없었네.” 이 말에 대해 나는 대답할 것이다. “자네가 그걸 구했는데도 찾지 못했다는 것은 다행이군. 이 도형은 본래의 에로스성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일세. 관심을 끄는 것을 아울러서 생각해도 그렇다네.” 사랑은 이야기로 끝내기에는 너무나 실체적인 것이

99 원래는 물리학 용어로 판(板)에 모래를 얹고 이 판을 진동하게 하여 각 진동의 독특한 도형을 모래로 그리게 하는 것이다.

고, 에로스적인 상황은 이야기로 만족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로 가득 차 있다. 이 상황은 말이 없고, 고요하고, 분명한 윤곽을 갖고 있을 뿐이지만 그러면서도 멘논의 입상(立像)<sup>100</sup>처럼 달변이다. 에로스는 몸짓은 하지만 말은 하지 않는다. 혹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수수께끼 같은 암시이고 상징적인 음악이다. 에로스적 상황은 언제나 조소적(彫塑的)이고 회화적(輪書的)이지만, 남녀가 서로 사랑에 대해 말하는 것은 조소적인 것도 회화적인 것도 아니다. 그러나 건실한 약혼자들은 이러한 수다로 시작하고 이러한 수다는 결국 그들의 수다스러운 결혼 생활을 묶는 실이 되는 것이다. 또한 이런 수다는 오비디우스가 “아내의 지참금은 끊임 없는 말다툼의 근원”이라고 말한 지참금을 확보하기 위한 서곡이고 약속이다.—꼭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라면 한쪽만 이야기해도 되는 것이다. 이때에는 남자가 말해야 하며, 따라서 남자는 비너스가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 허리띠에 감춰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힘<sup>101</sup> 중의 한두 가지, 곧 대화와 비위 맞추는 힘, 다시 말하면 아첨하는 힘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에로스는 병어리라든가,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든가 하는 뜻이 아니고, 다만 대화 자체가 에로스적이어야 하며, 인생관 등 교화적(教化的)인 고찰에 빠져서는 안 되고 대화는 원래 에로스적 행위의 휴식, 기분 전환으로 생각되어야 하고 최고의 것으로 생각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러한 대화, 이러한 담소는 본질적으로 전적으로 신적인 것이고, 따라서 나는 젊은 아가씨와 잡담을 나눌 때는 결코 지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나는 개별적인 아가씨에게는 지칠지 몰라도 젊은 아가씨와 나누는 잡담에는 지치지는 않는다. 아가씨와 나누는 잡담에 지친다는 것은 호흡하기가 싫어졌다는 것과 같으므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대화의 본래 특징은 담소의 식물적인 성장과 개화이다. 대화는 대지에 뿌리박고 있으며 본래의 대상이 없고 그 운동 법칙은 우연이다.—대화 그 자체와 대화가 피우는 꽃의 이름은 들국화<sup>102</sup>이다.

100 그리스의 테베에 있던 멘논의 입상(立像)은 해 뜰 무렵에는 노래하는 듯한 소리를 냈다고 한다. 멘논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디오피아 왕.

101 비너스의 띠에는 사람의 마음에 사랑을 일으키게 하는 여러 가지 장식이 있었다고 한다.

102 들국화라고 번역한 말의 원어는 'Tusindfryd'로 글자 그대로는 '천 가지 기쁨'이라는 뜻이다.

나의 코델리아!

'나의—당신의'라는 말은 마치 팔호처럼 내 편지의 빈약한 내용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팔호의 두 팔 사이가 점점 좁아지는 것을 당신은 주의해 왔습니까? 오, 코델리아! 이 팔호 안에 내용이 없으면 그럴수록 이 팔호는 더욱 의미심장해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요하네스

나의 코델리아!

포옹은 전쟁입니까?

당신의 요하네스

대체로 코델리아는 침묵을 지킨다. 나는 이러한 침묵을 좋아한다. 그녀는 모음 연속(母音連續)<sup>103</sup>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기에는 너무나 깊은 여성적 본성을 갖고 있다. 모음 연속은 여성 특유의 대화 방식이며 앞이나 뒤에 있는 자음(子音)이어야 할 남성이 여성과 마찬가지로 여성적인 경우에는 불가피한 방식이다. 그러나 가끔 그녀가 말하는 짧은 말은 그녀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것이 있는가를 드러낸다. 이렇게 되도록 나는 그녀를 돋는다. 그것은 마치 불안한 솜씨로 스케치의 선을긋고 있는 사람의 뒤에 다른 사람이 서서 이 선을 대담하고 원숙한 것으로 만드는 것과 같다. 그것을 보고 그녀 자신도 깜짝 놀라지만 그녀에게는 그 선이 자기가 그은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녀를 지켜보며 단 한마디의 우연한 말, 가벼운 마음으로 불쑥 말한 한마디의 말조차도 놓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이 말들을 그녀에게 되돌려주는 동안에 이 말들은 언제나 더욱 중요한 뜻을 갖게 되며, 그녀는 이 뜻을 아는 듯하면서도 모르는 것이다.

103 모음으로 끝나는 말과 모음으로 시작되는 말이 연속되는 경우를 가리키는 문법 용어. 이것은 문장을 불명료하게 하므로 수사학에서는 피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오늘 우리는 모임에 나갔다. 우리는 서로 한마디도 말을 나누지 않았다. 사람들은 식탁에서 일어났다. 이때 하인이 들어와서 코델리아에게 그녀에게 할 말이 있어서 심부름꾼이 와 있다고 전했다. 이 심부름꾼은 내가 보낸 사람으로 한 통의 편지를 갖고 왔고 이 편지에는 내가 식탁에서 말한 의견을 암시하는 내용이 써어 있었다. 코델리아는 나와 멀리 떨어져 앉아 있었지만 그녀가 듣지 않을 수 없도록, 그리고 반드시 오해하도록, 나는 이 의견을 식탁에서 나눈 담소에 끼워 넣었던 것이다. 나는 편지에서 이 점도 계산하고 있었다. 만일 식사 때의 담화를 예정한 방향으로 끌고 가지 못했더라면 나는 약속된 시간에 스스로 현관으로 나가서 이 편지를 회수했을 것이다. 그녀는 다시 방으로 돌아왔는데 그녀는 약간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일은 에로스적인 숨바꼭질을 확고하게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녀는 내가 지정해 준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이다.

나의 코델리아!

요정(妖精)의 언덕에 머리를 눕힌 사람<sup>104</sup>은 요정 아가씨의 모습을 꿈속에서 본다고 하거니와, 당신은 이것을 믿습니까?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가슴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지 않고 위를 쳐다보면 천사의 얼굴이 보인다는 것을. 요정의 언덕에 머리를 눕히는 사람은 편안히 누워 있을 수가 없다고 하거니와, 당신은 이것을 믿습니까? 나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면 내 머리는 너무나 강렬한 감동을 받아서 내 눈에 잠이 깃들지 못한다는 것을.

당신의 요하네스

104 덴마크 민요에 나오는 말. 하이엘의 희곡 〈요정의 언덕〉에도 나온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sup>105</sup> 이제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오늘 그녀의 집에 갔으나 어떤 이념에 대한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이 생각에 골몰했다. 나는 코넬리아를 보지도 않고 그녀의 말을 듣지도 않았다. 이 이념 자체는 관심을 끄는 것이었고 그녀를 매혹했다. 내가 그녀 앞에서 냉담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새로운 작전을 개시한다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리라. 내가 떠나간 다음, 그녀가 이 이념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게 되면, 그녀는 내가 보통 때와는 달랐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것이다. 그녀가 홀로 있을 때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만큼, 이러한 변화는 그녀에게는 훨씬 가슴 아프며, 완만한 작용을 하지만 더욱 깊이 폐부를 찌른다. 그녀는 당장 화를 낼 수는 없고, 다음에 기회가 왔을 때에는 이미 상당히 생각 한 바 있으므로 그녀는 곧장 이야기를 꺼내지는 못할 것이고, 언제나 의혹이 마음 속에 남아 있을 것이다. 불안은 커지고 편지는 끊어지고 에로스적 영양(榮養)은 줄어들고 사랑은 웃음거리가 되어 비웃음을 받는다. 아마 그녀는 얼마 동안은 견디겠지만 오랫동안 참고 견디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내가 그녀에게 사용한 것과 같은 수단, 곧 에로스적인 것으로 나를 속박하려고 할 것이다.

파훈에 대해서는 어떤 아가씨든 대단한 결의론자(決疑論者)<sup>106</sup>이며 학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전혀 가르치지 않았어도, 어떤 경우에 파훈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면 모든 아가씨가 분명한 대답을 알고 있다. 사실 이 문제는 졸업하는 해에 매년 정해 놓고 내는 시험 문제여야 할 것이다. 여학교에서 받는 논문이 매우 단조롭다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지만 이 문제라면 변화가 다양하리라고 확신한다. 이 문제 자체가 아가씨의 총명함에 광범위한 활동 영역을 열어 주기 때문이다. 아가씨의 총명함이 가장 빛나게 할 기회를 주어서 안 될 까닭이 있을 것인가? 이렇게 하면 아가씨는 자신이 약혼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 있음을 증명할 기회를 갖게 될 것

105 ‘대담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격언으로 시저가 루비콘 강을 건널 때 한 말(사실은 《시저전(傳)》의 저자 스에토니누스가 그리스어를 라틴어로 번역할 때 오역을 해서 지금의 뜻이 되었다고 한다).

106 양심의 문제나 도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사회의 관습이나 법률, 종교의 율법에 의거하려고 하는 학문상의 입장.

이 아닌가? 나는 언젠가 무척 관심을 끄는 상황을 체험했다. 내가 가끔 방문하는 어떤 가정에서 어느 날 나이 든 분들은 모두 외출하고 어린 두 딸만이 남아 아침에 친구들을 불러 차를 마셨다. 아가씨들은 여덟 명이었고 모두 십육 세에서 이십 세 까지의 나이였다. 그들은 방문객이 있으리라고 예상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게다가 하녀는 방문객을 거절하라는 명령을 받은 모양이었다. 그러나 나는 안으로 들어갔고 그들이 약간 놀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여덟 명의 젊은 아가씨들이 이 엄숙한 종교회의에서 도대체 무엇을 논하고 있었는지 그 누가 알랴. 기혼 부인들도 때때로 비슷한 모임을 갖는다. 이런 경우 그들은 목직신학(牧職神學)<sup>107</sup>을 강의하는 데 특히 중요한 문제가 다루어진다. 곧 하녀를 혼자 시장에 보내는 것은 어떤 경우에 가장 적당한가, 정육점에 가서는 외상이 좋은가 현금 지불이 좋은가, 식모에게 애인이 있다는 게 정말인가, 이 애인이 식모를 찾아와 식사 준비를 방해하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들이다.—나는 이 아름다운 무리 속에 끼이게 되었다. 때는 이른 봄이었다. 몇 가닥 햇빛은 곧 봄이 온다고 알리고 있었다. 방 안은 온통 겨울이었고, 그런 만큼 햇빛은 더욱 봄을 약속하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 서는 커피가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젊은 아가씨들 자신은 쾌활하고 건강하고 활짝 피어 있었다. 불안도 곧 사라졌으므로 그들은 떠들기 시작했으며, 그들은 말하자면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으므로 겁날 게 없었다.—나는 어떤 경우에 파흔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주의와 이야기를 이끌어 갔다. 나의 눈은 아가씨들에게 둘러싸여 이 꽃에서 저 꽃으로 날아다니며 때로는 이 아름다움에, 때로는 저 아름다움에 잠시 머물며 즐겼고, 한편 나의 외부의 귀는 아가씨들 목소리의 음악을 즐기고, 나의 마음의 귀는 아가씨들의 말을 음미하며 듣고 있었다. 나는 단 한마디로 아가씨의 마음과 그 경력을 깊이 통찰할 수 있었던 경우가 많았다. 사랑의 길은 얼마나 매혹적인가. 그리고 아가씨들이 각기 어느 정도로 이 길을 거쳐 왔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얼마나 흥미 있는 일인가. 나는 끈기 있게 선동했다. 제담(才談), 기지(機知), 미학적 객관성(美學的客觀性)은 우리의 관계를 자유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나 모든 일은 엄격한 예의를 지키고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가벼운 담소를 즐

<sup>107</sup> 목사가 지켜야 할 의무나 책임을 가르치는 신학의 한 분야.

기고 있을 동안에도 단 한마디로 이 착하고 귀여운 아가씨들을 치명적인 곤혹(困惑) 속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은 잠재해 있었다. 이런 가능성은 내가 장악하고 있었다. 아가씨들은 이런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거의 상상도 하지 못했다. 가볍고 즐거운 답소로 말미암아 이러한 가능성은 그때그때 억제되었으며 그것은 마치 세해라자데<sup>108</sup>가 이야기로 사형 선고를 연기시킨 것과 같았다. 나는 때로는 대화를 비애의 한계까지 끌고 가고, 때로는 제멋대로 떠들게 하고, 때로는 변증법적 놀음으로 유인했다. 파혼보다 더 다양한 내용을 가진 화제가 또 있을 것인가. 나는 차례차례 새로운 화제를 꺼냈다. 나는 어버이의 잔인한 강요로 파혼을 한 아가씨의 이야기를 했다. 이러한 갈등을 듣고 아가씨들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다.—나는 파혼을 하고 두 가지 이유를 든 남자의 이야기를 했다. 곧 아가씨의 키가 너무 크고 따라서 사랑을 고백할 때 그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내가 그에게 그것은 충분한 이유로 인정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대하자 그는 대답했다. “오, 바로 그거야. 이런 이유만으로도 내 목적은 충분히 달성되거든. 아무도 이 이유에 대해 분별 있는 반대를 하지는 못할 테니까.”—그리고 나는 매우 까다로운 경우를 제시해 모두를 생각에 잠기게 했다. 어떤 젊은 아가씨가 그녀와 애인이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확신하게 되어 파혼했다. 애인은 그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단언함으로써 그녀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다. 이에 대해 그녀는 대답했다. “우리가 서로 어울리고 정말로 우리 사이에 공감(共感)이 있다면 당신은 우리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잘 알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우리가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잘 알 것입니다.” 아가씨들이 이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머리를 쥐어짜는 모양을 보는 것은 재미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아가씨 중에서 한두 사람은 무척 잘 이해했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었다. 파혼에 대해서는 모든 아가씨가 각기 선천적인 결의론자이기 때문이다.—그렇다. 나는 정녕 믿거니와, 어떤 경우에 파혼을 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려면 젊은 아가씨와 논의하기보다는 악마 자신과 논의하는 게 훨씬 편할 것이다.—

108 《천일야화》에 나오는 인도 왕의 아내로 매일 밤 남편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 주고 목숨을 구했다.

오늘 나는 코델리아를 찾아갔다. 성급하게 사상(思想)과 마찬가지 속도로 나는 어제 그녀를 열중시켰던 문제로 화제를 돌려 그녀를 다시 황홀하게 만들려고 했다. “어제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헤어지고 나가자 생각이 나더군요.” 제대로 말한 것이다. 내가 그녀 옆에 있는 한, 그녀는 내 말에 귀 기울이며 즐거워한다. 내가 떠나면 그녀는 속았다는 것, 내가 변했다는 것을 느낀다. 이러한 방식으로 난 국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방식은 모든 간접적 방법과 마찬가지로 교활하지만 매우 효과적이다. 나는 내가 열중하고 있는 일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다. 그뿐 아니라 순간적으로는 그녀 자신도 이 일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그녀로부터 본래적으로 에로스적인 것을 사취(説取)하는 것이다.

그들이 무서워하는 동안은 미워하게 하라.<sup>109</sup> 이 말에서는 마치 공포와 증오만이 짹을 이루고 공포와 사랑은 서로 아무 관계가 없으며 사랑을 관심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은 공포가 아닌 것 같지 않은가. 우리가 자연을 포옹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이러한 사랑에는 신비한 불안이, 공포가 있지 않은가. 자연의 조화는 무법칙성(無法則性)과 격렬한 혼란으로부터 자연의 신뢰성은 불성실로부터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불안이야말로 가장 매혹적인 것이다. 사랑을 관심 있는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사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사랑의 배후에는 깊고 불안에 찬 밤이 도사리고 있음에 틀림없고, 이 밤으로부터 사랑의 꽃이 핀다. 예컨대 꽂을 수 면 밖에 나와 있으나 뿌리는 생각하기만 해도 섬뜩한 깊은 어둠 속에 묻혀 있는 수련(睡蓮)처럼.—그녀는 편지를 쓸 때는 언제나 나에게 ‘나의’라고 말하지만 나와 만났을 때는 이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오늘 나는 가능한 한 아첨하는 태도로, 그리고 가능한 한 에로스적인 따뜻함이 담긴 태도로 나를 그렇게 불러 달라고 간청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으나 말보다 빠른 잠시 동안의 아이러니한 시선에 부딪혀 이 말은 쏙 들어갔다. 나의 입술은 온 힘을 기울여 그녀를 격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분이 정상적인 것이다.

<sup>109</sup> 로마의 비극 시인 아키우스(Lucius Accius)가 한 말.

그녀는 나의 것이다. 나는 이것을 세상의 관례에 따라 별에게 고백하지는 않는다. 멀리 떨어진 천체가 이러한 알림을 받고 어느 정도로 열중할 것인지 나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나는 어떤 인간에게도 고백하지 않는다. 코델리아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나는 이 비밀을 오직 내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말하자면 매우 은밀하게 나 자신과 이야기할 때 나 자신의 마음에 속삭인다. 예상했던 그녀의 저항은 별로 크지 않았으나 반대로 그녀가 발휘하는 에로스적인 힘은 놀랄 만했다. 이렇게 깊은 정열에 사로잡힌 그녀는 얼마나 관심을 끄는가, 이러한 그녀는 얼마나 위대한가, 거의 초자연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녀는 얼마나 재빠르게 달아나고 한편 무방비 지점이 있으면 어디서나 얼마나 날렵하게 달려드는가!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근원적인 힘의 이러한 광란 속에서 나는 나의 본령에 놓 이게 된다. 그렇지만 그녀는 이러한 격동 속에서도 결코 추하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순간순간에 분해되지도 않는다. 그녀는 언제나 아나듀오메네,<sup>110</sup> 곧 깊은 곳에서 떠오르는 여자이지만 단지 그녀는 소박한 우아함이나 자연스러운 침착함을 갖고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강한 맥박 때문에 동요하면서, 그러나 통일과 균형은 잃지 않고 떠오른다. 그녀는 에로스적으로 완전무장하고 임전 태세를 갖추었으며 눈의 화살, 눈썹의 명령, 이마의 깊은 비밀, 가슴의 응변, 포옹의 위험한 유혹, 입술의 애원, 뺨의 미소, 몸 전체의 달콤한 동경을 무기로 삼아 싸운다. 그녀에게는 하나의 에너지, 마치 발키리<sup>111</sup> 같은 에너지가 있으나 이러한 에로스적인 힘의 충일은 그녀를 아련하게 여위게 하는 일종의 피로감에 의해 다시금 완화된다.—그녀를 너무 오랫동안 이 절정에 서 있게 해서는 안 된다. 단지 불안과 초조만이 그녀를 곧바로 서 있게 하고 그녀가 쓰러지는 것을 막아 주는 것이다. 그녀는 곧 이러한 흥분에 비하면 약혼은 너무나 답답하고 궁색한 것임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녀는 스스로 유혹자(誘惑者)가 되어 나를 일상(日常)의 한계를 넘어서도록 유혹할 것이다. 그녀는 이것을 스스로 의식할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내가 노리는 것이다.

<sup>110</sup> 말뜻은 ‘바다에서 떠오르는 여자’이며, 그리스 신화의 아프로디테(비너스)의 별칭.

<sup>111</sup> 북유럽 신화에서 오딘을 섬기는 전쟁의 처녀들. 용감한 전사자의 영혼을 천계(天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요즘은 약혼에 싫증이 났다고 암시하는 말이 가끔 그녀의 입에서 불쑥 튀어나온다. 내가 이 말을 놓칠 리는 없다. 이런 말은 내가 코델리아의 영혼에 잠복시킨 스파이이며 척후이고, 그들이 나에게 밝은 눈짓을 보내는 것이다. 곧 내가 그녀를 나의 계획에 짜 넣은 실의 끝인 것이다.

### 나의 코델리아!

당신은 약혼을 탄식하고 우리의 사랑에는 외부적인 속박은 필요 없으며 그것은 방해가 될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나는 나의 코델리아가 뛰어났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녕 나는 당신에게 감탄합니다. 우리의 외부적인 결합은 사실은 분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이에는 피라무스와 티스베<sup>112</sup>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갈라놓는 벽이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 사이를 안다는 것이 방해가 됩니다. 이와 반대되는 경우에만 자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때 비로소 사랑은 의미를 가지며, 국외자들이 모두 이 연인들은 서로 미워한다고 믿게 될 때 비로소 행복한 사랑이 됩니다.

당신의 요하네스

약혼이라는 끈은 곧 끊어질 것이다. 이 끈을 푸는 사람은 그녀 자신이며 풀어헤친 머리카락이 묶인 머리카락보다 더 잘 엉키듯이 이러한 무구속(無拘束)에 의해 더욱 강하게 나를 묶기 위해 푸는 것이다. 내가 파혼을 한다면 매우 유혹적인 것으로 보이며 또한 그녀 영혼의 대담함의 확실한 징후이기도 한 에로스적인 공중제비를

112 ‘피라무스와 티스베’는 오비디우스 《변신이야기》에 나오는 비련의 주인공.

바빌론에서 이웃해 살고 있던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지만 양가 부모들의 사이가 나빠 만나지 못한다. 그래서 벽 틈으로 몰래 사랑을 속삭이다가 마침내 ‘리노스의 무덤’에서 밀회하기로 한다. 그러나 먼저 간 티스베는 사자의 습격을 받아 외투를 벗어던지고 달아난다. 피라무스는 피 묻은 외투를 보고 티스베가 죽은 것으로 알고 자살하며, 티스베도 뒤따라 자살한다.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공중제비는 내가 노리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파혼이라는 사건 전체가 나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상당히 불쾌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비록 부당하기는 하지만 나는 욕을 먹고 미움을 받고 혐오를 받을 것이다. 나의 파혼은 많은 사람에게 이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약혼은 못 했지만 약혼 할 뻔한 지경까지 이르렀던 것만으로도 만족해하는 귀여운 아가씨들도 많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보잘것없는 것이다. 이렇게 기대자(期待者)<sup>113</sup> 명부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 자신을 무리하게 내세우는 자는 오히려 기대권(期待權)을 갖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무리를 가하면 가할수록, 앞으로 나서면 나설수록 기대권은 적어진다. 사랑의 세계에서는 승진(昇進)이나 등용(登用)에 대해 연공(年功)의 원칙은 통용되지 않는다. 게다가 이런 아가씨들은 혼자서 유산을 물려받아 편안히 지내는 것을 싫어하고 어떤 사건에 의해 그녀의 생활이 교란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불행한 연애 사건과 비교될 만한 것은 없으며, 특히 이 사건을 스스로 쉽게 떠맡을 수 있을 때에 그렇다. 이렇게 해서 그녀는 자기도 속은 여자 중의 하나라고 하며 자기 자신과 이웃 사람을 기만한다. 그리고 막달레나 시설(施設)<sup>114</sup>에 들어갈 자격은 없으므로 이웃에 방을 빌려서 ‘눈물 짜내는 기계’ 노릇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나를 미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완전히, 혹은 반쯤, 혹은 사분의 삼쯤 속았다고 하는 아가씨들이 일개 연대쯤 있다. 속았다고 하는 정도에도 약혼반지를 내세우는 아가씨로부터 대무(對舞) 때 손을 마주 잡았다는 것에 매달리는 아가씨에 이르기까지 많은 단계가 있다. 그들의 상처는 새로운 고통으로 다시 피를 흘린다. 그들의 증오까지도 나는 경품(景品)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미워하는 아가씨들은 물론 나의 가난한 가슴의 은밀한 연인들이다. 국토 없는 국왕이 있다면 그것은 우스운 인물이겠지만 국토 없는 왕국을 둘러싼 왕위계승전쟁(王位繼承戰爭)은 우습다고조차 말할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따라서 나는 본래는 여성들로부터 전당포 주인처럼 사랑을 받고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마땅할 것이다. 현재 약혼하고 있는 사람은 한 여자를

113 중세에는 간음의 죄를 뉘우친 여자들이 들어가는 수도원이었으나 여기서는 근대적인 매춘부 생생시설을 말한다.

돌보는 게 고작이지만 이러한 가능성은 갖고 있으면 마음대로 많은 여자를 돌보아 줄 수 있고, 따라서 앞에서 말한 여자들도 돌보아 줄 수 있다. 이윽고 나는 한정된 비난으로부터 벗어나고, 게다가 전혀 새로운 역할을 맡고 등장한다는 이점이 있다. 젊은 아가씨들은 나를 가엾게 여기고, 동정하고, 나를 위해 탄식할 것이다. 나는 이 장단에 발을 맞추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희생자를 얻게 된다.

참으로 기묘한 일이다. 나는 요즈음에야 알고 고통스러워하지만 호라티우스가 모든 부정(不貞)한 아가씨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원한 배반의 징후가 나에게 나타난 것이다.<sup>115</sup> 곧 이[齒]가 하나 검어졌으며 그것도 앞니이다. 어째서 사람들은 이런 미신을 믿는 것일까. 이 이는 내 마음을 괴롭히고 이 이에 대해 넘지시 암시하는 걸 들어도 참을 수가 없다. 이것은 나의 약점이 되었다. 나는 다른 점에서는 충분한 무장을 했지만 이 점에서는 상대가 아무리 바보라고 하더라도 이 이에 대해 슬쩍 말을 비추기만 하면 믿을 수 없을 만큼 깊은 상처를 받는다. 이 이를 다시 희게 만들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으나 소용없었다. 그래서 나는 에렌슈레거의 팔나토케<sup>116</sup>처럼 말한다.

밤낮으로 문지르지만  
검은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는다.

삶에는 엄청나게 많은 수수께끼가 있다. 이 보잘것없는 일이 가장 위험한 공격이나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보다도 더 나를 괴롭히는 것이다. 나는 이 이를 뽑아 버리고 싶지만 그러면 나의 기관(器官), 곧 나의 목소리의 위력이 손상을 받는다. 그렇더라도 나는 이 이를 뽑고 의치(義齒)를 할 생각이다. 세상에 대해서는 의치가 거

115 호라티우스(Quintus Horatius Flaccus)의 『송가(頌歌)』에 나오는 말로 다음과 같다.

'파라이네여, 만일 언젠가 그대가 위서(僞書)를 한 별을 받아 이가 검어지던가……해서 그대가 지금보다도 더 추하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그대를 믿고 싶다'

116 덴마크의 작가 에렌슈레거의 희곡 〈팔나토케〉에서 주인공 팔나토케가 방패에 승 녹을 벗겨 내면서 하는 말이다.

짓이지만 나에 대해서는 검은 이가 거짓인 것이다.

코델리아가 약혼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것은 참으로 훌륭하다. 결혼은 노후(老後)에야 몸에 붙는 위엄의 일부를 젊을 때부터 즐긴다는 점에서 지루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존경할 만한 제도임에는 변함이 없다. 반대로 약혼은 순전히 인간이 발명해 낸 것이며 이러한 것으로서 매우 중요하고 또한 매우 우스운 것이다. 따라서 젊은 아가씨가 한편으로는 정열의 소용돌이 속에서 약혼을 무시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약혼의 의의를 느끼고 자신 영혼의 에너지가 보다 고차원의 혈액 순환계(循環系)로서 온몸을 돌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가장 중요한 일은 그녀가 대담한 비상(飛翔)에 의해 결혼, 그 밖에 현실의 확고한 대지를 보지 못하고 그녀의 영혼이 그 궁지에 있어서나 나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있어서나 불완전한 인간적 형식을 부정하고 보편적으로 인간적인 것보다 더 높은 것을 향해 돌진하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점에서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녀의 삶의 걸음은 이미 공중에 떠 있고 경쾌해졌으므로 벌써 현실의 대부분이 시야에서 사라져 버린 것이다. 게다가 나는 언제나 같은 배에 타고 있어서 언제든지 둑을 올릴 수 있다.

여성은 나에게 언제나 무진장한 고찰의 재료를 제공하고 관찰을 위한 영원한 충 일이 된다. 여성은 연구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점에서는 이 세상에서 바라는 대로 될지 모르지만 한 가지 면만은 갖지 못한다. 곧 미학자(美學者)는 되지 못한다. 미학이 아름다운 것에만 관계한다는 것은 미학의 뛰어난 점, 신적(神的)인 점이다. 미학은 본질적으로 아름다운 문학과 아름다운 성(性)<sup>117</sup>만을 대상으로 삼는다. 여성이라는 태양은 한없이 다양한 빛을 내며 분산되어 언어의 혼란<sup>118</sup>이 되고, 이 혼란 속에서 여성은 각기 여성의 부(富) 전체의 한 부분을 차

117 여성은 말한다. 아름다운 문학과 대비되었으므로 이렇게 번역한 것이다.

118 성서 <창세기> 1장 1~9절 참조.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

지하지만 여성의 나머지 것들은 이 한 점을 중심으로 조화롭게 형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상상하는 것은 나의 마음에는 큰 기쁨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성의 아름다움은 무한히 분할할 수 있다. 다만 아름다움의 개별적 부분들은 조화를 잊지 않도록 통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름다움의 개별적 부분들은 오히려 방해물이 되고 우리는 부지중에, 자연은 이 아가씨를 통해 무엇을 의도하고 있었는가, 그 의도는 의도로 끝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여성의 아름다움의 주변의 다양성, 그 분산된 유출(流出)을 섭렵하면서 나의 눈은 지친 적이 없다. 개개의 부분은 각기 작은 부분을 갖고 있고, 게다가 그 나름으로 완성되고, 행복하고, 즐겁고, 아름답다. 여성은 각기 자기 뜻을 갖고 있는 것이다.쾌활한 미소, 익살스러운 시선, 갈망하는 눈, 숙인 머리, 분방한 마음, 조용한 애수, 깊은 예감, 경고하는 듯한 우수, 지상적(地上的)인 향수, 고해(告解)하지 못한 감동, 유혹적인 눈썹, 묻는 듯한 입술, 비밀로 가득 찬 이마, 매혹적인 곱슬머리, 숨바꼭질하는 속눈썹, 천상적(天上的)인 궁지, 지상적인 수치심, 천사 같은 순결, 은밀한 낯붉힘, 가벼운 걸음걸이, 우아한 부동(浮動), 고민하는 태도, 동경에 찬 꿈, 이유를 알 수 없는 탄식, 날씬한 몸매, 부드러운 자태, 부푼 가슴, 팽팽한 허리, 작은 발, 귀여운 손 등.—각기 자기 뜻을 가지며 한 사람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이 갖지는 못한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의 이러한 다양성을 보고 또 보고, 고찰하고 또 고찰했을 때, 미소 짓고 탄식하고, 아첨하고 위협하고, 갈망하고 유혹하고, 웃고 울고, 희망하고 두려워하고, 획득하고 상실했을 때—그때 나는 부채를 접고 분산된 것을 하나로 모으고 부분을 전체에 모은다. 그러면 내 영혼은 기뻐하고, 내 가슴은 뛰고, 정열은 불타오른다. 이러한 한 아가씨, 전 세계에 하나님밖에 없는 이 아가씨, 이 아가씨는 나에게 속해야 하고 나의 것이어야 한다. 내가 그녀를 가질 수만 있다면 하늘은 신이 가져도 좋다.<sup>119</sup> 나는 내가 선택할 것을 잘 알고 있다. 그것은 너무 광대(廣

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성서에서는 저주인 것을 여기서는 미적 다양성(美的多樣性)의 상징으로 본다.

119 쉐란 지방에 ‘고레’라는 고성(古城)이 있는데 이 성의 전설을 기록한 『발데말 왕의 수법』을 읽고 왕이 이 성에서 사냥하는 것을몹시 좋아한 것을 안 키에르케고어는 당시의 일기에 ‘신이 천국을 가져도 상관없다. 내가 고레 성을 가질 수 있다면’이라고 썼다. 이때를 상기하고 이런 말을 썼을 것이다.

大)하므로 이렇게 분할하는 것은 하늘에 손해일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녀를 갖는다면 하늘에는 도대체 무엇이 남을 것인가? 독실한 마호메트 교도들은 그들의 낙원<sup>120</sup>에서 창백하고 힘없는 그림자를 포옹하게 되면 환멸을 느낄 것이다. 따뜻한 마음은 그녀의 가슴속에 모여 있어서 그들은 따뜻한 마음을 찾아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창백한 입술, 흐려진 눈, 감동하지 않는 가슴, 힘없는 약수를 찾아내고 위로할 길도 없을 만큼 절망할 것이다. 입술의 모든 붉음, 눈의 모든 불꽃, 가슴의 동요, 약수의 약속, 탄식의 예감, 입맞춤의 봉인(封印), 전율하는 접촉과 포옹의 정열 모두가—모두가—그녀에게 집중되고 그녀는 이 세상에 있어서 나 저 세상에 있어서나 전 세계를 이루기에 충분한 것을 아낌없이 나에게 주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나는 가끔 이 문제를 생각해 왔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그녀를 따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 자신도 따뜻해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따뜻한 것을 좋은 징조라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나의 사고방식에 견실하다는 영광스러운 술어(述語)를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나는 기분 전환을 위해 나 자신도 차갑게 되고 코델리아도 차다고 생각하려고 한다. 나는 여자를 범주적(範疇的)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성은 어떠한 범주에 의해 파악되어야 하는가? 타자(他者)를 위한 존재<sup>121</sup>라는 범주에 의해 파악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 말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여자는 동시에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나쁜 의미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추상적 사고의 경우에는 언제나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경험을 고려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경우에 나는 기묘하게도 경험을 동지로 삼으면서 동시에 적으로 삼게 되기 때문이다. 경험은 항상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이상한 인물이다. 동지인 동시에 적이라는 것이 언제나 경험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하여튼 여자는 타자를 위한 존재이다. 여기서 다시금 다른 측면으로부터 경험에 의해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경

120 마호메트 교의 후궁(後宮)을 말하는데 독실한 신자는 죽은 다음에 후궁과 같은 낙원에서 산다고 믿는다고 한다.

121 헤겔은 『정신현상학』에서 자기의식의 대립하는 두 형태로서 자립적인 것과 종속적인 것을 설명하고 전자를 자기 자신을 위한 존재(對自存在), 후자를 타자를 위한 존재(對他存在)라고 말한다. 이러한 헤겔의 용어를 조용하고 있으며 엄밀한 의미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

힘이 가르치는 바에 따르면 대부분 여자는 일반적으로 전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어서 자기를 위한 존재도, 타자를 위한 존재도 아니므로 정녕 타자를 위한 존재인 여자를 만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그런데 타자를 위한 존재라는 이러한 규정을 여성은 자연 전체 및 일반적으로 모든 여성적인 것과 공유(共有)한다. 자연 전체도 단지 타자를 위해 존재하지만<sup>122</sup> 자연의 각각의 부분이 다른 각각의 부분을 위해 존재한다는 목적론적(目的論的) 의미에서가 아니라 자연 전체가 타자를 위해—정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개별적인 것들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식물의 삶은 아주 순진하게 숨겨진 매력을 나타내지만 타자를 위해서만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수수께끼, 제스처 게임, 비밀, 목소리 등도 타자를 위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서 신이 이브를 창조할 때 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는가 하는 것이 설명된다. 여자는 남자의 꿈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이야기에서는 다른 방식으로도 여자가 타자를 위한 존재임을 배울 수 있다. 곧 이 이야기에서는 여호와가 남자의 갈비뼈 하나를 빼낸 것으로 되어 있다. 가령 예컨대 여호와가 남자의 뇌수(腦髓)의 일부를 빼냈다 하더라도 여성이 타자를 위한 존재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겠지만 여자의 규정은 환영(幻影)이 아니라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되었을 것이다. 이브는 살과 피가 되었으나 바로 이 때문에 여자는 본질적으로 타자를 위한 존재인 자연의 규정 밑에 놓이게 되었다. 사랑이 여자를 감동시킬 때 비로소 여자는 깨어나며 그 이전에 여자는 꿈이다. 그러나 이러한 꿈으로서의 존재를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사랑이 여성의 꿈꾸는 단계이고, 둘째는 여성의 사랑을 꿈꾸는 단계이다. 여성은 순수한 처녀성(處女性)에 의해 타자를 위한 존재라는 특색을 나타낸다. 곧 처녀성은 자기 자신을 위한 존재인 한, 원래 추상에 지나지 않는 존재이고 오직 타자를 위해서만 자기를 나타낸다. 여자의 순진함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여자는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잘 알다시피 처녀성의 여신(女神)인 웨스타의 상(像)<sup>123</sup>은 존재하지 않는다. 곧 여호와가 윤리적으로 자기 자

122 헤겔은 『엔티크로페디아』에서 ‘자연적인 사물은 자유로운 자기 자신을 위한 존재(對自存在)가 되지 못하고 언제나 타자를 위한 존재(對他存在)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123 로마 신화의 웨스타는 그리스 신화의 헤스티아로 불의 여신. 웨스타는 아폴론과 포세이돈에게 구혼을 받았으나 제우스로부터 영원한 처녀로 지낼 허가를 받았다고 한다. 따라서 이 여신의 신전에서 일

신에게 샘을 냈던 것처럼 처녀성의 존재는 미학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샘을 냈으므로 자신의 어떠한 상, 심지어 자신의 표상(表象)조차도 존재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이것은 타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말하자면 타자에 의해 비로소 가시적(可視的)인 것이 된다는 모순이다. 논리적으로 보면 이러한 모순은 전적으로 당연한 것이고, 논리적으로 사고할 줄 아는 사람은 이러한 모순으로 말미암아 교란되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모순을 즐긴다. 반대로 비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생각할 것이다. 곧 타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개개의 사물에 대해 이것은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유한한 의미에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여성의 존재(실존이라는 말은 지나친다. 여성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sup>124</sup>는 사랑스럽다고 부르는 것이 가장 정당하지만 사랑스럽다는 표현은 식물적인 삶을 상기시킨다. 시인이 즐겨 말하는 바와 같이 여성은 꽃과 같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정신적인 것조차도 식물적인 상태로 존재한다. 여자는 전적으로 자연의 규정에 얹매어 있고 따라서 미학적으로만 자유롭다. 보다 깊은 의미에서는 여자는 남성에 의해 비로소 자유로워지며 따라서 구혼하는 것을 “자유롭게 한다”고 말하고 따라서 남자가 구혼해서 “자유롭게 해 주는” 것이다.<sup>125</sup> 남자가 정당하게 구혼한다면 선택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론 여성이 선택하지만, 선택을 오랫동안 숙고의 결과로 생각한다면, 이러한 선택은 여성답지 않다. 따라서 거절을 당하는 것은 불명예이다. 구혼자가 그럴 만한 능력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하겠다고 주제넘은 짓을 했기 때문이다.—이러한 관계에는 깊은 아이러니가 있다. 타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우위에 있는 것 같아서 남자가 구혼을 하고 여자가 선택을 하는 것이다. 여성은 그 개념에 따르면 정복되는 자이고, 남자는 그 개념에 따르면 승리자이지만 승자가 패자 앞에 무릎을 꿇으며, 그럼에

하는 무녀는 처녀여야 했다. 이런 점에서 처녀성의 상징이 되었다. 그런데 그 신전에도 웨스타의 상은 없었다고 한다.

124 실존(實存)이라는 말의 어원, 곧 ex-sisto(‘밖에 서다’, ‘밖으로 나오다’의 뜻)를 이용하고 있다. 곧 여자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성립한 것이 아니라 남자의 갈비뼈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125 ‘frie’라는 말은 ‘자유롭게 한다’와 ‘구혼한다’는 두 뜻을 갖고 있다(독일어 ‘freien’도 마찬가지다).

도 불구하고 이것은 자연스럽다. 그리고 이와 같이 분명하고 직접적인 사실을 무시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얼빠지고 어리석은 짓이며 에로스적 감각이 없는 것이다. 여기에는 깊은 근거가 있다. 다시 말하면 여성은 실체(實體)이고, 남성은 반성(反省)인 것이다. 따라서 여성은 당장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구혼하고 여자가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남성의 구혼은 물음이고 여성의 선택은 원래 물음에 대한 대답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의미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뛰어나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무한히 열등하다.

이러한 타자를 위한 존재는 순수한 처녀성이다. 이러한 존재가 자기 자신을 위한 존재인 다른 존재와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위한 존재가 되려고 한다면 절대적인 냉담성 속에서 대립이 나타나고, 이러한 대립은 동시에 여성의 본래 존재는 타자를 위한 존재임을 보여 준다. 절대적 혼신과 정반대되는 대립은 절대적 냉담성이고 이것은 추상성(抽象性)과는 반대되는 의미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추상성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부서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추상성이 생명을 얻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여자다움은 처녀에게 고유한 ‘냉담성’의 희화적 극단(戲畫的極端)인, 추상적 잔인성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남자는 여자처럼 잔인해질 수는 없다. 신화, 옛날이야기, 전설 등을 참조하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자연의 근원적 힘의 한없는 무자비성을 나타내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처녀의 본질이다. 또는 우리는 구혼자를 태연하게 죽이는 아가씨의 이야기<sup>126</sup>를 들으면 깜짝 놀라지만 이러한 이야기는 모든 민족의 설화(說話)에서 흔히 읽을 수 있다. 푸른 수염의 사내<sup>127</sup>는 사랑하는 아가씨들을 모두 결혼식 날 밤에 죽이지만 그는 아가씨를 죽이는 자체에 기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은 이미 사라져 버렸고, 여기에 구체성이 있으며 이것은 잔인성을 위한 잔인성은 아니다. 돈 후안 같은 사내는 아가씨들을 유혹하고는 달아나는데, 그는 아가씨들로부터 달아나는 데에서 기쁨을 느

126 공주 투란도트는 구혼하는 남자에게 수수께끼를 제시해서 풀지 못하면 죽였다는 페르시아의 이야기이다.

127 여섯 번이나 아내를 맞이해서 죽인 다음 그 시체를 비밀 방에 숨겨 두고 있었으나, 일곱 번째 아내 파티마에게 발각되어 그녀의 오빠들에게 살해되었다고 하는 라올(15세기경부터 내려오는 프랑스 전설의 주인공)의 별명.

끼는 것은 결코 아니며, 단지 아가씨들을 유혹하는 데에서 기쁨을 느낀다. 따라서 그것은 추상적 잔인성은 결코 아니다.

이와 같이 이 문제를 숙고하면 그럴수록 나의 실천은 나의 이론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실천에 여성은 타자를 위한 존재라는 확신이 언제나 일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순간이 무한히 많은 의미를 갖는다. 타자를 위한 존재는 언제나 순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순간이 오기까지는 길든 짧든 시간이 걸리지만 이 순간이 오자마자 원래는 타자를 위한 존재이던 것이 상대적 존재의 형태를 갖게 되고, 이것으로 이 존재는 끝난다. 기혼 남자들이 여자는 다른 의미에서도 타자를 위한 존재이고 남편에 대해서는 생애 전체를 위해 모든 것이 된다고 말한다는 사실을 나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기혼 남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관대하게 보아 주어야 한다. 그러나 사실을 말하면 나는 그들이 서로 제멋대로 착각을 하고 있다고 믿는다. 일반적으로 이 세상의 생활에서는 각각의 계급은 어떤 인습적인 관례, 특히 어떤 인습적인 거짓말을 갖고 있다. 선원의 허황한 이야기 같은 기혼 남자들의 말도 여기에 속하는 것임이 틀림없다. 순간의 일에 정통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이 순간을 오해한 사람은 전 생애에 걸쳐 계속되는 지루함을 떠맡을 수밖에 없다. 순간은 전부이고 이 순간에 있어서 여자는 전부이며 나는 그 여러 가지 귀결을 알지 못한다. 그중에는 아이가 생긴다는 귀결도 있다. 그런데 나는 나 자신을 상당히 철저한 사상가라고 생각하지만, 가령 이러한 귀결에 정신이 모두 쓸린다 하더라도 이러한 귀결을 생각할 사내는 아니다. 나는 이러한 귀결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런 일에는 기혼 남자가 적합하다.

어제 코델리아와 나는 어떤 가족을 그들의 여름 별장으로 방문했다. 모인 사람들은 대체로 정원에 나와서 여러 가지 스포츠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중에는 고리 던지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코델리아와 고리 던지기를 하던 신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를 이용해서 내가 그녀의 상대를 했다. 육체의 긴장으로 아름다워져서 다른 때보다도 더욱 매력적인 그녀는 이때 얼마나 풍요한 우아함을 발휘했던가? 그녀는 얼마나 경쾌했던가—마치 목장에서 춤추는 것처럼! 저항할 필요도 별로 없는데 그녀는 얼마나 힘이 셨던가, 균형 잡힌 자세가 모든 것을 설명할 만큼

얼마나 날렵한 움직임이었던가! 그녀의 태도는 얼마나 열광적이었던가! 그녀의 시선은 얼마나 도전적이었던가! 경기 자체도 나에게는 각별히 관심 있는 것이었다. 코넬리아는 경기 자체에는 별로 주목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내가 그 자리에 있던 어떤 사람에게 고리를 교환하는 아름다운 관습<sup>128</sup>에 대해 널지시 말하자 이 말은 번개처럼 그녀의 영혼에 충격을 주었다. 이 순간부터 상황 전체에 보다 밝은 빛이 감돌고, 보다 깊은 의미가 스며들고, 보다 큰 에너지가 코넬리아를 불타오르게 했다. 내 막대기에는 두 개의 고리가 걸려 있었는데 나는 잠시 운동을 멈추고 둘레에 있는 사람들과 몇 마디 말을 나누었다. 그녀는 이러한 중단의 의미를 이해했다. 나는 다시 고리를 그녀 쪽으로 던졌다. 그녀는 곧 그녀의 막대기로 두 개의 고리를 받았다. 그녀는 부지중에 그런 것처럼 두 개의 고리를 동시에 공중으로 곧바로 던졌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었다. 무한한 대담함이 담긴 시선으로 그녀는 던져진 고리를 바라보았다. 러시아 원정(遠征)에 참가하여 동상(凍傷)으로 한쪽 다리를 잘라낸 프랑스 병사의 이야기가 있다. 고통스러운 수술이 끝나는 순간, 그는 잘라낸 다리의 발목을 잡아 공중으로 던지면서 황제(皇帝)<sup>129</sup> 만세!라고 외쳤다. 어느 때보다도 아름다운 동작으로 두 개의 고리를 공중으로 던지고 이 병사와 비슷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그녀는 마음속으로 사랑이여 만세, 라고 외친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녀를 이러한 기분에 젖게 하거나 이러한 기분으로 혼자 있게 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다음에 찾아오기 쉬운 허탈 상태를 두려워했던 것이다. 따라서 나는 태연한 태도를 가장하고 주위에 사람들이 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것처럼 그녀에게 경기의 속행을 강요했다. 이러한 태도는 그녀의 탄력성을 더욱 증가시켜 주는 것이다.

요즈음에도 다음과 같은 연구에 어느 정도의 동감을 기대할 수 있다면 나는 현상 문제를 제출할 것이다. 곧 미학적으로 보아서 젊은 아가씨와 젊은 부인, 곧 남자를 모르는 여자와 남자를 아는 여자의 어느 쪽이 더 수치심이 많은가, 또한 어느 쪽에 더 많은 자유가 있는가? 그러나 점잖은 우리 시대는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지

128 고리의 교환을 약혼반지의 교환에 빗대어서 말한 것이다.

129 나폴레옹을 말한다.

않는다. 그리스였다면 이러한 연구는 일반적인 주목을 받고 국가 전체가, 특히 젊은 아가씨와 젊은 아내가 흥분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현대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이고, 그리스의 두 아가씨 사이에서 일어난 유명한 논쟁<sup>130</sup>이나, 이 논쟁을 계기로 한 철저한 연구—그리스에서는 이러한 문제는 손쉽고 안이하게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에 대해 이야기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프로디테<sup>131</sup>가 이 논쟁으로 말미암아 별명<sup>132</sup>을 갖게 되었다는 것, 이러한 별명을 영원한 것으로 만든 아프로디테 상(像)에 모든 사람이 감탄하게 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기혼부인은 생애를 통해 자신의 관심을 끄는 두 시기를 갖는다. 한 번은 최초의 청춘기이고, 또 한 번은 월씬 뒤에 그녀가 노부인이 되었을 때이다. 그러나 그녀가 동시에 젊은 아가씨보다 더욱 사랑스럽고 더욱 외경심을 일으키는 한순간을 갖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순간은 인생에 있어서 드물게 겪게 되는 순간이고, 공상을 위한 상(像)이며 인생에 있어서 보아야 할 필요도 없을 뿐 아니라 어쩌면 결코 보지 못하는 것이기도 하다. 나는 기혼 부인을 건강하고, 활짝 피고, 풍만하게 발육한 모습으로 상상하며 그녀는 어린애를 안고 모든 주의를 어린애에게 기울이고 무아지경에서 어린애를 바라보고 있다. 이것은 인간 생활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하나의 자연신화(自然神話)이고 따라서 예술적으로만 볼 수 있을 뿐 현실 속에서는 보지 못한다.<sup>133</sup> 이 상에는 그녀 이외의 다른 인물이 있어도 안 되고 배경이 있어도 안 된다. 그러한 것은 오직 방해가 될 뿐이다. 예컨대 교회에 나가면 어머니가 어린애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볼 기회가 많다. 그러나 불안을 자아내는 어린애의 울음소리는 도외시하더라도, 또한 이 울음 130 시칠리아의 농부의 두 딸이 누구의 허리가 더 예쁘냐 하는 문제로 논쟁을 시작했다. 한 청년을 심판관으로 불러왔는데 이 청년은 언니가 더 예쁘다 하고 언니와 사랑에 빠졌다. 그러자 이 청년의 동생은 이 이야기를 듣고 동생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행복한 결혼을 하였으므로 자매는 감사의 뜻으로 아프로디테를 위해 신전을 세우고 특별한 아프로디테의 상(像)을 마련했다고 한다. 이 상은 자매가 허리 문제로 행복한 결혼을 한 것을 기념하여 아프로디테가 아름다운 자기 허리를 뒤돌아보는 자세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프로디테는 ‘아름다운 허리’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다.

131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랑과 미의 여신 비너스.

132 ‘아름다운 허리’라는 별명을 말한다.

133 다음에 나오는 교회에서의 모자(母子)에 대한 묘사와 함께 고려하면 성모자(聖母子)상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소리로 말미암아 어버이가 이 어린애에게 거는 기대가 걱정스럽게 되었다는 것은 도외시하더라도, 배경은 그 자체로 이미 몹시 방해가 되므로, 다른 모든 것이 아무리 완전하더라도 효과는 없을 것이다.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지만 이것은 대단한 결함이다. 아버지의 모습은 신비로운 것, 매혹적인 것을 없애 버리기 때문이다. 또 한—말하기도 무서운 일이지만—한 떼의 엄숙한 대부(代父)들이 보이고 여기서 볼 만한 것은—하나도 없다. 그러나 이 상을 공상에 떠오르게 하고 상상한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것이다. 나에게는 공격을 감행하기에 충분한 대담함이나 단호함이나 저돌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그렇지만, 현실 속에서 이러한 상을 보게 된다면 나는 완전히 무장 해제를 당할 것이다.

코델리아는 얼마나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가! 그러나 이러한 때는 곧 지나갈 것이다. 나의 영혼은 언제나 다시 젊어지기를 갈망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나는 벌써부터 멀리서 닦아 우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다. 아마 그녀도 듣긴 하겠지만 이 울음소리를 아침이 온다는 예고로 믿을 것이다.—도대체 왜 젊은 아가씨는 이렇게 아름다운가, 왜 이 아름다움은 이렇게 빨리 사라지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나는 아주 우울해지지만 사실 이것은 나와 아무 관계도 없다. 향락하라,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말고! 이러한 고찰을 전문으로 삼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전혀 향락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저절로 떠오를 때에는 별로 해롭지 않다.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을 생각하는 이러한 애수(哀愁)는 일반적으로 남성의 아름다움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기 때문이다. 안개의 베일처럼 남자의 강함을 가리고 숨겨 주는 애수는 남자의 에로스적인 것의 일부인 것이다. 여성의 경우 이러한 애수와 대응되는 것은 우수(憂愁)이다.—아가씨가 일단 온몸을 바친 다음에는 모든 것은 끝나 버린다. 아직도 나는 가슴을 뛰게 하는 불안을 느끼며 젊은 아가씨에게 접근하지만 그것은 아가씨의 본질 속에 있는 영원한 힘을 느끼기 때문이다. 기흔부인에 대해서는 이런 기분을 느껴 본 적이 없다. 기교를 부려서 약간 저항하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마치 기혼 부인의 모자가 모자를 안 쓴 젊은 아가씨의 머리보다 더욱 강렬한 인상을 준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나의 이상은 언제나 아르테미스<sup>134</sup>였다. 그 순수한 처녀성, 그 절대적 냉담성은 언제나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그러나 나는 항상 아르테미스에게 주목하면서도 동시에 항상 시기하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다시 말하면 아르테미스는 그 처녀성으로 말미암아 그녀가 받게 되는 온갖 찬양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이다. 곧 그녀는 삶에 있어서의 자신의 역할은 그녀의 처녀성에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따라서 처녀성을 간직하는 것이다. 게다가 나는 고전문헌학(古典文獻學)의 한구석에서 그녀는 어머니 레토가 겪은 무서운 진통<sup>135</sup>을 알고 있다고 중얼거리는 말을 들었다. 이러한 일이 그녀를 떨게 만들었으나 나는 이 때문에 아르테미스를 비난하지는 않겠다. 나는 에우리피데스처럼 “한 번이라도 애를 낳기보다는 세 번 싸움터에 나가겠다”<sup>136</sup>고 말하고 싶다. 내가 아르테미스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나는 그녀와의 대화를 위해서는, 내가 성실한 대화라고 부르고 싶은 것을 위해서는 많은 것을 희생해도 좋다고 생각한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겠다. 그녀야말로 온갖 야유를 하기에 적합한 상대자일 것이다. 우리의 선량한 아르테미스는 분명히 어떤 지식을 갖고 있고 이 지식 때문에 그녀는 아프로디테보다 훨씬 소박하지 못하다. 나는 그녀가 목욕하는 걸 엿볼<sup>137</sup> 생각은 없지만, 전혀 없지만, 물음을 통해 그녀를 엿보고 싶은 생각은 갖고 있다. 만일 내가 밀회를 하게 되고 그때 나의 승리가 위태롭게 생각된다면 나는 준비를 하고 완전 무장을 갖추고, 그녀와 이야기 할 때는 내 마음속에 있는 에로스성(性)의 모든 정령(精靈)을 동원할 것이다.

134 그리스 신화의 수렵의 여신, 로마 신화에서는 ‘디아나’이다. 언제나 산과 들로 돌아다니며 사냥을 하지 만 남성에게는 매우 냉담하여 순수한 처녀성을 지킨다.

135 아르테미스의 어머니 레토가 몸이 무거워졌을 때 헤라가 화를 내고 전 세계에 애를 낳을 장소를 제공하지 말라고 금지했으므로 레토는 구 일 동안 밤낮으로 진통하며 방황하다가 쌍동이를 낳았는데 아르테미스는 동생 아폴론이 태어날 때 어머니를 도왔다고 한다.

136 에우리피데스(Euripides)의 비극 〈메디아〉에 나오는 말. 남편이 두 아이의 아버지이면서도 공주와 결혼하는 것을 보고 여자로 태어난 것을 한탄하며 메디아가 하는 말이다.

137 아르테미스의 아름다운 자태에 끌려 목욕하는 그녀의 모습을 엿보려던 젊은 사냥꾼 아크타이온(Aktaion)은 사슴으로 변해 자기가 기르던 사냥개에 물려 죽었다.

어떤 상황, 어떤 순간을 가장 유혹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가끔 나의 고찰 대상이 되었다.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물론 사람들이 무엇을 욕구하는가, 어떻게 욕구하는가, 어느 정도로 발달되었는가 하는 것에 달려 있다. 나는 결혼식 날이 가장 유혹적이라고 생각하며 그것도 특히 특정한 순간이 그렇다. 그녀가 신부 옷으로 단장하고 게다가 그 화려함도 그녀의 아름다움 앞에서는 무색해지고 또한 그녀 자신도 창백해질 때, 피의 흐름이 멎은 듯할 때, 가슴이 숨을 죽일 때, 시선이 떨릴 때, 다리가 휘청거릴 때, 처녀가 전율할 때, 과일이 익을 때, 하늘이 그녀를 들어 올릴 때, 엄숙함이 그녀를 강하게 할 때, 약속이 그녀를 지탱해 줄 때, 기도가 그녀를 축복해 줄 때, 미르테<sup>138</sup>의 관이 그녀의 머리 위에 얹힐 때, 심장이 뛸 때, 눈이 땅에 못 박힐 때, 그녀가 자기 자신 속으로 숨을 때, 완전히 이 세상에 소속하기 위해 이 세상에 소속하지 않게 될 때, 가슴이 뛸 때, 온몸이 한숨을 쉴 때,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 햇불을 밝힐 때, 신랑이 기다리고 있을 때—이럴 때에 그 순간이 온다. 조금만 늦어도 너무나 늦은 것이 된다. 한 걸음만 멈칫거려도 이 한 걸음이 실패의 원인이 된다. 이 순간은 보잘것없는 아가씨조차도 의미 있게 해 주고, 작은 째르리네<sup>139</sup>조차도 돋보이게 한다. 이 순간에는 모든 것이 집중되고, 극단적으로 대립된 것도 통일되어야 한다. 단 하나라도, 특히 중요한 대립의 하나라도 빠지면 이 순간은 곧 유혹적인 것의 일부를 잃게 된다. 유명한 동판화(銅版畫)가 있다. 이 그림은 참회자(懺悔者)를 그린 것이다. 그녀는 너무나 어리고 너무나 순진하게 보여 도대체 고해할 만한 것이 있을까 하고 그녀와 신부를 위해 걱정 스러울 정도이다. 그녀는 베일을 약간 쳐들고 마치 무엇인가를, 후에는 어쩌면 고해할 만한 것이 될지도 모르는 그 무엇을 찾는 듯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책임감—신부에 대한—에서 생기는 배려에 지나지 않는다. 이 상황은 매우 유혹적이다. 그리고 그녀는 이 그림에 나온 유일한 인물이므로, 참회가 행해지고 있는 교회는 아주 넓어서 잡다한 설교자들이 동시에 설교할 수도 있다는 상상을 가로막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 상황은 매우 유혹적이어서 나 자신이 그 배경에

138 미르테는 순결의 상징으로서 신부의 화관(花冠)으로 사용한다.

139 모차르트의 <돈 조반니>에 나오는 시골 아가씨.

놓인다 하더라도, 특히 이 작은 소녀가 반대하지 않는 한, 나로서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이것은 역시 매우 하급(下級)의 상황에 지나지 않는다. 이 아가씨는 심신 양면으로 아직 어린애인 것 같고, 따라서 그 순간이 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코델리아와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약속을 언제나 충실히 지켜 왔는가? 곧 미학적인 것과 나의 약속을? 이념이 언제나 나의 편이라는 사실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이것은 삼손의 머리카락 같은 비밀이고 데릴라도 이것을 나에게서 빼앗아 가지는 못한다. 단지 한 아가씨를 속이는 일에 지나지 않았다면 나는 분명히 이렇게 인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념이 함께 움직이고 있고 나의 행동은 이념에 이바지하고 나는 이러한 봉사에 헌신하고 있었으므로 나는 나 자신에게 엄격했고 모든 금지된 향락을 삼갔던 것이다. 관심을 끄는 것은 언제나 유지되었는가? 그렇다. 이 은밀한 대화에서 나는 자유롭고 솔직하게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 약혼 자체는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관심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관심을 끈다. 약혼은 외부적 현상과 내면적 생명이 모순을 일으킴으로써 관심을 끄는 것으로 유지되었다. 만일 내가 코델리아와 은밀하게 결합되어 있었다면 그것은 일 자승(自乘)의 관심밖에 끌지 못했을 것이다. 반대로 약혼은 이 자승의 관심을 끄는 것이고, 따라서 코델리아도 비로소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약혼이 파기된다. 그것도 코델리아 자신이 보다 높은 영역으로 약진하기 위해 스스로 파기한다. 마땅히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그녀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사로잡는 관심의 형식이기 때문이다.

9월 16일

유대는 끊어졌다. 그녀는 동경에 가득 차서 힘차고 대담하게, 거룩하게 날아간다. 마치 방금 날개를 활짝 펼칠 자유를 얻게 된 새처럼. 날아라, 새여, 날아라! 이 왕

자와 같은 비상이 정녕 나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면 나는 고통을 느낄 것이다. 한없이 깊은 고통을 피그말리온<sup>140</sup>의 애인처럼 다시 돌이 된다면 그때의 기분은 나의 기분과 같으리라. 나는 그녀를 가볍게 만들어 주었다. 사상처럼 가볍게. 그런데 지금은 이 나의 사상은 나의 것이 아니란 말인가! 그렇다면 절망적일 수밖에! 한순간만 빨랐다면 그것은 나를 괴롭히지 않았을 것이고, 한순간만 늦었다면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지금은—이 ‘지금’은 나에게는 영원이다. 그러나 그녀는 나에게서 날아가 버리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날아라, 새여, 날아라, 자랑스럽게 그대의 날개로 날아올라라, 부드러운 바람의 왕국을 미끄러져 가라, 곧 나는 그대 옆으로 가서 곧 그대와 함께 깊은 고독 속에 숨으리라! 고모는 파흔을 알리자 약간 놀랐다. 그러나 고모는 매우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어서 코델리아에게 무리한 강요는 하지 않았다. 첫째는 고모를 좀 더 잠재우기 위해서, 둘째는 코델리아를 약간 조롱하기 위해서 나는 고모에게 나를 도와 달라는 약간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모는 나를 크게 동정하지만 내가 얼마나 많은 근거를 갖고 나에 대한 온갖 동정을 거절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짐작하지도 못한다.

코델리아는 고모에게서 잠시 시골로 내려가 어떤 가정에서 묵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잠시는 그녀가 넘칠 듯한 기분에 잠기지 못하게 된 것은 아주 잘 된 일이다. 따라서 그녀는 얼마 동안은 외부로부터의 여러 가지 저항으로 말미암아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다. 나는 편지로 그녀와 가냘픈 인연이나마 유지할 것이므로 우리의 관계는 다시 싹틀 것이다. 지금 그녀는 어떻게 해서든지 강해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인간과 보편적인 것에 대한 극단적인 경멸 속에서 얼마쯤 혜매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윽고 그녀가 떠날 때가 되면 믿을 만한 청년이 마부로 등장한다. 이 도시의 문을 나서면 나의 믿을 만한 하인이 일행에 가담한다. 하인은 목적지까지 따라가서 거기에 머물며 그녀의 시중을 들고 필요할 때는 도와준다. 나 이 140 오비디우스의 『변신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로 키프로스 섬의 왕 피그말리온은 자기가 만든 여인상 (像)에 반해 아프로디테가 동정해서 이 석상을 인간으로 변하게 했다고 한다. ‘다시 돌이 된다’는 것은 키에르케고어의 가정으로, 『변신이야기』에 이런 이야기는 없다.

외에 요한만큼 이런 일에 적합한 사람은 없다. 저쪽 집은 모든 일을 가능한 한 취향에 맞도록 내가 준비해 놓았다. 그녀의 영혼을 유혹하고 사치한 안락(安樂) 속에서 그녀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필요한 것은 하나도 빼놓지 않았다.

### 나의 코델리아!

아직은 각 가정에서 “불이야!”하고 외치는 소리가 하나로 뭉쳐 카피톨 언덕의 거위 울음소리 같은 혼란으로 변하지는 않았습니다.<sup>141</sup> 아마 당신은 지금까지 여기저기서 독창을 참고 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차나 커피를 마시는 남녀의 모임을 상상해 보십시오. 마티아스 클라우디우스가 그려 놓은 불멸의 의장(議長) 라르스<sup>142</sup>의 호적수가 될 만한 숙녀가 사회를 하고 있는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당신이 무엇을 누구한테서 잊었는가 하는 데 대해 상상도(想像圖)와 관념과 척도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선량한 사람들의 평판입니다.

동봉하는 것은 라르스 의장을 그린 유명한 동판화(銅版畫)입니다. 나는 이 판화만을 따로 구할 수가 없어 클라우디우스 전집을 사서 이 그림만 찢어 내고 나머지는 모두 버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당신에게 아무 의미도 없는 선물을 보내 당신을 괴롭히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한순간이나마 당신을 즐겁게 해 줄 수 있는 것을 얻게 된다면 무엇인들 희생하지 못하겠습니까? 또한 어떤 상황에 적합한 것 이외의 것이 섞이는 것을 어떻게 허용하겠습니까? 이렇게 명청한 짓을 하는 것은 자연뿐이고 또한 생활의 궁색한 관계에 예속된 인간뿐이지만, 나의 코델리아 당신은 당신의 자유를 누리며 이러한 명청한 짓을 증오할 것입니다.

141 로마를 포위한 갈리아인이 달 밝은 밤에 카피톨 언덕을 기습했을 때 보초나 개는 알지 못했으나 거위가 알고 울어 대서 적을 격퇴했다는 이야기가 리비우스(Titus Livius)의 『로마사』에 나온다. 여기서는 떠들썩한 소문을 카피톨 언덕의 거위 울음소리에 비유한 것으로 결국 아직은 떠들썩한 소문으로 변하지는 않았다는 뜻이다. 다음에 나오는 독창은 개별적으로 수군거리는 소문을 말한다.

142 마티아스 클라우디우스(Matthias Claudius)는 독일 낭만파의 대표적 시인. 의장 라르스는 그의 종교 논쟁을 비웃는 글에 나오는 사회자.

## 당신의 요하네스

봄은 사랑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고, 늦여름은 소망하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다. 늦여름에는 소망을 성취했을 때 온몸에 흐르는 감동과 맛먹는 비애가 있다. 오늘 나는 별장으로 갔다. 며칠 지나면 코델리아는 이 별장에서 그녀의 영혼과 어울리는 환경을 발견할 것이다. 나는 그녀의 놀라움과 기쁨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이러한 에로스적 안목은 오직 그녀를 약하게 만들 것이다. 한편 그녀가 이러한 환경에 혼자 있게 되면 그녀는 꿈속에 잠겨 어디서나 암시와 윙크와 마법의 세계를 볼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녀의 옆에서 있으면 이러한 모든 것은 그 의미를 잃는다. 그리고 그녀는 이러한 것을 함께 즐길 만한 의미가 있던 때는 지나갔다는 사실을 잊게 될 것이다. 이러한 환경이 그녀를 마취시켜서는 안 되며, 오히려 앞으로 닥쳐올 일에 비교하면 이러한 환경은 아무 의미도 없는 한갓 놀이에 지나지 않음을 알게 되어 언제나 그녀를 분발시켜야 하는 것이다. 나 자신은 앞으로 남은 며칠 동안 가끔 이곳을 찾아내 기분을 유지할 생각이다.

## 나의 코델리아!

지금이야말로 나는 당신을 정녕 ‘나의’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나의 것임을 상기시키는 외부적 표시는 하나도 없습니다.—그러므로 나는 곧 당신을 정녕 ‘나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내 팔에 꼭 껴안고, 당신이 당신의 포옹으로 나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서로의 것임을 상기시키는 반지 따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포옹이야말로 단순한 표시 이상의 반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반지가 우리를 꼭 껴안으면 그럴수록, 우리를 베어낼 수 없을 만큼 결합시키면 그럴수록 자유는 커집니다. 당신의 자유는 나의 것이라는 점에, 나의 자유는 당신의 것이라는

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요하네스

나의 코델리아!

알페이오스<sup>143</sup>는 사냥을 나갔다가 요정(妖精) 아레투사에게 반했습니다. 아레투사는 알페이오스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언제나 멀리 달아나다가 마침내 오르튜기아 섬에서 샘으로 모습을 바꿨습니다. 알페이오스는 이것을 몹시 슬퍼하다가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엘리스 지방에서 시내로 모습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사랑을 잊지 못하고 해저(海底)에서 샘물과 합쳤습니다. 이러한 변신(變身)의 시대는 지나갔습니까? 대답해 봐요, 사랑의 시대는 지나갔습니까? 세상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당신의 순수하고 깊은 영혼을 샘 이외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사랑에 빠진 시냇물과 같다는 것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지금은 헤어졌으므로 당신과 합치기 위해서는 나는 해저로 흘러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저에서 우리는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해저와 같은 깊이 속에서만 우리는 처음으로 올바르게 결합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요하네스

나의 코델리아!

얼마 후에, 곧 당신은 나의 것이 됩니다. 이윽고 태양이 감시의 눈을 감고 역사가 끝나고 신화가 시작될 때, 나는 망토로 몸을 감쌀 뿐 아니라 범을 망토처럼 몸에 두르고 서둘러 당신을 찾아가 당신을 찾아내기 위해 귀 기울일 것입니다. 발자국 소리가 아니라 심장의 고동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당신의 요하네스

143 알페이오스(Alpheius)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강의 신. 아레투사(Arethusa)는 요정.

요즈음 며칠 동안, 나는 그녀를 찾아가고 싶으면서도 찾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가 혹시 미래를 생각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불안에 싸여 있다. 지금까지 그녀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못 하도록 나는 그녀를 미학적으로 충분히 도취시킬 줄 알았기 때문이다. 미래에 대한 수단처럼 비(非)에로스적인 것은 없다. 사실은 현재의 시간을 메워 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수다를 떠는 것이다. 내가 옆에 있으면 이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나는 그녀로 하여금 시간과 영원을 잊게 만들 테니까. 이 정도로 아가씨의 영혼과 관련을 맷을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아가씨를 기만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아가씨를 기만하려고 하자마자 두 개의 암초(暗礁), 곧 미래에 대한 물음과 신앙에 대한 교리문답(敎理問答)을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파우스트>에서 파우스트가 경솔하게도 기사(騎士)인 체했기 때문에 그레트헨이 파우스트를 시험해 본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러한 공격에 대해서는 아가씨는 언제나 무장을 갖추고 있다.

이제는 그녀를 맞이할 모든 준비가 갖추어졌다고 나는 믿는다. 그녀에게는 내 기억력에 감탄할 기회가 꼭 있어야 한다. 혹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기억력에 감탄할 시간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 그녀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으나 직접 나를 상기시킬 만한 것은 하나도 들여놓지 않았다. 그렇지만 나는 눈에 띠지 않게 어디에나 현전(現前)하는 것이다. 그러나 효과는 대부분 그녀가 처음으로 보았을 때 어떤 인상을 받는가에 달려 있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나의 하인은 매우 자세한 주의를 받았으며 또한 그는 그 나름대로 완벽한 명인(名人)이다. 그는 지시를 받으면 부지중에, 또는 우연히 하는 말처럼 자기 의견을 덧붙일 줄도 알고 모르는 체할 줄도 안다. 요컨대 그는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집의 위치는 그녀로서는 더 바랄 것이 없을 만하다. 방 한가운데 앉으면 양쪽으로 전경(前景)을 넘어서서 멀리까지 바라볼 수 있고, 양쪽으로 무한한 지평선이 보이고, 광막한 공기의 바다에 혼자 있게 된다. 한쪽의 창으로 다가가면 아득한 지평선에 숲이 화환처럼 가로놓여서 시야(視野)를 한정하고 닫아 버린다. 이렇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랑은 무엇을 사랑하는가?—둘러싸여 있는 것이다. 낙원(樂

園)조차도 동쪽 언덕에 있는 둘러싸인 장소가 아닌가?<sup>144</sup>—그러나 이 숲은, 이 고리는 너무 비좁게 둘러싸고 있다.—창으로 좀 더 가까이 가면 고요한 호수가 울창한 숲 사이에 얌전하게 숨어 있는 것이 보인다.—기슭에는 보트가 한 척 있다. 터질 듯한 마음에서 새어나오는 탄식, 불안한 생각에서 터져 나오는 입김—이것만으로도 보트는 줄을 풀고 형용할 수 없는 동경(憧憬)의 미풍에 가볍게 흔들리면서 호수 위에 미끄러져 나간다. 이윽고 숲의 깊은 어둠을 꿈꾸는 호면(湖面)에 흔들리면서 보트는 숲의 신비한 고독 속으로 사라진다. 방의 다른 쪽을 보면 눈앞에 바다가 펼쳐지고 아무것도 시야를 가로막지 않으며 생각은 멈출 줄 모르고 바다로 달려나간다.—사랑은 무엇을 사랑하는가? 무한이다.—사랑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한정(限定)이다.—집의 제일 안쪽의 큰방 뒤에는 작은 방, 오히려 좀 더 정확하게는 작은 창고가 있으며 이 방은 바알 씨 댁의 그 방을 여기에 옮겨 놓은 것 같다. 두 방은 착각을 일으킬 만큼 비슷한 것이다. 벼들가지로 짠 깔개가 마루를 덮었고 소파 앞에는 작은 차탁자(茶卓子)가 있고, 그 위에는 바알 씨 댁에 있는 것과 쌍둥이 같은 램프가 놓여 있다. 모든 것이 같지만 단지 이쪽이 더 호화롭다. 방을 이 정도로 변화시킨 것은 팬찮으리라. 큰방에는 피아노가 놓여 있다. 이 피아노는 아주 소박하지만 얀센 씨 댁에 있던 피아노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피아노는 열려 있다. 악보 놓는 곳에는 스웨덴의 짧은 가곡이 펼쳐져 있다. 현관으로 나가는 문은 조금 열려 있다. 그녀는 방 안쪽 문으로 들어온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요한에게 충분히 일러두었다. 들어오면서 그녀는 작은 방과 피아노를 동시에 보게 된다. 추억이 그녀의 영혼 속에서 눈을 뜈다. 같은 순간에 요한이 문을 연다.—환상은 완벽하다. 그녀는 작은 방으로 들어간다. 그녀는 만족하리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녀가 책상을 바라보면 거기에는 한 권의 책이 놓여 있다. 그 순간 요한이 치워 버리려는 듯 이 책을 집어 들고 무심히 말한다. “이 책은 주인님이 오늘 아침에 여기 오셨다가 놓고 간 게 분명하군요.” 이 말을 듣고 그녀는 우선 내가 오늘 아침에 이곳을 다녀간 것을 알고 그다음에는 이 책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 책은 아풀레이이우

144 성서 〈창세기〉 2장 8절 참조.

스의 유명한 저술 『아모르와 프시케』<sup>145</sup>의 독일어 역이다. 이 책은 문학 작품이 아니며 또한 문학 작품이어서는 안 된다. 젊은 아가씨에게 본래의 문학 작품을 제공하는 것은 언제나 아가씨를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학 작품을 제공하는 것은 아가씨가 이 순간에 시(詩)를, 현실 속에 숨겨져 있고 아직도 다른 사람의 사상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은 시를 흡수할 만한 시적(詩的)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과 같다. 세상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점을 생각하지 않지만 이것은 사실이다.—그녀는 이 책을 읽고 싶을 것이고 이것으로 목적은 달성된다.—이 책의 읽던 곳을 펴들면 그녀는 미르테의 작은 가지를 발견할 것이다. 동시에 그녀는 이 가지가 단순한 서표(書標)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 나의 코델리아!

무슨 일입니까, 무서운가요? 우리가 결합한다면 우리는 강합니다. 세상보다도 강하고 신보다도 강합니다. 당신도 잘 알다시피 옛날에 지상(地上)에는 한 종족(種族)<sup>146</sup>이 있었는데, 그들은 분명히 인간이었지만 각기 자족(自足)하고 있어서 아직도 사랑에 의한 결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강력했습니다, 하늘을 습격하려고 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제우스는 그들이 두려워서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도록, 남자와 여자가 되도록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하나였던 것이 사랑 속에서 다시 결합되는 일이 가끔 일어나는데, 이렇게 되면 이 결합은 제우스보다도 강합니다. 그들은 원래 하나였던 때만큼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강해집니다. 사랑의 결합은 보다 높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요하네스

145 2세기 중엽의 전기소설(傳記小說) 작가인 아풀레이우스(Apuleius)의 『황금 당나귀』에 나오는 설화. 아모르는 사랑, 프시케는 영혼이며 이 설화는 아모르와 프시케의 아름다운 사랑에 관한 것이다.

146 플라톤의 『향연』에서 아리스토파네스가 말한 신화를 약간 변경시켜 이용한 것이다. 원래는 남성과 여성 이외의 제3의 성, 곧 남자와 여자를 한 몸에 감춘 성을 가리키고 있다.

9월 24일

고요한 밤이다.—시간은 12시 15분 전. 성문(城門)을 지키는 현병(憲兵)이 교의를 향해 축하의 나팔을 분다. 그러면 블라이히담으로부터 메아리가 되돌아온다.—현 병은 문 안으로 들어온다.—그는 다시 한 번 나팔을 분다. 이 소리는 더 먼 곳에서 메아리로 되돌아온다.—모든 것이 편안히 잠들고 오직 사랑만이 잠들지 않았다. 그렇다면 일어나라, 그대들 사랑의 신비한 힘들이여, 이 가슴속으로 모이라! 밤은 말이 없다.—오직 한 마리 새가 울음소리와 날갯소리로 이 침묵을 깨뜨린다. 새는 이슬이 내린 들을 스쳐 비스듬한 둑을 따라 내려간다. 이 새는 분명히 밀회를 서두르는 모양이다. 나는 이것을 전조(前兆)로 생각한다!—자연 전체는 얼마나 전조로 가득 차 있는가! 새가 날고 우는 것도, 물고기가 떠올라 수면을 차고 물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도, 멀리서 개가 짖는 것도, 멀리서 들리는 마차 소리도, 먼 곳에서 울려오는 발걸음 소리도 나는 전조로 생각한다. 이 한밤중에 나는 유령을 보거나 이미 있었던 것을 보지 않고 앞으로 찾아올 것을 본다. 호심(湖心)에서도, 이슬의 키스에서도, 널리 지상을 감싸고 대지의 풍만한 포옹을 숨겨 주는 안개 속에서도. 모든 것이 상징이다. 나 자신이 나 자신의 신화(神話)인 것이다. 내가 이러한 만남을 위해 서두르고 있다는 것은 말하자면 신화가 아닐 것인가?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유한하고 시간적인 것은 모두 잊혀지고 오직 영원한 것만이 남아 있다. 사랑의 위력, 사랑의 동경, 사랑의 지복(室福)만이.—내 영혼은 힘껏 잡아당긴 활처럼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가, 사상은 화살처럼 내 화살통에 얼마나 가지런히 놓여 있는가. 이 화살은 독을 칠하지는 않았지만 피투성이가 되기에는 정녕 알맞은 것이다. 내 영혼은 얼마나 힘차고, 건강하고, 쾌활하고, 신처럼 현전적(現前的)인가.—자연의 은총으로 그녀는, 코델리아는 아름다웠다. 놀라운 자연이며, 나는 그대에게 감사한다. 그대는 어머니처럼 그녀를 돌봐 주었다. 그대의 배려에 감사한다. 그녀가 왜곡되지도 않았다. 그대들, 인간들이여, 나는 그대들에게 감사한다. 그녀가 왜곡되지 않는 것은 그대들의 덕택이기 때문이다. 그녀의 발전은 나의 업적이었다.—나는 곧 보수를 받을 것이다.—나는 이 순간에 얼마나 많은 것을 집중시켜 왔는가, 바로 눈앞에 다가온 이 순간에. 이 순간을 놓치다니, 천만에!

아직 내 마차는 보이지 않는다.—채찍 소리가 들린다. 저건 내 마차의 마부임에 틀림없다.—목숨을 걸고 달려라. 비록 말이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일 초라도 늦지 않게 목적지에 닿아야 한다.

### 9월 25일

왜 이러한 밤은 오래 계속되지 못하는가? 수탉 알렉트리온<sup>147</sup>은 자신이 맡은 일을 잊을 수가 있었는데, 왜 태양은 맡은 일을 잊어버릴 만큼 동정하지 못하는가? 그러나 이제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나는 다시는 그녀를 만나고 싶지 않다. 아가씨는 모든 걸 바치면 약해지고 모든 것을 잃는다. 순결은 남자의 경우에는 소극적 요소이지만, 여자의 경우에는 여성 본질의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모든 저항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저항이 있을 때만 사랑하는 것은 아름답고, 저항이 그치면 사랑은 약점과 습관이 된다. 나는 그녀와의 관계를 상기하고 싶지 않다. 그녀는 향기를 잃었다. 또한 믿을 수 없는 연인 때문에 괴로워하던 아가씨가 헬리오토롭<sup>148</sup>으로 변신(變身)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나는 그녀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않겠다. 여자의 눈물이나 여자의 애원처럼 싫은 것은 없다. 여자의 눈물이나 여자의 애원은 모든 걸 바꿔 놓지만 사실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으나 지금부터 그녀는 나의 영혼을 사로잡지 못할 것이다. 만일 내가 신이라면 포세이돈이 요정(妖精)에게 해 준 일<sup>149</sup>을 그녀에게 해 주고 싶다. 곧 그녀를 남자로 바꿔 놓는 것이다.

서로의 관계에 싫증을 낸 것은 자기 자신이라고 자만할 만큼 오만한 아가씨를 만 147 알렉트리온은 아레스와 아프로디테가 밀회할 때 밖을 지켜 주고 새벽에 깨워 주기로 했으나 잠이 들어 연인들은 올림포스의 신들 앞에서 맹신을 당했다. 아레스는 노해서 알렉트리온을 수탉으로 변하게 해서 새벽을 알리게 했다.

148 클리티아(Clytia)는 사랑하는 아폴론에게 배반당했을 때 헬리오토롭이 되었다고 한다. 헬리오토롭은 ‘태양을 향한다’는 뜻을 가진 말로 향일성(向日性)을 가진 식물의 이름이다.

149 테사리아(Thessalia)의 아름다운 소녀 카이니스(Caenis)는 포세이돈과 사랑을 나누면서 불사신의 남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소원대로 남자가 되었다.

들어 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정녕 알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이것은 참으로 관심 있는 결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 자체로서 심리학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한편으로는 많은 에로스적 관찰을 풍요하게 만들 것이다.

### **지은이 소개 | 키에르케고어 (1342~1398)**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이다.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어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인 사르트르나 니체와는 달리 종교적인 문제를 작품에서 주로 다루고 있다. 헤겔의 관념론과 당시 덴마크 루터교회의 무의미한 형식주의에 반대하였으며 그의 작품 중 많은 수가 신앙의 본질, 기독교 교회의 제도, 기독교 윤리와 신학, 그리고 삶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에 개인이 직면하게 되는 감정과 감각 같은 종교적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한다. 주요 저서로는 『이것이나 저것이나』 『공포와 전율』 『불안의 개념』 『죽음에 이르는 병』 『인생 행로의 여러 단계』 『철학적인 단편』 『철학적인 단편을 위한 결말의 비문학적 후기』 등이 있다.

### **옮긴이 소개 | 황문수**

고려대학교 철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현재 경희대학교 문과대학 철학과 명예교수로 있다. 지은 책으로 『실존과 이성』 『고균 김옥균』 『동학운동의 이해』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는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칼 야스퍼스의 『이성과 실존』, 윌리엄 드레이의 『역사철학』, 월 듀랜트의 『철학이야기』, 프리츠 하이네만의 『실존철학』, F. 파펜하임의 『현대인의 소외』,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 『인간의 마음』, 스튜어트 휴즈의 『의식과 사회』 외 다수가 있다.

## **유혹자의 일기**

©사단법인 올재

---

발행 | 2014년 2월 15일

펴낸이 | 흥정우

기획 · 편집 | 이상민 황인정

표지제작 | 강병인

편집디자인 | 황인정

인쇄 · 제작 | (주)헤럴드

펴낸곳 | 사단법인 올재

출판등록 | 2011년 11월 4일 제300-2011-188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157-78

전화 | 02-720-8278

팩스 | 02-773-0250

홈페이지 | [www.olje.or.kr](http://www.olje.or.kr)

ISBN | 978-89-97876-28-0

\*표지 제호 저작권은 캘리그라퍼 강병인 님께 있습니다.